

2017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지원 사업

서산 천수만의 옛 모습

글/사진 김효경



서산문화원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김효경 金孝慶

한남대 역사교육과를 졸업하고, 충남대 국사학과에서 석사, 고려대 문화재협동과정에서 박사학위 취득하였다. 현재 한남대 강사, 거례문화유산연구소 연구실장, 한국역사민속학회 총무이사, 충청남도 및 세종시 문화재전문위원이며 주요논문으로는 「조선시대 기양의례 연구」 등과 저서로 「공주 탄천소라실장승제」외 다수가 있다.

표지앞 _ 간월도 앞 바다 전경1-정초

표지뒤 _ 간월도 굴채취하는 아낙네

2017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지원 사업

서산 천수만의 옛 모습

글/사진 김효경

| 인사말 |

서산 천수만의 옛 모습을 찾아서

** 서산문화원장 이 준 호

천수만(淺水灣)은 문자 그대로 해석해 보면 물이 얇은 바다로서 활처럼 굽이 굽이 육지로 깊숙이 들어온 지형이라 설명된다.

천수만 지역은 내포문화가 활발하게 발전되어 온 곳이며 행정구역으로 서산시와 태안군으로 이루어졌으며 전형적인 리아스식 해안으로 굴곡이 심한 편이며 그 속에는 여러 개의 섬들이 산재하여 있다. 대표적으로 간월도가 있으며 이곳은 무학대사가 달을 보며 득도했다는 전설이 있으며 또는 성리학을 전파한 정신보가 중국 남송에서 망명하여 살던 곳이기도 하다.

서산지역과 태안쪽에서 흘러나오는 여러 개의 하천으로 인하여 토사가 쌓이면서 조수간만의 차이로 인한 염생식물이 많이 자라서 나물채취가 수월했던 것이다. 또한 어패류의 산란장소로 최적의 조건이 형성되어 수많은 어종이 서식했던 곳이다.

간척지공사로 인하여 A·B지구로 나뉘어졌으며 농경지와 담수호로 조성되어 많은 어패류의 서식지인 검은여갈은 여러 곳의 여들이 훼손되어졌다. 많은 역사유적지였으며 내포문화의 발상지였던 곳, 어패류의 보고였던 천수만이었다.

자연이 인간에게 내어준 지상최고의 보고였던 생활터전이 농경지 조성이라

는 미명하에 일거에 모두를 잃은 것이다. 시대적으로 보면 타당했던 사업인 것은 확실하지만 현재 식량이 넘쳐나고 있으니 옛 모습이 마냥 아쉽게 느껴짐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되어 버렸다.

이제 그 현장에서 생활해 온 사람들 또는 과거와 미래를 생생하게 보고 느끼며 살아온 현지인들에 의해 그 역사를 기록해나가는 시점에 와있는 것이다.

본 연구가 후대에 좋은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라고 천수만의 가치가 재조명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여 본다.

본고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효경 교수님과 협조해주신 현지 주민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뜻을 드리는 바이다.

2018. 1.

| 머리말 |

천수만에 대한 향수, 그 기억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서산 내의 천수만은 지금 창리와 간월도 인근에만 조금 남아 있다. 대간척 사업으로 인해 천수만은 지형만이 아니라 그곳에 어울려 살았던 주민들의 생활과 문화도 변모했다. 옛 모습은 그곳에 살았던 주민들의 기억과 일부의 자료에만 잔존한다. 그 기억과 자료는 천수만이라는 자연환경과 어우러져 살아온 오랜 주민들의 삶이고 문화이다. 벌써 40여 년 전에 이루어진 변화로 인해 천수만에 대한 다양한 기억들이 소멸되어 가고 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천수만에 대한 기억과 자료들을 통해 서산의 천수만의 모습을 찾아 보았다.¹⁾

어느 것은 사진이나 그림의 흔적에 또 어떤 것들은 역사의 기록 속에 남아 있었지만, 보다 많은 자료는 주민들의 기억을 통해 얻을 수 있었다. 문헌자료 및 사진 자료 등을 수집하고, 현지조사 과정을 통해 주민들의 기억을 더듬어 갔다. 한 장의 사진 속에는 수십 년 전의 삶의 한 순간이 들어 있었고, 한 장의 그림에는 기억조차 희미한 옛 추억의 공간이 잘 묘사되어 있었다. 잊고 살았던 주민들의 기억에는 비록 힘겨웠지만 즐거웠던 젊은 시절의 본인과 친구, 그리고 밥 한

1) 본고의 대상으로 삼은 천수만은 행정구역 상 서산시 내로, 사장포와 적돌강 주변으로, 천수만 내안 만을 대상으로 하였음을 밝힌다.

순가락이라도 자식에게 더 먹이고 자신은 굶으며 깨적을 쓰고 목신을 신고 굴을 쫓던 어머니도 있었다. 흥청거리는 마을 앞 포구에 큰 중선이 새우젓을 싣고 오면 쌀이며 콩이며 곡물을 들고 가서 바꾸던 이들의 모습도 있고, 비린내가 진동하는 박대와 상어를 쏘아 놓고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는 완도에서 온 중선 선원들의 뒷모습도 있었다. 날랜 손으로 굴을 사발로 채던 아주머니의 손놀림도 생생하게 남아 있었으며, 여럿이 힘을 합해 후리질로 고기를 잡던 장년의 어부도 있었다. 비록 천수만은 사라졌지만 그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을 통해 천수만의 모습을 복원해 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미 40여 년 전의 오랜 기억이고, 일부의 전통은 그들의 어린 시절에 국한되었기에 복원에 한계가 있기도 했다.

천수만(淺水灣)의 역사는 그 외형적인 모습과 존재양태를 이해하는 것에 치중했다. 18세기에 제작된 고지도(古地圖)를 비롯해, 대간척 이전과 그 이후의 지도들을 보며 통해 구석구석을 이어 과거 천수만의 생생한 모습을 재구성했다. 천수만 지역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산의 지역사 자료인 『호산록(湖山錄)』(1619년)과 『서산군지』(1926년) 등을 비롯한 읍지류인 『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등과 일제총독부가 조사한 『조선지리지자료』(1911년), 『한국수산지』(1908년) 등을 활용했다. 이를 통해 천수만의 외형적 모습을 비롯해, 천수만의 기능을 포구(浦口), 나루(津)와 감길, 다리(橋), 어종(魚種), 어법(漁法) 등으로 구분해 살폈다.

주민들과의 면담을 통해서도 천수만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천수만 주변 마을 사람들의 생업의 특징, 천수만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어업활동에 주목했다. 아울러 대간척으로 알려진 AB 방조제 건립과 간척과 토지개량의 문제도 살폈다. 이는 천수만을 둘러싸고 일어난 삶의 모습이자 그들의 문화이기 때문이다.

천수만은 명칭 그대로 얕은 바다가 내륙 안쪽으로 깊숙이 내만 되어 있다. 또한 안면도가 병풍처럼 앞을 가려주어 바람을 막아주고, 내륙의 여러 강으로부터 천수만으로 내려오는 육수(陸水)로 인해 회유성(回遊性) 어류의 최적의 산란지(産卵地)였다. ‘육수가 많으면 고기도 많다’ 혹은 ‘고기반 물반’이라는 말처럼

숭어 새끼인 ‘몰치·모쟁이’, 조기 새끼인 ‘보걸치’, 콩치 새끼인 ‘황새바치’, 꽃게 새끼인 ‘사시랭이’, 장어 새끼인 ‘시라시’, 도미 새끼인 ‘피테기’ 등이 태어났다. 조선시대의 각종 읍지(邑誌)에는 인근에서 가장 많은 어종이 토산물로 기록되어 있고, 1926년 『서산군지』에 50종 이상의 어류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러한 사정에 기반한다.

더불어 서산 천수만 지역의 앞쪽에 병풍처럼 막고 있는 안면도로 인해 천수만의 외안과 달리 내안은 회유성 어류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천연의 양어장이었다. 풍부한 어족자원으로 인해 바깥 바다로 나가지 않고도 내륙 연안과 넓게 발달된 조간대에서 조업이 가능했다.

발달된 조간대에서는 여느 서해안과 마찬가지로 어살이 발달했다. 인근의 태안과 달리 이곳에는 독살이 발달되지는 않았다. 모래와 진흙펄이 발달되었기에 돌 이용이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이기는 하지만 간월도, 검은여와 같이 돌이 많은 지역에서는 돌살을 만들기도 했다. 어살은 홀로 운영하기도 했지만 마을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어살 제작용 대나무를 베어다 주고, 발을 엮어 주고, 어살을 세워주고는, 고기가 잡히면 어살 주인이 그것을 참석자들에게 일정양을 나누어주는 ‘바루살이’ 방식으로 운영되기도 했다. 갯고랑이 발달되었기에 그곳에서는 다양한 연안 어법이 시행되었다.

수심이 얇은 천수만 내안의 대표적인 연안 어업은 망그물과 후릿그물을 활용한 어선어법이다. 그러나 이들 망그물과 후릿그물은 어선을 활용하지 않고도 갯고랑에서 조업이 가능한 대표적인 전통어법으로 어선의 활용을 통해 보다 많은 어획이 가능해졌다. 사람이 그물을 끌던 데서 어선이 그물을 끌게 되면서 어업은 보다 본격화되었다. 망그물로는 주로 오징어를 잡았고, 후릿그물로는 숭어, 전어 등의 다양한 어종을 어획했다. 이들 어물의 어가가 낮았기에 어민은 반농반어의 생활방식을 유지했다. 수심은 얇지만 큰 조수간만의 차이로 인해 간조 시에는 각양각색의 개펄이 넓게 드러난다. 개펄 그 모습만큼이나 다종다

양한 어패류가 서식하는 천혜의 어업처였다. 개펄에서 어획한 어물은 해변가의 부족한 농경지의 경제적 가치를 보충해주는 중요한 수입원이기도 했다.

천수만이 주는 끝없는 자연의 선물은 주민들의 생활의 지혜와 어우러져 하나의 천수만의 문화가 되었다. 겨울철에 성에[바닷물이 얼어서 떠나는 썩에 붙어서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는 ‘별굴[뱃굴]’ 채취는 누군가에게는 훌륭한 선물이 되기도 했다. 때서운 바닷바람을 맞아서 굴을 까는 동안 추위를 견디기 위해 나무로 파서 만든 목신[木軛]을 신고 차가운 바닷물을 막았고, 짚으로 엮은 ‘깨적’에 의해 바람을 막음으로써 오래도록 굴을 깔 수 있었다.

이러한 삶은 AB지구 대간척을 통해 큰 변화가 예고되었고, 그것이 실현되어 한반도에서 가장 넓다는 간척지로 바뀌었다. 자연을 극복한 인간의 대역사는 설렘과 기대감속에서 이루어졌지만 그 내부에는 혼란과 갈등도 있었다. 시대적 아픔 속에 거친 삶을 살아야 했던 이도 있었고, 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좌절하는 이들도 있었다. 기쁨과 영광, 좌절과 고통 그 모든 것이 천수만을 둘러싸고 일어났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삶의 족적을 지닌 ‘천수만의 옛모습을 찾아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서산문화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짧은 조사 기간이었지만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전해주시는 제보자들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그러나 정리 하자니 오히려 궁금증과 아쉬움이 커진다. 더 생생하게 수집해야 했고, 더 풍성하게 전해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산재해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 아쉬움은 뒤로하고 천수만이라는 자연환경과 어우러져 살아온 오랜 기억의 실타래의 한 줄을 풀어내고자 한다.

2018. 1.

김 효 경

| 차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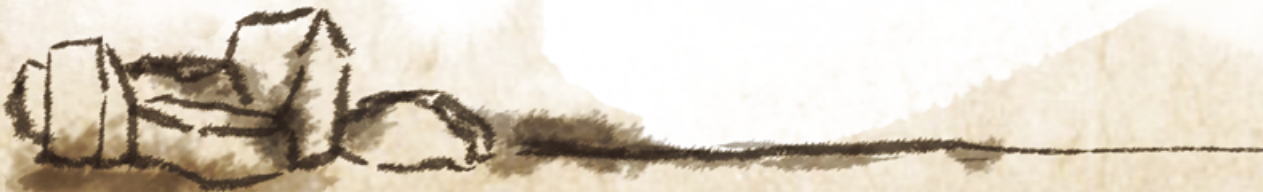
인사말 | 서산문화원장 이 준 호
머리말

제1장 지도로 보는 천수만 · 11

1. 고지도와 천수만 · 12
2. 근·현대 지도 속 천수만 · 28

제2장 천수만의 자연환경과 삶 · 43

1. 천수만의 자연환경 · 44
 - 1) 수심은 얕지만 조수간만의 차이가 심한 천수만 · 44
 - 2) 육수와 해수가 만나는 천수만에 서식하는 다종다양한 어종 · 51
 - 3) 반농반어(半農半漁)와 어로활동 · 59
 - 4) 해안가에서 부업(副業)으로 행한 화염(火鹽) · 72
 - 5) 해변에서 웅기 굽던 점말, 중선에는 새우젓독을 · 89



- 2. 두 지역 주민들의 삶을 잇는 나루와 포구(浦口) · 91
 - 1) 역사문헌 속 천수만의 포구(浦口) · 92
 - 2) 수심이 깊어 중선도 정박하고, 어물도 거래되던 포구(浦口) · 110
 - 3) 천수만을 가로질러 두 지역을 잇는 나루와 감길 · 119
 - 4) 두 지역을 잇는 도강(渡江) 다리 · 127

제3장 천수만의 간척과 개척 · 129

- 1. 간척 면허권 남발과 서산 간척 · 130
- 2. AB방조제 건립과 간척 · 134
- 3. 양대 · 모월 지구 개척단과 개간 그리고 토지개량 · 149
 - 1) 양대 · 모월지구 개척단은 누구인가? · 149
- 4. 천수만 갯벌과 철새 그리고 개발 · 167
 - 1) 갯벌과 철새 : 버드랜드 · 167
 - 2) A지구 현대서산농장농장과 B지구 바이오웰빙지구 · 174

제4장 천수만의 풍부한 어족자원이 만들어낸 어로문화 · 181

1. 천수만의 생업 현황 · 182
2. 마을별 어로 활동 · 197
 - 1) 어선(魚船)어업 · 197
 - 2) 함정어구 : 어살, 어렴[군발], 독살 · 235
 - 3) 맨손어업[徒手業] · 257
 - 4) 사두 · 반두 · 낚시 · 주낙 · 293
 - 5) 무태와 독풀로 고기잡기 · 305
 - 6) 해루질[해낚질 · 해리질[海루질]] · 307
 - 7) 물매기 · 물바루 · 등바루 · 309
 - 8) 어업조직 : 어촌계와 축택 · 311
 - 9) 당제 · 314

도움 말씀을 주신 분들 · 328

참고문헌 · 336

제 1 장

지도로 보는 천수만



| 제1장 |

지도로 보는 천수만(淺水灣)

1. 고지도(古地圖)와 천수만

천수만의 옛 모습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고지도에 묘사된 천수만의 모습을 찾아보았다. 천수만(淺水灣)은 한자 그대로 내륙으로 내만 된 얇은 물가라는 뜻이다. 천수만이라는 용어가 처음 확인되는 것은 ‘조선국천수만약도(朝鮮國淺水灣略圖)’와 ‘천수만문(淺水海灣)’으로, 명치 11년(1878년)에 전자는 일본 참모본부 소속 장교들이 제작한 비밀군사지도이고, 후자는 일본 해군성수로국에서 제작한 지도이다.

19세기에 제작된 이 두 지도는 근대식 지도로 묘사된 지도로 일본 참모본부가 한반도 침략이라는 일관된 목적에 따라 비밀 군사지도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제작한 것이지만 해안선의 모습이 현대식 측량에 의해 제작된 지도들과 거의 유사하다고 한다.²⁾

2) 양윤경, 『19세기 후반 한반도 비밀군사지도』, 성신여대 대학원, 2010, 17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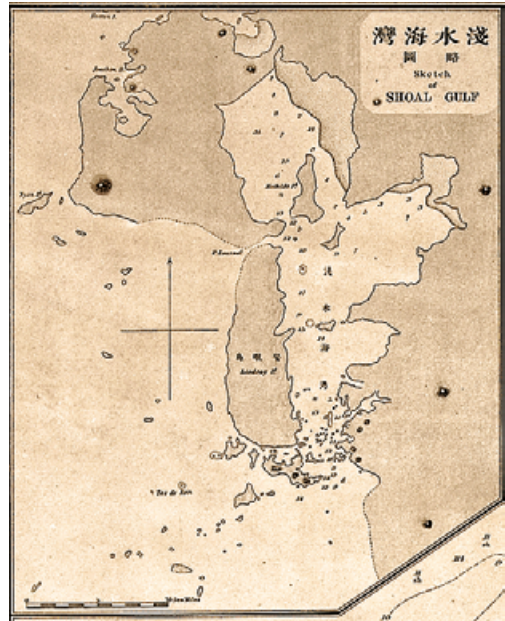
현재의 서산시 소속 천수만은 큰 이미지에서는 확인할 수 없고, 왼쪽 윗부분에 그려진 천수만 약도에만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의 모습과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수심이 표시되어 있다.

오늘날 간월호 지역보다는 부남호 지역이 수심이 깊으며, 안면도 남쪽의 홍성과 보령지역 보다 서산시 천수만의 수심이 얕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수심이 얇고 내만 된 지역이라는 천수만의 명칭과 잘 맞는다.

현재 천수만이라 하면 안면도의 내안인 태안군, 서산시, 홍성군에 걸쳐 해안선의 길이가 약 200km인 지역을 의미하나 본고에서는 이중 서산시에 속한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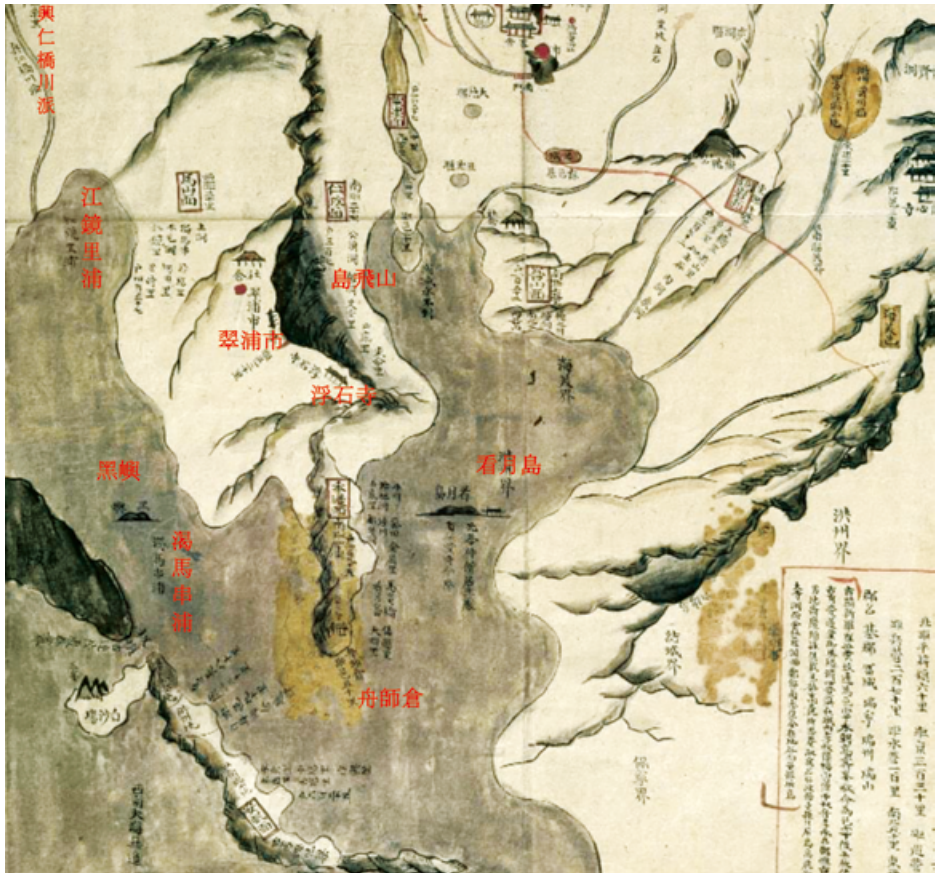


명치 11년(1878)
천수만문(서울대 규장각 소장)



명치 11년(1878)
천수해만(서울대 규장각 소장)

이 지역은 꽤나 넓은 간석지(干潟地)가 형성되어 있고, 수심이 얕아 큰 선박이 항행하기에는 불편하지만 사리 때는 간석지가 3~5km 정도까지로 넓게 펼쳐져 다양한 조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춘 천수만을 고지도를 통해 살펴보자.



「1872년 지방도」 서산군 지도에 표시한 천수만 일대의 주요 지명

가장 많은 지리·문화적 정보가 수록된 지도는 1872년의 지방도이다.³⁾ 천수만 영역만 살펴보면 위와 같다. 이 지도는 현재의 해안선과 그 위치는 다르지만 그 안에 묘사된 내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선 현재의 부남호와 간월호가 비교적 잘 묘사되어 있는데, 내만된 두 지역의 지리적 정보가 비교적 상세하다. 육지에서 바다로 이어지는 두 개의 물줄기는 당시 중요한 물길로 동부의 오피 - 해미천 - 대교천으로 이어지는 물길이며, 서부의 물줄기는 가사리와 태안을 가로질러 흐르는 인평천으로 볼 수 있다. 인평천의 윗부분에는 흥인교(興仁橋川派)라 쓰여 있다. 이곳은 고려시대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된 굴포운하가 시작되는 곳이다.

두 개의 내만된 지역에는 빼죽하게 돌출된 곳이 있는데, 화변면이라 명기된 곳은 현재의 부석면이기에, 끝부분을 창리이고, 중앙의 육지에서 빼죽이 나온 부분은 양대동으로 볼 수 있다. 화변면 끝에는 주사창(舟師倉)이라 쓰여 있고, 그 양옆으로는 흑서(黑巖)와 간월도(看月島)가 묘사되어 있다. 이외에 강경리포(江鏡里浦), 갈마리포(葛馬串浦)의 포구가 기록되어 있다. 이중 갈마곶포만이 위치가 일치하지 않는데, 갈마곶포는 강경리 아래쪽에 위치해 있었으나 흑서 옆에 기재되어 있다. 이는 갈마곶포와 흑서 모두 갈마곶리에 속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갈마곶포와 강경리포 이외에도 여러 포구가 확인되지만 이 시기에는 이 두 포구가 중요한 역할을 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석사 왼편에는 취포시(翠浦市)라 표기된 것은 서산장과 더불어 서산현의 대표적 장시였던 취포장으로 볼 수 있다.

3) 이 지도는 조선사회가 지니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로 인해 국가정책의 집행이 어려워져서 집권한 흥선대원군이 과감한 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두 차례의 양요(洋擾)를 겪으면서 서양의 침략에 적극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국방과 치안을 위한 관제 개정, 군제(軍制)의 개편, 군사시설의 확충과 경비의 강화, 무기(軍器)의 정비와 실험 등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지방의 실정 파악은 시급한 과제였고 이를 위해 1871년에는 전국적인 읍지(邑誌) 편찬사업을, 이듬해인 1872년에는 전국적인 차원의 지도제작 사업을 추진해 제작된 것이다. 이 내용은 서울대 규장각의 1872년 지도 총설의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 지도 속에 명칭만 확인되는 마을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이러한 사정은 『여지도서』의 방리(坊里)조에 수록된 호구수, 인구수(남녀)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여지도서』 방리조의 천수만 일원의 마을현황

면명		구 모		관아로부터 거리	편호	인구		
현재	여지도서	여지도서 마을명	현재 마을명			남	여	
부 석 면	화 변 면	산저리(山底里)	지산리	관아 남 25리	25호	27구	26구	
		대잠리(大岑里)		관아 남 30리	37호	57구	47구	
		우천리(牛川里)	강당리	관아 남 30리	131구	124구	180구	
		간월도(看月島)	간월도	관아 조진 40리	48호	85구	73구	
		대두리(大頭里)	대두리	관아 남 27리	71호	150구	120구	
부 석 면	화 변 면	칠전리(漆田里)	칠전리	관아 남 27리	89호	120구	114구	
		왜현리(倭懸里)	창 리	관아 남 40리	56호	80구	78구	
		마룡교리(馬龍橋里)	마룡리	관아 남 30리	47호	75구	65구	
		사점리(沙店里)	칠전리	관아 남 30리	20호	32구	33구	
		금굴리(金堀里)		관문 남 33리	28호	37구	35구	
	마 산 면	토동리(土洞里)	취평리	관문 남 17리	25호	65구	53구	
			갈마곶리(葛馬串里)	갈마리	관문 남 20리	106호	167구	151구
			모불동리(不毛洞里)		관문 서 20리	103호	133구	104구
			강경리(江境里)	강수리	관문 곧방 17리	40호	63구	51구
			가전리(柯田里)	가사리	관문 서 17리	35호	48구	31구
사장리(沙場里)			관문 서 20리		42호	54구	41구	
망치리(芒峙里)		관문 서 13리	46호	55구	47구			
서산 시	오산면	덕지천리(德之川里)	덕지천동	관문 남 15리	54호	85구	61구	

면명		규 모		관아로부터 거리	편호	인구	
현재	여지도서	여지도서 마을명	현재 마을명			남	여
서 산 시	오 산 면	장동리(獐洞里)	장동	관문 남 15리	22호	69구	67구
		내오산리(內吾山里)	오남동	관문 진방	49호	33구	44구
		남광지리(南光之里)		관문 남 10리	5호	16구	11구
	울 곶 면	여전리(余田里)		관문 10리	19호	15구	53구
		구만리(九萬里)	양대동	관문 남 10리	39호	60구	53구
		중촌리(中村里)		관문 남 10리	77호	174구	44구
인 지 면	인 정 면	공수동리(公須洞里)	남정리	관문 남 10리	85호	110구	108구
		도동리(都洞里)		관문 남 13리	38호	54구	49구
		동막리(東幕里)	산동리	관문 남 23리	33호	30구	30구
		모기대리(毛其大里)	모월리	관문 남 20리	36호	45구	35구
		산저리(山底里)	산동리	관문 남 18리	35호	58구	45구
		애당리(艾堂里)	애정리	관문 남 15리	36호	45구	35구
		양월리(梁越里)	모월리	관문 남 17리	33호	49구	19구
		원당리(元堂里)	야당리				
해 미 현 (남 면)	해 미 현 (남 면)	전천리(前川里)		관문 남 5리	45호	68구	92구
		웅소성리(雄梳城里)	웅소성리	관문 남 10리	7호	11구	13구
		귀밀리(貴密里)	귀밀리	관문 남 10리	47호	79구	111구
		구양릉리(舊良陵里)	양림리	관문 남 5리	33호	59구	68구
		신양릉리(新良陵里)		관문 남 6리	18호	35구	29구
		장성리(長城里)		관문 남 7리	16호	34구	35구
		도촌리(道村里)		관문 남 10리	25호	52구	48구
		언내리(堰內里)	언암리	관문 남 10리	14호	22구	25구
		선소리(船所里)		관문 남 10리	3호	4구	3구

면명		규 모		관아로부터 거리	편호	인구	
현재	여지도서	여지도서 마을명	현재 마을명			남	여
해 미 면	해 미 현 (남면)	석연리(石淵里)	석포리	관문 남 10리	11호	21구	15구
		당산리(堂山里)	언암리	관문 남 10리	13호	26구	38구
		사양동리(斜陽洞里)	기지리	관문 남 10리	15호	31구	42구
		기지리(機池里)		관문 남 8리	9호	18구	22구
		저성리(猪城里)	저성리	관문 남 5리	22호	25구	24구
고 북 면	해 주 북 고 북 면	상전리	신성리	관문 서 50리	10호	21구	26구
		하전리		관문 서 55리	47호	122구	145구
		대정곡리		관문 서 45리	11호	47구	59구
		생천리	봉생리	관문 서 40리	81호	190구	80구
		창리	봉생리	관문 서 40리	44호	60구	72구
		사기소리	사기리	관문 서 45리	64호	80구	96구
		기포리	기포리	관문 서 40리	11호	32구	42구

위의 [표 1]을 보면 내륙의 마을 보다는 해안에 위치한 마을의 인구가 월등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지도서』가 작성된 18세기에는 어업이 이전시기에 비해 어업이 발달하는 시기로, 내륙 보다는 해안이 그러한 어업에 적극적일 수 있었을 것이다. 농경지를 소유하지 못한 경우 어업을 통해 최소한의 수입이 보장될 수 있었으며, 더욱이 개펄에서 화염(火鹽)을 통해 부수입도 올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구수가 가장 많은 100호 이상의 대촌은 오늘날의 강당리와 갈마리 뿐이다. 이들 두 지역은 모두 농지가 발달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 다음의 중촌은 대두리, 칠전리, 남정리, 봉생리 정도이다. 이들 마을 역시 농지가 발달되어 있어 어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비중이 적지만 포구가 발달되었다는 특징

이 있다. 즉 농지가 많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비율이 높고, 봉생리를 제외하면 나머지 마을들은 모두 수심이 깊어 중선이 입항할 수 있는 포구가 발달되어 있다. 다만 특기할 만한 사항은 강당리와 귀밀리가 유독 남자 보다 여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는 점이다.

두 마을 중 강당리는 인근 마을에 비해 농지가 많고, 귀밀리는 수원(水源)이 좋아 가뭄의 영향을 덜 받는 풍요로운 마을이다.

이와는 별개로 30호 미만의 마을이 다수 존재한다. 내륙의 경우 한 개의 편호로 40~60호를 이루는데 반해, 이곳에는 20호 미만의 작은 마을인 3호, 9호, 11호, 13호 등이 존재한다. 굽이굽이 굴곡진 해안변의 좁은 공간에도 마을이 존재했던 것이다.

천수만이 묘사된 다양한 조선 후기 지도들을 보자.

이들 지도들에는 많은 정보는 수록되어 있지 않지만 천수만은 안면도 내안으로 내륙으로 깊숙이 내만 되어 있으며, 현재의 간월호와 부남호 지역이 내만되



『팔도지도』 서산 부분도



『대동여지도』 서산 부분도



『해동지도』 부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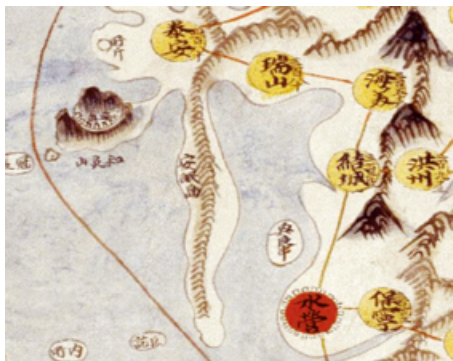
『청구도』 부분도



『조선팔도지도』 서산 부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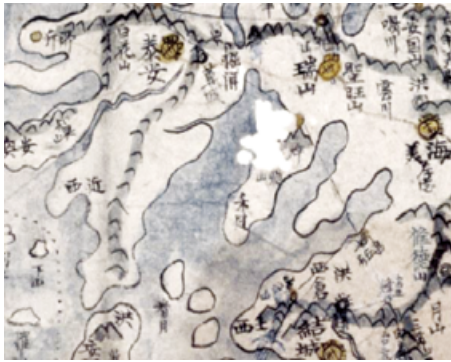
『청구팔역도』 서산 부분도



『동국여도』 부분도



『신증동국여지승람』 부분도



『동역도』 부분도



『팔도군현지도』 부분도



『동역도』 부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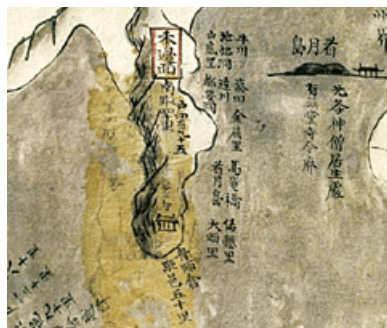


『팔도분도』 부분도

어 있음은 알 수 있다. 지도의 특성 상 물길과 산이 자세히 묘사되었는데, 도비산은 다양한 명칭으로 표시되어 있고, 물길에 위치한 다리(대교, 판교, 석교 등)도 확인된다. 이외에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창리의 창(倉)이 주사창(舟師倉) 혹은 창(倉)이라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선박처(船泊處)라 기재되어 있다. 죽도와 간월도가 비교적 자세히 묘사되어 있으며, 『청구도』와 『동역도』에는 굴포(掘浦)가 가사리

옆쪽과 표시되어 있는데, 『조선팔도지도』에는 안면도 위쪽에 표시되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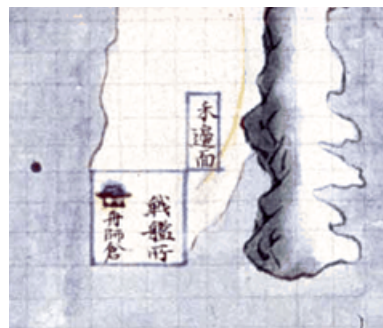
먼저 1872년 지방도의 지도 하단에 표기된 화변면의 주사창(舟師倉)에 주목해보자. 『대동여지도』에는 해(海)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해창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이곳은 여느 해창과 달리 군사적 목적이 강한 주사창이다. 주사창은 현재의 부석면 창리로 추정되며, 수군(水軍)의 무기를 보관하던 무기고로, 『여지도서(輿地圖書)』 충청도 서산현 군기조에는 주사창의 규모가 대청 5칸, 군기고 13칸, 잡물고(雜物庫) 5칸의 건물이라 기록되어 있다.



『1872년 지방지도』의 주사창



『해동지도』의 주사창과 선박처



『비변사인방안지도』 호서지도의 전함소, 주사창

이곳은 조세를 보관하는 해창과 달리 군사적인 기능이 강화된 곳으로, 내륙에서 가장 바다 쪽으로 나와 있다. 그 실체는 『비변사인방안지도』에 전함소(戰艦所), 주사창이라는 명칭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

전함소는 전투용 배가 정박한 곳이라는 뜻으로, 일부 지도에는 선박처(船泊處)

라고 표기되기도 한다. 전함은 거북선(龜船) 1척, 방선(防船) 1척, 병선(兵船) 1척, 사후선(伺候船) 3척으로, 공충수영에 속한 여느 전함소에 비해 군함의 수가 다양하고 많다.⁴⁾

1872년 지도에서 간월도(看月島), 흑서(黑巖)가 확인된다. 이외에 『팔도군현지도』와 『팔도지도방안지도』, 『대동여지도』 등에서 간월도 인근에 죽도(竹島)도 확인된다. 흑서는 다른 지도에서 확인되지 않아 더 이상의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 흑서는 ‘검은여’로 추정된다. 이 섬은 방조제 건립 이후 존폐 위기에 처하기도 했으나 주민들의 청원에 의해 보존되어 간척지 내부에 남아 있다. 반면 죽도와 간월도는 여러 지도에 수록되어 있어 해당 섬의 중요도를 짐작해 볼 수 있다. 흑서와 달리 두 섬은 유인도라는 특징이 있으나 두 섬의 위치는 실제 위치와 다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자.



『팔도군현지도』의 간월도와 죽도



『동여도』의 간월도와 죽도



『대동여지도』 간월도와 죽도

4) 『만기요람』 군정4, 주사(舟師), 공충수영(公忠水營). 서산은 홍주, 안흥과 대등한 병선을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거북선은 공충수사를 비롯해 홍주, 안흥, 서산에서만 소유하고 있었다. 안흥과 서산은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였다고 하겠다.

간월도의 경우 1872년 지도에는 외딴 섬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무학신승(舞鶴神僧)이 살았고, 무당사(無黨寺)는 지금 폐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오늘날 간월도와 무학대사와의 연관성이 언급되는 단초이다. 여기서 무학대사와 연관된 무당사는 이미 폐쇄되었다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현재의 간월암은 그 이후에 건립된 것이라 하겠다.

『만기요람』(1808년)에 간월도(看月島)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묘사가 있다. “달 경치가 가장 좋은[勝] 곳이다. 백련(白蓮)이란 작은 암자가 있는데, 중 무학(無學)이 출생한 곳이며, 송(宋) 나라 사람 정신보(鄭臣保)가 자고 간 곳이기도 하다.”⁵⁾ 백련과 무당사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간월도에는 오랜 기간 동안 사찰이 존재했다고 하겠다.

반면에 죽도는 『동여도』와 『대동여지도』에 묘사되어 있는데, 하나는 간월도 위쪽에 위치해 있고, 다른 하나는 간월도 아래에 위치해 있다. 위쪽의 죽도는 1905년의 지도에서도 그 존재가 확인된다. 이외에도 죽도는 다른 곳에 한 곳 더 있다. 죽도는 모두 대나무가 많아 죽도라고 명명되었는데,⁶⁾ 하나는 간월도와 창리 사이의 대섬[竹島]이고, 다른 하나는 홍주목의 죽도[竹島]이다. 후자의 죽도는 천수만에서 배로 조업을 할 경우 가장 원거리 조업 장소로, 천수만의 입구로 인식한다.

다음으로 인정면의 도비산의 존재도 주목해 볼 만하다. 도비산은 여러 지도에서 확인되는데, 우선 그 명칭을 보자. 『조선지도』와 『대동여지도』에는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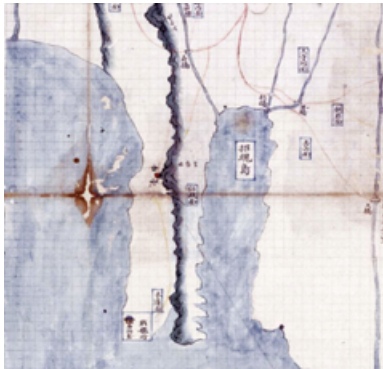
5) 『만기요람』 군정4, 해방(海防), 서해남부, 공충도.

6) 『대동지지』(1861~1866년)에 토산으로 감과 죽만이 수록되어 있다. 이는 『동국여지승람』에 토산으로 묘사[芋], 쇠[鐵] 군 남쪽 마산리(馬山里)에서 난다. 곶[石花]·청어[靑魚]·송어[秀魚]·은어[銀口魚]·농어[鱸魚]·오징어[烏賊魚]·전복[鰓]·조기[石首魚]·부레[魚鰓]·상어[鯊魚]·대하[大蝦]·자하[紫蝦]·조개[蛤]·낙지[絡繹]·삼치[麻魚]·전어[錢魚]·해삼[海參]·조개살[江瑤柱]·산무애뱀[白花蛇]·준치[眞魚]·붕어[鯽魚]·게[蟹]·소금[鹽] 만이 수록되어 있었던 것과 많은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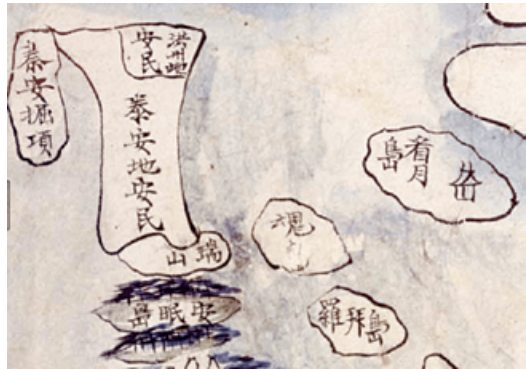
비산(都飛山)이라, 『비변사팔도지도』에는 도비산(島飛山)이라, 『조선팔도지도』에는 도비봉(島飛烽)이라, 『여지도』의 조비산(鳥飛山), 『여지도』에는 도비산(刀非山)이라 기록되어 있다. 하나의 산 명칭이 이처럼 다양한 한자로 표현된 것은 한자의 음을 차용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산이 날아왔다.’거나 ‘바다 가운데 날아가는 섬 같다.’고 해서 붙여졌다. 이곳에는 봉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조선팔도지도』의 주기에 도비산봉(鳥飛山烽)이라 기록되어 있다. 이 봉수는 관문으로부터 20리 거리 떨어져 있고, 홍주 고구봉에 응하며, 태안 백화봉으로 연결된다. 반면에 조비산은 도비산의 오자로 보인다.

이상은 현재 확인이 가능한 내용이지만 현재 확인이 불가능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기도 하다.

그 내용은 아래의 지도를 통해 살필 수 있다.



『비변사 방안지도』 초혼도



『해동지도』의 초혼도

왼쪽의 『비변사인방안지도』에는 인정면 앞쪽 바다에 초혼도(招魂島)라 기재되어 있고, 오른쪽 지도에는 안면도 앞에 혼도(魂島)라고 표시되어 있기도 하다. 후

자의 혼도를 초혼도로 보기도 한다.⁷⁾ 초혼도는 용어 그대로 혼을 부르는 섬이라는 뜻이며, 혼도 또한 혼과 연관된다.

초혼도의 실체는 현재 전혀 확인되지 않는데, 이와 연관해서 『해동지도』의 혼도(魂島) 아래의 나배도(羅拜島)를 보자. 나배도는 『동여도』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나배도의 나배(羅拜)는 여러 사람이 줄을 지어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위의 혼도 혹은 초혼도(招魂島)는 망자의 혼을 불러들이는 곳이라는 뜻이다.

이는 마치 바다에서 조업을 하거나 세곡선을 운항하다가 배가 좌초되어 사망한 후 그들의 혼을 불러들이고, 그것을 위무하기 위해 도열하고 있는 모습을 연상케 한다. 이러한 사실은 이곳이 『대동여지도』와 『조선팔도지도』에 굴포(掘浦)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과 연관해 볼 수 있다.

이곳은 고려시대로부터 조선시대까지 줄곧 전라도의 세곡선을 운송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곳으로, 그와 관련해서 특별한 의례가 베풀어졌음을 뜻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그렇다고 할 때에 『비변사인방안지도』에 초혼도가 간월호 위치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비교적 천수만의 외안 보다 내안은 안정적인 공간이기에 의례를 베풀기에 적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음으로 위의 『비변사인방안지도』에 표시된 세 개의 다리를 보자. 하나는 판교(板橋)이고, 그 옆의 다리는 유교(流橋)이고, 해미 경계에는 대교(大橋)가 있다. 실제 이곳에는 여러 개의 다리가 있었다. 모두 천수만과 내륙의 강이 연결되는 강에 설치된 것으로, 그 실체는 『여지도서』 교량조에서 확인가능하다.

板橋在南七里 金剛橋在東十五里 興仁橋在西二十里泰安界 大橋在東二十里

7) 서울대 규장각의 『해동지도』의 지명란에 혼도를 초혼도로 읽고 있다.

海美界(『여지도서』 충청도 서산현 교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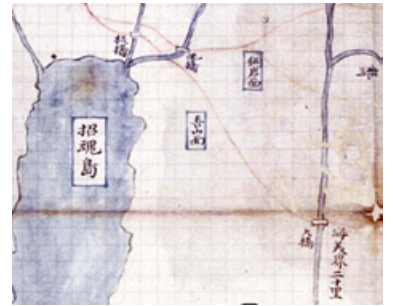
대교와 판교는 고지도에서 확인되는데, 아래의 지도들을 보자. 판교는 『비변사인방안지도』에만 표시되어 있지만 대교는 아래의 모든 지도에서 확인된다.



『동여도』의 대교



『해동지도』의 대교



『비변사 방안지도』의 판교, 유교, 대교

대교는 음암면 유계리에 위치하는데, 일명 한다리[대교·大橋]라고 부른다. 한 다리는 조선 후기의 지리지와 고지도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대교천의 상류는 ‘용유천(龍遊川)’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대교천은 유계리 앞에서 둥글게 굽어 돌아가며 깊은 수심을 이룬다. 워낙 물길이 아름다워서 1619년에 편찬된 서산의 사찬 읍지 ‘호산록(湖山錄)’에 “다리 아래에 발을 드리우고, 맑게 흘러가는 물을 굽어보면 눈 같은 비늘을 가진 고기들이 무수히 떼 지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라는 글이 있다.⁸⁾ 이것을 통해 이곳까지 고기가 많이 드나들었음을 짐

8) 『호산록(湖山錄)』 산천조(山川條), 대교천(大橋川)

작할 수 있다. 대교는 유계리와 흥천리를 잇는 다리로 해미면과 서산을 잇는 다리였다.

반면 판교(板橋)의 위치가 어디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오남동에 너더리[板門橋]가 있다. 너더리는 ‘널문다리’라는 뜻으로, 나무판자로 만든 다리이다. 이 다리는 해미와 서산을 잇는 곳으로, 소탐산에서 발원한 넓이 1~2미터의 작은 하천인 ‘삭은다리내’에 놓은 다리이다. 비록 폭이 좁은 하천이지만 두 지역을 잇는 중요한 거점지역이었기에 이용하는 이들이 많았다.

2. 근·현대 지도 속 천수만

근·현대 시기의 천수만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여러 개가 있다. 가장 이른 시기의 현대식 지도는 대정 5년(1924년, 1/5,000)과 소화 5년(1930년, 1/300,000)의 지도로, 이것은 과거와 현재의 천수만의 변화를 이해하는 징검다리적인 자료이다. AB방조제 건립 이전의 실상을 볼 수 있는 근대식 첫 지도이다.

그 이후로는 방조제 건립 이전의 현대식 지도로는 1963년, 1965년, 1973년의 지도와 방조제 건립 이후의 현대지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들 지도에는 천수만의 변화상이 일목요연하게 수록되어 있다.

우선 대정 5년의 지도를 보자. 이 지도는 근대식 축적에 의해 작성된 첫 지도로 각 마을로 이어지는 해로를 비롯해 해안의 개펄의 상태(모래펄, 진흙펄), 천수만의 굽은 물줄기의 이름(積登江·沙長浦), 해안의 토질(雨裂·崩土) 등이 확인된다.

안면도나 태안과는 달리 서산의 천수만 일대의 해안지역들은 토질에 있어 차이가 있다. 우염과 붕토가 다수 확인되는데, 이는 빗물의 침식작용으로 생긴 우



대정 5년(1924년) 천수만 인근 지도

열과 흙이 무너져 생긴 붕토가 다수이다. 해수면의 깊이가 얕아 퇴적층이 굳어서 무른 땅이 해안가에 조성된 것이다. 천수만의 양쪽으로 이어지는 두 개의 물줄기는 적돌강과 사장포이다. 적돌강은 태안군 남면 소항리 부근의 적돌에서 발원한 강이다.

이 지도와 연관된 시기의 마을별 사정은 1910년 조선총독부가 정리한 『한국수산지(韓國水産誌)』의 내용을 통해 이해가 가능하다. 이 책에 소개된 내용을 마을별로 구분해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⁹⁾

동막리(東幕里, 현재 산동리)는 사장포(沙長浦) 내륙으로 내만한 만오(灣澳) 동쪽 기슭 만(灣)의 북서쪽에 위치한 인정면에 속한다. 마을은 뒤로 도비산을 등지고 있다. 앞으로는 넓은 모래밭에 개펄진흙이 쌓여 있는데, 간월도까지 약 7리(漚, 1리

는 1,852미터)이고, 그 사이는 하나의 좁은 강줄기가 통해서 마치 강과 같다. 본리(本里) 북방 5~6정(町, 10정이 1.090909km)을 미치는 길로 주교리에 이르러 선박의 출입이 이 강줄기에 의존해야 하므로, 만조 시 이외에는 배가 항해하는 것은 몹시 위험하다. 이 진흙이 퇴적된 육지에 접하는 부분에 갈대(蘆와 억새)가 돌아나 염전까지 이어져 있다. 인가는 22호가 있고, 농업을 주업



동막리 지도

9) 농상공부수산국 편, 『한국수산지』2권, 1910, 766~772쪽.

으로 하고, 구릉 사이에는 경지가 많다.

위의 자료에서 동막리는 염전이 있었고, 만조 시에는 선박의 출입이 가능했으며, 간월도까지 12,954미터 길이의 물길이 강처럼 이어져 있다. 22호로 작은 마을로, 언덕 사이사이에 경작지가 많아 농업에 유리했음을 알 수 있다.

창촌리(倉村里, 현재 창리)는 군의 남단에 위치하고 화변면(禾邊面)에 속한다. 후면은 언덕을 등지고 있고 앞은 비탈져 있다. 자갈과 모래가 섞인 해안가는 만조 시에는 좋은 항만의 상태이지만, 썰물 시에는 해안 개펄이 150간(間, 1간이 181.818182cm)이 전부 드러난다. 또한 조류가 급격해서, 그 위치는 마치 해운의 요충지에 적합하므로 선박이 자주 왕래했다. 인가(人家)는 52호(戶)이며, 부근에 논이 64두락(斗落, 마지기, 200평), 밭이 20두락(마지기, 300평)이 있다. 주민들은 주로 상업에 종사하고, 여성은 낙지, 게 등을 채취하며, 밖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것은 매우 드물다.



창촌리 지도

창리는 만조 시에는 항만으로 이용 가능하고, 조류가 세서 요충지로써도 가능했으며, 썰물 때에는 개펄이 273미터가 펼쳐져 있다. 낙지와 게 등을 주로 여성들이 잡았으나 이들이 밖에서 어업하지는 않았다. 주민들의 대다수가 상업에 종사하며, 52호로 비교적 큰 마을이다. 논과 밭이 있다고는 하나 그 비중이 적

어 어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았다. 다른 마을에 비해 마을이 번성했던 것은 중선업과 연관지어 볼 수 있다. 이곳에는 1970년대까지 중선이 3~5척 있었다.

한편 창리와 궁리 사이는 조류의 흐름이 무척 빠르다. 두 마을 사이가 병의 목처럼 생겼고, 백사장쪽으로 물줄기가 나뉘지므로 썰물에 물이 빠져나갈 때는 밀려 내려가는 물의 양이 많아 창리 앞에서는 물살이 빙빙 돈다. 때문에 물에 떠 있는 오리의 발목이 부러질 정도라 하여 “창리 앞에서는 오리다리 부러진다.”라고 했다. 물살이 빨라 이곳에는 수심이 깊은 곳에는 고기가 많겠지만 어업을 하기가 어려워 마룡리 위로 올라가서 주로 조업했다.



갈마리 지도

갈마리(渴馬里, 현재의 갈마리)는 창촌리의 북쪽 반도의 서쪽 해안에 위치한다. 연안은 만조 시에는 수심이 6-7심(尋, 1심이 1.8미터) 정도이나, 썰물 시에는 전부 드러나서 선박의 정박에 적합하다. 인가는 28가구가 있는데, 이들은 농업을 주로 한다.

이 마을은 바다 쪽으로 삐죽이 나온 반도를 끼고 있고, 만조 시에는 수심이 13미터로 꽤나 좋은 입안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중선업을 하는 이는 없었고, 작은 닻배로만 조업했다. 이곳은 수심이 깊어 물이 빨리 빠지고, 빨리 들어오므로 개펄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짧다. 이에 개펄을 이용하는 방법이 다른 마을과 다르다. 굴을 바다에서 직접 채취하지 않고, 짧은 시간에 굴뻍을 채취해다 두고 밤을 새워 까는 방식을 취했다. 호수는 28호로 비교적 작은

마을이며, 농업이 중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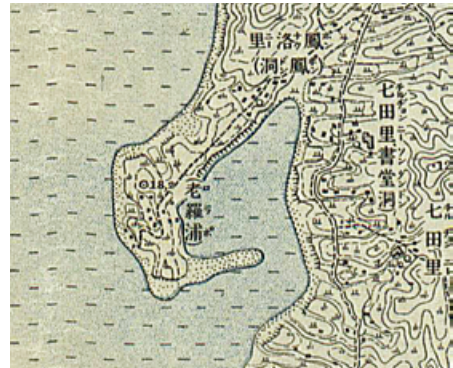
대두리(大豆里, 현재의 대두리)는 반도 서안의 조금 내만한 곳(灣澳)에 위치하며, 만입(灣入)의 깊이가 깊어 물이 얇아 선박의 출입이 편리하지 않다. 인가는 21호가 있고, 농업을 위주로 하며, 연안에 어전 어장이 4개소가 있다.



대두리 지도

대두리는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다른 마을들과 달리 안쪽으로 내만되어 있다. 만입된 길이가 깊어 물이 얇아 선박의 출입이 용이하지는 않지만 취평장이 번성했을 당시에는 대두리가 시장에 가까워 배들이 정박하고 장을 보기도 했다. 마을 위쪽으로 넓게 농지가 펼쳐져 있어 농업 위주로 생활했다. 마을 앞쪽 개펄은 진흙펄이 아니라 모래펄이 넓게 발달되어 있다.

노라포(路羅浦, 현재의 봉락리)는 대두리에 접해 있으며, 부근에 경지가 많다. 그 앞 해안은 만조시에 6~7심(尋, 1심이 1.8미터)로, 썰물 시에는 전부 개펄이 드러난다. 인가는 22호이고, 어전(魚箭) 어장이 2개소가 있다. 가까운 해안에 오징어(蛸)와 새우가 많이 생산되는 2월부터 9월까지 채취해서 미끼로 판매한다. 일본 조승(鰯繩, 도미그물)



봉락리 노라포 지도

어선 등이 구입을 위해 기항(寄港)하는 수가 많으며, 해마다 그 수가 증가(增加)하고 있다.

노라포는 봉락리에 속한 마을로, 이 마을의 앞쪽 해안은 깊이가 13미터로 깊어 어선의 출입이 가능했다. 썰물이 되면 개펄이 모두 드러난다. 오징어와 새우가 많이 생산되는데, 일본의 도미 어선에서 미끼로 구입해 갔다. 실제 이 마을에서는 미끼를 잡아 어선에 판매하는 일이 그 후로도 지속되고 있었다. 안면도에서 도미를 잡기 위해 논개를 잡아 달라고 하면 그것을 맡아서 작업하는 ‘축택’이라는 직책이 별도로 존재했다. 때문에 어업에 전업할 수 있는 조건이 일찍부터 형성되었기에 많은 인구가 유입되었었다.

사기소리(沙器所里, 현재 사기리) 노라포(老羅浦)의 남쪽에 있다. 해안은 바위, 돌, 모래, 자갈이 서로 교차해 있어 이곳에 굴이 서식(著生)하고 있다. 인가는 12호가 있으며, 주민은 농업을 주로 하고, 부근에 농경지가 많다.

사기소리는 그 위치를 특정할 수 없는데, 고북면 사기리로 추정된다. 그렇다고 할 때 사기소리는 노라포의 남쪽이 아니라 동쪽에 위치하게 된다. 때문에 그 위치를 특정할 수가 없다.

이처럼 『한국수산지』에 수록된 천수만 일대의 마을들은 방조제 건립 이전까지의 사정을 잘 보여준다. 이를 종합해 보면 당시 천수만 지역은 중선이 접안이 가능한 마을과 그렇지 못한 마을로 구분되었으며, 어업 보다는 농업 위주의 생활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별히 어전이 발달되어 있으며, 도미 미끼, 굴 등이 주요 어산물이었다고 하겠다.

이와 더불어 이 시기의 사정을 보여주는 지도로 소화 5년(1930년대)에 작성된 『한국근대지리지』 군세일반 서산군에 수록된 지도도 있다. 이 지도는



1973년의 천수만 일원 지도(1/50,000)

1/300,000의 축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수기로 제작되었지만 도로와 하천 등이 비교적 자세하게 표시되어 있다.

이후의 천수만 지역의 지도에는 간척이 이루어진 모습으로 확인 할 수 있다. 그 변화상을 이해하기 위해 위의 1973년 지도를 보자.¹⁰⁾

위에서 언급했듯이 위의 지도에서 확인되는 가장 큰 특징은 천수만의 해안선이 간척이 되어 염전과 간척지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지역은 리아스식 해안으로 규모가 아닌 소규모로 이루어진 간척이 다수였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수심이 얇고 리아스식 해안으로 간척이 용이했기 때문이다. 간척 허가권이 일제강점기에 신청제로 이루어졌기에 남발되었던 점도 무관하지 않다. 무허가로 이루어진 개간도 많았는데, 특히 마을 주변의 1,000~3,000평 정도 규모의 작은 간척지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간척하기도 했다. 국유 염전이 여러 곳 만들어지기도 했다. 전매청과 단국대, 충남대 등이 그것이다. 이중 변화상이 유독 돋보이는 대상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변화양상을 살펴보았다.

마룡리를 보자. 마룡리의 간척지로는 난곡농장(難谷農場)과 심포저수지가 있다. 난곡농장은 1929년에 전라도에 거주하는 박모 씨가 짚은개(深浦) 간석지 40여 ha를 지역민을 동원해 매립했다. 주민들이 품을 팔아 지게로 흙을 지어다가 독을 축조하는 어려운 작업이었다고 한다.

독을 축조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독이 터져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 농장의 이름을 난곡(難谷)이라 지었다. 이 농장의 논에 관개를 하기 위해 조성된 저수지가 심포저수지이다. 이 저수지는 1961년 7월 10일에 축조되었으며, 만수면

10) 현재 확인 가능한 지도 중 가장 이른 시기의 지도가 1973년 지도이기에 이를 대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해당지도는 국토지리원의 1/50,000 지도를 사용하였다.



마룡리(1924년)



마룡리(1973년)

적은 19.95ha이다.¹¹⁾ 마룡리의 간척 이전과 이후의 지도를 보면 간척에 매우 유리한 곳을 중심으로 간척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최소한의 노동력을 동원해서 넓은 농지를 얻었던 것이다.



봉락리 노라포



봉락리 노라포 인근의
간척과 저수지 축조

11) 이은우, 위의 책, 서산시청, 2005, 297.

다음으로 봉락리의 노라포를 보자. 이 마을 역시 빼죽하게 나온 노라포의 끝과 내륙을 연결하면 안쪽의 공간을 농지화 하는 간척에 유리했다. 이에 1928년에 김모 씨라 기억되는 사람이 간척을 하고, 저수지를 만들었다. 이 저수지로는 약 10ha의 논을 관개수리 안전담으로 활용할 수 있다.

대두리는 1925년에 왼쪽처럼 반듯한 해안선을 가지고 있었으나 1973년 지도에는 빼죽하게 나온 염전이 보인다. 이 염전은 원논(堰畚)의 모서리에 작은 섬이 있는데, 이것에 염전이 보인다. 본래 이곳은 벼터로 자염(煮鹽)을 하는 사람들이 천일염전으로 바꾼 것이다.



대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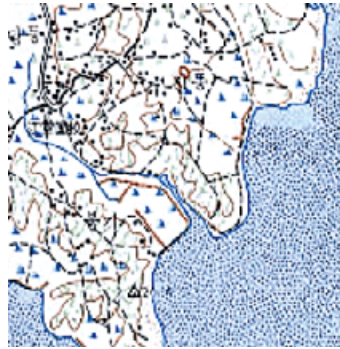


대두리 염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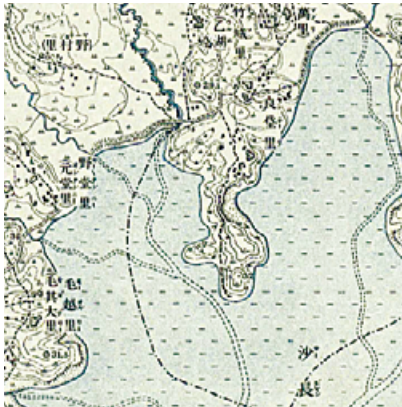
강당리 1리(강촌리)에는 주민들은 그 시기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1925년 이후에 간척된 농지가 확인된다. 1973년의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안쪽으로 내만한 공간의 윗부분을 막아 간척했다. 매립된 이들 논은 ‘안재논’과 ‘밭재논’이라 부른다. 안재논은 20ha인데, 밭재논이 매립되면서 이를 구분하기 위해 안재논이라 명명되었다. 밭재논은 30ha로 안재논 보다 조금 더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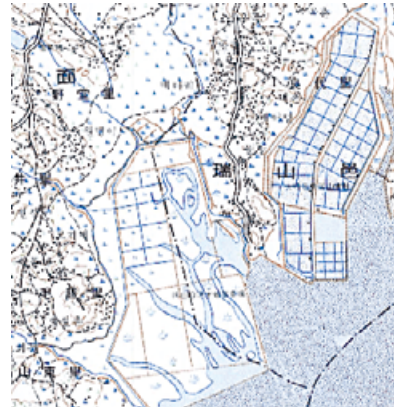
강당리



강당리



모월리와 양대동



모월리와 양대동

모월리와 야당리는 안쪽으로 깊숙이 내만되어 있었으나 1973년 지도에는 이곳에 형설촌과 간척지, 염전 등이 눈에 띈다.

이중 형설촌은 1961년 11월 14일부터 1969년까지 부랑아 정착촌을 만들고, 마을 앞의 간척지를 개간하도록 한 마을이다. 이곳에 거주하는 이들을 개척단이라 불렀는데, 1969년 많이 떠나고 인근 지역의 저소득층이 이주해 왔고, 그들

에게 부여된 개간권리를 이어받아 간척에 참여해 현재의 간척지를 만들었다.

양대동의 염전은 국유염전으로 전매청이 소유해 인지면과 접한 바다를 매립해 만들었다. 1943년부터 일본인이 염전용을 개발하기 위해 매립을 시작했으나 1945년 광복 이후 정부가 주도해 염전을 완공했다. 전국에서 가장 큰 염전으로 한때 소문이 났었다. 소금 경기가 좋을 때는 이 지역이 군내 어느 지역 보다 경제적으로 활달했었으나 폐 염전되는 등 여러 번의 변화를 겪으며 지금은 농촌이 되었다.

해미면 언암리, 석포리와 고북면 신정리의 해안 역시 개간된 곳이 여럿 있다. 개인이 개별적으로 품을 맛아서 개간했기에 내륙으로 내만 된 해안선이 모두 반듯하게 변화되었다. 이처럼 천수만은 수심이 얇고 리아스식 해안이 발달되었기에 일찍부터 간척이 일상화되어 이루어졌다.



언암리, 석포리, 신정리



언암리, 석포리, 신정리

특히 1920년대 이후로 지속적으로 소규모로 간척되어 농지와 염전이 만들어졌다.

제 2 장

천수만의 자연환경과 삶



천수만의 자연환경과 삶

1. 천수만의 자연환경

1) 수심은 얇지만 조수간만의 차이가 심한 천수만

천수만(淺水灣)은 현재의 행정구역 상 서산, 홍성, 태안의 3개 시군에 걸쳐 해안선이 284.5km이고, 조석간만의 차이가 6m나 되고, 수심이 10미터 내외로 얇다. 이러한 지형조건은 천수만을 의존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다양한 영향을 미쳤다.

천수만(淺水灣)이라는 지명을 통해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하나는 천수(淺水) 즉 깊지 않은 얇은 해변이라는 점이다. 둘째로 그것이 내륙으로 깊숙이 내만 되어 있다. 따라서 천수만이라는 명칭은 그 자체가 얇지만 내만 된 곳이라는 천수만의 특성을 잘 표현되어 있다. 수심이 10m 이내로 얇아 대형선박의 출입은 불가능하여 중선만이 드나들었다. 일부 마을에는 중선도 입항할 수 없이 얇아 작은 어선만이 드나들었다. 중선이 입항할 수 있는 포구는 몇 안 되었으며, 창리, 간월도, 칠전리, 송시리, 강수리, 지산리, 양대동, 덕지천동, 귀밀리, 사기리, 신정리, 기지리, 남정리 등이었다. 이중 일부의 마을에는 중선이 입항을 하

지 못하고 보다 작은 상선들이 드나들기도 했다. 중선이 입항하면 포구에 일시적으로 장이 서는데, 먼 바다에서 잡은 어물이나 젓갈이 판매되었다. 황도, 안면도 등의 인근 배를 비롯해 경기도 덕적도나 완도의 배들도 드나들었다.

수심이 낮은 마을들에서 먼 바다로 나갈 수는 없지만 소형어선과 정치망 어구들을 이용해 활발한 어업활동을 했다. 중선 어업이 발달된 황도에는 중선을 30척 이상 소유했으나 천수만에서 가장 중선을 많이 소유한 창리나 간월도는 모두 3~5척의 중선을 소유했을 뿐이었다. 중선은 수심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접안이 가능하므로 수심이 얇은 천수만에서는 중선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에 중선을 댈 수 있는 인근에 배를 매두고 어선어업을 운영하기도 했다. 고북면 사기리에는 중선을 댈 수 있지만 옆 마을인 봉생리에는 중선입항이 불가능하므로 봉생리 사람이 중선업을 할 때는 사기리에 배를 매두고 오갔다. 서산시 덕지천동이나 부석면 창리도 마찬가지로 인근 마을사람들의 중선이 입항해 있었다.

반면에 소형어선과 정치망 어구를 활용한 어업은 매우 활성화되었다. 중소형 어선인 방배나 후리질배를 비롯해 작은 어선인 ‘댓마_[소형어선]’은 모두 ‘댓배’라고 부른다. 이들 어선들은 그물질을 할 때는 천수만을 벗어나지 않고, 내안에서만 조업하며, 노를 저어서 나갈 수 있는 최대 거리인 홍성군 죽도(竹島)나 태안군의 백사장을 벗어나지 않았다. 천수만 내안에서의 조업은 썰물에 나갔다가 밀물에 돌아가는 방식으로 당일에 국한해서 이루어졌기에 노를 저어 나갈 수 있는 최대치가 2시간이다. 때문에 부남호 일대에서 조업하는 배는 창리나 간월도 인근까지 내려갔고, 간월도나 창리에서는 죽도까지 내려가 조업했다. 이들 지역은 자신의 마을에서 출발해서 노를 저어 2시간여가 소요되는 위치이다. 천수만 내안에는 천수만 배를 비롯해 간혹 승어잡이를 하러 온 당진배도 있었다. 수백 척의 배가 물때를 따라 쉽없이 그물을 내리고 올리며 작업을 했다고 한다.

한편 심한 조수간만의 차이로 인해 간조 시에는 넓은 간석지가 드러났고, 사리 때에는 더욱 넓은 개펄이 확보되었다. 이러한 개펄은 주민들에게 중요한 생활의 터전이었다. 이 개펄은 모래와 펄이 섞여 있기도 하고, 모래나 펄 만으로 이루어져 있기도 하다. 그에 따라 다양한 어패류와 갑각류가 서식했기에 지역 별로 다양한 어패류를 생산할 수 있었다. 이러한 어패류와 갑각류의 다양성은 주민들의 생업활동에 적지 않게 도움이 되었다. 철에 따라 어패류와 갑각류를 채취하기 위해 사람들이 떼를 지어 이동했다. 한 예로 현재의 지산리 인근에는 논계가 많았는데, 특히 오월 단오철이 되면 교미하기 위해 돌아다니는 논계가 많으므로 이것을 쬐는 행렬이 3km 정도나 되었다. 천수만의 개펄의 활용은 단순히 개펄에서 채집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았다. 개펄 사이로 난 갯고랑^[갯골]은 중요한 어업 현장이었다. 갯고랑은 개펄에 나있는 고랑으로 이곳에는 바닷물이 먼저 들어오고, 나중에 빠지므로 삼중망이 보급되기 이전에는 어선어업이나 정치어구 어업이나 모두 이곳에서 이루어졌다. 갯골이 넓은 것은 육지의 둠벙과도 같았는데, 은개전 개울, 사시랭이 개울, 막동전 개울 등으로 불리던 곳들이 주된 어획 장소이다. 봉락리의 은개전 개울은 지름이 300~500미터나 되어 둠벙으로 불리기도 했다.

반면 수심이 낮은 천수만에서는 중선을 접안할 수 없어 중선업이 크게 발달하지는 않았다. 인근 황도에 중선 30척이 있었던 것에 반해 이곳에서 중선을 많이 부리는 창리라 할지라도 3~5척의 중선을 부렸을 뿐이며, 대부분 1척 정도의 중선을 소유했었다. 한편 덕지천동의 중선 소유자들 모두 안면도에서 100여년 전에 이주해온 분들로 이들이 이주해 오기 이전까지는 천수만 내안에는 중선업의 비중이 높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천수만의 내안은 안면도가 병풍처럼 가로막고 있어 아늑한 향아리 형의 내안이 조성된다. 이곳은 수심은 얕지만 육지에서 흘러나오는 육수와 바닷물이 만난다. 해미천의 본류는 도당천으로, 도당천의 제1지류가 해미천이다. 가야

봉 대곡리에서 발원하며 여러 물줄기들이 해미면의 휴암리와 산수리에 걸쳐 있는 산수저수지에 모인다. 해미천은 산수저수지에서 시작하여 해미면 유암리와 저성리, 조산리, 전천리, 응평리 등을 거쳐 도당천과 합류한다. 그리고 서쪽으로 흘러 해미면 앞을 지나 석문봉 아래의 황락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과 합쳐진 뒤 전천리와 귀밀리를 지나 태안반도의 천수만으로 유입된다. 귀밀리 아래쪽의 하류 지역에서는 음암면에서 흘러 내려오는 대교천과 합류하여 간월호로 유입되며, 덕지천과 서산시 동쪽에서 흘러 내려오는 청지천과 합류해 천수만으로 유입된다.¹²⁾ 이외에도 야당천이 간월호 지역으로 흘러들어 가며, 부남호 지역으로는 가사리 옆으로 흐르는 인평천이 역시 부남호로 흘러 들어간다. 이 물줄기는 인근의 사장천을 비롯해, 팔봉물, 태안물 등이 모여서 천수만으로 흘러들어 갔다. 또한 부석면의 맞은편인 태안군 남면의 양잠리로부터 천수만으로 흘러드는 적돌강의 큰 물줄기도 있다. 이처럼 육수와 바닷물이 만나는 곳에는 회유성 어종이 산란을 위해 모여들므로, 최적의 산란처로 기능했다. ‘육수가 많아야 바다 고기도 많다.’ 라고들 한다. 이는 회유성 어종이 드나들 수 있는 산란처가 많음을 의미이다. 이에 이곳에서는 숭어 새끼인 ‘물치·모쟁이’, 조기 새끼인 ‘보걸치’, 썩치 새끼인 ‘황새바치’, 꽃게 새끼인 ‘사시랭이’, 장어 새끼인 ‘시라시’, 도미 새끼인 ‘피데기’ 등이 태어나고 자란다. 때문에 다른 곳보다 어족자원이 풍부한 천혜의 산란처였다.¹³⁾

12) 한국학중앙연구원, 『해미천[海美川]』,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서산시』

13) 충청남도 서산시로 들어오는 조류는 죽도[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월전리에 속한 섬]와 충청남도 홍성군 해안선 사이의 밀물길을 따라 북상한다. 죽도와 홍성군의 해안 사이의 해저는 소위 밀물길(flow channel)이고 죽도와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안면도 사이의 해저는 썰물길(ebb channel)이다. 이렇게 북상한 조류는 충청남도 서산시 입구의 간석지 근처에서 방향을 바꾸어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동쪽 연안의 썰물길을 따라서 안면도와 죽도 사이를 통과하여 서해로 흘러 나간다. 이렇게 유출되는 썰물은 조류 방향의 변경 이후 상당한 시간 적돌만(積趺灣)으로 유입하는 밀물과의 혼합으로 인해 간월도 주위에서 난류 현상(亂流現象)이 강하게 일어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조류』, 『향토문화전자대전-서산시』) 이를 두고 주민들이 물이 돌아 “오리다리 부러지는 곳”이라고 한다.

수심이 얇고 조수간만의 차이가 큰 천수만 내안에서는 이러한 자연지리적 조건에 걸 맞는 어로행위가 이루어졌다. 크고 작은 갯고랑의 끝에는 어살^[魚簞]과 어렴^[군발] 등의 함정어구를 설치하고, 물이 고인 갯고랑이나 둠병에서는 전통 그물 어법인 후리질과 방질을 했다. 이외에 낚시나 주낙 등의 낚시 어구들을 이용한 활발한 어로행위가 이루어졌다. 수심이 얇아 중선업이 발달될 수 없는 천수만의 약점은 오히려 다양한 어로활동이 가능한 다양성이 확보된 어업현장이었던 것이다.

어살과 어렴 등의 정치어구로는 숭어, 꽃게, 오징어 등의 천수만의 대표어종을 주로 어획했다. 대나무로 만든 어살과 대나무와 억새를 섞어 만든 어렴은 개울의 크기에 따라 크기를 달리해 설치했으며, 송시리와 갈마리의 큰골과 작은골이 많은 곳에는 살을 설치할 수 있는 살바탕이 많았기에 20여 개의 어살이 설치하기도 했으나, 보통은 마을별로 3~4개의 살바탕만이 존재했다. 어살과 어렴은 매년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다른 어떠한 어구보다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다. 어살과 같이 고랑에 설치하는 함정어구 중 돌살은 이곳에는 크게 발달하지 못했다. 검은여 주변에 2기, 간월암 옆에 1기만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돌이 많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이다.

이러한 어살, 어렴 등은 1960년대 이후에 나일론 그물이 보급되면서 한때 대나무로 제작하던 것에서 그물로 제작하는 것으로 바뀌기도 했지만 삼중망 그물을 비롯해 통발, 주꾸미 고동 등의 새로운 어구가 보급되면서 전통어구인 후리질, 방그물 등과 더불어 쇠퇴했다.

한편 조수간만의 차이를 이용해 이루어지는 개펄작업도 지역별 개펄의 조건에 따라 다른 어업 형태를 만들었다. 한 예로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된 패류인 굴의 경우이다. 이 지역의 굴은 개펄에 놓인 돌에서 자연적으로 돌아나는 자연산 굴이다. 돌에서 자연적으로 돌아나므로 개인이 돌을 주어다가 굴밭을 조성했기에 집집마다 조금씩이나마 개인 굴밭을 소유했다. 노동력이 많은 집에

서는 많은 굴밭을 조성하고, 그렇지 못한 가정에서는 1평 내지 반 평 정도라도 만들었다.

굴밭은 인근의 돌을 주어다가 개펄에 던져 둔 것으로, 3년 정도가 지나면 굴 수확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굴밭은 간월도, 창리, 마룡리, 봉락리, 칠전리, 대두리, 갈마리 등지에 많았다. 지금도 창리와 간월도 지역에서 이러한 굴밭을 흔히 볼 수 있다. 넓게 펼쳐진 개펄은 굴 수확에 최적지였다. 굴 채취 방법은 굴밭에서 굴알을 채취하는 것과 굴뚝을 뜯어다가 집에서 굴알을 채취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대다수의 마을에서는 전자인 굴밭에서 직접 굴을 채취하는 방식을 택했지만 갈마리에서만 후자의 방식을 취한다.

이는 개펄의 경사도에 따라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다른 데서 비롯되었다. 수심이 얇아 개펄의 경사지가 완만한 지역에서는 물을 따라 나갔다가 물을 따라 들어오면서 2~3시간 동안 굴 채취를 한다. 반면에 갈마리와 같이 수심이 깊어 개펄의 경사도가 심하면 물이 빨리 들어오고, 또 빨리 나가므로 상대적으로 개펄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여로 짧다. 이에 보다 많은 굴을 채취하기 위해 개펄에서 굴을 직접 좇지 않고, 굴뚝을 뜯어서 나왔던 것이다. 굴알 채취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하므로 간조 시간에 굴뚝을 뜯는데 열중했던 것이다. 이처럼 개펄의 고랑은 고랑대로, 개펄은 개펄 그 자체로 다양한 조건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활용했다.

수심이 얇지만 조수간만의 차이가 빠르기에 이를 활용해 배들이 육지로 드나들었다. 대표적으로 해미천과 덕지천(대교천)이 귀밀리 앞에서 만나 개삼포가 되어 덕지천동으로 흘러가며 오폭강이 되는데, 이 물줄기가 덕지천동에 이르면 비교적 굽은 물줄기가 되어 천수만으로 흘러들어간다. 이 덕지천은 서산시 음암면 대미산에서 발원해서 석림동, 수석동, 오남동, 장동을 지나는 청지천과 장동 앞에서 만나 천수만으로 흘러 들어간다. 때문에 비교적 넓은 물줄기가 조성되어 바닷물이 내륙 깊숙이까지 드나들었다.

이 냇물을 따라 내륙까지 이어지는 물길은 조수간만의 차이를 이용해 내륙 깊숙이까지 배가 드나들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 육로가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 이러한 해로는 중요한 생필품의 유입 경로였다. 조수가 많이 밀려드는 사리 때가 아니면 배가 드나들 수 없기는 했으나 이들 포구들로는 먼 바다에서 어획한 어물과 젓갈 등이 들어왔다. 이곳에서는 인근 개산(가야산 개심사)에서 벌목한 나무와 해미현 일대에서 생산된 쌀, 웅기 등을 실어서 서울 마포로 가져갔다. 1940년대에는 20톤급의 동력선인 화물선인 서산환과 해미환이 서산에서 사용할 생필품을 들여왔다. 이곳의 내륙 포구로는 도당천의 유계리의 한다리, 해미면 귀밀리의 개삼포, 서산시 덕지천동의 덕지천포와 해미면 기지리의 통개 등이다. 이들 포구들은 이웃해 있지만 각기 다른 물줄기와 연결되어 있었기에 각기 다른 생활권역을 지니고 있었다.

한편 고북면 지역에는 바다에 인접한 남정리 도방장이 주요한 포구였고, 그곳에서 물줄기를 따라 들어가면 기포리이다. 기포리는 지명과 달리 바다에 인접해 있지는 않지만 작은 배가 드나들며 어물을 판매했다. 이곳까지 들어 온 바닷물은 사리 때에 밀물이 되어 기포리 너머의 가구리까지 밀려들어 수해를 입히기도 했다. 이처럼 바다와 이어지는 냇물은 조수간만의 차이를 이용해 내륙과 바다가 이어졌고, 그것은 지역민에게 필요한 생필품과 어물이 교역되는 장소로 이용되었다.

한편 천수만에서 유일한 섬이었던 간월도는 여느 해안 마을과 자연조건이 달랐지만 빠른 조수간만의 차이로 인해 간월도만의 삶의 방식을 형성했다. 창리 앞바다는 유독 빠른 조수로 인해 펄과 모래가 섞여 있어 이곳에 자란 굴이 특별히 맛이 좋다. 다른 지역과 빠른 조수의 영향으로 간월도의 굴은 날감지가 8겹으로 발달되어 있으며, 이것으로 어리굴젓을 담으면 고춧물이 잘 스며들어 빛이 더욱 붉고, 영글어 맛도 좋다. 때문에 맛좋은 어리굴젓을 생산하는 방법이 특화되어 나타난다. 또한 서해안의 특산물인 갑오징어의 주산지로, 오징어만을

잡기 위해 고기를 잡는 정치어구인 어렴을 ‘오징어 군밭’이라는 특화된 명칭으로 부르기도 했다.

이외에 조수간만의 차이는 교통로를 제공하기도 했다. 수심이 얇기에 간조 시에는 오래도록 개펄이 드러나는데, 드러난 개펄로는 두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로로 이용되기도 했다. 천수만 내안에서 유일한 유인도였던 간월도에서는 육지와 소통하기 위한 절박감으로 강당리로 이어지는 감길을 이용했다. 생필품을 구입하고 생산된 어물이나 소나 돼지 등을 판매하기 위해 장을 오가는 길로 감길을 이용한 것이다.

간월도 뿐만 아니라 육지길로 다니는 것 보다 바다를 가로질러 다니는 것이 시간이 단축되었기에 간조 시에 드러나는 천수만의 이곳 저곳에는 감길이 조성되었다. 석포리와 장동의 낫머리 사이를 잇는 감길은 해미면과 고북면 주민들이 서산장을 보러 가는 지름길이었으며, 지산리와 석포리를 잇는 감길은 부석 사람들이 광천이나 흥성장을 보러 가는 지름길이었다. 반면에 가사리의 새덕감은 서산과 태안을 잇는 중요한 길목이었다.

이처럼 간조 시에 드러나는 감길은 서로 다른 길을 연결해 주어 물자와 사람이 소통하는 중요한 길로 활용되었다. 이 감길은 육지 길로는 하루가 소요되는 먼 길을 1~3시간만에 오갈 수 있어 일일생활권이 가능하게 했다. 이처럼 천수만의 수심이 얇고, 조수간만의 차이가 큰 자연·지리적조건은 주민들의 삶의 요소요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었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환경을 오랜 기간에 걸쳐 이해하고, 적응해온 천수만의 문화로 이용되었던 것이다.

2) 육수와 해수가 만나는 천수만에 서식하는 다종다양한 어종

천혜의 산란장인 천수만에는 다양한 어류가 서식하고 있었다. 그것에 관한

가장 오랜 기록은 16세기에 기록된 『동국여지승람』의 토산(土産)조와 18세기의 『여지도서』 물산조를 통해 살필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동국여지승람』 서산현 토산조 : 모시[苧], 쇠[鐵], 군 남쪽 마산리(馬山里)에서 난다. 굴[石花]·청어[靑魚]·송어[秀魚]·은어[銀口魚]·농어[鱸魚]·오징어[烏賊魚]·전복[鮑]·조기[石首魚]·부레[魚鰓]·상어[鯨魚]·대하[大蝦]·자하[紫蝦]·조개[蛤]·낙지[絡繹]·삼치[麻魚]·전어[錢魚]·해삼[海參]·조개살[江瑤柱]·산무애뱀[白花蛇]·준치[眞魚]·붕어[鯽魚]·게[蟹]·소금[鹽]

『동국여지승람』 해미현 토산조 : 철[鐵] 생천포에서 난다. 굴[石花]·넙치[廣魚]·칼치[刀魚]·조기[石首魚]·홍어[洪魚]·송어[秀魚]·은어[銀口魚]·오징어[烏賊魚]·김[海衣]·안식향[安息香].

『여지도서』 서산현 물산조 : 모시[苧]·철[鐵]·굴[魚店花]·청어[靑魚]·송어[秀魚]·농어[鱸魚]·은어[銀口魚]·오징어[烏賊魚]·전복[鮑]·상어[沙魚]·새우[大蝦]·자하[紫蝦]·조개[蛤]·낙지[落躑]·소금[鹽]·삼치[麻魚]·전어[箭魚]·해삼[海參]·준치[眞魚]·붕어[鯽]·게[蟹]·대구[大口]·소라[小螺]·홍어[洪魚]·천문동[天門冬]·맥문동[麥門冬]·방풍[防風]·송이[松茸]·미역[蓴]

위의 기록들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서산현과 해미현의 토산물이 대부분 바다 어패류라는 점이다. 청어, 송어, 농어, 오징어, 전복, 조기, 부레, 상어, 대하, 자하, 삼치, 전어 등의 어류를 비롯해 굴, 조개, 낙지, 해삼, 조갯살, 게 등의 어물이 있다. 다만 16세기 기록에는 조기가 포함되지만 18세기 기록에는 조기가 없다. 조기는 천수만 내안에서는 매우 드물게 어획되는 어종으로 보통 천수만 외안에서 어획된다.

보다 중요한 사실은 서산현에서 해미현 보다 다양한 어물이 생산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인근의 태안현과 동일하게 많은 종류의 어물이 어획

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서산현의 어물 생산은 인근지역에서 돋보이는 수준이었다고 하겠다.

『신증동국여지승람』 태안현 토산조 : 대[竹] · 죽전(竹箭) 죽도(竹島)와 탄항(炭項)에서 난다. 철(鐵) 다수산곶(多修山串)에서 난다. 백옥(白玉) 안흥량 해변에서 난다. 김[海衣] · 황각(黃角) · 참가사리[細毛] · 전어(錢魚) · 전복[鮑] · 송어[秀魚] · 농어[鱸魚] · 청어(靑魚) · 갈치[刀魚] · 모래무지[鯰魚] · 조기[石首魚] · 부레[魚鱔] · 오징어[烏賊魚] · 굴[石花] · 새우[蝦] · 조개[蛤] · 맛조개[竹蛤] · 삼치[麻魚] · 해삼(海參) · 소라(小螺) · 꼬막[江瑤柱].

태안현과 다른 점은 태안현에서는 김 생산이 월등히 높았던 것에 비해, 서산현은 굴의 생산이 유독 높았다. 서산현에서는 다른 어물에 비해 굴이 먼저 기록되어 있어 굴 생산이 높았음을 보여준다. 반면 김이나 황각 등의 태안현의 주산물은 생산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서산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된 것은 굴이다. 당시 굴은 당진현, 보령현, 서천현 등에서도 두루 생산되었지만 서산현과 같이 처음에 기재되지는 않았다. 그 다음으로 송어, 오징어, 낙지 등으로, 방조제 건립 이전까지 천수만에서 생산되는 주요 어종들이다.

이러한 사정을 엿볼 수 있는 자료로 『호산록(湖山錄)』(1619년)이 있다. 당시 생산되었던 어물의 종류, 일부 어물의 어획시기 등이 소개되어 있으며, 아울러 해산물 진상에 나타났던 관리들의 민폐가 사족의 입장에서 기록되어 있다. 이를 해산조(海産條), 해호조(海戶條), 해포조(海浦條)를 통해 살펴보자.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화변(禾邊), 마산(馬山)에는 석화(石花, 굴)가 가을과 겨울철에 여물고 2월, 3월에 사라지며 대산(大山), 지곡(地谷)에는 3·4월에 여물고, 5월에 사라지게 되니 가히

남·북쪽 개펄 같지는 않으나 토화(土花, 조개)는 남북쪽 개펄에서 사시에 모두 여무는 것을 확인하였다.

죽합(竹蛤), 대합(大蛤), 중합(中蛤), 소합(小蛤), 기년합(飢年蛤), 낙제(絡蹄), 오적어(烏賊魚), 수어(秀魚), 노어(鱸魚), 석수어(石首魚), 사어(沙魚), 망어(魷魚), 민어(民魚), 전어(錢魚), 가불어(加不魚), 도어(刀魚), 은구어(銀口魚), 부어(鮪魚), 즉어(鰱魚), 청어(靑魚)이다. …(중략)…

큰 새우, 중간새우, 작은새, 붉은새우, 가늘한 붉은 새우는 모맥(牟麥)이 누렇게 익어갈 때에 잡게 되고 붉은 게, 푸른게, 농게, 바위 틈이나 언덕 밑에서 잡는 게가 있고 작은 소라, 큰 소라와 미역, 청태, 청각 등이다.(『호산록』 해산(海産))

이곳에서 가장 많이 생산된 것은 석화(石花, 굴)이며, 그 다음으로 토화(土花, 조개)이고, 그 이외에 다양한 조개류와 낙지, 오징어, 송어, 농어, 조기, 상어, 망어, 민어, 전어, 갈치 등이 났다. 이러한 양상은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다.

본읍에서는 대산(大山, 대산읍), 지곡(地谷, 지곡면), 문지고개(文智古介), 마산(馬山, 부석), 화변(禾邊, 부석) 등의 여러 곳에서 해산물을 잡는다.

아! 겨울철 눈속에서와 여름철 농번기에는 이곳에 사는 민간들이 잡는데 그 소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무슨 까닭인가? 가난한 어민들의 핫웃을 입은 자들이 얼음을 깨고 석화(石花)를 잡으며 눈을 쏘고 낙제(絡蹄, 낙지)를 잡는데 맨발로 언 개펄에 들어가서 천번 만번 죽을 고생하여 관청에 헌납하면 관리인들은 인정이 없어 해산물을 더 배정하여 겨울철 사용할 바가 부족하다 핑계하고 독촉하여 받아들이고 있다.(『호산록』 해호(海戶))

이러한 어물을 어획하던 어민들의 고생을 엿볼 수 있는 기록이다. 해호는 마산과 화변의 천수만 인근 뿐만 아니라 대산, 지곡, 문지고개 등에도 존재했다.

이들의 고생은 겨울철과 농번기에 출역으로 인해 가중되었다. 우선 어민들은 홋옷을 입고 얼음 속에서 맨발로 석화를 캐고, 낙지를 잡았다. 이 시기에 민간에는 목신이 보급되지 않았기에 겨울철 굴 채취의 고통이 심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¹⁴⁾ 그것은 관용어살(어젠)의 역역에 동원되었기 때문이다. 농번기인 6, 7월에 동원되어 폐농이 될 정도였다.

해당 내용은 『호산록』 해포조(海浦條)에서 살필 수 있다.

천수만 인근에는 울리포, 흑서포, 인정포 등지에 관용 어살이 존재했다. 해당 어살은 큰 새우잡이, 붉은 새우잡이, 가을잡이 등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며, 흑서포의 관용 어살은 송시리의 관전살로 그 존재가 확인된다. 바쁜 농사철에 어살로 출역해야 했기에 민가에서는 폐농이 되었으며, 그에 따른 백성들의 고통이 심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고통은 어살 제작과 관련해서 유추 가능하다. 어살은 봄과 가을에 각기 제작하는데, 어살 제작 도구인 대나무 벌목부터, 대나무 운반, 어살 제작, 어살제작에 필요한 새끼 꼬기, 제작된 어살을 먼 어살터로 옮기기, 어살세우기 등으로 1~2개월이 소요되는 여러 작업들에 많은 인원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특히 가을 어살 제작 시기는 바쁜 농번기이었기에 봄철 보다 더없는 고통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힘들게 어획된 어물이 거래되는 장시의 모습을 통해서 이 지역의 어로활동을 짐작해 보자. 18세기 기록인 『임원경제지』에 수록된 장시와 거래 물품 현황을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14) 천수만의 일부 지역에서 확인되는 목신은 간월도, 창리, 칠전리, 마룡리 등의 굴 생산이 많은 지역들에서만 확인되며, 갈마리, 송시리, 가사리 등의 굴 생산이 많지 않았던 지역들에서는 맨발로 굴을 채취했다고 증언한다.

[표 2] 『임원경제지』 예규지에 수록된 장시 개설일과 거래품목

	장시 개설일	거래품목
서산	城內場 二七日設 城外場四九日設	煙草石花鹽柿栗
	坪村場在邑北二十里聖淵面二八日設 翠浦場在邑南二十里馬山面一六日設 方吉里場在邑西二十里文賢面一六日設	鹽秀眉魚鮓魚石花絡蹄烏賊魚蘇魚鱸魚青魚大蝦 紫蝦醃海衣青苔
해미	大橋場在邑西十里東面三八日設	大蝦烏賊魚小蛤積實
태안	邑內場	石花小蛤絡蹄海衣鹽
결성	廣川場在 邑東二十里廣川面四九日設	鮓魚石魚青魚石花醃生葛

위의 [표 2]는 『임원경제지』 예규지(倪圭志)에 수록된 서산현과 인근 지역의 장시의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서산현에는 모두 다섯 개의 장시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중 천수만과 연관된 장은 취포장이다. 이 장시는 현재의 부석면 취평리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취평리(翠平里)는 1914년 행정구역 편제 시에 취포리와 평리를 합해서 만들어졌기에 취포장의 존재를 짐작할 수 있다. 실제 취평리에는 '취개' 라는 마을이 있다. 산동리에서 부석으로 넘어가는 고개에 위치한 마을인데, 포구와 연관된 개자가 붙어 있고, 실제 바다와 4km 떨어져 있어 의아하다. 그러나 이곳에 취포장이 섰었다는 증언이 있다. 당시는 지금과 다른 해안선이 존재했을 것이나, 장터는 바닷가 보다는 바다와 연관된 내륙에 위치했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주민들의 증언은 납득할 수가 있다.

그 후 1950년대에 취평리에 또 다른 5일장인 토골장이 개시되기도 했다. 그 이유는 취평리가 면소재지인 동시에 이곳은 적돌강의 큰골을 따라 내륙과 천수만을 연결되는 포구가 얼마 떨어지지 않았기에, 안면도 등지에서 어물을 운반하기에 비교적 유리한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취평장이 번성하던 시절에는 갈마리, 대두리, 칠전리 등지에 완도, 황도, 안면도 등지의 배들이 정박하고 어물을

거래했다.

1970년대에 들어서 교통이 발달하면서 서산장으로 장시가 통합되면서 토골장은 사라졌지만 그 이전까지는 인근에서 제법 큰 장으로 이름을 떨쳤다.

다시 조선시대의 취포장을 보자. 취포장은 인근 해미의 대교장과 비교할 때에 그 성격이 보다 명확해진다. 대교장은 해미면 유계리의 대교 인근에 섰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AB방조제 건립 이전까지 중선 보다 작은 배가 드나들었고 조선시대에는 해미현의 대표 장시로 섰었다.

이 두 장시의 거래물목을 비교해 본다면 취포장의 거래품목이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대교장에서는 새우, 오징어, 소합 뿐이지만 취포장에서는 소금을 비롯해 송어, 낙지, 굴, 오징어, 차조기, 농어, 청어, 대하, 자하, 젓갈, 김, 청어 등이 거래되었다. 장터에서 거래되는 물건은 이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므로 다양한 어물이 생산되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아울러 천수만의 인근에 위치한 태안의 유일한 장시였던 읍내장의 거래품목과 비교해 볼 때도 취포장의 물품이 독보적으로 많다. 읍내장에는 굴, 소합, 낙지 등만이 거래되었을 뿐 어류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지금은 어물 거래의 명소로 알려진 광천장의 경우에도 조기류와 청어, 젓갈만이 취급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본다면 인근에서 어물이 가장 많이 거래되던 장은 부석면의 취포장이었으며, 이처럼 취포장에서 다종다양한 어물이 거래될 수 있었던 것은 천수만의 풍부한 어족자원과 연관이 깊다고 하겠다. 취포장의 위치는 1872년 지방도 서산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취포장에서 거래된 어물로는 송어[秀眉魚], 다랑어[鰈魚], 굴[石花], 낙지[絡蹄], 오징어[烏賊魚], 차조기[蘇魚], 농어[鱸魚], 청어[靑魚], 대하[大蝦], 자하[紫蝦], 젓갈[醃], 김[海衣], 청태[靑苔] 등으로 바닷고기가 주를 이룬다.

당시 호서지역의 대표 장시였던 강경장에서 거래되던 물품은 쌀[米], 콩[荳], 면포[綿布], 마포[麻布], 유기[鑿器], 토품[土品], 철물[鐵物], 북어[北魚], 해채[海菜], 참조

기(鮠魚), 석어(石魚), 청어(靑魚), 송어[鱖魚], 준치[鰐魚], 수미어[秀眉魚], 송아지와 소[牛犢], 담배[煙草] 등으로, 어류만 본다면 취포장의 어물이 강경장 보다 다양한 어물이 거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¹⁵⁾ 특히 굴, 낙지, 오징어, 대하, 자하 등의 품목은 내륙에 위치한 강경장에서는 거래되지 않았고, 취포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조기는 강경장에서 거래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굴이나 낙지 등은 염장을 하지 않는 것들로 바다에 인접한 취포장에서나 거래될 수 있는 품목이었던 것이다.

반면 염장이 가능한 다른 생선은 생산지와 떨어진 강경장에서도 거래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취포장은 생산지의 어물이 거래되었기에 보다 다양한 어물이 거래되었던 것이다.

한편 이들 어물 중 상당수가 천수만에서 산란을 하는 회유성 어종이다. 중선업이 발달되지 않았기에 먼바다에서 어획되는 조기가 거래되지 않은 것이다.

조기는 중선이 어획해 염장해서 판매했기에 18세기에 취포장에서는 거래 품목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에 취포장은 천수만에서 이루어진 어로활동의 결과물이 거래되던 장시로 당시 풍부했던 실정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1926년의 『서산시지』에 수록된 시장을 보자. 천수만 인근의 5일장으로 서산시장과 해미시장, 태안시장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 시기에 취포장은 소멸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 이곳에서는 다양한 어종이 어획되었는데, 『서산군지』에 나열된 어종은 모두 50여 종이다.¹⁶⁾ 대구, 조기, 도미, 갈치, 굴비, 송어, 민어, 갯장어, 망어, 농어, 흑도미, 뱀어, 흥어, 망둥어, 복쟁이, 뱀장어, 새우, 낙지, 쭈꾸미, 오징어, 게, 해삼, 전복, 굴, 홍합, 참조개, 맛, 죽합, 살조개, 모시조개, 소라, 풀가사리, 미역, 김, 우뚝가사리, 파래 등이다. 이중 가

15) 『임원경제지』 예규지, 호서, 은진조.

16) 서산문화원, 『1926년 서산군지 번역판 서산군지』, 2005, 65~66쪽.

장 많은 어획량은 굴 - 민어 - 갈치 - 도미 - 오징어의 순으로, 굴은 255,851(貫)이고, 민어는 96,993(貫)이고, 갈치는 38,000(貫)이고, 도미는 34,000(貫)이고, 오징어는 23,343(貫)이다. 어획고는 도미 - 민어 - 갈치 - 굴의 순으로, 도미는 68,000원이고, 민어는 57,195원이고, 갈치는 15,200원이고, 굴은 12,925원이고, 오징어는 5,835원이다.

가장 많은 양을 어획한 굴의 가격이 가장 적다. 오징어는 그 양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보아 당시에는 어물로서의 가치가 낮았음을 엿볼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안면도 등지를 모두 포함한 어획량과 어획고이지만 천수만의 사정을 엿보는 자료로 활용 가능하므로 소개하였다.

3) 반농반어(半農半漁)와 어로활동

내륙과 달리 천수만 연안의 마을주민들은 천수만의 풍부한 어족자원을 대상으로 한 생업활동이 가능하다. 때문에 농업을 기본으로 하지만 어업을 하는 반농반어(半農半漁)의 생활양태를 이룬다.

현재의 행정편제로 볼 때에 천수만 주변에 위치한 마을은 부석면 가사리, 송시리, 갈마리, 봉락리, 대두리, 칠전리, 마룡리, 창리, 간월도, 인지면 강당리, 산저리, 모월리, 야당리, 서산시 양대동, 장동, 오남동, 덕지천동, 해미면 귀밀리, 석포리, 언암리, 고북면 신정리, 사기리, 봉생리, 기포리, 남정리 등이다. 물론 이외에도 천수만의 물길이 밀물이 되어 내륙으로 밀려들어오면 이들 마을은 해안에 위치한 마을과 해수가 밀물을 밀고 들어가 해수의 영향을 받는 지역까지 포함한다면 이 보다 훨씬 많다. 그러나 직접적인 천수만 문화권이라면 이들 마을들을 꼽을 수 있다.

이들 마을들 중 창리와 간월도를 제외한다면 대다수의 마을들에서 반농반어

의 생업형태를 유지했다. 주민들은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본업이 어업은 아니었어요. 어업이 하루 종일 하는 것이 아니여. 하루 2시간만 하면 되요. 바드락 잡고, 게 잡고 하는 것이 3시간 정도 하면 되여. 농사도 짓고, 어업하고, 지금같이 어가가 비싸면 전업할 수 있지만. 겸업이 50%라면, 전업하는 가구가 20%여요.

이처럼 겸업의 비율이 높았던 것은 오늘날과 달리 활어가 거래되지 않았고, 판로 개척도 어려웠고, 어획양도 많아 어가(魚價)가 낮았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이 상품경제가 발달되지 않아 돈이 있어도 물건을 구입할 수 없었기에 자급자족이 필수이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주식이 쌀과 보리이므로 자급자족해야 했으나 천수만 해변에는 농지가 발달되어 있지 않았다. 때문에 어업이나 화염 등의 보조 생업 수단이 필요했다. 때문에 대부분의 마을들에서 반농반어를 유지했다.

물론 농업만으로 경제가 유지된다면 굳이 어업에 종사하지는 않았다. 개펄작업이나 어선업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고, 생산한 어물은 직접 판매를 해야 했기에 어려움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농지가 부족한 이들이 주로 어업에 종사했다. 농지가 있는 마을들에서는 취미로 고기를 잡았을 뿐이다. 간월도, 창리, 봉락리 2리 정도만이 전업 어촌이라 할 수 있다.

이들 마을들에서는 어선업이 활발했했기에 전주민이 어업에 종사할 수 있었다. 중선 한 척에 선원이 7~9명이 승선하므로, 3척만 되어도 27명이 필요하므로 전 주민이 동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칠전리, 갈마리, 지산리 등의 어업 조건이 좋은 마을들에서는 후리질배, 방그물배, 뗏마 등을 이용해 중소규모의 어업 활동을 했다.

그 구체적인 사정은 『서산시지』에 수록된 대정 14년의 어업별 주요 어장 및 어기(漁期)의 내용을 통해 살필 수 있다.

[표 3] 어업별 주요 어장 및 어기(대정 14년, 『서산군지』)

어업별	내지인(일본인) 경영			조선인 경영			漁期	주요어장
	출어 선수	승조 인원	어획고	출어 선수	승조 인원	어획고		
방렴 (方廉)					126인	25,200원	4~10월	군내 각 연안
어전 (魚箭)					60인	7,200원	4~10월	군내 각 연안
주목망 (柱木網)				3척	9인	2,500원	4~10월	안면도 연안
건건망 (建乾網)				2척	15인	35원		부석면 연안
하망 (鰕網)					7인	1,680원	4~6월	해미면 연안
지에망 (地曳網)	2척	36인	1,050원	2척	18인	780원	5~6월	남면 연안
안강망 (鰓鱓網)				32척	160인	64,000원	4~7월	철산, 연평, 굴압 강화, 원산 일원
투망 (投網)					7인	95원	9~10월	서산면 일원
연승 (延繩)	3척	15인	2,500원	112척	477인	89,601원	4~9월	군내 연안, 녹도 어청도 연안
일본승 (一本繩)				69척	275인	7,640원	2~12월	군내 연안, 녹도 어청도 연안
나잠 (裸潛)	5척	40인	11,205원	3척	24인	6,730원	3~10월	군내 연안, 녹도 어청도 연안
포개 (捕介)					1,500인	74,000원	4~8월	군내 각 연안
춘류망 (鱗流網)	2척	8인	2,500원				1년 내	
계	12척	99인	17,255원	223척	2,678인	340,349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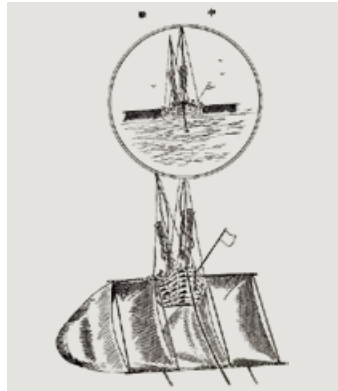
위의 [표 3]에 표기된 어업방식은 13종이다. 이중 천수만 지역에서 시행된 어법은 굽은 선으로 표시된 7종이다. 어선과 연관된 어법은 중선(中船)에 안강망을 싣고 다니는 안강망 어법, 작은 배에 후릿그물이나 방그물을 실은 건건망, 연승 어법이 있다. 이중 중선은 선원이 7~9명이 승선하며, 그물도 4통을 싣고 다니며, 목포와 연평도를 오가며 철에 따라 고기를 잡았다. 안강만이 보급된 후 들어왔기에 흔히 안강망어선이라 부른다.

중선보다 작은 배에 방그물이나 후릿그물을 싣고 다니는데, 위의 표에서는 부석면에서만 행했던 건건망 어법과 연승 어법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 배들은 천수만의 내안에서만 조업하므로 낚시배 보다 조금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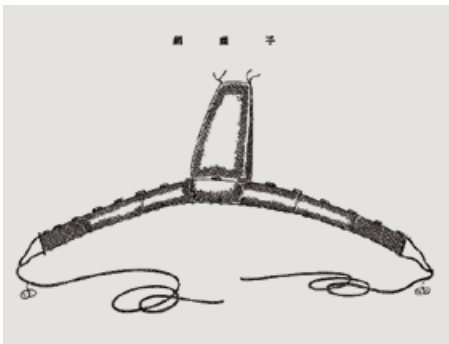
이중 건건망은 그 실체가 분명하지 않으나 부석면에서만 사용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지역에서 행해졌던 방그물[放網]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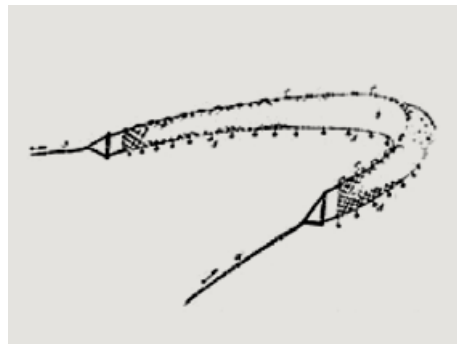
연평도에 집결한 조기 안강망 어선
(『일본지리풍속대계』 재인용)



중선(『한국수산지』1권)



방그물(『한국수산지』1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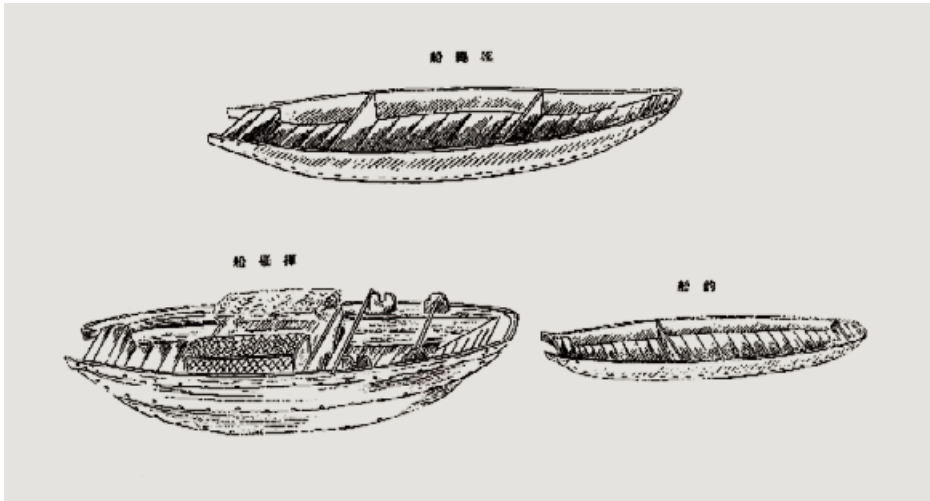


후릿그물(『한국수산지』1권)

방그물은 일본의 데구리아미를 모방해서 사용하기 시작한 그물의 일종이다. 『한국수산지』에는 이것의 전래경위를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지금으로부터 15~16년 전에 일본통어장의 가자미수조망을 모방한데서 시작되었다고 하였다. 자루그물과 날개그물의 그물감은 마사 또는 면사로 만들었다. 너비 10척, 길이 30척 정도의 어선에 어부 8명이 타고, 저녁에 출어하여 조업한다. 어장에 이르면 닻을 내리고 어망을 친 뒤에 어선의 뺏전에서 어망을 끌어 올린다.”

이러한 방그물은 칠전리와 그 인근 마을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이에 반해 후릿그물은 천수만 일대에서 다수 확인되었다. 본래 후릿그물은 배를 이용하지 않고 갯고랑에서 행하기도 했던 전통어법의 일종이다. 배를 이용해도 조업하는



주낙배, 낚시배, 후리질배(『한국수산지』1권)

공간은 갯고랑으로 동일하다. 어선을 사용하지 않는 후리질은 천수만의 대부분 지역에서 시행되었다. 방그물이 어선이 끌고 가는 힘으로 고기를 잡는 방식이라면, 후릿그물은 갯고랑에 사람의 힘으로 그물을 끌어 당겨 고기를 잡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 지역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된 어선은 목선인 ‘닷배[땃마, 작은배]’이다. 그 종류는 위의 그림과 같다. 닷배는 낚시를 전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낚시배로, 주낙을 전용으로 할 때는 주낙배로 짓고, 후리질이나 방그물을 사용할 때는 해당배로 짓는다. 이들 배들을 흔히 ‘닷배’라 칭했다. 이들 배는 그 크기가 작아 먼 바다로는 나갈 수 없기에 천수만 내안에서만 조업했다. 천혜의 어족자원이 풍부했기에 멀리 나가지 않아도 충분히 조업이 가능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곳의 중선은 조기나 새우젓 잡이 철이 아니라면 굳이 멀리까지 나가지 않



1976년 사기리의 닷배

고 천수만 내·외안에서 고기를 잡았다. 어업 비중이 높았던 간월도와 창리 어민들도 천수만의 초입에 위치한 홍성군의 죽도(竹島)까지 나갈 뿐 대부분 자신의 마을을 중심으로 위·아래를 오가며 조업했다. 천수만 외안이라야 백사장까지 가는 것이 고작이었다. 천수만을 가로질러 닻배로 노를 저어 죽도까지 가려면 보통 2~3시간 여가 소요되었기에 썰물에 조업을 하고, 밀물에 돌아오는 당일 어업이므로 멀리 나가지 않았다. 때문에 천수만 내안에는 수백 척의 배가 빼곡이 들어서서 조업했다.

위의 [표 3]에는 어선이 없어도 조업이 가능한 어법도 다수 확인된다. 방렴, 어전, 투망 등이 그것이다. 이중 천수만에서 가장 많이 확인되는 어법은 방렴과 어전이다. 조수간만의 차이가 크고, 수심이 낮아 개펄이 넓게 드러나는 천수만에는 갯고랑이 잘 발달되어 있다. 이에 크고 작은 갯고랑의 끝부분에 이들 방렴과 어전 등의 함정어구를 설치할 수 있었다. 송시리와 갈마리 사이로 큰 갯골이 흐르고, 그 인근에는 크고 작은 갯골이 위치해 있어 어전을 20개 정도 설치했다. 어전은 고려시대부터 사용된 대표적인 전통 어구로 육지에서 행하는 다른 어법과 달리 매일매일 어획이 가능하고, 어획양도 많아 큰 사업으로 불렸다. 관청에서 운영하던 ‘관전살’도 있었다. 이러한 살 이외에 대부분의 마을에는 어살 혹은 어전이 3~5개씩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위의 [표 3]에 서산군 연안에 설치되었다고 소개된 방렴(方廉)은 다음과 같다.

방렴은 함경, 강원, 경상 각도 연해에서 청어 또는 대구를 주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수면에 설치한 어구를 뜻한다. 연안의 수목, 거석, 혹은 말목에 묶은 한 줄의 갈피제 밧줄을 직선으로 바다 속으로 뻗치고 이에 갈대 또는 대로 만든 밧을 세워 장등으로 삼았고, 그 종점에는 방향의 임통으로 되어 있다. 임통의 양단에는 해안을 향하여 장등의 밧과 동일한 밧을 방사형으로 세워 날개를 세웠다. 이

날개를 화개, 활자가지, 활애라 부른다. 발은 갈대 줄기 3, 4개를 합친 것 또는 가늘게 쪼갠 대를 3단 또는 4단으로 엮어서 만든다.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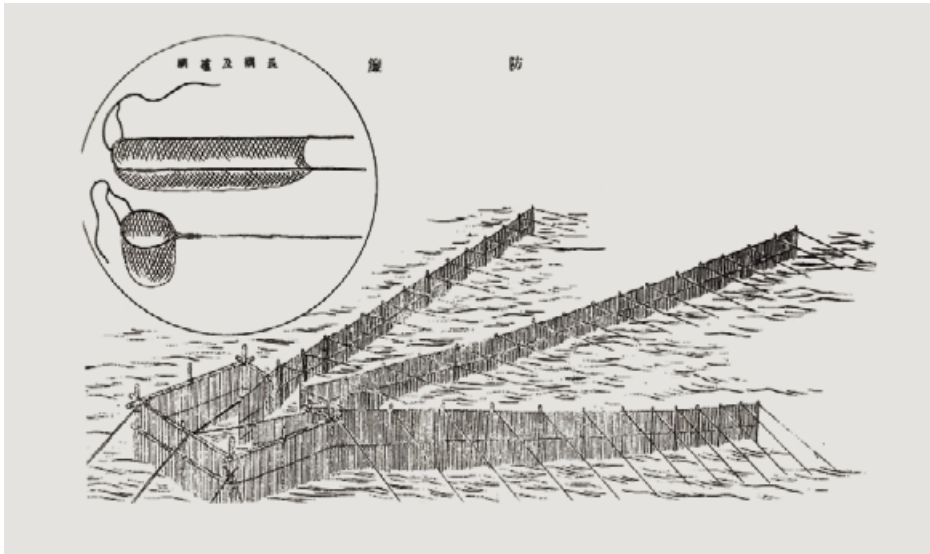
그러나 천수만 지역에는 이처럼 갈피제 밧줄로 엮어 만든 형태는 확인되지 않는다. 당시 서산군은 가로림만과 안면도도 포함되므로 해당 지역에서 사용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다만 천수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있다. 위의 [표 3]을 볼 때에 어전에 비해 방렴의 수가 많은데,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천수만의 사정을 고려해 본다는 방렴이 위에서 인용한 함경, 강원, 경상도 지역의 방렴과 다른 형태였을 가능성이 있다. 천수만 연안에서 다수 확인되는 정치어구는 ‘어살[魚簾]’이다. 주민들은 흔히 ‘살’이라 부른다. 어전은 본래 서해안 및 서남해안 일대에서 많이 설치하던 정치어구로, 조기, 새우, 갈치, 오징어, 달강어, 병어, 서대 등의 조수 간만에 따라 연안에 내왕하던 모든 어류를 포획할 목적으로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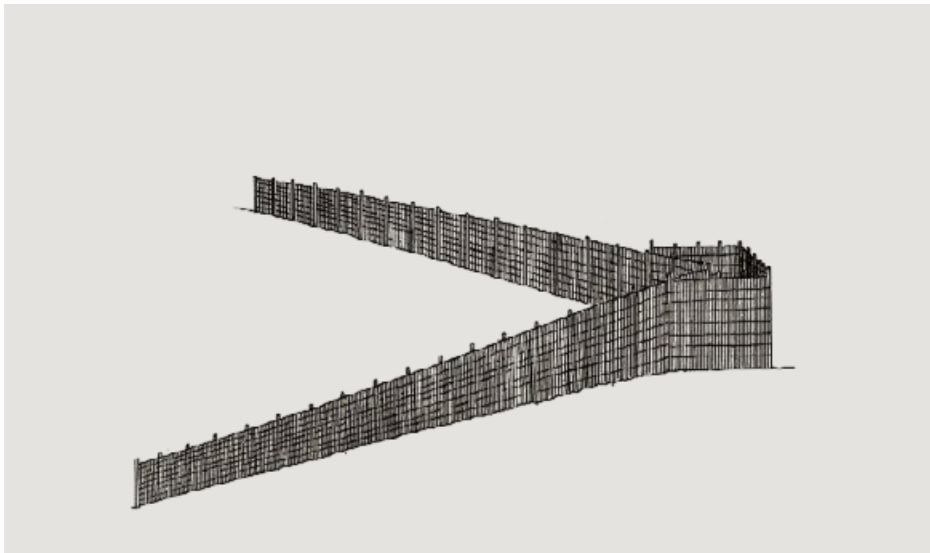
그 구조를 보면 방사형 또는 만형으로 지주를 세우고 거기에 대, 갈대 또는 싸리 등으로 만든 발을 둘러치고 중앙의 1개소 또는 좌우의 양 날개에 각각 1개의 임통을 설치한다. 조류를 따라 퇴거하던 어류가 양 날개에 차단되어 임통에 들어갔을 때 이를 잡는다. 이곳에서는 임통이 1개인 것은 어살, 임통이 2개인 것은 어렴이라 부른다.

이곳에는 임통이 1개인 어살과 2개인 어렴이 모두 확인된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어렴을 군발이라 부르기도 한다. 군발은 어살 보다 작은 살로 해안가에 넓게 치는 살을 말한다. 이러한 정치어구는 전통어법으로 어선 없이도 중소규모의 어업활동이 가능하다.

17) 박구병 외,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 어업용구 편』, 문화재연구소, 1992, 275~276쪽.



방렴(『한국수산지』1권)



어전(『한국수산지』1권)

이상의 [표 3]은 신고를 한 어업도구이지만 이외에도 천수만 일대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어로행위가 있었다. 자급자족의 생활경제를 유지하던 시절에 천수만의 어패류는 훌륭한 반찬이었다. 전업농일 지라도 저녁 반찬을 위해서 혹은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기를 잡았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밤에 횃불을 밝히고 하는 ‘해루질’이다. 횃불을 밝히고 작살로 찍거나, 맨손으로 고기를 잡는다. 해루질은 주로 여름철에 하는데, 허리까지 혹은 무릎 정도를 물속에 담그고 모여드는 고기를 잡아야 하므로 추워지면 할 수가 없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해루질을 해서 고기를 잡아 반찬으로 먹었다. 낮에 사용하는 작살은 대나무의 길이가 3미터로 길고, 밤에 사용하는 것은 1미터로 짧다. 작살로 찍어 잡으면 상품가치가 없으므로 맨손으로 더듬더듬하는 더듬이질로 잡기도 한다. 그러나 식구들이 먹을 것이므로 작살로 잡았어도 상관없다.

어가가 비싼 어종인 도미를 잡기 위해서 이곳에서는 도미주낙을 주로 놓았다. 도미주낙은 굴밭 사이나 갯고랑에 설치하며, 사시사철 할 수 있는 어로방식이었다.

이외에 보다 많이 행했던 어로행위는 낚시이다. 배 위에서 혹은 해변 가에서 낚시를 즐겼다. 간월도에서는 어선이 없는 사람은 대부분 조기새끼를 잡기 위해 낚시질을 했고, 연안 마을에서는 낚시대를 들 수 있을 정도의 나이만 되면 아이들이 낚시를 하러 다녔다고 한다. 특히 학교에 다녀온 후 소일거리로 낚시를 즐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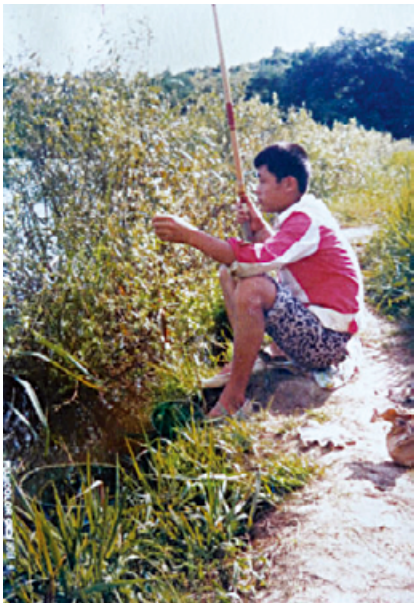
여름철에는 물속에 들어가 어획하는 사두와 반두를 이용해 고기를 잡기도 했으며, 여름철 갯고랑에서는 쪽과 시영풀 등의 독풀을 풀어 고기를 잡기도 했다.

굳이 이러한 어로활동을 하지 않아도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에 바닷가에 나가면 파도에 밀려 떠 밀려 온 오징어나 게 등을 손쉽게 주울 수 있었다. 오징어는 물살에 뒤집어지면 되뒤집을 수 없어 뒤집힌 채 개펄로 떠밀려 왔다.

펄과 모래가 섞인 개펄에는 지역별로 다양한 어패류가 서식했기에 그것을 잡



작살로 고기 잡기(『한국민족대백과사전』)



오징어 줍기(마룡리 김복연 씨 제공)

낙시질(마룡리 김복연 씨 제공)

아 팔기도 하고 먹기도 했다. 더욱이 농지가 없는 사람들은 바다에만 나가도 쉽게 어패류를 구해 돈이나 식량으로 바꿀 수 있었기에 많은 이들이 이곳으로 유입되었다. 맨손어업만 해도 돈이나 식량을 구할 수 있기에, “돈을 꾸러 가지 말고 바다로 가라”라는 말을 한다. 이처럼 천수만의 풍부한 어족자원은 주민들에게 풍족한 경제생활의 토대였다. 그래서인지 천수만 지역 주민들은 “천수만은 은행이다” 혹은 “천수만은 보고이다”라고 표현한다.

특히 농지가 부족한 천수만 주변 마을주민들이 부족함을 채워주었다.

이처럼 넉넉한 천수만을 대하는 어부들은 결코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농사는 1년을 단위로 수확이 발생하지만 어물은 본인이 노력만 한다면 언제든지 필요한 만큼만 어획하는데, 당일 먹든 판매하든 소화할 수 있는 만큼만 잡는다. 고기를 담는 그릇인 부거나 종태기에 어물을 가득 담으면 개펄을 걸어 다니기가 어려우므로 본인이 지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만 채취한다. 때문에 부고는 자신의 키나 힘에 따라 크기를 달리해 사용했다.

어물의 가격이 낮고, 활어를 유통시킬 수 없었기에 고기를 잡아도 큰 수입이 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노력한다면 먹고 살 수는 있었기에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많았다. 어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쉽게 돈을 벌 수 있기에 배움을 멀리 했다. 물때에 따라 단 몇 시간만 조업하면 나머지 시간은 쉴 수 있었기에 해안가 마을마다 술집 서너 군데씩이 성업했다. 칠전리의 통개는 마을 포구이지만 중선이 닿았기에 술집이 7~11집 정도였고, 매일 돼지 한 마리씩을 소비하며 흥청떳다고 한다.

그러나 곡물이 주식이었기에 농사는 중시될 수밖에 없었다. 농지가 별반 없었기에 일찍부터 간척이 시행되었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마을 주변에서 간척이 용이한 곳이 간척되었다. 반농반어의 생업양태는 천수만이 주는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주민들의 선택이었던 것이다.



호미로 바지락 캐기(마룡리 김복연 씨 제공)



바지락을 캔 후 마을로 돌아가는 가족들(마룡리 김복연 씨 제공)

4) 해안가에서 부업(副業)으로 행한 화염(火鹽)

수심이 얇고 개펄이 넓게 조성되어 있는 천수만의 해변 마을들에서는 소금을 직접 만들어 먹었다. 전통적인 소금 생산방식인 불에 소금물을 줄여서 소금을 생산하는 것으로, ‘화염(火鹽)’이라 불렀다. 1950년대 이후로는 이곳에 전매청에서 대규모 천일염전을 만들고 손쉽게 천일염을 생산하면서 그 전통은 소멸되었다. 마을마다 화염을 굽던 곳은 ‘벗’, ‘벗터’, ‘벗말’ 등의 지명이 붙어 있다. 그동안의 서산군에 보고된 자료인 『인지면지』와 『서산지명사』 등에서 다수의 염벚이 확인되었다. 인지면에는 애정리 1·2구, 야당리 2구, 산동리 점터, 모월리 한갯골, 모월리 벗등성 등에서 화염을 했으며, 고북면에는 남정리 남정염안, 남정3리 도방장터, 기포리 1리 염전자리, 벗개(1950년대 중단), 기포리 2리 별말(평촌), 정자리 충대염전, 봉생리 2리 단대염전, 벗둑개 등에서 화염과 천일염을 생산했다고 한다.

그러나 일찍이 중단된 화염에 대한 기억은 현재 83세 이상되신 분들 사이에 희미하게 남아 있을 뿐이다. 부모 세대가 하던 것을 도와주며 경험한 것이며, 70대는 화염했다는 소리를 들어보았을 뿐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다고 한다.

현재 83세 이상 되신 제보자들만이 20세 경에 2~3년 경험했을 뿐이었다. 제보자들은 20세 이전의 1~2년의 짧은 경험만을 했기에 화염과 관한 명칭이나 작업과정 등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전해주지는 못했다. 제한적이거나 제보자들에게 전해들은 화염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우선 화염은 농업을 하는 이들이 농한기를 이용해서 행하던 부업(副業)이었다. “소금 값이 금값이여” 라고 하는데, 고소득을 올릴 수 있었기에 부지런한 사람들이 겸업으로 행했던 것이다. 이 지역에는 땀값이 부족해서 화염하는 땀값은 안면도 등지에서 구입해 와야 했다. 이 같은 생산방식은 태안 등지에서 전업으로 행하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 화염의 실태를 이해하기 위해 우선 1926년의

『서산군지』의 제염(製鹽)조의 내용을 통해 그 양상을 살펴보자.

“종래 본군 연·해안 각 면에 전오염(煎熬鹽)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매우 많다. 그 제조고 또한 큰 액수에 이르며 본 도 소비의 70%가 모두 이 군에서 공급하며 경기도 방면 역시 배로 운송한 것이 많았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이 업 종이 점차 쇠퇴했는데 그 원인인 ① 관제염 - 관제염은 아직 본 군에 반입되어 매매되는 상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 이 있었고, ② 지나염(중국 소금)이 많이 수입되었고, ③ 뿔감이 부족했고, ④ 지방의 농단(壟斷) 자가 전염 자금을 공급하고 고리를 붙여 회수했고, 또 염가로 제조염을 매입했기 때문에 염업자들이 그 산출로는 빚을 갚는 것이 부족해 해마다 가난과 궁핍함이 더해져서 소금 제조업을 하는 일을 진작시킬 수 없었다. 대정 14년(1925)의 상황을 보자.¹⁸⁾

[표 4] 제염(1926년)

면명	제염자수			염부수			면적	1년 제조고		비고
	주업	겸업	계	주업	겸업	계		근수	가액	
부석		91	91		17	17	11,200	29,100	8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근 반 3전으로 가격이 같았음. • 본 군에는 혼화염과 재제염이 없고, 바닷물로 소금을 만든 것만 있음 • 본군의 1년 소비량은 3,838,598근이며, 부족한 소금 134,369근은 일본소금으로 공급했음
팔봉		7	7		1	1	3,500	15,800	474	
지곡		33	33		4	4	1,750	9,900	297	
대산	19	75	94	10	10	20	32,000	45,000	1,350	
해미		6	6	1		1	3,000	5,000	150	
고북		65	65		11	11	65,700	120,000	3,600	
안면		117	117		18	18	114,000	837,000	25,110	
이북	100	200	300			25	82,500	1,108,300	33,249	

18) 『서산군지』(1926년), 73~74쪽의 내용을 인용하였다.

위의 [표 4]에는 1926년에 서산군의 각 면별 소금생산자수와 염부수, 1년 생산량과 액수가 담겨져 있다. 이중 굵게 표시한 것이 천수만 지역이다. 이 [표 4]에서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안면과 태안군 이북을 제외한다면 천수만 지역인 고북과 부석면 지역의 소금 생산이 많다는 점이다. 이들은 주업이 아니라 모두 겸업이다. 소금 생산을 가장 많이 했던 태안군 이북면에서는 주업이 100이고 겸업이 200으로, 부석의 3배 이상이고, 그 생산량은 8배이다. 천수만 지역은 겸업이지만 생산량에 있어 이북 - 안면 - 고북 - 부석으로 많아 서산군 내에서는 이들 지역이 화염의 주생산지였다고 하겠다. 이처럼 부업으로 많은 양의 소금을 생산할 수 있었던 것은 화염하기에 좋은 입지적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넓고 길게 펼쳐진 간석지를 활용해야 하는 화염 생산의 적합지였다.

종래의 보고에 따르면 화염을 생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통조금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갈개조금 방식이다. 최근 태안군에서 복원된 자연 생산 방식은 통조금 방식이다. 이곳에서는 갈개조금 방식도 확인되었다.

한편 염벚터의 조건에 따라 간물을 가두는 통의 개수는 달랐다. 보통 소금 굽는 솥이 있는 염벚은 한 개이지만 간수를 모으는 통은 여러 개다. 산동면 1리나 창리 1리의 벚에는 솥은 한 개였지만, 주변에 통 5~6개가 어우러져 있었다. 반면에 송시리 2구 점말에는 솥과 통이 각기 한 개씩만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공간의 활용의 문제일 뿐 생산방식의 차이는 아니다. 보다 중요한 사실은 화염을 생산하는 시설과 방식이다. 조선 후기의 지방지인 『호산록(湖山錄)』 자염조(煮鹽條)에 기록된 이 지역의 소금 생산 방식을 보자.

“소금에는 경염과 정염이 있으니, 경염의 방식으로 소금가마를 설치한 곳(液釜處)은 대산곳, 안면곳, 고과지도, 응도, 간월도와 화변(부석면)이고, 정염의 방식으로 소금가마를 설치한 곳은 안면도의 심항, 대산, 백사장 등지이다. 아! 경염은 비가 와도 굽지 못하고 눈이 와도 굽지 못하지만, 정염은 겨울이고 여름은 물

론 맞든지 비가 오든지 모두 구워서, 공사가 한없는 이익을 보게 되는데, 국가의 일을 피함에 있어서 정염을 즐겨하지 않으니, 무슨 까닭인지 그 마음을 알기 어렵다. (정염은) 그 구어내기를 비가 오던지 눈이 오던지 폐지할 시간이 없다. ... (후략) ...”

위의 기록을 통해 소금 생산 방식이 경염과 정염으로 구분된다는 것과 천수만 일대에는 경염방식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경염은 말 그대로 염밭을 갈아서 만드는 방식으로 간수를 만드는 과정에 따라 통조금 방식과 갈개조금 방식으로 구분된다. 갈개조금의 방식은 수차례에 걸쳐 갯벌을 갈아엎으면서 소금기가 많이 함유된 함토(鹹土)를 모은 후에 별도의 장소까지 운반한 후 그 위에 바닷물을 부어서 함수를 만드는 방식이다.

반면에 통조금 방식은 밀물 때 바닷물에 잠기는 곳에 통을 판 후에 자연스럽게 바닷물이 투과하면서 통 안으로 함수가 모이는 방식이다. 이 지역에서 행해진 두 개의 화염 방식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갈개조금 방식 : 산동리 1구 산저마을의 박창환 씨의 화염

산동리 1구 산저마을의 수문계에는 화염을 굽던 벅이 있었다. 벅은 소금을 굽던 장소를 지칭하는 말로, 이곳에는 철술 하나에 구덩이 5~6개가 있었다. 1960년대에 천일염이 보급되기 이전까지 봄(3~5월)과 가을(9~10월)에만 한 달에 두 번 소금을 구웠다. 해가 길어야 염밭의 건조가 잘 되므로 봄, 가을에만 행했으며, 여름에는 장마철이므로 작업을 할 수 없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농사가 우선이었기에 농사철에는 소금 생산을 중단했다. 화염은 농업에 종사하던 이들이 농한기에 부수입을 챙기기 위해 행했다.

이 마을에서는 갈개조금 방식으로 소금을 구웠는데, 이를 제보해준 박창환 씨는 그 방식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소금 굽는 것은 제일 처음 통을 파요, 통이 뭐냐면 흙을 굽어 넣는 곳이에요. 통 주위를 소로 썰어가지고, 다 일구어서 태양에 3-4일을 말려요.

그걸 언제하나면 조금때, 첫조금에 하면 다섯매날에는 물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 그 안에 말려서 그 통에 넣어요. 넣을 때는 썰레로 넣습니다. 통 주변을 빙 둘러 파서, 사리때 물이 들어오면 흙을 매운 통에 넣어요. 물을 부어서 그 흙을 되바칩니다. 옹기라고 따로 있어요. 통보다 깊이 파서 그것에 걸렀다 부었다 해서 물을 바칩니다. 그 물은 가마솥에 가져다가 붓습니다. 이틀정도 불을 때면 거기서 소금이 나와요.

지금 태양염은 커다랗죠, 화염이라고 옛날 것은 가느다라요. 그 통에다 구운 소금은. 뿔감은 여기가 나무가 없어서 안면도에서 사왔습니다.

(불은) 떨어면 혼자 하는 것도 아니어요. 세 사람내지 네 사람이 자가면서 교대로 당번하듯이 물 마르면 물 붓고, 불 다 타면 나무 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소금을 굽습니다.

판로는. 차가 없어서 팔리는 못다니고, 외지에서 소금 사러 와요.

그러면은 맛바꾸는 썸이어쥬. 그쪽에서 쌀 한말 가져오면 여기서 쌀 한 말 줘요. 그 사람들이 부탁하면 그 사람들이 와요. 그때는 마대가 없었기 때문에 오쟁이가 있어요. 오쟁이가 뭐냐면 섬처럼 엮었는데 죄그만 것이 오쟁이어요. 거기에 소금을 담아서 팔았어요.

소금은 농사철에는 못하고 봄에 해가 길을 때는 해요. 만약에 못 팔면 거기 영으로 엮어서 해이러놔요.(염벧을) 가을에 한가할 때 또 소금을 벧에 보관했다가 팝니다.

소금 굽는 솥은 하나인데, 여럿이서 하기에 통은 많아요. 솥은 하나인데. 서로 양보해서 먼저 구워라 라고 하며 구워요. 소금을 구울 때는 항시 힘들어요. 특히 배로 가서 나무 풀 때 힘들고, 풀어가서 옮길 때도 힘들고, 흙 굽어모을 때 힘들고, 항시 힘들어요.

통을 팔 적에는 몽둥이로 두드려서 안을 다져요. 물이 세지 않도록. 그런 후 빨로 맥질을 해요. 나중에 흙을 파낼 때도 묻어나지를 않아요. 흙을 썬래질 해서 흙을 넣고 해요. 통은 경사지게 만들어서 두 질 정도로 파요. 흙을 파낼 때는 오목가래, 아니 칠목가래로 작업을 해요. 높아서 칠목가래로 해야 속에 있는 흙을 다 파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썬래로 일구어서, 삼사일 말려서 소금을 구워요.

옹기는 통보다 더 깊이 파요. 옹기라고. 그 통에 물을 부우면 옹기에 물이 받아지면 그것으로 소금을 구워요.

소금을 다 구운 후에는 다시 구우려면 통에 있는 흙을 다 파내서, 갯물이 들랑 달랑 해서 그 흙이 갯물을 먹으면 그것을 다시 일구어서 파낸 통에 다시 넣어요.

(갯물의 농도는) 갯물이 짜서 추가 뜰 정도가 되면 소금을 구워요. (통) 여기에 넣던 물을 걸러서 도수를 보는데, 송진 따가지고 송진에 적두, 왕팔을 3개 내지 4개를 넣어요, 그것을 몽쳐서 실로 끈을 맨 들어요. 그것을 그 통에 넣어서 송진이 뜨면 “아! 이것이 세다라고 하면, 그때라 소금을 굽기 시작해요. 물에 안 뜨면 소금이 안 일으니 못해요. 안 뜨면 자꾸 물을 부어야 해요. 자꾸 걸러서 붓고 걸러서 부어요.

조금 때는 통이 있는 곳도 물이 안 들어와요. 간만 차가 높으니까 사리 때는 물이 들어와요. 염밭 있는 곳은 통이 있는 곳보다 3미터 정도 높은 곳에 솔걸고 만들어요.”

이 같은 절차로 만들던 화염 굽는 방식을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바닷물이 깊숙이까지 드나든 곳에 염밭을 만든다. 그 이유는 갯물을 많이 먹은 데서 소금을 많이 얻을 수 있기에 평소에는 물이 많이 드나들지만 조금 때에는 물이 들이지 않는 곳을 염밭으로 삼는다. 소에 썬래를 매달아 통 주변

의 염밭을 가는데, 이 씨레질은 통의 주인이 직접 한다. 소가 있으면 자신의 소를 이용하지만 없다면 소가 있는 분에게 빌려서 작업하고, 품값으로 갚는다. 염밭은 보통 60~100평 정도로, 중앙에 통을 놓고 그 주변을 빙 둘러 수시로 파 갈아가며 흙을 말린다. 소금기가 붙은 흙을 수시로 갈아주면 염기가 더욱 강하게 되어 개펄 흙이 하얗게 된다. 씨레질을 반복한다. 이러한 갈기는 조금 때부터 서매날까지 행한다. 너매가 되면 물이 많이 들어오므로 갈기를 멈추고, 하얗게 소금밭이 선 흙을 통 안으로 밀어 넣는다. 그런 후 열한때부터 소금 구울 준비를 한다.

통은 개펄의 흙은 가로와 세로를 3미터 깊이로 안쪽이 좁은 역 마름모꼴로 파며, 그 아래쪽 더 깊은 곳에 큰 웅기를 넣어 그곳으로 통의 물이 흐르도록 해둔다. 흙을 파내고 통을 만든 후에는 몽둥이로 통 내부를 두드려 다지고 펄로 맥질을 해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해둔다. 이렇게 해두어야 흙을 넣었다가 빼도 통의 흙이 묻어나지 않는다.

갈아둔 소금기를 머금은 흙을 통 안으로 부우면 자연스레 삼각형으로 쌓인다. 소금기를 빼낸 후에는 통에 넣은 흙도 퍼내야 하는데, 이 작업은 소금을 굽는 작업 중 가장 고된 일로, 3~4명의 품을 얻어 함께 한다. 흙을 파서 통 안으로 넣을 때와 마찬가지로 통 안의 흙을 퍼 올릴 때도 품을 얻는다. 각기 1일씩 품을 얻으며, 하루 일을 하면 소금 한 말씩을 주어 이틀 작업이므로 두 말을 준다. 흙을 담거나 퍼 낼 때는 오목가래 혹은 칠목 가래질을 하는데, 깊은 곳에 있는 것을 파 올려야 하므로 다섯 명 혹은 일곱 명이 함께 가래질을 한다.

흙을 파 넣은 후에는 통 위에 짚으로 나래를 엮어 덮어둔다. 흙을 붓고는 바닷물을 떠다 붓는다. 이 작업은 품을 얻지 않고 식구끼리 한다. 밖으로 만든 바가지에 손잡이를 길게 달아 물을 퍼서 무지계에 담아 운반한다. 무지계로 물을 옮기는 작업은 홀로 할 때는 이틀, 두 명이 할 때는 하루 정도 작업한다. 무지계는 나무를 쪼개서 만든 것으로 2말들이 통이다. 물을 부우면 통 안의 소금기를

머금은 흙에서 농도가 진한 소금물이 아래쪽의 웅기로 흘러 내려간다. 농도가 짙은 소금물이 웅기 안에 고이면 염도를 측정한다. 염도를 측정해 소금을 굽기가 적당한 농도가 되면 물 붓는 것을 중단한다. 염도 측정은 계란을 띄워 계란에 뜨면 알맞다고 판단하기도 하지만 보다 고전적인 방법으로는 송진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송진을 둥글게 뭉치는데, 이때 그 속에 적두 3~5개를 넣는다. 이것을 실에 꿰어서 물에 담가 보는데 물에 송진이 뜨면 물이 짜다고 여겨 물 붓기를 중단한다. 웅기에 고인 소금물을 바가지로 퍼서 무지개에 담아 솔로 옮긴다. 이때 뒤편[뒤웅박]으로 물을 푼다.

통은 각기 주인이 있지만 철솔은 여러 명의 통 주인이 함께 관리한다. 소금 굽는 솔은 3~4평(가로 5미터, 높이 20cm로) 정도의 크기로, 쇠로 만들었으며, 솔 주변에는 막대기를 꽂고 짚을 엮어 빙 둘러 막을 쳐 두었는데, 이것을 ‘염막’이라 불렀다. 이 염막에서 소금은 주인들이 직접 굽는다. 혼자 불을 땡 수가 없으므로 다른 통 주인과 함께 3~4명이 공동으로 작업한다. 제보자는 아버지가 소금을 구웠기에 아들이 불을 때를 일을 도왔다. 통을 가진 이들이 순서를 정해 번갈아 가며 소금을 굽는다.

땡감은 안면도에서 사오거나 도비산의 나무를 사용했다. 따라서 화염을 하는 사람들은 미리 여름철인 음력 7월에 나무를 해다 두는데, 한 솔을 구우려면 10 짐 정도의 땡감이 필요하므로 넉넉히 마련해둔다. 인근의 도비산에서 잡목을 베어 오거나, 안면도에서 가시[땡감의 일종]를 가져왔다. 이때는 배를 이용해 실어왔으며, 1년에 1~2회 정도를 여럿이 함께 배를 빌려 옮겨왔다. 불은 화력이 강하지 않도록 은근히 불을 때야 하므로 불 관리를 주의한다. 불을 때는 동안 식사는 집에서 가져다 그곳에서 먹는다.

이렇게 소금을 구우면 한 번에 짚으로 친 가마니로 15가마니 정도를 생산했다. 가마니를 사용하기 이전에는 오쟁이에 소금을 담았다. 오쟁이는 3~5말 정도를 담을 수 있도록 짚으로 엮어서 만든 것으로, 보통 50kg 정도씩 담았다. 화

염은 천일염과 달리 소금의 크기가 작고 곱다. 소금이 귀하던 시절이었기에 “소금은 앉아서 판다.”라고 한다. 소금이 구워졌다는 소식이 전해지기가 무섭게 판매되었으며, 도매상이 배를 이용해 인천과 군산 등지로 가져가기도 했다. 한 제보자는 소금을 싣고 군산에 가서 판매한 후 그 대금을 가지고 기생집에 가서 모두 소진하고 왔다고 경험담을 이야기 한다.

새우젓을 잡는 중선배는 직접 와서 소금을 사서 싣고 나갔다. 밖으로 내가는 소금도 많았지만 마을 주변에서 거래되는 것이 보다 많았다. 소금은 쌀과 1:1로 거래되었으며, 돈을 내기도 하고, 곡식으로 바꾸어 가기도 했다. 본인이 이고지고 갈 정도만을 구입해 가는데, 소금자루는 구입해 가는 사람이 직접 가져온다. 보통 40kg 단위로 구입해 갔다. 간혹 소금이 남으면 소금을 생산한 사람이 직접 소금을 짚어지고 산 너머로 다니며 팔기도 했다.

통조금 방식 : 창리의 전용원(83세) 씨의 염벗

창리 새평에도 염벗이 있었다. 비교적 넓지는 않았지만 이곳은 바닷물을 이용하기가 좋았기에 벗을 설치했었다. 비록 벗이 원안에 위치했었지만 수문으로 바닷물이 드나들었고, 물을 퍼 올리기가 쉬워서 베틀로 이용했다. 염벗 옆에는 솔 한 개와 통 4개가 있었다.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은 한 명이지만 통마다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을 두어 생산을 맡겼다. 한번 불을 때면 100근 짜리 소금가마나 8~9개를 생산했다.

소금을 구우려면 땀감이 많이 필요하므로, 미리 마을 주변의 이곳저곳에서 나무를 베어다 쌓아두고 사용한다. 소금을 굽는 본인이 직접 나무를 준비하고, 소도 마련한다.

염벗의 위치는 조금 때에는 바닷물이 미치지 않는 곳이지만 사리 때에는 물이 들어오는 곳이어야 한다. 이에 소금은 한 달에 두 번만 구울 수 있다. 통은 가로 1~2미터에 높이는 2미터 정도로 해두며, 열한때부터 열다섯때까지는 통

주변의 흙을 소로 간다. 씨레를 매어 개펄을 갈면 개펄의 염기가 햇빛에 노출되어 하얗게 된다. 조금 때는 계속 씨레로 땅을 뒤적거리며 말리는데, 물이 들어올 즈음이 되면 나래를 이용해서 뒤집어둔 개흙을 통 주변으로 모은다. 이어 바닷물이 들어오면 흙에 배인 진한 농도의 소금물만이 통 안으로 흘러 들어간다. 사리 때는 다섯매부터 열매까지이다.¹⁹⁾

통 안의 소금물 농도를 보아 적당하면 솔으로 소금물을 옮긴다. 이때 소금물의 농도는 송진 뭉친 것을 실에 꿰어 대나무에 매달아둔 것으로 보는데, 소금물에 넣어 이것이 뜨면 염도가 강한 것이므로 곧 소금물을 꺼내 솔으로 옮긴다. 가마솔은 옹기로 만들었으며, 24시간을 끓이면 100kg짜리 8개 정도를 생산했다.

통조금 방식 : 부석면 송시리 임영재 씨의 화염

송시리 점말에는 염벚이 여러 기가 있었다. 과거 염한이로 활동한 제보자(임영재, 83세)는 부친인 임창호 옹을 따라 2년 동안 소금생산에 참여한 경험이 있을 뿐 본격적인 작업에 참여하지 않았기에 자세한 내용은 기억하지 못했다.

염벚은 펄하고 모래하고 섞여진 곳에 설치하는데, 사리 때에는 물이 들어오지만 조금 때는 물이 들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

염벚에는 여러 개의 통이 있고, 그 주변에는 소에 씨레를 매달아 개펄을 가는데 이를 ‘씨럭질[씨레질]’이라 한다. 보통 통 주변에는 200평 정도로, 전체 벚터는 5,000평 정도가 된다. 처음 가는 개펄은 소에 씨레를 매서 간다. 갈아 두면 개흙이 햇빛에 노출되어 하얗게 된다. 서매부터 아홉매날까지 ‘호락질’로 씨레질을 한다. 외사리에는 물이 많이 들어와 통까지 물이 덮이므로 작업을 하지

19) 서매가 되면 ‘산집’이라 하는데, 이는 물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때를 일컫는다. 11매는 조금이 되기 시작하는 때로, 12매, 13매가 되면 간조금이라 한다. 14매는 무시라 하는데, 이 날에는 물이 제일 안 나간다. 객기는 물이 많이 들어오고 가장 많이 나가는 때를 말한다.

못하고, 중사리에는 물이 많이 들지 않으므로 작업이 가능하다. 호락질은 집안 식구들끼리 작업하는 것을 말한다. 씨레질하는 토지 중앙에는 통을 한 개 만들어 두는데, 이 통 주위를 빙빙 돌며 ‘염전갈이’를 한다. 하루에 세 번씩 동일한 부위를 간다. 소를 소유했거나 작업량이 많은 이들은 소로 씨레질을 하지만 소가 없거나 일량이 적은 사람은 첫날만 소를 이용해서 씨레질을 하고, 그 다음날부터는 사람이 고무래로 끌고 다닌다. 딱딱한 개펄 흙을 소로 씨레질을 해두면 그 다음부터는 부드러워서 사람의 힘으로 고무래질만 해도 된다. 날이 좋으면 일주일 정도를 갈지만 비가 오면 오래도록 갈아야 한다. 고무래는 2미터 이상으로 크게 만든다.

염밭 중앙에는 통을 파 둔다. 통은 보통 20리터 물이 20통 정도 들어갈 정도의 크기로, 무지개[물지게]로 10짐 정도의 물이 들어간다. 통 안에는 띠로 엮은 발로 빙 둘러 놓는다. 흙이 베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통 위에는 대나무와 억새를 섞음섞음 엮어서 발을 만들어 올려 두어 소금기가 통 안으로 스며들어가도록 해둔다. 여러 번 간이 오른 개흙을 통 주변으로 긁어모아 두는데 바닷물이 밀려들면서 개흙의 소금기가 물에 섞여서 통안으로 흘러 들어간다. 염기를 머금은 흙에서 소금물이 걸러지면 사리 이전에 물을 걸러야 소금을 구울 수 있다. 또한 염밭을 가는 조금 전에 날이 좋아야 소금을 생산할 수 있다.

물이 어느 정도 고이면 송진을 지름 2~3cm 정도 되도록 둥글게 뭉치는데, 그 중앙에 밥풀 한 개를 넣어 실을 꿰고, 실의 끝에는 대나무를 매달아 손에 잡을 수 있도록 해둔다. 이것을 ‘뽕매[대림]’라 하며, 염도계의 역할을 했다. 뽕매를 통에 담가서 송진의 윗부분이 100원짜리 동전 정도만큼 드러나면 염도가 알맞다. 알맞은 염도가 되면 통속의 소금물을 퍼서 무지개에 담아 가마솥으로 옮긴다. 이 작업 역시 호락질로 작업한다. 보통 아버지와 아들이 작업하는데, 제보자는 아버지를 도와 호락질을 했다고 한다.

솥은 사방 8자 규모로, 높이는 40cm 정도였다. 밑에는 아궁이 시설을 만들어

둔다. 불은 식전부터 때기 시작해서 저녁까지 20시간 정도를 땀다. 불을 때는 사람은 ‘화부’라 하며, 경험자가 해야 하므로 부친이 맡아 한다. 화력이 강하지 않게 약한 불로 ‘끄늘름’하게 때야 하므로 기술이 필요하다. 누룽지가 일어나듯 소금발이 서기 시작하면 불 때는 것을 중단한다. 이렇게 생산하는 소금은 식구끼리 먹는 것이 기본이며, 남는 것은 팔았다. ‘소금금이 금금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소금은 금처럼 비쌌다. 소금은 어물과 달리 팔기가 용이했다. 소금을 구웠다는 소리를 듣고 쫓아가서도 구입하지 못하기도 했을 정도이다. 소금을 구웠다는 소리를 들으면 서둘러 가야 누룽계를 얻을 수 있다. 솔에 눌러 붙은 누룽계는 거저 주었기에 서둘러 갔던 것이다. 누룽계는 소금보다 더 짜므로 계국지를 만들 때 사용한다. 천일염과 달리 화염은 깨끗해서 미네랄이 풍부하다. 인근에서 가장 큰 염밭은 갈마리 고두리 염밭이다. 고두리 염밭이 큰집 염밭이면, 송시리 염밭은 작은집 염밭이다.

웅기로 구운 솔이 한 개 있었는데, 나무 20동을 때면 소금이 완성된다. 한 솔에 소금 8~9가마니가 생산되었다. 땀감은 안면도에서 배어 왔다.

화염은 음력 3~4월, 8~9월에만 생산했다. 나머지 날들에는 농사를 지어야 했고, 비가 많이 오면 씨레질을 해도 소용이 없으므로 중단한 것이다. 이 마을의 화염은 농민들이 여가 시간을 활용해 하던 부업과도 같았다.

이 같이 시행된 서산지역의 소금 굽는 방식은 이미 60여 년 이전에 소멸되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의 이해를 돕고자 태안문화원에서 재현한 자료를 토대로 과정별로 사진으로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씨레질, 자염 재현, 민정희 제공



덩이질, 2013년 자염 재현
(충남넷, 사는 이야기, 2014. 1. 30.(금), 슬로푸드 국제 '맛의 방주' 에 오른 태안 자염에서 인용함)



나래질, 자염 재현, 민정희 제공



통자락 설치, 자염 재현, 민정희 제공



소금물 농도 보기, 자염 재현, 민정희 제공



간수 옮기기, 자염 재현, 민정희 제공



물받기, 2013년 자염 재현
(충남넷, 사는 이야기, 2014. 1. 30.(금), 슬로푸드 국제 '맛의 방주' 에 오른 태안 자염에서 인용함)



불때기, 2013년 자염 재현
(충남넷, 사는 이야기, 2014. 1. 30.(금), 슬로푸드 국제 '맛의 방주' 에 오른 태안 자염에서 인용함)



소금 끓이기, 2013년 자염 재현
(충남넷, 사는 이야기, 2014. 1. 30.(금), 슬로푸드 국제 '맛의 방주' 에 오른 태안 자염에서 인용함)



소금 옮기기, 2013년 자염 재현
(충남넷, 사는 이야기, 2014. 1. 30.(금), 슬로푸드 국제 '맛의 방주' 에 오른 태안 자염에서 인용함)

5) 해변에서 옹기 굽던 점말, 중선에는 새우젓독을

천수만 해안가에는 점말 혹은 사기점이라는 명칭의 마을들이 있다. 이중 대표적인 마을은 송시리의 점말이다. 이곳에서는 주변 마을 주민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옹기를 구워 판매하고, 중선에는 새우젓독을 생산해 공급했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덕적도로 판매하는 새우젓독

송시리 점말(唐村)에는 옹기 공장이 두 곳 있었다. 내륙과 달리 해안가 점말에서는 옹기를 생산해서 새우젓독을 공급했다. 물론 옹기점에서는 다양한 생활 옹기들을 제작했다. 주민들이 요구에 따라 필요한 옹기를 제작해 주었다. 새우젓잡이가 많아지면서 새우젓독만을 집중적으로 생산하기도 했다.

새우젓 잡이 철이 되면 안면도 및 덕적도의 중선이 독을 구입해 갔으므로 일 년 동안 쉽 없이 독을 생산했다. 강수리 2구의 중선도 1970년대까지 이곳에서 독을 구입해 새우젓 잡이를 했다. 이 새우젓독의 주된 소비처는 경기도의 덕적도였는데, 조업을 나가기 전에 중선이 들러서 배에 싣고 출항하기도 했지만 이곳 주민들이 판매를 위해 주남배[짐을 싣는 배]에 실어서 가져가서 판매하는 것이 보다 보편적이었다. 주남배에서 독을 내리고는, 그 배에 덕적도의 빨감을 실어 와서 옹기가마의 빨감으로 사용했다.

바닷물이 얼면 작업도 중단

옹기는 음력 3월부터 10월 말까지 작업한다. 10월이 지나면 바닷물이 얼기 시작하므로 작업을 하지 않는다. 옹기를 제작하려면 진흙, 빨감, 생산된 옹기를 옮길 수 있는 포구가 구비되어야 한다. 점말은 이러한 조건이 잘 갖추어진 곳으로, 작업장 근처에 진흙이 많았다. 바다가 얼기 시작하면 옹기 제작 작업을 중

단하고 점토를 파낸다. 점토 운반은 인부를 구해 작업을 맡긴다. 땀감은 인근의 섬을 돌면서 나무를 베어다가 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강수리 돌뿌리 마을에 거주하며 땀감을 운반했다.

옹기를 구울 때에 유약은 집에서 직접 만들어 사용한다. 콩깍지 등을 불에 태우고 남은 재에 산에서 잡탕(雜湯) 없는 흙을 파다가 양금을 내려서 함께 섞어 옹기에 바른다. 이를 ‘젓물드린다’라고 표현한다. 옹기는 유약을 한 번만 바른다. 일제강점기에 만강(광명단)이 보급되면서부터는 유약을 만들지 않고 약품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옹기 제작소에는 옹기를 제작하는 사람 5~6명과 뒷일 하는 사람 5명이 함께 작업한다. 뒷일 하는 사람들이 진흙을 때로 짚어 반죽한다. 둥근 때와 길고 가는 때를 이용하는데, 둥근 때로 쳐서 뭉친 것을 풀어지도록 하고, 길쭉한 때로는 불려놓은 흙을 다듬는다. 5명이 각자 흙 한 덩어리씩을 털어 내어 작업해서 옹기 제작하는 사람에게 건넨다. 뒷일 하는 사람과 옹기 제작하는 사람이 짝이 되어 각기 흙을 받아 옹기를 제작한다. 새우젓독은 두 말 크기로 가늘고 길게 만든다.

한 사람이 하루 동안 50개 정도의 독을 생산하므로, 하루에 250개의 독을 생산한다. 가마를 한 번 구우려면 독을 1,500~2,000개 정도를 제작해야 하므로 10일 이상을 작업한다. 생산한 독은 마당에 놓고 말리는데, 날이 좋으면 15일, 날이 나쁘면 30일 가량을 말린다. 독이 마르면 유약을 바르며, 독의 표면에는 옹기를 만든 사람이 날아가는 갈매기의 그림을 직접 그려 넣는다.

독은 잘 말려야 터지지 않는다. 가마 가득 옹기를 넣고 굽는 것을 두고 ‘한 굽 굽는다.’라고 한다. 가마의 불은 사흘간 꺼지지 않도록 유지하며 땀다. 온도가 잘 유지하도록 해야 독이 터지지 않으며, 흙이 설면 표면이 거칠어지므로 온도가 내려가지 않도록 불을 때는 동안은 주의한다.

방조제가 건립되면서 옹기 제작도 중단되었다. 옹기를 제작하던 도공(陶工)들은 이곳을 떠나 아산시 도고면의 옹기제작소로 이주했고, 뒷일을 담당하던 이

들은 전업(轉業)했다. 전업한 한 제보자는 목수일을 배워 40여 년 동안 목수로 살았다고 한다. 제보자는 본래 태안군 근흥면 점말에서 거주했는데, 용기제작 기능을 지닌 아버지를 따라 3세에 이곳으로 이주해왔다. 태안 보다 당시 서산 강수리의 용기제작소의 규모가 컸기에 이주했다고 한다.

2. 두 지역 주민들의 삶을 잇는 나루와 포구(浦口)

천수만을 사이에 두고 생활하는 사람들은 두 곳을 잇는 수단으로 나룻배를 이용했다. 천수만의 병풍역할을 하는 안면도와 서산은 천수만을 사이에 두고 있어 상호간의 필요에 따라 왕래해야 했다. 두 지역민이 혼인하게 되면 신랑과 신부는 가마를 탄 채 나루에 실려 천수만을 건넌으며, 안면도에서 어획한 어물도 나루에 실려 서산으로 옮겨왔다. 학생들은 학교를 가기 위해, 행정상의 필요에 따라 각자 이리저리한 삶의 이유로 천수만을 가로지르는 나루를 이용했다. 천수만의 유일한 유인도인 간월도는 내륙과 소통하기 위해 여러 척의 나루를 운영했다. 나루터의 중심은 창리로, 간월도도 창리와 왕래했다. 창리에는 ‘창말 나루터’가 있었고, 안면도 창기리 수애에도 나루터가 있어 서로 왕래했다.

이외에 각 마을에는 천수만에서 고기를 잡는 크고 작은 어선들이 정박해야 하고, 마을 내에서 생산한 물건을 운반하는 상선이 드나드는 선창과 포구와 어물과 생필품을 유통시키는 배가 닿는 포구가 각기 발달했다. 상선이 닿는 포구에는 작은 장시가 열리기도 했고, 그러한 곳에는 주막이 3~7개씩 운영되었다. 해안가의 크고 작은 포구는 주민들의 생필품인 젓갈과 어물이 거래되는 장터이기도 했다. 이곳을 드나드는 배를 ‘젓배’라 부를 정도로 다양한 젓갈이 운송되었다.

수심이 얇은 천수만에 큰 배인 중선이 오갈 수 있는 포구는 몇 안 된다. 부석면 가사리의 사도포(沙渡浦), 강경리포, 봉락리의 나라포, 창리포구, 서산시 양대동의 돌짱포, 덕지천리의 덕지천포, 해미면 귀밀리의 가산포[개삼포], 고북면 신창리 포구, 사기리포, 인지면의 모대포, 산동리 동막의 현장 포구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포구들은 조선시대로부터 중요한 포구 기능을 하던 곳도 있고, 마을 입구에서 중선이나 젓배들이 드나들며 물건을 팔던 포구도 있었다. 그 성격에 따라 구분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역사 문헌 속 천수만의 포구(浦口)

위포

기록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오랜 포구는 『동국여지승람』 산천조에 수록된 포구이다. 이 기록에는 안면곶, 위포곶(葦浦串), 울곶이 기록되어 있다. 이중 안면곶은 안면도이므로 천수만의 바깥쪽이므로 제외하더라도 위포곶과 울곶은 대표적인 천과 관련된 곳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위포곶은 덕지천포로 비정해왔다.²⁰⁾ 군의 남쪽 15리에 위치한 곳으로 포구가 있는 곳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곶이라는 지형적인 조건에 충족되지 않는다. 이에 모월리의 모기대포를 위포곶으로 비정하기도 한다.²¹⁾

그러나 『대동여지도』와 『대동방여전도』에 위포가 기재되어 있어 그 위치를 비정해 볼 수도 있다. 앞의 그림을 보자.

위의 두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위포는 모두 망치(芒峙)에서 이어지는 아래쪽

20) 이은우, 『서산의 지명사』, 2005, 113쪽.

21) 이은우, 『서산의 지명사』, 2005, 130쪽.



『대동여지도』 서산군의 위포



『대동방여전도』의 서산군의 위포

에 위치해 있다. 도비산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 위치해 있다. 그렇다면 이곳은 모월리도 덕지천포도 아니다. 간월호 인근이라기보다 부남호 인근이다. 그렇다면 가사리의 사도포(沙渡浦)가 아닐까 한다. 이곳은 충청, 전라, 경상 등 삼도에서 올라오는 세곡(稅穀)의 수송이 안흥량의 사나운 물길로 어려움을 당하자 고려 인종 13년(1134)부터 조선의 세조 때까지 여러 차례 굴착을 시도했다가 모두 무산된 곳이다. 비록 인평리와 어송리의 수로를 연결하려는 굴포운하의 굴착은 실패되었지만 사도포는 중요한 포구로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태종 13년의 아래의 기록을 보자.

“사도포(沙渡浦)에서 대선(大船)에 무거운 짐을 싣고 정박(碇泊)하는 곳에 도착하려면, 남쪽 방축(防築)에 이르기까지는 6천척이고, 남쪽 방축에서 제 2방축에 이

르기까지는 1천 3백 92척이고, 제 2방측에서 제 3방측에 이르기까지는 1천 3백 척이고, 제 3방측에서 제 4방측에 이르기까지는 1천 3백 척이고, 제 4방측에서 북쪽 방측의 석애(石崖)에 이르기까지는 9백 척이고, 육지(肉地)까지는 2백 66척입니다. 북쪽 방측에서 돈의도(敦衣島)의 대선(大船)을 정박하여 세우는 곳에 이르기까지는 8천 3백 17척입니다. (『태종실록』 13년 8월 10일(병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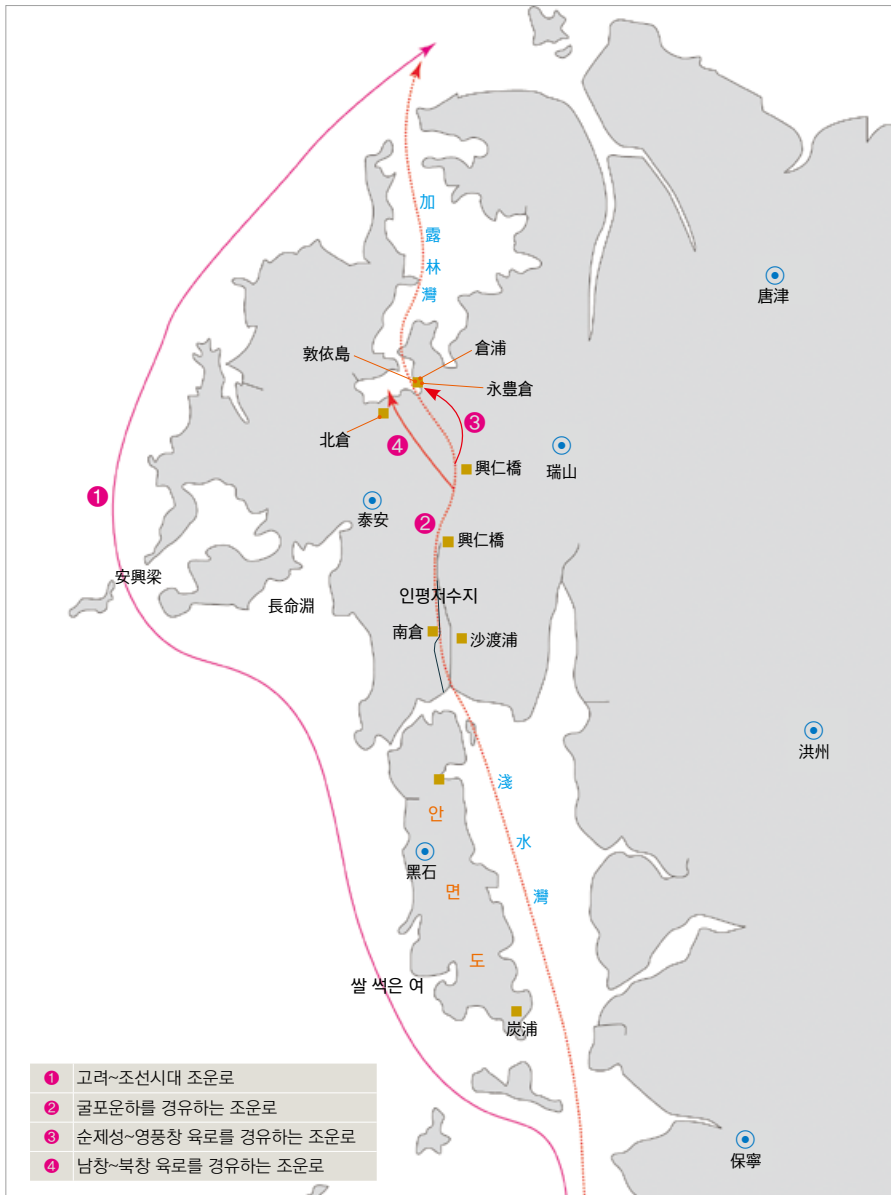
이는 전라도 조운선이 사도포에서 밀물을 타고 남쪽 방측까지 도달 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사도포가 흥인천과 가까운 바다의 초입임을 의미한다. 흥인천은 서산시 부석면 가사리와 태안군 태안읍 인평리의 경계에 위치한 현재의 흥인천을 뜻한다.²²⁾ 따라서 사장포는 이 시기까지 대선이 닿는 중요한 포구였다. 이 시기에 조운선의 정박지는 흑석이다. 흑석과 관련해서는 아래의 기록에 주목하자.

흑석(黑石)의 바깥 암초(暗礁)의 풀이 매월 보름과 그믐에 만조(滿潮)할 때에는 아울러 수중(水中)에 깊이 잠기는데, 비록 물이 얇은 때를 당하여 꽃아 놓은 표말(標木)을 보면 가히 암초의 풀의 소재를 알 수 있으니, 행선(行船)이 어렵지 않습니다. 한결 같이 매월 보름과 그믐에 여섯 번째의 물길(六水)에서 열 번째의 물길(十水)에 이르기까지는 사도(沙渡)에서 대선(大船)이 남쪽 방측(防築)에 이를 수 있습니다. (『태종실록』 13년 8월 10일(병진))

위의 흑석에 대해서 안면도의 창기리로 비정하기도 하지만 위의 기록으로 보

22) 문경호, 「안홍량 굴포운하 유적 관련 지명검토」, 『도서문화』 43호, 2014, 27쪽에서 창기리로 비정했다.

23) 문경호, 「안홍량 굴포운하 유적 관련 지명검토」, 『도서문화』 43호, 2014, 26쪽.



고려~조선의 충청도를 경유하는 조운로²³⁾

았을 때에 부석면 흑석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²⁴⁾ 부석면의 상징표지석인 흑석은 들물과 썰물의 영향으로 물이 가장 많이 빠지는 여섯 번째 물길과 열 번째 물길에만 행행할 수 있다.²⁵⁾ 내륙에 위치한 창기리의 경우 이러한 표지석이 될 수 없으므로 사도포에서 출발하는 대선이 남행할 때에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부석면 흑석 밖에 없다. 그렇다면 사도포, 흥인천, 흑석은 이 시기에 조운의 거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천수만의 물길은 이처럼 고려~조선에 이르기까지 세곡선의 운항과 관련해서 중요한 길목으로 활용되었다.

이곳은 현재 가사리 3리의 수등 지역에 위치한 포구로 추정된다. 중선들이 수시로 드나들었다. 주로 황도와 광천 등지의 배들이 가을철에 젓갈을 가져왔다. 현재 주민들의 기억에는 젓갈철에 주로 중선이 드나들었다. 젓갈과 어물이 도착하면 상인들이 이것을 받아 당진군과 운산면까지 짚어지고 팔러 다녔다고 한다. 젓갈배 이외에 주민들이 운영하던 배도 10여 척 있었다. 건너편의 태안군 송암마을에는 중선과 작은 배가 모두 많았으나 이 마을은 그 보다는 어업이 덜 성했다. 이 마을로부터 천수만으로 흘러 들어가는 인평천은 서산의 팔봉의 물, 태안의 물이 합수되어 흘러내리므로 물살이 세다.

강경리포와 갈마곶포

1872년의 지도에는 화변면 원편 위쪽의 내만한 곳에 위치한 곳과 그 아래쪽에 위치한 곳에 각기 포구가 한 곳씩 확인된다. 위쪽에는 강경리포(江鏡里浦)가, 흑석와 그 아래에는 갈마곶포(渴馬串浦)가 확인된다.²⁶⁾ 두 곳 모두 포(浦)라 표기되

24) 문경호, 위의 글, 2014, 26쪽.

25) 여섯 번째 물길과 열 번째 물길은 오늘날의 물때를 기준할 때에 여섯때와 열때로 일곱때인 사리를 전후하는 날들로, 물이 가장 많이 빠지고 많이 들어오므로 대선이 운행이 가능한 시기이다.

26) 흑석은 갈마리 앞의 검은여[黑磯]로, 지금은 간척지 중앙에 위치해 있다. 간조나 만조에 동일한 형태로 떠 있는 돌이라 하여 뜬돌[浮石]이라고도 부른다. 여기서 유래되어 오늘날의 부석면이라는 명칭이 만들

어 있는 것으로 보아 포구였을 것이다. 이중 강경리포는 돌부리라는 지역이 포구였다. 부석면의 배들이 새우젓과 조기를 가지고 한 달에 두 번 이상 들어왔다. 이곳에는 주막이 서너 곳이 성업했다. 1968년도에 주민들이 간척을 해서 포구로서의 기능이 소멸되었다. 이 마을 내에는 중선 한 척, 뗏마 한 척을 소유하고, 어살은 여섯 기만을 운영하던 순수농촌이라 한다. 주민들의 기억에도 이곳은 갯고랑이 깊었다고 한다.

반면 갈마곶포는 갈마리의 검은여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갈마곶포 옆에 흑도[검은여가 묘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더욱 그러하다. 검은여 일대는 큰 내가 흐르고, 잔 고랑도 많아 어업 지구로서 매우 유리했다. 검은여 주변에 중요한 대선 정박지가 있었음을 감안할 때에 검은여 인근에 중요한 포구가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그러나 현재 주민들에게 이 두 포구는 그저 마을에 젓갈을 가져오는 젓배들이 드나들던 포구로 기억될 뿐이다.



『1872년 지방도』 서산군

어졌다고 전한다.

대교점 · 귀밀포 · 덕지포

1872년의 해미현 지도에서 중요한 포구를 찾을 수 있다. 이를 현재의 지도로 이해하려면 현재의 지도를 오른쪽으로 45°를 돌리면 일치한다. 지도의 하단부의 좌측은 당진군 대호지면이고, 오른쪽은 천수만에서 흘러들어 가는 해미천의 물줄기로 볼 수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현재의 위성지도를 비롯해 1872년 지도와 해동지도를 통해 그 양상을 보자.

아래의 1872년 지도의 하단 오른쪽의 천수만 물길이 위쪽으로 솟아오르듯 하다가 왼쪽으로 휘어져 들어간다. 이를 부분도로 보면 오른쪽의 지도와 같다.

왼쪽 끝부분에 대교천원(大橋川源)이라 기재되어 있다. 이곳은 현재 음암면 유계리로, 한다리[대교(大橋)]라고 불린다. 비교적 큰 물길이 서산과 해미를 가로질러 흐르기에 큰 다리를 건립해 두 지역을 이었다. 조선 후기의 지리지와 고지도에 모두 ‘대교’가 기록되어 있고, 이 하천의 상류는 ‘용유천(龍遊川)’이라 하고, 하류는 ‘대교천’이라 불렀다.²⁷⁾ 이곳을 대교천원을 대교포라 쓰지 않은 것은 이곳이 포구로서의 기능보다는 대교천의 근원이라는 의미가 강하다. 이곳에는 서산계 대교점과 대교점(大橋店)이 각기 위치했다.

대교점은 『임원경제지』 예규지 해미조에 기록된 대교장(大橋場)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곳은 서산과 태안지역에서 공주 감영으로 가는 중요 길목으로 이곳은 공주감영을 오가는 사람들이 쉬어가는 곳이기도 했다.²⁸⁾ 때문에 대교점에는 주점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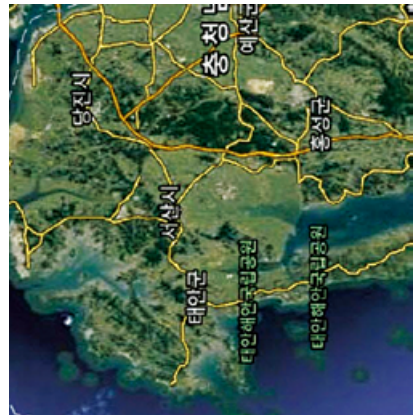
이 물길을 따라 얼마 멀지 않은 곳에 귀밀포(貴密浦)와 귀밀점(貴密店)이 있다. 대교점이나 귀밀점 모두 자관십리(自官十里)라 기록된 것으로 보아 해미현으로부터 10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 동일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귀밀포는 AB방조

27) 「한다리」, 『향토문화전자대전 - 서산시』, 한국학중앙연구원

28) 이은우, 『서산의 지명사』, 2005, 서산시청, 59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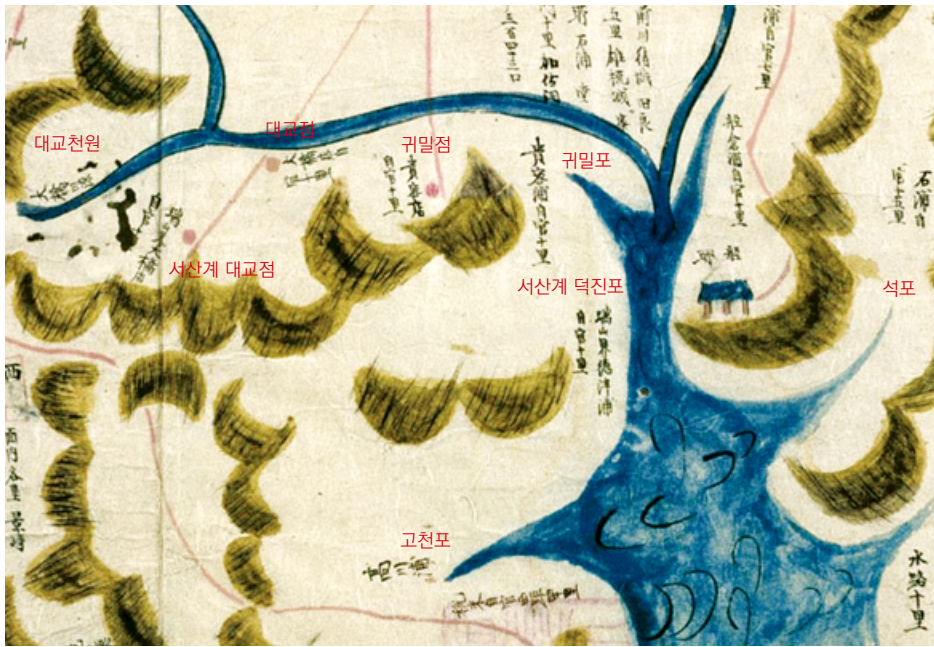
『1872년 지방도』 해미현



충청남도 인공위성 지도



『해동지도』의 해미현 지도



『1872년 지방도』 해미현 부분도의 포구와 주막

제 건립 이전까지 중선이 드나들던 개삼포(開三浦)로 추정된다. 개삼포에 장시가 섰었다는 증언은 들을 수 없었으나 그곳에 주막이 3곳 있었다는 것은 귀밀점의 실체로 볼 수는 있겠다.

귀밀포의 아래쪽으로 덕진포(德眞浦)가 쓰여져 있다. 이곳 역시 자관십리(自官十里)라 기록되어 있다. 이곳에는 점의 실체는 확인되지 않으나 1970년대까지는 이곳에 장시가 섰었다.

이들 대교, 귀밀포, 덕진포는 모두 해미현으로부터 동일 범위 내에 위치했다. 이웃한 마을들에 이처럼 포구와 장시가 개설되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특별한 이유 때문이다. 이곳은 천수만의 어물이나 천수만을 가로질러 내륙으로 향하는

상선들이 내륙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대교천원의 물줄기의 폭이 좁아 여러 척의 배가 입항할 수 없었기에 분산해서 포구를 개설한 것으로 추정된다. 1950년대에 하천의 토사가 퇴적되어 내륙까지 배가 진입할 수 없었기에 귀밀포까지는 중선이 입항할 수 있었으며, 대교도 작은 배만이 드나들었다고 한다.

AB 방조제 건립 이전까지 귀밀포와 덕진포는 여전히 포구로서 역할을 했다. 귀밀포는 ‘개삼포(開三浦)’라고 불렸다. 이는 대교포구(개일포), 덕지천포구(개이포), 귀밀리 포구(개삼포)로 이름 한데서 유래되었다. 이들 세 개의 포구는 모두 지척에 위치해 있지만 이들 지역을 걸어서 물건을 팔러 간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었기에 해안가의 포구를 중심으로 상거래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중 개삼포인 귀밀포구에는 일제강점기에 휴암리에 거주하던 신열균 씨가 이곳으로 옮겨와 정미소를 세웠고, 해미, 서산, 음암, 운산 지방에서 벼를 수집해 수 천 석씩 쌓아두고 방아를 짚어서 기선에 실어 군산과 인천으로 가져갔다고 한다. 인천과 서산군이 소통하는 통로로 기능한 것이다. 그러나 1945년 광복 이후 쌀의 반



현재의 덕지천동, 귀밀리, 유계리



개삼포 앞에서 세 갈래 물이 합수되는 곳

출이 줄면서 자연스레 쇠퇴했으며, A지구 간척사업으로 인해 해수의 유입이 차단되어 개답해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²⁹⁾

이곳에서는 쌀 이외에 해미면 개산과 운산면 강당벌의 나무도 반출했다. 나무를 벌목할 때는 그곳에서 밥을 해 먹어 가며 나무를 베어 네발 통 구루마로 운반해서 군산, 인천, 부산 등지로 내다 팔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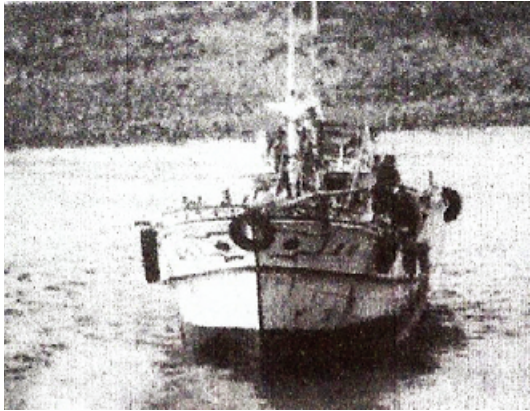
이 지역의 현재 모습은 위의 위성지도와 같다. 개간되어 이제는 가는 냇물이지만 이 물길은 새로운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덕지천동 앞으로는 신장천^[덕지천]이 흐르고, 그것에서 갈라져서 귀밀리 앞으로부터 해미면까지 이어지는 해미천이 있고, 귀밀리에서 다시 대교천으로 갈라지는데 그 물길도 역시 위의 사진과 같다.

덕지천과 오폐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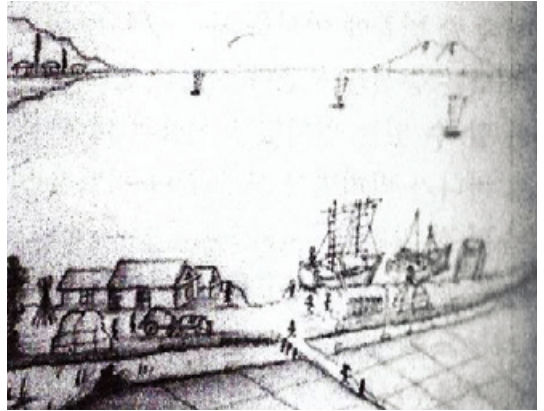
개삼포에서 합수된 물은 해미천이라 불리며 그 아래로 흐른다.³⁰⁾ 이웃한 덕지천동 앞에서 비교적 넓은 강폭이 확보되는데 이곳은 ‘덕지천강’ 혹은 ‘오폐강’이라 칭한다. 이 강에는 1960년대까지 덕지천동에 선적을 둔 12~15척의 고깃배가 칠산 연평도를 드나들며 고기를 잡았다. 그 외에도 외지에서 들어오는 새우젓배·황색이젓배 등 상선들이 끊임없이 드나들었다. 이 강을 ‘오폐강’이라 부르는 것은 그 연원이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시대에 서울에 있던 대지주의 마름이 이 강변 마을에 살았는데, 그가 관리하던 논에서 수확된 도

29) 이은우, 위의 책, 2005, 서산시청, 914~915쪽.

30) 과거에 해미천은 궁현보천(宮峴湫川)으로, 이 냇물은 대곡리에서 발원하여 서쪽으로 흘러 휴암리에서 용왕보(龍王湫)를 이루고, 다시 응평리 궁현보(宮峴湫)를 이루고 귀밀리 구서포(狗嶼浦)로 들어간다. 일제강점기에 해미면의 중심 냇물이라 하여 해미천이라 명명되었다. 해미천을 읍천(邑川)이라고도 불렀는데, 『여지도서(輿地圖書)』와 『해미읍지』에 “읍천(邑川)은 가야산에서 발원하여 양림포구(良林浦口)로 들어간다.”고 기록되어 있다. 양림포는 해미면 읍내리 앞 포구이므로 읍천은 지금의 해미천이라 하겠다.



1970년대 덕지천의 중선, 민형익 제공



덕지천 포구 모사도, 민형익 제공

지가 1년에 4,000여 석이었다. 이 곡식을 서울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마을에서 배가 접안되는 포구까지 약 900m를 지게로 저내야 했는데, 한 섬 저내면 ‘오편’의 품삯을 주었다. 오래도록 오편을 받고 작업을 했기에 그것에서 유래되어 오편강이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다.

한편 마을 앞 500미터 지점의 넓은 들판에는 ‘서푼강 배미[三分江畚]’이라 부르는 논도 있다. 이는 1930년대에 이곳에 배를 접안 시키고 공출하기 위한 벚섬을 지어 날랐는데, 벼 한 섬을 등짐으로 지어 나르면 서푼을 받았다는 데서 유래되었다.

이처럼 오편강이니 서푼강이니 하는 별칭은 이곳에서 운반하던 물건이 많았음을 의미한다. 이곳에는 1940년도에 화물수송용 무동력 배인 40~50톤급 주남배가 드나들며 서산과 해미 일대의 곡식과 임산물을 실어 내갔다. 그 배의 이름은 서산환(瑞山丸)과 해미환(海美丸)이었다. 가야산에서 베어낸 딸감류인 장작과 통두리[술가지단] 등의 부피가 큰 짐을 실어 인천과 서울마포로 운반해 갔고, 서산 사람들에게 필요한 생필품을 운반해 왔다.

육로가 발달하기 이전까지 서산에서는 천수만을 이용해 운반하던 이들 배가 주된 운송 수단으로 이용했다. 이 배들은 서울의 마포, 인천, 군산, 목포, 부산 등을 오가며 교역했는데, 이곳에서는 곡물과 약재를 가져갔고, 외지에서는 광목, 비단, 의약품, 화장품, 석유, 비료, 농기구 등의 생필품을 들여왔다. 이중 해미환만이 귀밀리까지 올라갔다. 이들 배로는 화물 뿐만 아니라 소수이지만 사람의 승선도 허용되었다.³¹⁾

덕지천포에는 이러한 상선 이외에 마을 주민이 운영하는 중선도 입항했기에 오픈강에는 중선과 상선이 범람하는 시기에 마을 내에 장시가 열리면서 어물거래를 하였다. 이곳에 장시 설 수 있었던 것은 이곳이 시도 2호선인 덕지천선 도로에 접한 곳이었기 때문이기도 한데, 장터는 현재 논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과거에는 밭이었다. 이 밭을 지금도 장터밭(場田)이라 부른다.

해미천과 개삼포, 대교천과 한다리

해미면 귀밀리 마을 앞에는 3개의 물줄기가 합수해서 덕지천으로 흘러서 천수만으로 유입된다. 이 물길은 해미천(황낙리, 산수리에서 내려오는 물길)과 도당천(유계리에서 내려오는 물길), 귀밀천이 합수된다. 이 물이 흘러 오픈강 즉 덕지천으로 흘러들어간다. 덕지천과 불과 500미터 떨어진 이곳에 덕지천과는 별개의 포구가 형성되어 있다. 귀밀리 앞의 개삼포는 강폭이 넓어 방조제 건립 이전까지 중선이 드나드는 포구로 기능했다. 바닷물이 밀려들어오는 사리 때면 개삼포로 인근의 젓배가 드나들었고, 개산의 나무를 해서 외지로 가져가는 상선도 드나들었다. 조금 때는 미는 물발의 힘이 약해서 배가 드나들지를 못했다. 이곳을 즐겨 찾던 배는 경기도 덕적도의 배였다. 갈치, 새우, 황석어, 뱀망이젓, 조기 등을 싣

31) 이은우, 위의 책, 서산시청, 2005, 1159~1161쪽.

고 왔으며, 갈치는 작은 것과 큰 것으로 구분해 판매했다. 작은 것은 나무 말에 담아 팔았고, 큰 것은 한 마리씩 팔았다. 큰 갈치는 말려서 지져먹고, 작은 것은 소금을 넣어 젓 담아 두었다가 먹을 때마다 고춧가루를 넣어 무쳐 먹었다. 갈치 등의 생선을 싣고 오는 배에서는 황석어, 밴댕이젓, 조기 등도 팔았다. 돈이 흔하지 않았던 시절이었기에 보리쌀과 생선을 바꾸었다. 거래는 보리 한 말을 주면 조기 한 말로 바꾸어 주었다.

새우젓을 싣고 오는 젓배도 있었는데, 이 배는 갈치 등을 싣고 오는 배 보다는 조금 작다. 새우젓은 나무말로 담아 팔았는데, 소금에 절인 것과 생것으로 구분해 가지고 다녔다. 생것을 구입해 소금을 넣고 젓갈로 담기도 하고, 생새우는 김치를 담는데 넣기도 했다.

이 개삼포에는 술집 한 곳, 방앗간 한 곳, 뚝방 한 곳이 있었다. 외지에서 들어오는 이들이 쉬어가는 곳으로 활용했다. 이 배들은 새우젓을 독채로 팔았는데, 이곳 주민 중 일부는 그것을 구매해서 구루마에 싣고 덕산까지 새우젓을 팔러 다녔다. 내륙 깊숙이까지 배로 들어오는 포구였기에 물건을 많이 팔고 나갔다. 이곳에서 어물은 서산장(2·7일, 8km)이나 해미장(5·10일, 4km)으로 갔다.

한편 겨울이 되면 한가한 시간을 이용해서 해미면 가야산과 운산면 강당벌까지 다니며 나무를 했다. 전문적으로 벌목하는 이들은 나무를 많이 하기 위해 직접 벌목하는 곳에서 식사를 해 먹어 가며 작업을 했다. 네발통 구루마에 실어 나무를 장에 내다 팔았는데, 개삼포에서 나무를 실어 외지로 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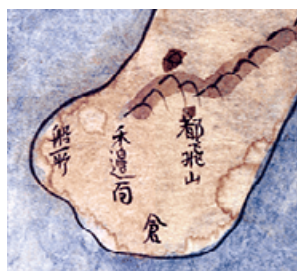
이곳은 현재 논으로 개간됐는데 동네 주민 두 명이 했다고 한다. 개간한 이들은 이 논을 경작하고 도지로 한 마지기당 쌀 한 가마니를 동네에 낸다. 논이 10~15마지기 정도가 만들어졌다.

왜현포[창리]

이외에 고지도에서 확인되는 포구로는 『동여도』의 왜현포(倭懸浦)가 있다. 조선시대에 창리는 화변면의 왜현리라 불렀는데, 이는 왜구를 격파하는 전과를 올렸다는 데서 유래된다.



『동여도』 부분도



『청구도』 부분도

창리포구는 위에서 『한국수산지』(1925년)의 기록에서 보았듯이 어물을 거래하고, 중선이 접안하는 주요한 포구로 기능했다. 이는 주사창의 기능이 존재했던 시절에는 불가능했으므로 구한말 이후로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군의 무기고인 주사창과 더불어 이곳은 큰 배가 접안하기에 유리했던 탓에 선소(船所)로도 기능했을 것인데, 그 모습은 『청구도』에서 확인 가능하다. 위의 『청구도』에 선소라 기록되어 있다. 주민들의 증언에도 창리에서 배를 만들었다고 한다.³²⁾ 창리포구는 현재 쉼터에 위치한 이발소 앞이다.

32) 이은우, 위의 책, 2005, 서산시청, 303쪽.

『조선지리지자료 - 충청남도편』(1911년)의 나루와 포구

1911년에 조선총독부가 조선의 지명을 정리 편찬한 『조선지리지자료 - 충청남도편』 서산군, 해미면조에 천수만 인근의 포구와 나루 등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의 [표 5]와 같다.

[표 5] 『조선지리지자료』(1911년)에 수록된 천수만 인근의 나루 · 포구 · 주막

	渡津名	浦口名 (諺文名, 비고)	酒幕名 (諺文名, 비고)	土産名
서산군 곰산면		德之川浦 (덕지내지, 德之川里) 內厓山浦 (오외내, 內厓山里)	笠店(삿갓주막, 大南里) 석금점(돌금이주막, 下獐洞)	米, 麥
서산군 粟串면		栗串浦 (밤고지리, 良垆里)		米, 麥, 大豆
서산군 馬山面		大頭浦 (한머리개, 大頭里) 牛石浦 (소동개, 江景里)	蓮峯店(연봉정주막, 沙場里) 後坪店(뒤별주막, 沙場里) 渴馬店(갈밋주막, 渴馬洞) 大頭店(한머리주막, 大頭洞) 翠浦店(취개주막, 翠浦里) 秀峴店(빼재주막, 秀峴里) 防築坪店(방죽머리주막, 秀峴里)	白鹽, 米, 麥, 大小豆
서산군 인지면		毛浦 (모기대리, 毛其大里)	四巨里店(네거리주막, 堂山里) 松亭店(송정주막, 栗里) 道洞店(독골주막, 井洞) 銅碑店(통비주막, 南山里) 艾堂店(씩당리주막, 艾堂里) 彥井店(은정주막, 彥井里) 二谷之店(두골바지주막, 元堂里) 梁越店(학돌이주막, 梁越里) 石橋店(돌다리주막, 山底里) 仙隍店(성황당이 주막, 東幕里)	白鹽, 米, 麥, 大豆
서산군 화면면	倉村津 (창말나루, 창촌)	老羅浦 (로사살개, 鳳洞)	倉村店(창말주막, 창리)	白鹽, 海魚, 米, 麥, 大豆, 小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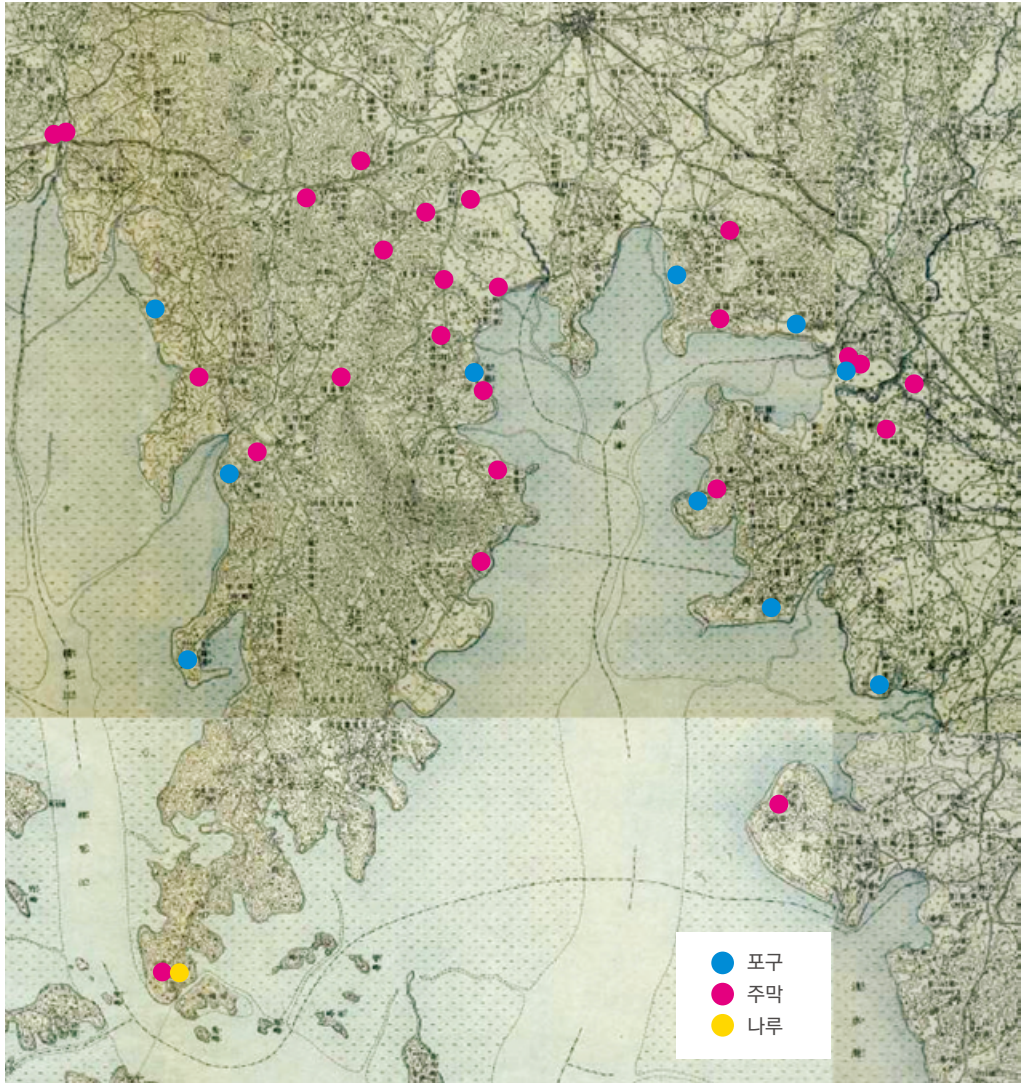
	渡津名	浦口名 (諺文名, 비고)	酒幕名 (諺文名, 비고)	土産名
해미면 남 면		狗島浦 (개슴나드리, 貴密里) 石浦 (돌개, 石浦里)	狗島酒幕(개슴나드리주막, 貴密里) 億垵酒幕(가중나무주막, 億垵里) 江邊酒幕(강변말주막, 石浦里) 良林酒幕(양림주막, 新坪里) 貴密酒幕(귀밀주막, 貴密里)	鹽, 海魚
해미면 고북면		湖井浦 (우무실포, 南井里) 下箭浦 (전대포, 下箭里) 沙器所浦 (사기소포, 器所里)	沙器所酒幕(사기소주막, 沙器所里)	鹽, 海魚

위의 [표 5]에는 천수만 인근의 나루, 포구, 주막, 토산물 등이 기록되어 있다. 나루는 부석면 창리에 창촌나루만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포구는 면별로 사정이 다른데, 보통 1개 내지 2~3개가 존재했고, 이들 포구는 AB방조제 건립 이전까지도 주요 포구로 기능했으며, 인근에는 주막도 있었다.

오늘날의 서산시 지역인 오산면에는 덕지천포와 내오산포가 있었는데 서산 장 내지 내륙으로 가는 중요한 포구였다. 포구 인근에 하장동의 석금점이라는 주막이 있었고, 해미에서 서산으로 가는 길목에는 샷갓주막이 있었다.

반면 울곡면에는 양대리에 울곶포가 존재했다. 이곳은 일제 강점기에 가장 중요한 포구로 주요 곡물이 공출되던 곳이었다. 인근의 인지면에는 모포만이 존재했다. 모포는 모월리 2리의 모기대리에 위치한 포구로, 사계절 내내 각종 어선과 젓배 들이 끊임없이 드나들던 포구이다.

이 두 지역의 특징은 주막이 여럿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들 주막은 다음의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내륙을 잇는 길목에 위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안으로부터 유입되는 어물이나 소금을 비롯해서 쌀, 보리, 콩 등의 곡물이 유통되는 길목이 아닐까 한다.



『조선지지자료』에 수록된 천수만 인근의 포구, 주막, 나루

포구에 인접한 주막으로는 귀밀리, 대두리, 석포리, 모월리 등 뿐이다. 귀밀리는 외지의 배들이 귀밀리 인근과 해미장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포구이며, 석포리는 중선이 입항 가능한 포구인 동시에 인지면과 부석면 사람들이 해미장과 광천장을 보기 위해 지나는 길목이다. 모월리의 모포는 인근에 대표적인 포구로 여러 척의 중선이 입항할 수 있는 주요 포구로, 이곳을 통해 내륙으로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포구와 분리된 채 존재하는 주막은 대부분 내륙에 위치한다. 주민들은 서산으로부터 가사리로 이어지는 길목에는 ‘열두 주막’이 있었다고 증언 하는데, 이들 주막은 서산장을 가거나, 서산에서 태안장을 보러 가는 이들의 쉼터였다고 한다. 아래의 지도에 표기된 주막은 산재되어 있는데, 이는 서산에서 태안, 혹은 서산에서 해미 등으로 이어지는 단선적인 장터길이 아니라 부석에서 서산, 부석에서 태안, 인지에서 태안, 서산, 인지에서 해미나 광천, 서산에서 해미 등을 잇는 길이기 때문이다. 내륙과 달리 천수만 지역에서 미곡과 더불어 소금과 어물이 추가로 생산되었기에 장터를 이용하는 길손이 보다 많았을 것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조선시대에 이미 천수만 인근의 서산장, 취포장, 태안장 등에서 어물의 거래가 활발했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에 해변에서 육로를 이용해 장터로 이동하는 길목에 주막이 번성했던 것이라 하겠다.

2) 수심이 깊어 중선도 정박하고, 어물도 거래되던 포구(浦口)

천수만의 낮은 수심으로 인해 중선이 드나들 수 있는 포구는 매우 한정적이었다. 조금 때는 개펄이 높아져 중선이 운행하지 못하므로 상선들이 왕래하지 못한다. 중선이 드나든다고 해도 수심이 얕아 1~2척의 배만이 오갈 수 있었다. 중선이 정박하는 포구는 해안인 창리와 간월도를 포함해 해미면 귀밀리의 개삼

포, 유계리의 한다리, 기지리, 서산시 양대리 돌짱포, 덕지천동의 덕지포, 부석면 강수리와 송시리의 돌뿌리, 봉락리의 노라포(老羅浦), 가사리의 사도포(沙渡浦), 산동리의 동막포, 칠전리 포구, 고북면의 사기리, 남정리, 기포리 등이다.

이들 포구 중 한다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중선이 드나들 수 있는 깊이의 수심을 갖추고 있어 마을에서 중선을 부리기도 했고, 인근이나 외지의 젓갈을 실은 배들이 젓갈을 팔러 드나들었다. 혹은 인근의 장터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어 장터로 가는 어물을 실은 배들이 드나 들기도 했다.

이중 외지의 배들이 가장 많이 드나들던 포구는 칠전리 포구로 중선들이 수시로 드나 들며 인근의 부석장과 서산장으로 어물을 팔았다. 대표적인 포구의 실상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양대동의 배다리와 돌짱 포구

서천시 양대동 3통에는 돌장이라는 포구와 배다리라는 포구가 있었다. 돌장[石庄]이라는 지명은 마을 끝부분에 돌이 많아 채석장으로 이용된데서 유래되었다. 화강암 매장량이 좋아 주변에서 바다를 매립할 때에 이 돌장의 돌을 깨다가



새로 만든 배다리 전경



양대동의 일제 강점기에 만든 공출 창고

석축으로 이용했다.

이곳은 1939년에 일본인이 서산지방에서 생산된 곡물을 일본으로 수탈해 가기 위해 개설된 시도 1호선인 양대선(良代線)이 개설되기도 했다. 지금도 서산 시내쪽으로 50미터 지점에 당시 건립된 창고 3동 중 1동이 남아 있다. 서산시의 곡물은 모두 이곳 창고에 취합되었다가 일본으로 공출되었다. 이곳을 흔히 ‘돌장나루터’라 부른다.

양대동 2통 지역과 죽성동 사이에는 배다리[舟橋]라 불리는 다리가 있다. 지금은 시멘트로 만들어져 있지만 과거에는 폐선을 놓고 두 지역을 건너 다녔다고 한다. 이곳의 다리 유무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곳으로 수시로 중선이 들락거렸다는 사실이다. 잠시 선원들이 머물 수 있는 술집도 여럿 있었다. 이곳을 드나드는 배를 ‘황새기배’라 불렀는데, 이는 황석어로 담은 것을 싣고 오는 배라는 뜻이다. 황석어젓 뿐만 아니라 새우젓과 생실치도 가져왔다. 주로 당진 석금리 배와 원산도, 효자도 등지의 배였다고 한다. 대개 이들 배는 8~9월에 젓을 가져와 말에 담아 팔았다. 가을철에 김장을 하기 위해서 미리 젓갈을 구입했다고 한다. 실치는 직접 구입해서 실치 한 말에 소금 세 사발을 넣고 직접 젓을 담아 삭혀서 먹기도 했다. 소금양이 부족하면 젓이 끓게 되므로 넉넉히 넣어야 한다. 당시 소금은 양대동의 전매청 염판에서 구입했다.

양대리 염판에서 소금을 구입할 때는 줄을 서서 구입했다. 1년에 쓸 양을 7~8월의 기간 동안 한 번에 가져갈 수 있는 분량만큼만 나누어서 구입한다. 소금의 종류는 염판의 형태에 따라 두 종류로 구분해 거래되었는데 염판에 자기를 깔고 줄여서 빛깔이 고운 것과 염판흙을 줄여서 빛깔이 좋지 않은 것으로 구분했다. 빛깔이 고운 것의 가격이 비싸다.

한편 간월도 배는 서산을 가기 위해 양대리의 배다리 포구를 이용했다고 한다. 음력 6월에 잡은 육젓으로 담은 새우젓이나 봄이나 가을에 조기젓을 담아서 내다 팔았다. 배다리 포구에는 중선 1~2척이 드나들 수 있는 좁은 곳이었다.

부석면 가사리 포구

현재의 가사리 1, 3구는 분구되기 이전까지는 같은 마을이었다. 1구는 사장, 3구는 사냥골이라 부른다. 이 마을은 120호가 거주하는데, 그중 10여 호가 작은 배 10척 정도를 소유했다. 이 배들은 3구의 ‘수등계’에 정박했다.³³⁾ 여러 갈래의 물줄기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로 인해 이곳은 수심이 깊었으나 골이 좁아 중선은 여러 척이 정박하지 못하고 한 척씩 번갈아 들어왔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이 민대식 씨를 감독관으로 삼아 독을 막아 간척지를 만들었다. 가사리로부터 태안가는 바닷길에 막아 만든 이 독을 그 길이가 십리라 하여 ‘십리원독’이라 불렀다. 그 위에는 인평저수지를 만들어 농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³⁴⁾

3구 앞으로는 가을철에 중선이 드나들었다. 이곳으로 들어온 중선은 황도와 광천의 배들로 주로 새우젓을 가지고 들어와 서태안으로 나갔다. 당진군을 비롯해 서산군 운산면, 태안군까지 모두 등짐을 지어 옮겼다. 당시에는 배처럼 큰 고래도 밀려 들어왔으며, 고래 고기도 많이 사 먹었다.

부석면 강수리 돌뿌리 포구

강수리 2구에 중선이 1척 있었으므로 이 배에서 어획한 고기가 마을로 수시로 들어왔다. 이외에 외지에서 젓갈을 실은 배들이 들어왔는데, 외짓배는 가을철인 음력 9~10월에 많이 들어왔다. 제보자(76세)가 30세에는 강수리 2구의 박영록 씨가 부리던 중선이 조기와 새우젓을 싣고 오면 주민들이 나가서 조기와 새우젓독을 선주집까지 지어다 주고 고기를 얻어먹었다. 고기가 많을 때는 4~5명이 짐꾼으로 일을 했다.

33) 인근에서는 태안의 송암지역에 배가 가장 많았다. 송암에는 중선과 작은 배가 모두 있었다. 한편 태안의 진장리와 어성리의 사이를 운하로 뚫고자 했다.

34) 독을 막기 이전에는 이곳으로 난 새맥감에서 태안군으로 왕래를 했다. 가사리에서는 서산 보다는 태안이 가까워 태안장을 많이 보았다. 태안까지는 5~6km이고, 서산까지는 12km로 태안이 보다 가까웠다.

중선은 입항하면 여러 날을 보내고 나가기도 하고, 곧 나가기도 한다. 배가 들어오면 상인들이 들어와서 고기와 젓갈을 사갔으며, 주민들도 필요에 따라 구입했다. 때문에 잠깐 동안 이곳에서 장이 열리기에 이곳에는 주막집 1집, 살림집 3집이 있었다. 중선에서 잡은 젓갈을 팔러 왔기에 돈이나 곡식으로 바꾸어갔다.

부석면 칠전리 통개 포구

칠전리 마을 앞의 통개는 큰 배가 드나드는 포구였다. 그곳에는 주막 10집이 항상 흥청댈 정도로 번성했기에 날마다 돼지 한 마리씩을 잡을 정도로 경기가 좋았으며 돈도 흔했다.³⁵⁾

이곳에 들어오는 중선은 완도배가 많았다. 박대나 상어 등의 바닷고기를 가져왔으며, 안면도 백사장의 중선들도 고기를 팔러 들어왔다. 이곳에 중선이 드나든 것은 도로와 거리가 가깝기 때문이다. 부석장이나 서산장을 가기 위해 중선을 내륙 깊숙이에 정박시킬 수 있는 포구를 찾아 이곳으로 온 것이다. 도로까지 얼마 멀지 않은 수문 근처까지 배가 들어올 수 있었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전해준다.

“그 전에 완도배들이 왔어요. 그물이 전부 후려서 잡는 거지, 지금 그물은 걸려서 잡는 거지만 1970년대는 목그물이라 해요. 그물이 보들보들하니 질기지는 않았어요. 조금만 삭으면 터지고 그랬죠.

완도배들이 한번 왔다하면 열 척 정도는 와요. 돛대를 세 개를 붙여가지고 죽

35) 마을에서 사용하던 배는 세 종류로 방배, 후리질배, 작은 뗏머이다. 이중 방배는 크기가 10미터 정도로 중선 보다 작는데 보통 4명이 승선해 방그물로 조업했다. 이와 유사한 배로 후릿그물을 싣고 다니는 배인 5미터 크기의 후릿배가 있다. 이 배는 가장 작은 뗏머 보다 조금 크며, 후릿그물은 보통 6명이 승선해 조업한다. 가장 작은 배인 뗏머(작은 배, 쪽배)는 5미터 길이로, 2명이 승선해서 조업한다.

들어와요. 완도에서. 요 앞에서 잡아서 이리 팔러 와요. 그때만 해도 부석장으로 다니는데. 잡아가지고 오는 수는 많으나 팔로는 많이 팔리지는 않았어요. 이분들이 고기 팔러 오면 몇 사람들이 부석장에 갔다 팔지만. 많이 잡아오니까 그게 또 잡으러 가야 하니까. 그때만 해도 소금이 비쌌지 소금으로 절이는 것, 냉동이 없기 때문에 주막집 앞의 백사장에 버려놓고 가는 거요. 그럼 우리는 그때는 비료가 흔치 않으니깐. 그놈을 갈퀴로 긁어가지고 소쿠리에 담아서 바지계에 지고 논으로 가는거요. 눈에 벼 심은 데다 사이에다 중간 중간 놔요. 그러면 썩으면서 비료가 되는 거요.

상어 같은 것들이 어떨 때는 배들이 사람만 썩 한 상어를 가져와요. 배를 갈라 보면 새끼가 상어는 새끼로 낳거든요. 새끼가 이만 썩 한 것들이 대여섯 마리씩 들어 있어 새끼도 찌먹기도 했는디.

그런 상어를 가져오면 이 분들이 팔리지는 않지 배를 찢어서 섬창 원뿔에 넣어 놓고 가요. 드문드문 막대기 찢러 가지고 원뿔에 막대기를 찢러 놓고 가요. 갔다가 이 사람들이 다시 와요. 날씨라도 좋으면 마를 수가 있는디. 비도 오고 하면 원뿔에서 상해요. 냄새도 나고 썩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가져가지도 않고. 그러면 우리는 그걸 가져가다 논에다 거름으로 넣고. 그만큼 고기가 흔했어요.

이곳 통개 포구는 외지배가 드나들던 중요 포구로 매우 번성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고기를 팔지만 남은 것은 주막 앞에 쏟아두고 가서 썩게 되면 그것을 가져다가 어비로 사용한 것이다. 비료가 넉넉하지 않았던 시절에 어비는 중요한 비료 역할을 했다고 한다.

부석면 봉락리 2구 노라포 포구

봉락리는 1리와 2리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중 2리는 총 86호로 전 주민이 어업에 종사했다. 다른 마을과 달리 유독 이 마을에는 여러 성씨가 모여 사는데,

36개의 성씨가 함께 거주하고 있다. 노라포라는 지명이 중국인이 낙향해서 살았기에 낙양동이라 불렀다는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할 정도로 이주민이 많다. 특히 이곳은 개펄이 넓고 좋은 어항포구로 어업조건이 특별히 좋았기에 땅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천국과도 같았다고 한다.

누구든 들어와 어업에 종사하면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실제 방조제 건립 이전에는 어족자원이 넉넉하고, 개펄이 5km 정도 넓게 펼쳐져 있어 맨손어업을 하기에 최적의 조건이었기 때문이다.³⁶⁾ 이웃마을 배들이 들어와 소라와 바지락을 캐서 한 배씩 가져가기도 했다. 음력 4~5월에는 줄만 매달아 두면 없던 성이 하나씩 생겼을 정도이다.

이 노라포에는 5~6척의 중선이 정박했는데, 물이 많이 빠지면 이곳에는 배를 댈 수 없으므로 수심이 보다 깊은 대두리나 갈마리 마을 앞쪽으로 배를 댔다. 이곳은 모두 취평장 인근의 포구이므로 이곳에 배를 대야 취평장(4·9일)을 보기가 용이했기에 이곳에 배를 정박하고 어물을 장에 내다 팔고는 필요한 물건을 구입해 돌아갔다. 때문에 취평장이 번성하던 시절에는 노라포부터 칠전리까지 해변에 주막이 한 집 건너 있었다. 아가씨 집도 있었을 정도로 번성했다. 중선은 생선을 싣고 들어와서 고기를 부리고 팔았다. 술집에 들러 술을 마시기를 즐겼는데, 이와 관련해서 “술집에서 먹으니 덧고장만 남더라”라는 말을 한다.

부석면 송시리 2구 점말 포구

송시리 2구는 바닷가에 인접해 있어 어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았다. 송시리

36) 이 마을 앞의 천수만은 육수가 넉넉히 흘러 육수와 바닷물이 만나는 곳에서 산란을 하는 고기어종이 많이 있었기에 고기가 매우 흔했다. 서해안에서 나는 모든 고기는 이곳을 거쳐 갔기에 어종은 가짓수를 일일이 셀 수가 없었는데, 가오리, 상어, 민어 등의 큰 고기를 주로 잡았으며, 개펄에서는 바지락, 소라, 주꾸미, 오징어, 황새바치(풍치새끼), 학꽂치, 장어 등을 잡았다. 장어는 한 번 잡으면 몇 관씩 잡았다. 이를 두고 주민들은 “물 반 고기 반”이라 한다.

2구에는 큰 배 1척과 작은 배인 닻배 10여 척이 있었다. 큰 배는 어선이 아니라 안면도에서 점말의 옹기점에 뿔감을 가져다주기 위해 왕래하던 짐배였다. 옆 마을인 갈마리 2구는 마을 앞 수심이 얇아 중선이 입항할 수 없으며, 중간 크기의 상선(商船)이나 작은 배만이 왕래할 수 있었다.

송시리 2구의 점말 앞 바다는 수심이 깊어 중선이 정박할 수 있었고, 여러 배들이 드나들며 옹기와 뿔감 등을 실어 날랐다. 이에 점말에는 옹기점 두 곳과 주막 두 곳이 있었으며, 황도, 안면도의 젓배를 포함해 이웃한 당진, 덕적도 등의 전국 각지의 큰 배들이 드나들었다. 이들 큰 배들은 생산이나 젓을 가지고 와서 팔고 나갔다. 팔다 남은 것은 주막 앞에 쏟아두고 갔는데, 어차피 가져가 봐야 바다에 버려야 하고, 다시 고기를 잡으면 되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박대 등의 이름 있는 고기는 가져다가 먹었는데, 그 껍질로는 묵을 쑤어 먹고, 생선은 지져서 먹었다.

고북면 남정리와 기포리 포구

고북면의 주요 포구는 신정리의 뜰고랑(골막)과 남정리 포구였다. 지금은 비행장이 들어섰지만 과거에는 중선이 드나들던 중요 포구였다. 이들 마을에는 중선은 없었으나 봄과 가을에 반댕이젓, 새우젓 등을 팔러 들어오는 배들이 이 포구로 드나들었다.

기포리 수문께 포구는 배를 접안할 공간이 비좁으므로 한 척 내지 두 척이 번갈아 들어왔다. 기포리를 드나들던 배는 중선 보다는 작은 배였다. 젓을 담은 고기는 먼 바다에서 어획하는 비교적 큰 배였다.

이들 젓은 김치를 담을 때에 절대적인 재료이므로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 품목 중 하나였다. 젓 이외의 생선은 해미장, 고북장, 갈산장, 서산장에서 구입할 수 있었고, 마을 인근의 어살에서 구입할 수 있었지만 젓갈만큼은 기포리 포구나 남정리 포구에서 구입했다.

고북면 신정리 초막리 포구

신정리는 1, 2, 3구로 분구되어 있는데, 3구에는 비행장이 들어서 현재는 1, 2구 만이 남아 있다. 신정리 2구 초막리로 큰 배가 봄과 가을에 젓갈을 가지고 드나들었다. 4집만이 거주하는 작은 마을이었지만 주막도 있었다. 큰 배가 1~2척이 물때에 따라 드나들었다. 그 인근에는 일제강점기에 만든 염판(천일염전)이 있었으며, 그곳에서 과거에는 화염도 구웠다.

이 마을은 농지가 별로 없어 많은 주민들이 바다에 매어 살았다. 농지가 없는 주민들은 바다로 갔다. ‘넙(넙)에게 돈 꾸러 가느니 바다에 가서 한참하면 보충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어물 어획을 통해 소득을 쉽게 올릴 수 있었던 당시의 실정을 설명하는 말이다. 때문에 농촌과 달리 이 마을에서는 장례쌀을 얻어 먹지는 않았다.

인지면 산동리 수울계 포구

산동리는 1, 2구로 분구되어 있는데, 1구는 산저마을이고, 2구는 동막이다. 동막마을은 인지면의 끝으로 바닷가에 인접해 있어 고기를 잡는 이들이 많았으나 배가 닿을 수는 없었다. 포구는 2구 산저마을의 수울계에 있었다. 수울계에는 봄부터 가을까지 사리 때에 밀물을 따라 내륙 깊숙이까지 물이 들어오는데, 이 물길을 따라 이곳까지 1~2척의 배가 드나들었다. 8·15 해방되기 이전에 도비산의 나무를 발매 했는데, 이 때 인천에서 큰 배가 들어와 그 나무를 실어갔다. 이외에도 이곳으로는 도비산에 캐낸 홍주석도 가져갔다. 붉은 색의 돌인 홍주석에서 철을 뽑기 위해 일본으로 내갔다. 수문계까지는 인력으로 옮겨야 했기에 인근 마을 주민들이 나와 품을 팔았다. 하루에 3~4번을 등에 홍주석을 지어 운반했는데, 당시에는 먹을 것이 없어 굶던 시절이므로 돌을 운반하는 일이 몹시 어려웠다고 기억한다. 광복되면서 더 이상 홍주석을 캐지 않는다. 이 마을 주변에는 고기가 없어 고기는 잡지 않았다.

인지면 산동리 동막 현장 포구

동막의 현장이라 불리던 곳으로 과거에는 중선이 들어왔다. 대림산업이 1952년에 제방을 축조하면서 현장사무실을 두었기에 현장이라 부른다. 조금 때에는 접안 할 수 없었기에 사리 때에만 드나들었다. 각종 생선과 젓갈(주로 새우젓)을 가지고 들어왔으며, 물때에 맞추어 당일로 나갔다.

3) 천수만을 가로질러 두 지역을 잇는 나루와 감길

천수만은 바다와 육지를 연결하는 중개자로 간월도와 같이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은 나루를 이용해 천수만을 건너 육지와 내왕했다. 바다 건너편의 마을과도 나루로 소통했으며, 천수만의 어물이 바다를 건너 거래되었다. 또한 육지와 육지 사이가 강이나 바다로 가로 막힌 곳에서는 두 지역을 연결하는 다리를 쇠로 놓거나 나무판자나 돌을 이용해 놓았다. 쇠로 놓은 다리는 ‘쇠다리’ 혹은 ‘고방다리’라 하고, 판자로 놓으면 ‘너더리길[板橋]’이라 했다. 납작한 돌을 여러 개 놓아 다리를 대신하던 돌다리도 놓았다. 이러한 길 이외에 썰물이 되면 드러나는 바닷길도 이용했다. 수심이 얇은 곳에는 길이 드러났기에 이 길을 이용해 건너 다녔다. 이 길이 ‘감길’이다. 대표적인 나루와 감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간월도와 창리의 나룻배

천수만에서 유일한 섬이었던 간월도는 특히 생필품을 비롯해, 중학교 이상의 학교에 진학하거나, 행정 사무를 보기 위해서나 어획한 어물을 거래하기 위해서 육지와 왕래했다. 간월도는 1995년에 도농 통합으로 서산군과 서산시가 통합됨에 따라 서산시 부석면에 속하게 되었으나, 그 이전까지는 안면도면에 속

했기에 모든 행정 사무를 보러 안면도로의 왕래가 필수적이었다. 안면도 승언리에 위치한 관공서와 학교를 다녀야 했고, 안면도 주민들은 서산군청에서 행정 사무를 보기 위해서는 서산을 오가야 했기에 나루는 두 지역에서 모두 중요한 이동 수단이었다.

창리는 천수만의 해안에서 바다로 가장 돌출된 지역으로, 서산으로 가는 버스의 종점이기도 했기에 안면도 사람들이 부석면과 서산, 태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나루를 이용했다. 특히 안면도에서 시집 온 이들이 많았기에 친정과 왕래하기 위해 자주 나루를 이용했다. 창리 나루터에서는 안면도의 창기리 수해^[여수해]와 궁말, 황도, 간월도와 왕래했다. 황도, 수해, 간월도는 각기 자신 마을의 나룻배를 운영해 창리와 왕래했지만 궁말은 나룻배가 없어 수해의 배를 이용했다. 궁말에서 나룻배를 이용하려면 해변에서 나무에 불을 붙여 연기를 올린다. 연기는 멀리서도 볼 수 있으므로 연기를 본 나룻배 사공이 배를 움직여 옮겨주었다.

창리에서 나룻배로 노를 저어서 바람에 의지해 어디를 가든 20~30분이 소요된다. 바람이 잘 맞으면 10분 만에 도착할 수도 있지만 보통 30분이 걸렸다. 간월도는 다른 지역과 달리 거리가 멀어 40분 내지 1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때문에 다른 지역은 필요에 따라서 나루가 수시로 운영되었지만 간월도의 나루는 물때에 맞추어 하루에 2번 왕래했다. 배를 자주 이용하는 이들은 일 년에 배삯을 두 번 지급한다. 보리를 추수하면 보리로 한 말을 주고, 쌀을 추수하면 쌀로 한 말을 ‘나루삯’으로 준다. 나루삯은 개인이 아니라 가족 단위로 이용하는 삯이었다.

양대동의 나루는 맞은편 인지면과 양대동, 고북면 등지를 오가며 주민들의 이동을 도왔다. 어느 곳에서 출발하든 나루는 선창에서 출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물때에 따라 적당한 곳으로 이동한다.

간월도의 나룻배를 처음 운영하게 된 것은 김운용 씨^(83세)의 노력 때문이다.

외지와외의 연락선이 없는 섬 생활의 어려움을 이해한 서산군이 나룻배를 지어주었는데, 이와 관련해 제보자의 이야기를 들어 보자.

간월도에서 살다가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갔다 돌아오니 섬이 답답했어.

서산에 나가면 당일로 못 오고 하룻밤 자야 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연락선을 만들어 보고 싶더라고. 그때만 해도 자본관계가 없어서, 그때는 서산이 군이었는데 군수님을 만날라고 해도 직원들이 막아서 군수실을 못들어 갔어.

친구가 군수님 출근할 때 차에서 내릴 때 다가가 인사하라고 했어. 그래서 그



간월도의 나룻배, 서산문화원 제공

렇게 만났어.

군수님이 손을 꼭 잡고 군수실로 데려 갔어. 어디서 왔느냐하고 물어서 간월도에서 왔습니다 하니 군수님도 간월도가 어디인지 잘 기억조차 못할 정도의 섬이었어.

후방에서 군대생활하다 오니 사람은 맹장 걸려도 죽고, 강당리로 걸어 나가서 양식사다 먹고 살았어. 그러니 연락선을 만들고 싶다고 하니 얼마 드냐고 물었어. 그 당시 65만원이면 돼. 이미 연락선을 만들고 있었어. 65만원이면 1톤으로 30명을 태우고 다닐 수 있는 연락선을 만들 수 있었어.

군에서 고사떡 가지고 와서 기도 만들어 가지고 배를 바다로 내려줬어. 그 대신에 돈 받는 것은 군에서 정해주는 대로 받아라 라고 했어. 그래서 시간은 오전, 오후 오전에 나가고, 오후에 들어오는 방법으로 하겠다고 했어.

그때만 해도 창리로 차가 3번 다니는데, 9시, 12시, 5시경에 차가 다녔어. 그 때에 맞추어서 배를 대주는데, 군에서 40원을 받으라고 했어. 예전에는 여기 선착장이 없어서 물 나갈 때는 배에서 자고, 저 바다에 띄워놓고 그곳에서 자고 배를 대는 식으로 10년간 나루를 운영했어. 그 후로 다른 사람이 몇 년 더 했어.

이렇게 만들어진 나룻배는 초기에는 한 척이었지만 낚시꾼들이 많아지면서 점차 늘어서 방조제로 막기 이전에는 나룻배 3~4척을 운영했다. 주민들 중 배를 소유한 이들이 많았기에 나루 운영이 순조로웠다. 나루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으면 주민들이 회의를 통해 그 운영을 허락하는 방식으로 했으며, 운영이 여의치 않을 때는 다시 다른 사람을 선정해 운영토록 했다.

나룻배는 30여 명 정도가 탈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별도로 나룻배를 제작하기도 했지만 어장을 하는 닻배를 나룻배로 전환해 사용하기도 했다. 나루 전용 배가 어장 배보다는 크다.

나룻배는 물때를 기준으로 오전 썰물 때에 나가는 배를 운영하고, 오후 밀물

때에 들어오는 배를 운영했다. 이외에 개인의 편의를 위해 나루를 이용할 때는 곱절의 비용을 냈다. 1980년대를 기준으로 나루 이용비용은 1회에 500원이었고, 외지인은 1,000원이었다. 간월도 나루가 창리까지 운영한 것은 창리에 나가면 서산가는 버스가 있어 서산장을 이용하기가 수월하고, 지금은 없어진 부석장(5·10일)을 이용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감길은 ‘나갈 때도 한 짐, 들어올 때도 한 짐’

천수만을 가로지르는 감길은 간월도와 강당리 사이의 감길을 비롯해, 지산리와 석포리 사이 감길, 장동 2리 낫머리와 석포리의 낫머리 사이의 감길, 가산리와 태안을 잇는 새덕감이 있었다. 바다를 가로질러 마을과 마을을 잇는 감길은 흔히 ‘감’이라 불렀고, 감길을 가는 것을 ‘가미간다’라고 한다. 현재는 감길이라는 용어도 알지 못한다. 과거에는 천수만을 가로지르는 이 감길을 이용해 섬 사람들은 육지와 소통했고, 지역민들은 먼 거리로 돌아가야 하는 길을 단축해 다녔다. 이를 하나씩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간월도의 감길을 보자. 천수만 내안에서 유일한 도서지역이었던 간월도는 생필품을 구입하고, 식량을 구하려면 육지와 소통해야 했다. 사리 때에 물이 완전히 빠지면 간월도와 강당리 1리 사이에 바닷물이 빠지면서 육지화 되는 ‘감길’이 열린다. 이 길을 강당리에서는 육지의 간월도라는 뜻에서 육간월(六看月)이라 불렀다. 신발을 벗고 맨발로 바닷길에 올랐기에 이곳을 ‘신발뿌리’라고도 한다. 사리 때를 제외하고는 물이 많이 빠지지 않아 이 감길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간월도는 나루와 감길이 공존했다. 나루가 생기기 이전에는 유일한 길이었으나 나루가 생기면서는 이 길은 날씨가 꺾어 나루를 이용하지 못하는 피치 못할 경우에만 이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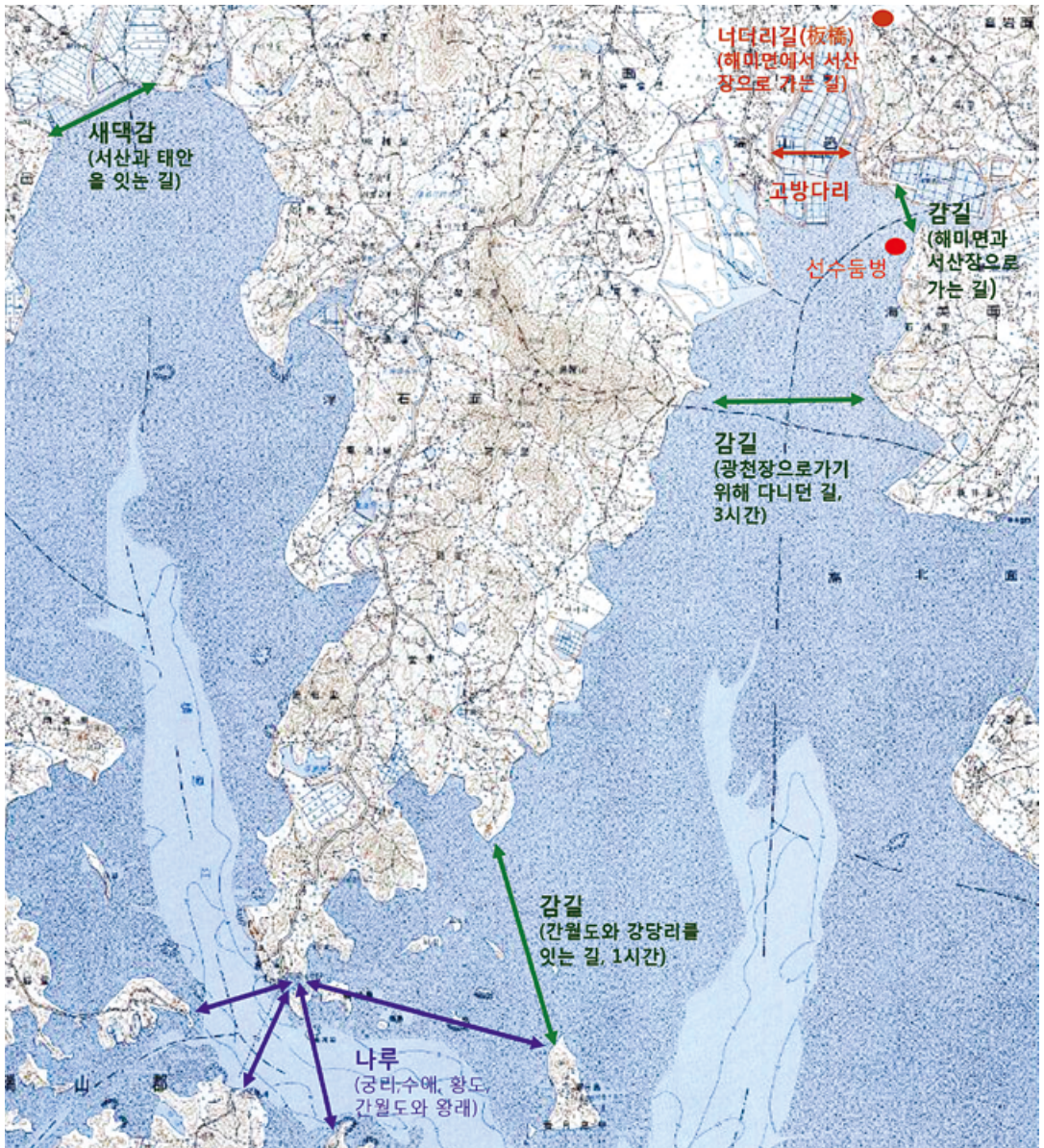
감길을 이용하는 것을 두고 ‘가미[갯벌땅]로 간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개펄을 걸어간다는 뜻이다. 이 길은 10리로 가깝지는 않았는데, 육지의 10리 길과는

달리 갯벌 10리 길은 훨씬 걷기가 힘들다. 감길을 걸어서 서산장을 보려면 꼬박 하루가 소요되었다. 썰물에 감길을 나서서 장에 나가 물건을 판매하고 다시 돌아와도, 물때를 기다려야 하므로 강당리에 한동안 머물러야 한다. 친척집이나 아는 집에 머물며 물때를 기다리는데, 잠을 자다가도 물때가 되면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장에 나갈 때마다 수시로 남의 집을 이용해야 했기에 강당리 주민들도 알아서 방을 내주었다. 물길이 열리면 이른 새벽이라도 잠을 자다가도 서둘러 집으로 향한다.

이처럼 감길을 이용하면 나가는데 하루, 들어오는 데도 하루가 걸린다. 바람이 심하면 나룻배를 운행하지 못하므로 해물 처리를 위해서는 가미로 가야만 했다. 주민들은 늘 개펄로 다녀서, 개펄의 사정을 잘 알고 있으므로 어두워도 물에 빠지거나 미끄러지지 않고 건너다녔다. 그러나 외지인들이 이 감길을 이용할 경우에는 수시로 갯고랑에 빠져 진흙이 뒤범벅이 되어 마을로 들어오곤 했다. 때문에 갯벌 길은 아는 이들에게는 편리한 길이었지만 모르는 이들에게는 험한 길로 인식된다. 방조제를 막은 후로는 간월도가 연륙되었기에 더 이상 감길을 이용하지 않게 되었고, 간척으로 인해 감길이 사라져 지금은 감길이라는 용어 자체도 생소하다.

한편 간월도의 감길은 곡식이 드나드는 길이기도 했다. 논이 없고, 밭에서 보리나 잡곡만을 생산했던 간월도에서 쌀은 내륙에서 모두 구입해 왔다. 특히 강당리에는 농지가 많고 가미로 연결되어 있어 이곳에서 물물교환으로 마련했다. 간월도 주민들은 강당리에 어물을 가져가 그곳에서 각 가정을 돌면서 미곡과 바꾸었다.

당시에 쌀은 보리의 10배 이상의 가치였기에 쌀로는 교환이 어려웠고, 주로 보리나 밀, 쌀지울, 밀지울 등으로 교환했다. 이와 관련해서 간월도에는 “나갈 때도 한 짐, 돌아올 때도 한 짐이어”라는 말이 있다. 나갈 때는 어물을 한 짐 가지고 나가고, 돌아올 때는 곡물을 한 짐 가지고 왔기 때문이다.



천수만의 나루, 다리, 감길

새택감은 가사리 3구 앞으로 난 바닷길로, 3리 구정리 마을 밑에 위치해 있다. 도보로 다니던 시절 서산과 태안을 잇는 직행 길로 이곳을 지나 감조 때 바다를 가로 질러 다녔다. 이 길을 ‘감’이라 했는데, 인적이 드문 후미진 곳으로, 지나던 혼행길 가마에 탄 신부가 도둑과 괴한들에게 납치되어 갔다는 전설이 어려 있다.

지산리와 석포리를 잇는 감길은 인지면과 부석면 사람들이 걸어서 광천으로 장을 보기 위해 이용하던 길이다. 인지면에서 광천장을 가기 위해서는 양대동과 오남동을 잇는 고방다리로 건너가야 하나 그 길이 멀기에 3시간 거리의 이 감길을 이용했다. 이 길은 현재 90세 이상 되신 분들의 기억에만 남아 있다. 이 길을 이용해 송아지를 팔러 다녔는데, 서산장의 물건 값이 헐하면 혹시나 더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 보다 큰 장이었던 광천장을 보러 갈 때에 이용했다. 90세 이상인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은 이 길을 이용했다고 하니 빈번이 오가던 길이었다고 하겠다.

석포리와 장동2통은 바다로 빠죽하게 나와 있는데, 그 모양이 낮과 같다고 하여 두 지역의 명칭이 모두 ‘낮머리’이다. 언암리 낮머리 앞 바닷가 쪽에는 선수뚝병이 있었는데, 이 뚝병은 어린이들이 모래무지를 쌓으며 놀던 곳으로 주변에 너럭바위라는 바위가 있어 놀이터로 안성맞춤이었다. 그 옆으로 두 지역을 잇는 감길이 있었다.

이곳은 서산시와 바다로 분리된 해미면 언암리, 기지리, 석포리 주민들이 서산장을 보기 위해 바다를 가로질러 다니던 길목이기도 했다. 썰물이 되어 바닷길이 열리면 주민들은 바다로 난 감길을 이용해서 왕래했다. 이들을 위해 편이상 바다에 길을 만들었다. 언암리 낮머리와 장동 2구의 낮머리는 바다로 빠죽하게 낮처럼 나와 있는데 두 지역을 잇는 길이었다. 대나무를 꽂아 썰물이 되어 길이 열리면 누구라도 길을 찾아 갈 수 있었다.

4) 두 지역을 잇는 도강(渡江) 다리

천수만과 이어지는 강의 지류들에는 두 지역을 잇는 다리가 여럿 있다. 덕지천과 기지리를 잇는 ‘개삼포 다리’를 비롯해 해미면과 서산시를 잇는 ‘한다리’, 오남동 2통과 양대동을 잇는 ‘고방다리[屈橋]’는 서산에서 태안으로 가는 길을 잇는 다리이고, 오남동 4통에 위치한 ‘너더리[板橋]’는 해미에서 서산으로 가는 길목에 있던 다리이다. 이들 다리는 두 지역을 가로질러 이어주어 서산장, 태안장을 이용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중 한다리는 유계리와 흥천리를 잇는 다리이다. 이 길은 서산과 해미를 잇는 다리로 많은 이들이 왕래했다.

귀밀리의 개삼포는 억대리와 귀밀리를 잇는 다리이지만 고북면과 서산시를 이어주어 서산장을 가려면 반드시 건너야 하는 다리이다. 도당천의 10미터 가량의 넓은 강폭을 가로지르는 나무다리로 수년에 한 번씩 불어난 물에 쓸려 소실되었다. 다리가 없으면 물길로 건너다니기도 했지만 여간 불편하지 않았기에 사람만 건너다니도록 만든 것이다.

강폭이 워낙 넓어 주민들의 힘만으로는 제작이 어려워서 주민들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음력 정월에 걸립하러 다녔다. 풍물패를 앞세우고 이 다리를 이용하는 마을들을 돌며 걸립했는데, 안면도까지 다니며 걸립을 했다고 한다. 특히 고북면 주민들은 서산장을 가려면 반드시 이 다리를 건너야 하므로 걸립에 참여했다. 걸립패가 가면 집집마다 상을 놓고 쌀이나 돈을 놓고 지신을 밟아달라고 한다. 풍장을 두드리면서 다니며 거둔 비용으로 다리를 놓는 나무를 구입해 다리를 놓았다.

서산시 양대동 앞의 강에는 인지면 야당리와 서산시 양대동을 잇는 나무다리가 있었다. 부석면 주민들이 서산장을 가려면 이 다리를 건너야 했다. 서산으로 가는 가장 큰 길이므로 다리를 놓았던 것이다. 이 다리는 배다리[舟橋]라 불렀다.

오남동 1통과 양대동을 연결하는 시멘트 다리 이전에 나무와 흙으로 만든 다리가 있었다. 다리 중간에 높은 기둥을 세우고 양쪽 제방과의 접속부분은 얇게 한 반달형의 다리였다. 이 다리의 폭은 1미터이내이며, 길이는 15미터 정도로 나무로 난간을 매어놓고 위에는 흙을 얹고 섬을 얹었다. 이 다리는 ‘고방다리’라 불렀는데, 그 뜻은 구부러진 다리라는 의미이다. 이 다리는 오산면과 울곶면, 인지면, 태안군, 해미면, 예산군, 홍성군 주민들이 이용했기에 인근에서 꽤나 유명했다. 홍수가 나서 다리가 떠내려가면 2~3년에 한 번씩 주민들이 보수했다.³⁷⁾

이 길은 과거 보부상들이 해미장과 서산장, 태안장을 보기 위해서는 돌아가는 길 보다는 바닷가의 해변길을 이용하던 길이라고 한다.

37) 이은우, 위의 책, 서산시청, 2005, 1140쪽.

제 3 장

천수만의 간척과 개척



천수만의 간척과 개척

1. 간척 면허권 남발과 서산 간척

천수만은 만내의 수심이 매우 얇아서 수심 20미터 이상의 수역은 극히 좁고, 10~20미터의 수역도 조류가 출입하는 중앙 갯골을 따라 분포할 뿐이며, 특히 수심 5미터 내외의 간석지가 간조시 대기에 노출되는 조간대에 속하여 가장 우선적 간척의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천수만은 반농반어의 겸업에 종사하고, 어업 보다는 농업에 의존도가 높았기에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간척사업에 참여하였다. 1924년 이전까지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소규모로 행해졌지만 국유의 미개간지와 개펄 등을 농토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인 ‘공유수면 매립령(公有水面埋立令, 대정 13년(1924))’이 발표되면서 간척이 비교적 용이해졌다. 이 즈음에 천수만 일대에 매립이 본격화되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73년의 지도에 매립된 공유지면이 다수 확인되는데, 농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천수만 주변의 지역민이 주도해서 매립에 나섰다. 위에서 보았듯이 매립이 용이한 공간을 주 대상으로 삼아 간척했다. 해당 내용은 1926년에 발간된 『서산군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당시 매립준공은 인가만을 받은 경우와 10정보를 기준으로 그 이상

과 이하로 구분해 매립허가를 구분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6] 매립준공 인가지

준공인가		매립준공자		매립 준공지				비고
인가번호	연월일	주소	씨명	소재	지목	면적		
84	대정 9년 4월 14일	해미면 석포리	한철동	해미면 양림리	논 밭	1	9302 9618	
199	대정 8년 6월 27일	해미면 석포리	김낙천	해미면 석포리	논		5707	
202	대정 8년 6월 7일	해미면 석포리	김낙호	해미면 석포리	논		2314	
200	대정 8년 6월 27일	해미면 석포리	김보현	해미면 석포리	논		2318	
326	대정13년 4월 10일	부석면 취평리	조정구	원북면 황촌리	논 제방	10	0524 0102	

[표 7] 10정보 이상 면허지

면허 연월일	면허 번호	면허지 소재지	면허지 면적		면허기간	피면허자		비고
						주소	성명	
대정 7년 6월 13일	162	부석면 봉락리	59	5204	대정 14년 12월 말	대구 서내정	배중서 외 2인	
대정 10년 5월 9일	252	부석면 창리	12	39□4	대정 14년 12월 말		부석면	
대정 5년 7월 24일	397	해미면 석포리	16	8107	대정 17년 12월 말	동래군 동래면 온천	박경기	
대정 8년 4월 4일	184	고북면 신상리	17	6226	대정 17년 12월 말	동래군 동래면 온천	박경기	

[표 8] 10정보 이하 면허지

면허 연월일	면허 번호	면허지 소재지	면허지 면적		면허기간	피면허자		비고
						주소	성명	
대정 7년 7월 29일	331	부석면 송시리	2	6417	대정 16년 12월 말	부석면 강수리	서재명	
대정 9년 5월 28일	486	부석면 강당리	8	4926	대정 15년 12월 말	부석면 칠전리	이현교 외 4명	

면허 연월일	면허 번호	면허지 소재지	면허지 면적		면허기간	피면허자		비고
						주소	성명	
대정 10년 7월 13일	630	해미면 석포리		5917	대정 16년 12월 말	해미면 석포리	김남양	
대정 6년 8월 7일	213	고북면 봉생리	2	7322	대정 14년 12월 말	고북면 봉생리	엄홍섭	
대정 12년 8월 14일	216	고북면 봉생리		5000	대정 14년 12월 말	고북면 봉생리	엄홍섭	
대정 12년 4월 25일	682	고북면 남정리		2429	대정 17년 12월 말	고북면 남정리	김덕현	
대정 12년 4월 25일	683	고북면 남정리		4706	대정 17년 12월 말	고북면 남정리	박성보	

『서산군지』(1926년)를 참고하면 이 시기에 안면도 지역에서 개간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그에 비해 천수만 일대의 간척은 수적으로 많지는 않다. 석포리, 봉생리, 남정리, 강당리, 신상리, 송시리 등에서 매립이 시도되었다. 매립자는 동래군 동래면, 태안군 원북면 거주자도 포함되지만 위의 표들에서 볼 수 있듯이 천수만 인근에 거주하던 사람들이다.

한 예로 이번 조사 시에 창리에 거주했던 배재구(68세) 씨의 조부인 배견모 씨가 실시한 간척을 전해들 수 있었다. 배견모 씨는 칠전리 사기점, 창리 원적골, 안면도 창기리 일대를 간척했다고 한다. 간척을 주도했던 배견모 씨는 부친인 배응모 씨의 경제력에 기초해서 간척을 진행할 수 있었다. 그의 조부이자 제보자 배재구 씨의 증조부인 배응모씨는 경주 배씨로, 창리에서 여러 대를 거쳐 거주했으며, 생존 시에는 안면도에서 벌목을 해서 마포로 내다 팔거나, 신안에서 새우젓을 구입해서 역시 마포로 가져다 팔아서 큰 부를 축적했다. 마포에서 물건을 판 후에는 그 돈으로 미곡을 구입해서 이곳으로 가져와 되팔아서 큰 이문을 남겼다. 제보자의 기억으로는 배가 들어오면 선원들이 엽전 꾸러미 등을 쉽게 집안으로 들여왔으며, 집안 곳곳에 엽전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고 한다. 조부의 경제력이 간척의 기반이 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곳에서 이루어진 간척은 위와 같이 허가를 받은 것도 있지만 무허가도 많았다. 농지에 대한 갈망 속에서 주민들이 힘을 합해 공동으로 간척을 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간척희망자에게 면허를 내어주면 그 간척면허장은 대상지에 대한 사업독점권인 동시에 간척이 완공되면 대상지에 대한 소유권으로 인정되었다. 무허가로 이루어진 간척은 벌금을 내면 역시 매립자 소유가 되었으므로 벌금을 낼 각오를 하고 매립을 시도했다. 이럴 경우 주민들이 공동으로 행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바다 가운데 옥토(沃土)를 건져내는 간척사업이 활기를 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마을 앞의 간척은 모두 등짐으로 막았어요. 몇 천평씩 동네 주민들이 협업으로 땅 좀 만들어 보자. 어귀에 지대가 높은 곳. 등짐으로 막았어요.

그 당시 무허가로 막아서 내는 벌금이 150만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많이 무허가로 막았지.”

1960년대에는 논밭 조성이 아닌 염전 개발이 본격화되었다. 사장포 북안의 덕문천 하구에 233ha의 대규모 염전들이 건설되었고, 고북면 지역에는 소형의 염전이 개발되었다. 염전개발은 1970년대에도 지속되어 서산군 부석면 대두리, 심포, 창리 등지에 신규 염전이 조성되었으나 1970년대 중반부터 신규 염전 건설은 완전히 중단되고, 1980년대 초부터 폐전되기 시작했다.

2. AB방조제 건립과 간척

천수만의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서산 AB방조제 건립과 대간척이다. 크고 작은 간척이 이루어지던 천수만에 전국에서 가장 큰 간척지가 건설되었다. 당시 현대건설은 해외건설 사업을 이어 나가던 중 이것이 퇴조할 것을 계획해 대비책으로 새로운 사업을 구상했다. 1977년에 국가가 추진하던 국토확장을 계획했다. 1978년 10월 31일에 사업허가서를 제출했고, 1979년 1월 10일에 고시된 “민간기업 참여에 의한 대규모 간척농지개발사업 시행규칙”에 따라 1979년 8월 24일에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얻었다. 이 규정은 해외건설장비의 도입을 간척사업에 한해서 허용한 것이다.

방조제 건립을 통해서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계획되었다. 가장 큰 특징은 만 앞을 가로 막아 15,500정보의 간척지가 개간되었다는 점이다. 1982년 4월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었는데, 부석면 창리에 현장사무소가 건립되었고, 이곳에 “나는 국토확대사업의 일꾼”이라는 뜻말이 걸렸다. 간척사업을 위해 바닷물의 유입을 막아낼 두 개의 대형 제방이 필요했다. 제방은 두 개의 해안선에서 두 개의 좁은 반도를 만들어 만(灣)의 중간에서 만나게 해서 바닷물을 막는 것이다.

그 후 물을 빼고 흙을 쏟아 부어 논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중 제일 문제가 된 것은 제방을 만들기 위해 돌을 바다에 쏟아 부으면 바닷물에 곧 휩쓸려 내려가 버리는 것이었다.

이때 정주영 회장의 지시로 돌무더기를 철망으로 싼 다음 그것을 바다에 넣는 방법을 고안했다. 여러 개의 돌이 묶여 있어 바닷물에 휩쓸려 가지 않았다. 이러한 작업으로 첫 번째 제방이 완성되었고, 두 번째 제방은 6.4km로 더욱 어려웠다. 제방의 양끝이 가까워짐에 따라 바닷물의 속도와 강도가 더욱 거세



서산 간척 예정지구, 국가기록원 소장



서산 간척 예정지구, 국가기록원 소장



서산간척 예정지 군관민 합동조사, 국가기록원 소장



서산간척 예정지 군관민 합동조사, 국가기록원 소장



서산 AB 방조제 물막이 공사
민정희 제사



관광명소가 된 간척지, 경향신문, 1988.5.10.



서산 AB 지구 개답현황-9단지(2005년), 국가기록원 소장

졌기 때문이다. 덤프트럭으로 수없이 돌을 쏟아 부었지만 계속 실패했다. 계속 돌을 쏟아 붓는 방법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새로운 방법이 고안되었다. 정주영 공법이라 불리는 방법이 고안되었다. 유조선공법이라는 방법으로 물을 가뒀다. 스웨덴의 낡은 유조선 크리어워터베이호(26만 톤급)를 이용했다. 길이 315미터, 22만 6000톤짜리 유조선을 급류가 흐르는 부분에 가로놓았다. 덕분에 해류가 흘러드는 것을 틀어막아 제방의 열린 부분을 막을 수 있었다. 이 공법은 ‘유조선 공법’ 혹은 ‘정주영 공법’이라 부른다.³⁸⁾

A방조제를 막아 6,444ha를, B방조제를 막아 4,228ha의 농경지가 생겼다. 간척지 내부에는 4,922ha의 민물호수도 만들었다. 태안군으로부터 서산시, 홍성군에 이르는 7.7km의 방조제가 건립되었다. 이러한 규모는 서산군 전체 면적의 절반가량에 해당된다. 추진 당시 대규모 농경지 건립을 통해 22,000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추정했다. 인원 고용 뿐만 아니라 쌀과 보리 등의 식량증산을

38) 『Made in Korea 정주영(11), 정주영 공법-서산만 간척』, 『매일경제』 1988년 11월 6일.



서산 AB 지구 개답현황-2단지(2005년), 국가기록원 소장

이루게 되어, 쌀은 47,768톤으로서 50만명이 1년간 먹을 수 있는 분량이고, 더 붙여 보리도 17,566톤이 생산될 것으로 예측했다.³⁹⁾

A방조제는 홍성군 결성면 궁리로부터 서산군 부석면 창리까지 6,476미터로 건설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검조도, 계도, 부도, 간월도 등의 4개의 섬이 없어졌다. 이중 유일한 유인도였던 간월도는 연륙(連陸)되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

B방조제 건립은 1965년에 농업진흥공사가 7억 3천여만원을 들여 300미터의 방조제를 건설하고 6천 정보의 국토를 확장하고, 농토를 마련해 1,230세대의 농가를 이주시키고자 계획되었다. 그러나 방조제 건립 후 간척사업은 13년 동안 진척되지 않았다. 1978년에 비로소 개간산업이 재계되었다. 이와 관련한 공사연혁과 공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39) 「충남 서산 대간척사업 그 현장을 가다」, 『경향신문』 1984년 3월 20일

공사연혁

- 1979. 08. 서산 A, B지구 매립면허 취득
- 1980. 05. 서산 A, B지구 매립공사 착수
- 1982. 10. 서산 B지구 최종 물막이(1.2km)
- 1984. 03. 서산 A지구 최종 물막이(6.5km)
- 1985. 04. 서산 A, B지구 내부개답 착수
- 1986. 05. 시험 영농 개시
- 1995. 08. 준공(공사기간 15년 3개월)

[표 8] AB 방조제 건립 관련 공사내역(현대서산농장 홈페이지 인용)

구분		A지구	B지구	계
방조제		6,458M	1,228M	7,686M
배수갑문		8련(102M)	4련(35.6M)	12련(137.6M)
내부간척공사	방수제	32.1km	35.1km	67.2km
	양배수장	5개소	3개소	8개소
	용배수로	481.2km	268km	749.2km
개발면적	매립면적	9,626ha	5,783ha	15,409ha
		(2,912만평)	(1,749만평)	(4,661만평)
	농지면적	6,376ha	3,745ha	10,121ha
		(1,929만평)	(1,133만평)	(3,062만평)
	담수호면적	2,647ha	1,527ha	4,174ha
		(827만평)	(473만평)	(1,300만평)

1980년 5월부터 1987년 11월까지 7년 7개월 동안 6,470억원을 들여 서산시,

태안군, 홍성군 일대에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완료했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간척사업의 결과로 얻은 땅은 사업자의 소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산 방조제 건립 이전까지는 정부산하의 농업진흥공사가 사업을 진행했기에 땅 소유권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대가 간척한 이 땅은 간척의 규모가 커서 여의도의 38배나 되는 넓은 땅이었기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

토지 소유 문제와 보상문제로 인해 매립면허 기간이 3차례 연장되었다. 1995년에 비로소 농림수산부는 A지구 논 6,376ha, 잡종임야 20ha 등 총 6,396ha가, B지구는 논 3,745ha, 잡종 임야 183ha 등 3,928ha가 매립되었다. 총 매립지 15,409ha 중 13,024ha는 현대가 소유하도록 하고, 방조제 담수호 수로 등 시설과 부지 5,085ha는 국가에 귀속했다.

어업권 보상과 토지분배 갈등

천수만 일대에는 2,900여 세대가 어장가치 하락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 1986년 5월 현대건설과 충청남도에서 간척사업이 끝나더라도 천수만 어장의 43%만이 그 가치를 상실한다는 말을 믿고 1980년대에 14억원의 피해보상을 해주었다.

1986년부터 1987년까지 방조제 건립으로 인해 어업권 보상이 시작되었다. 당시 어업권은 신고와 허가를 얻은 것만이 대상이었기에 신고와 허가 없이 이루어지던 전통어선, 맨손어업, 함정어구, 낚시 등에 대한 보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어업권에 대한 보상은 허가업에 속하는 중선과 신고한 굴밭이 고작이다. 그러나 주민들 대부분이 굴밭을 소유했지만 신고는 하지 않았고, 그들은 도수면허가 있는 줄도 몰랐기에 모두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주민들은 바다에만 나가면 낙지 30~40마리는 쉽게 잡을 수 있고, 바지락, 게 등도 쉽사리 어획이 가능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모두 할 수 없게 되었으나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

았다. 1980년대에 간척지 건립을 반대하고자 했으나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는 불가능했기에 침묵했다고 한다. 특히 어업권 조사를 할 때에는 경찰이 대동해서 확인했기에 위협적인 공권력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을 전한다.

1986년도에 사회적 분위기가 변모하자 주민들도 ‘AB지구 피해어민’ 들이 모여 집회를 개최했다. 어업에 종사하던 비중이 높았던 8개 마을이 주동이 되어 어업권 보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당시 8개 참가 마을은 갈마리 1, 2구, 봉락리 1, 2구, 마룡리, 창리, 간월도리, 지산리 등이었다. 초대 회장은 봉락리 2구의 지규광 씨였다. 봉락리 2구는 내륙에 위치한 마을 중 유일하게 어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았는데, 전주민 집회 참여율이 100%였다. 8개 마을에서 600~700가구가 참여해서 대규모 피해어민 집회가 열렸다. 그러자 수천 명이 추가로 참여하여 피해어민 집회에 관심을 보였다. 당시 참여자는 보령, 홍성, 서산, 태안 등지의 어민들로, 방조제 건립으로 조수간만의 차이에 따라 양식장 피해가 많아짐에 따라 고기가 덜 잡히고, 해태 양식도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참여한 것이다.

1987년도에는 노태우 대통령이 6·29선언에 서산의 피해 농민을 위한 공약이 첨부되자 초기 참여 가구인 600호에서 12,000호로 증가했다. 그 결과 보상액으로 설정된 기존의 100억을 지급하기 위해 등급을 나누기로 했다. 보상 대상을 A, B, C급으로 구분해서 보상하기로 했는데, A등급은 전업어가이고, B등급은 반농반어 농가이고, C등급은 1년에 바다에서 10일 정도 종사하는 가구로 구분했다. 이에 A, B등급 12,000가구 중 A급인 8개 마을은 600~700만원을, B급인 13개 마을은 300만원, C급은 100만원을 지급이 결정되었다. 태안, 안면도 남면, 보령 지역의 C급 대상자들이 모여 ‘우선분양연대모임’ 을 갖고 보상을 위한 집회를 개최했다. 이에 따라 가사리, 월계리, 강수리 2구, 취평리 1구 등은 2005년에 위로금을 100만원을 보상받았다.

1991년에 방조제가 완공되어야 했으나 그렇지를 못해 재매립을 신청을 했는

데, 이 과정에서 면허조항 15항을 넣었다. 이는 매립준공과 동시에 인근 피해 주민에게 1,500평의 공공간척지 분양시 우선해서 분양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2000년에 현대가 유동성 위기를 경험하게 되면서 면허조항을 지키지 않았다. 2000년 12월에 국민을 대상으로 간척지를 매각하겠다는 공고를 계기로 농민들은 ‘일반매각제지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이에 대항했다. 당시 26개 마을의 주민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면서 현대건설과 심각하게 갈등이 표출되었다. 이때 인지면과 서산시 석남동 주민들이 함께 하겠다고 해서 4개 시군연합체가 결성되었고, 집회를 수시로 개최했다.

2002년에는 마을마다 마을 앞의 간척지 12,000평을 불법으로 점거해 농사를 짓기도 했다. 이 땅의 불법 점거에 관련해서 현대나 주민들 사이에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당시 간척지를 일반 농민에게 임대해 줄 경우 임대세금을 현대가 내야 하고, 땅을 주면 농민들이 세금을 내야 했다. 이에 주민들이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조건으로 타결되었다. 그 과정에서 80여 명의 농민이 벌금을 내야 했고, 법적처벌도 받았다. 결국 약식기소로 8,000만원의 벌금을 내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2004년 5월에 타결되어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현대로부터 간척지를 분양받게 되었다.

공공간척지 분배 조항에 따라 해안 주변 마을에 우선적으로 한 가구당 1,500평을 분양했다. 땅을 분양하겠다는 용지를 나누어 주었는데, 주민들 사이에는 ‘딱지’라고 불렀다. 당시 분양가는 현대건설이 제시하고, 농어촌공사 주관으로 농민에게 판매했다. 농어촌공사가 충청남도에게 의뢰해 주민들과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감정가는 간척지의 토질에 따라 A지구는 20,000~22,000원으로, B지구는 17,000~20,000원으로 책정되었다. 간척지는 동향의 A지구는 펄 땅으로 땅이 비교적 좋았지만, 서향인 B지구는 바람이 많이 불어 파도가 많이 쳤기에 모래나 자갈이 많아 좋지 않았기에 조금 저렴했다.

1980년대 당시에는 식량의 확보가 중요했기에 간척지에 대한 기대가 컸겠지



시농제(2003년), 이종선 제공



트렉터 시위 현장(2003년), 이종선 제공



시위현장(2003년), 이종선 제공



우선매각 및 위탁영농관련 합의서 서명식, 이종선 제공

만 현재는 사정이 다르다. 쌀값도 헐하고, 식량도 남기에 간척지의 용도에 대해 다양한 변화를 기대한다. 최근 3년 동안 가뭄이 들어 염해(鹽害)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에당초 환경영양평가를 받아서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문제가 많습니
다. B지구는 수원이 없어요. 3년째 농사를 못 짓고 있어요. A지구는 홍성에 대
규모 축산군단지인데. 그 축산폐수가 간월호로 내려오고, 수십만마리의 새끼가
배설을 합니다. 서산시의 생활하수도 간월호로 내려옵니다. 수질이 매우 안 좋
습니다. 농지로서 적합하지 않는 땅을 농지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농사를 지으려면 저수지를 만들거나, 여의치 않다면 농지를 다른 용도
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홍성군 축산 폐
수가 와룡천을 통해 간월호로 유입되고, 고북면과 해미천, 양대천 등으로부터
유입되는 폐수가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간월호로 유입된다. 더욱이 방조제 건립
이후 늘어난 철새의 배설물로 인해 수질은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는 현대서산농장에서 소 배설물의 냄새가 인근 지역으로 바람을 타고
흘러 다녀 민원이 끊이지를 않고 있다. 현재 간척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
해 조성된 간월호와 부남호의 두 개 호수는 5~6급수로 농수로 이용하기에 부적
합하다.

또한 간척지의 염분은 지속적으로 비가 내려야만 해결이 가능하다. 수 년 동
안 지속적으로 염분제거를 위해 노력했지만 지금도 가뭄이 들면 하얗게 염분이
드러난다. 개펄이었기에 한 질만 파도 염기가 드러나는 것이다. 때문에 B지구
는 폐농하는 농가가 여럿 있다.

전체 농지 3,000만평 중 현대가 짓는 1,000만평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농지로
활용 중에 있다. 이 땅은 모두 다른 용도로 변경이 불가능한 절대농지이다. 이

중 현대전용 농지 중 일부인 태안 골프장 3곳, 현대모비스 연구단지 6만평은 다른 용도로 활용 중에 있으나 주민들이나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현재 주민들은 간척지의 활용이 다양화되기를 소망한다. 절대농지로 지정된 현시점에서는 농지로만 활용해야 하므로 농수 공급을 위한 추가 시설을 설치하거나, 방조제를 헐어 다시 어업지구로 회복해야 한다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시화호처럼 갯물이 드나들도록 해야 하고, 선진국처럼 역간척(逆干拓)을 해서 어류의 산란지인 천수만을 되살려야 한다는 등의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기를 고대한다.⁴⁰⁾ 3,000만평의 넓은 농지의 활용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과 변동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특히 절대농지에서 벗어나 잡종지로의 변경이 이루어져 주민들의 소득에 일조하고, 환경적인 상황에 적합한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이종선 씨는 역간척(逆干拓)도 한 방법이라고 다음과 같이 조심스레 이야기 한다.

“예전에는 부석면의 인구가 15,000명이었는데, 방조제 건립이후 5,000명으로 줄었어요. 방조제가 건립 안 되었다면 부석인구가 30,000명은 되었을 테고, 취업할 수 있는 기회도 많죠. 독일이나 일본은 역간척이라는 말도 있어요.”

간척지는 개답(開畓)을 통해 옥토(沃土)로

간척 이전에 보유한 농지를 두고 주민들은 ‘근본 있는 땅’ 혹은 ‘옥답’이라 부른다. 특히 강당리와 같이 농지가 많아 순수 농촌마을의 경우에는 인근에서

40) 이종선 씨는 태양광 발전관을 설치해 전력을 생산하는 친환경적 원리적용이나, 농공단지, 산업단지 등의 주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산업 시설 유입을 기대한다. 특히 A지구는 일조량도 많아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도 유독 논이 많았다.

간척지의 경우도 짚물이 빠져야 비로소 소출을 기약할 수 있으므로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대규모 간척지였기에 개간이 필수적이다.

개화도 간척지의 경우 소금을 빼는 데만 13년이 걸렸으나 제염술(除鹽術)의 발달로 기간을 절반을 줄였다고 한다. 이곳에서는 1984년부터 제염이 시작되었으며, 2004~2005년에는 주민의 신청을 받아 경작을 시험했다. 간척지 전 구역 중 지역별로 신청자를 받아 경작토록 했으며, 그것이 성공적이었기에 2006년에 토지를 불하했다. 제염하는 동안은 한 해에 논을 갈고 뒤집기를 5~6번씩 반복했다. 염기가 많으므로 비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갈고 뒤집기를 반복했다. 지금도 1미터만 파면 염기가 나오지만 수로가 잘 완비되어 있고, 양수장 시설도 좋아 농사짓기에는 별 어려움은 없다.

그러나 가물면 염분이 올라온다. 염분이 올라오면 그 부분의 벼가 죽어 수확량이 준다. 2016년과 2017년에는 가뭄이 들었고, 저수지는 오염되어 사용할 수 없어 농수공급에 차질이 발생해 농사를 포기하고 벼 대신에 감자를 심기도 했다. 간척지 수확은 비만 잘 오면 농사짓기가 용이하고 마지기당 소출이 좋지만 가뭄 등에는 대책이 없다.

천수만은 인근에서 유입되는 각종 오·폐수로 심하게 오염되어 바다생물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로 변했다고들 한다. 방조제 건립으로 인해 바닷물 유·출입이 막히면서 자정력을 잃었으며, 각종 쓰레기가 바다 밑에 쌓여 형성된 거대한 슬러지로 인해 해저 사막화 현상도 나타났다.⁴¹⁾ AB방조제 부근 해저에는 서산시 등 인근 지역에서 유입된 각종 오염물질과 쓰레기 등이 쌓인 슬러지층이 50~60cm 두께로 500~600cm에 걸쳐 형성되어 있다고 한다.

41) 「방조제 건설 자정력 상실 각종오물 쌓여 슬러지화 자원고 천수만이 죽어간다」, 『경향신문』 1997년 6월 28일에 한국해양연구소에서 발간한 “천수만 어장환경 현지조사결과”를 통해 밝혔다.

천수만의 오염은 인근에 조성된 인공 담수호인 간월, 부남호가 서산시 등지에서 배출된 각종 오·폐수와 농약잔류물 등으로 오염되면서 더욱 가중되고 있다.

3. 양대·모월 지구 개척단과 개간 그리고 토지개량

1) 양대·모월지구 개척단은 누구인가?

개척단은 1960년대부터 제3공화국에서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시행했던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농지확보를 위해 전국의 간척지를 대상으로 개척단을 꾸렸다. 서산 양대·모월지구의 개간지는 1952년경 염전 조성을 목적으로 제방축조 매립(전매청)하였으나 낮은 염도로 인해 염전을 폐하고 방치되어 있었다. 당시 이 땅은 수시로 독이 터져 염전으로써 활용성이 낮았기에 염전을 폐한 상태로, 1960년대 소금이 남아돌게 되면서 전국의 염전이 많이 폐쇄되었는데, 이 염전도 그러한 과정에서 농지로의 전환을 이루고자 한 것이다.

국유 폐염전 321ha 중 242ha를 농경지화하여 206세대에 1ha씩 대부하여 입주시킬 계획으로 대한청소년 개척단을 설립하였다. 이미 제방이 축조되어 있었기에 1961년 11월 24일에 정부의 특수시책인 사회명량화 일환책으로 전국의 무의무탁한 우범자, 출감자, 윤락여성 등을 순차적으로 정착시켜 1,674명(대표 민정식)의 정착민이 생활했다.

서산에서 활동한 ‘서산청년개척단’은 10대부터 30대까지의 부랑아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본인의 의지보다는 부랑아 생활을 하던 중에 풍기문란, 질서유지 등의 이유로 사회로부터 강제적으로 격리되었다. 당시 이들에게 열심히 일

하면 토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노동에 참여할 것을 권유받아 이곳으로 옮겨 왔다고 하는데, 그 권유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주어지지 않았었다.

이곳에 처음 터를 잡은 이들은 1961년 11월 14일에 서울에서 내려온 이들로, 단장 민정식 씨가 서울에서 모아서 내려온 25명이었다. 민정식 씨는 서울 흥제동에서 개인 사업을 하던 이로, 2대 대통령인 윤보선과 친근한 사람이었다고 기억한다. 그 후 여러 차례 구분되어 사람들이 모집되어 왔다. 제보자 정영철 씨와 김인 씨는 이곳에 들어온 2기생으로 부산에서 잡혀왔다. 1962년 2월 3일에 부산에서 부랑아 생활을 하던 중 붙잡혔다. 당시 100명이 잡혔는데, 해병대가 총을 겨누며 부랑아를 제압했다. 안서면 쓴다는 엄포에 놀라서 붙잡혔다고 한다. 군용트럭에 실려서 용두산 공원으로 옮겨졌다. 그곳에서 이유 불문하고 맞았는데, 부랑아를 길들이기 위해 무조건 때린 것이다. 이곳에서 희망원으로 옮겨졌는데 그 당시 용두산공원 아래의 냇물이 빨강계 될 정도로 구타가 심했다고 기억한다. 일주일 정도를 방에 감금했는데, 200여명이 모이자 다시 버스에 태워 어디론가 옮겨졌다. 당시 버스에는 커튼을 쳐서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없었다고 한다. 이들은 전남 장흥군 관산면 삼산리로 옮겨졌다. 이곳도 모월리와 달리 간척을 하던 곳으로, 당가를 매고 흙을 담아서 바다를 막고 있었다. 2월에 도착해서 1962년 8월 20일에 장흥을 떠나기까지 작업에 동원되었다. 땅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50명을 서산으로 옮겼다. 그 후에는 서울역 지계꾼과 비렁뱅이[거제], 대전의 녕마군 등이 3기생으로 들어왔으며, 그 후로도 여러 차례 추가적으로 토지를 받을 수 있다는 말만 믿고 이곳으로 모였다. 이들은 모두 강제 수용되어 자유없이 강제노역을 했다. 1966년 9월 강제수용생활이 끝날 때까지 모두 1,771명이 공동 수용되어 있었다.

이들이 거주하는 막사를 지을 때는 미8군에서 목재를 주었다. 단체합숙소는 창고처럼 만들고 마루를 놓아서 40~50명 정도가 생활했다. 수용생활은 군대와 마찬가지로였다. 제식훈련을 받고, 군가식 개척단가(開拓團歌)를 부르며 작업의지

를 높였다. 단가에는 그들의 생활과 이념이 녹아 있기에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우리는 무적의 젊은 개척자
 올바른 정신과 올바른 마음으로
 민족의 번영과 자활을 위해
 오늘도 일터로 우렁찬 행진
 내일의 번영을 어깨에 메고
 우리는 불굴의 개척의 용사

이러한 단가를 부르며 노동현장에서 작업을 했다. 당시 전체 인원의 8%가 임원이었고, 단원 중 소대장을 뽑아 단원을 관리했다. 부랑아 생활을 하던 이들이었기에 싸움이 잦았다. 서로 치고 박고 싸우다가 일부는 죽기도 했고, 도망가다가 붙잡혀 맞아 죽기도 했다. 그들은 마을로 들어오는 공동묘지에 매장했다. 인근 마을 주민들은 아침마다 당가에 죽은 사람을 실어 마을 입구의 공원묘지로 옮겼다고 기억한다. 이후 공원묘지 자리에 희망공원이 만들어지면서 당시 사망했던 이들을 한 칸에 매장하고 ‘서산청소년 개척단’이라는 표지석을 세웠다. 1990년도까지 해마다 추석에는 그들을 위해 위령제를 지내주었다. 1990년대까지는 50여 명이 거주했기에 위령제를 지내는 공동제사는 유지될 수 있었다. 개척단원들이 노령화되고, 단원도 16명만이 남았기에 위령제는 중단되었다.⁴²⁾

42) 한때이지만 이들이 지역을 확보하고 다녔기에 부석면과 인지면 주민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먹고 살 것을 주지 않았기에 주변 마을을 돌며 고추장단지, 된장단지 등을 가져갔다. 동일한 옷을 입고 머리도 짧게 깎고, 그들이 다니다가면 물건이 없어지기도 했기에 현재 60대 중반의 주민들에게 개척단하면 무서운 사람들이라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기도 하다. 지역 주민들은 먹을 것이 없던 개척단이 먹고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이해하고 있다.

개척단의 모월리 정착과 개간

모월리 3통에 개척단의 생활 근거지가 꾸러졌다. 이곳은 개간지 옆의 산이었다. 주민들의 거주지와는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공동의 생활근거지를 꾸렸다. 초기에는 집이 없어 천막을 치고 생활했다.

개척단에게는 임야 15,011평을 개척하는 임무가 주어졌다. 이 지역은 모월리 산 33-1번지로 묶여 있었다. 이곳은 이미 독이 막혀 있었기에 개간만을 하면 되었다. 개간지는 320정보로 국유지였다. 이들에게 농지를 분배한 방식은 제비뽑기였다. 정착 시기에 따라 1기, 2기, 3기의 기수대로 제비뽑기로 ‘가분배’를 했다.

이들은 국가에서 지급해주는 강냉이 가루와 밀가루를 먹어가며 농지개간에 동원되었다. 아침에 대한통운 트럭에 가득 실려 밀가루와 강냉이가루가 왔지만 자고 나면 그것이 모두 없어졌다. 그것이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 없었고 단원들에게 지급되는 양은 턱없이 적었다. 비료가 없어 소출량은 기대할 수 없었다. 보리만을 조금씩 심어서 수확해 먹었다.

개척단원은 군대와 같이 소대, 중대, 대대, 연대로 구분되어 관리되었다. 외부와 차단된 감금상태에서 생활했다. 이에 도망가는 사람은 맞아 죽었거나 사살되곤 했다고 전한다.

아침 5시 30분에 기상해 6시에 대문 밖에 모여서 행진을 해서 운동장에서 점오했다. 운동장 10바퀴를 돌고는 공동취사장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곧 작업을 시작했다. 이들의 작업은 개간지의 울퉁불퉁한 땅을 고르는 작업이었다. 작업장으로 갈 때나 돌아올 때는 행렬을 지어 이동했다. 하루에 4루배씩 작업했는데, 사방 1미터가 1루배이고, 사방 2미터가 4루배이다. 삽과 손수레만을 가지고 여럿이 협업으로 진행했다.

파인 땅에는 돌을 지어다가 메워야 했기에 앞쪽의 높은 산에서 등짐으로 옮겼다. 지게도 없어 짚으로 새끼를 꼬아서 뿔뿔을 만들어 짚어지고 다녔다. 돌이

부족하면 도비산(4km)까지 가서 돌을 가져오기도 했는데, 오전에 2번, 오후에 3번 돌을 짊어지고 왕복했다. 점심은 쌀이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었다. 도비산의 꼭대기까지는 5km가 넘지만 자신의 땅이라고 생각했기에 고생이라 생각하지 않고 노동에 임했다고 한다. 당시에는 니집 내집으로 구분된 것은 아니지만 훗날 자신의 집이 될 수 있었기에 고생이 남달랐다고 한다.

개척단 초가에는 삼만이 있었을 뿐이다. 강원도에 만들어졌던 국토건설단이 1963년에 해체되면서 그들의 물건을 인수받았다. 손수레, 양은제 그릇, 큰 통 등을 인수받았다. 건설단이라 쓰인 밥그릇이 지금도 보관되어 있다. 지름이 15cm, 둘레가 48cm이고, 높이가 8cm 크기로 걸보리밥을 담아 먹었다. 허허벌판에 건립되었기에 마을 주변에는 녹화를 위해 대규모로 포푸라 나무를 심었다. 공동생활의 적적함을 극복하기 위해 개척단원들은 63~64년도에 5차례 연극을 하며 거친 삶을 위로하기도 했다.

이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하기 위해 1963년에는 개척단원과 서울 보호소에 있던 여자수용자들과 혼인을 주선했다. 1964년 9월 20일에 125쌍이 서산에서 혼인했고, 1965년에는 225쌍이 서울 시민회관에서 혼인했다. 혼인을 하기 위해 여자들이 서산으로 내려와 건물 안에 있으면 남자들이 밖에서 지나가고 여자들이 혼인하고 싶은 남자를 선택했다. 두 사람의 의견일치를 보게 되면 혼인을 주선했다. 혼인식은 공동으로 거행했다. 제보자 김인 씨는 고향인 부산에서 부인을 데려왔다.

당시 보호소에 있던 여자들은 성매매를 하던 이들로부터 캠핑 나왔다가 강제로 구인된 여대생 등으로 다양한 성향이었기에 혼인 후에 자유를 얻게 되자 모두 이곳을 떠났다. 수용인 신분이었기에 혼인은 강제적이었고, 큰 의미가 없었던 것이다.

혼인한 사람들이나 간부들은 별도의 집에서 거주했다. 집은 12평의 규모로 지어졌고, 두 칸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한 칸에 큰방과 작은방을 만들고, 방 앞



개척단거주지와 농경지전경, 국가기록원 소장



개척단이 만든 거주지,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제공



개척단의 작업, 국가기록원 소장



개척단 연극, 김인 씨 제공



작업 중인 개척단원들, 국가기록원 소장



개척단원, 김인 씨 제공



개간하는 농가의 आयुह, 김인 씨 제공



개간하던 시절의 공동점심, 김인 씨 제공



서산개척단 결혼식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제공



1964년 서산에서 거행된 합동결혼식,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제공

쪽에는 부엌을 만들고, 그 앞쪽에는 현관을 두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집에는 4가구가 거주했다. 큰방에는 4명, 작은 방에는 3명이 거주했다. 약혼한 이들에게 우선 분배했고, 혼인한 이들에게는 식량을 배급해 별도로 식사를 마련해 먹도록 했다. 식수는 공동우물에서 길어다 먹었다. 주거지로부터 100~200미터 간격으로 펌프가 설치되어 있었기에 큰 통으로 길어다 먹었다.

수용 생활을 하는 동안 생필품과 먹거리는 국가에서 지급해 주었다. 당시 보건사회부에서 구호대상자에게 지급하던 밀가루와 옥수수가루가 지급되었고, 생필품은 압수한 밀수품을 지급해 주었다. 세면기, 건설단 식기, 양은숯, 수저가 전부였다. 식기는 한 되 들이로 강원도 건설단이 사용하던 것이다. 배급은 일주일에 1회 주었는데, 1일 1인당 보리쌀 1홉, 쌀 5작으로 계산해 주었다. 그 양이 매우 적었기에 마른 시래기를 먹기도 했을 정도로 배를 곯았다고 한다. 혼인 후에는 여자와 남자 모두 작업에 동원되었다. 공동생활을 하는 이들은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공동으로 해결했다. 작업은 저녁 늦은 시간까지 지속되었다.

1966년 9월에 개척단원들 사이에서 강제수용생활이 문제임을 인지하고 개척단원의 1/3이 함께 데모를 일으켰고, 나머지는 동조했다. 아침 조회 시간에 더 이상 임원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고 하며 자유를 달라고 요구했다. 당시를 기억하는 개척단원은 자신들의 삶이 너무 비참했다고 회상한다. 결국 단원들의 요구를 임원들이 수용하면서 개척단이 해체되었다. 수용자들에게 자유가 주어진 것이다. 그동안 작업장 주변에 둘러졌던 인간 철조망도 사라졌다. 막사에 남은 이들이 첫날에는 50명이었으나 하루가 지나니 30명이 남았다. 이들이 지나니 10명 미만만이 남았다. 개척단원들의 반수는 자신들이 개간하던 땅을 그대로 두고 고향으로 돌아갔으나 일부는 남아서 개간을 지속했다. 그러나 혼인을 해서 자손을 두기도 했으므로 밀가루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어 남자들은 외지로 돈을 벌러 나갔다. 여자들은 마을에 남아 지속적으로 개간했다.

1970년대에는 개척단원의 일부가 다시 이곳을 떠나면서 또 다시 토지가 거러

되었다. 어느 정도 개간이 이루어졌기에 10, 20, 40만원 등에 매매되었다. 1970년에 집터는 개척단과 거주민들에게 불하되었다. 자부담 40%, 정부 60%로 집터를 2,000만원을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용자받아 구입했다.

개간한 땅은 염기가 많아 여러 해 동안 벼를 심었지만 소출은 전혀 없었다. 그래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벼씨를 뿌렸다. 지금도 가물면 하얗게 간기가 돌아나므로 흉년이 들면 아예 소출을 기대할 수 없었다.

토지분배와 염해지(鹽害地) 개량에 대한 인식 부재로 인한 문제

개척단이 개간한 토지는 1962년 10월 1일에 매립 준공했고, 1962년 10월 30일에 잡종지로 지목이 설정되었다. 이곳에서 개척을 시작한 개척단은 농지 3,000평을 분배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이곳으로 왔으나 1966년 9월 1일에 강제 수용이 해제되기 이전까지는 강제수용과 노역이었다.

1968년 농지분배위원회가 구성되어 농지 및 주택가분배를 협의했다. 세대당 1정보로 규정하였고, 다섯 차례에 걸쳐 분배가 이루어졌다. 수용 당시에는 1,500명 정도가 수용되었는데, 해체 이후에 모두 떠나고 100세대만이 남았었다. 전체의 80%가 토지를 버리고 돌아갔기에 남은 토지개간을 위해 1967년 3월 이후 서산군에서 영세농민, 난민 등의 자립생활정착을 유도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농지분배위원회’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에 문제를 제기한다. 분배지는 당장 소득을 낼 수 있는 농지가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개량과정을 겪어야만 소득을 낼 수 있는 염해지(鹽害地)였기 때문이다. 1965년에 사라호 태풍으로 인해 이전에 쌓았던 간척지 둑이 터져 분배 당시는 바닷물이 스며든 갈대밭이었다.

1968년 7월 23일에 ‘자활지도 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법률 제2039호)’에 의해 토지를 분배했다. 이는 기존의 ‘1964년 자조근로사업에 의한 실시요령’에 미국 480양곡을 받아 취로활동을 얻어진 토지는 무상으로 지급한다는 조항인 “대

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로구호의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무상분배 할 수 있다.”에 근거했다. 당시 취로를 행하는 사람에게는 미국지원 정부 양곡 3.6킬로그램을 지급해 주었는데, 이것은 개간의 대가가 아니라 생계 목적이었다. 그러나 이 조치법이 미제정 상태로 폐지되었기에 실질분배 가능근거가 상실되었다. 즉 시행령 미제정 상태로 폐지되었기에 실질분배 가능 근거가 상실되었다고 본다.

한편 1970년도에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양대동 개척단의 토지를 무상으로 줄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개척단의 농지를 지역 주민들이 매수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막걸리 한통, 고구마 한 상자, 심지어는 고향으로 돌아갈 차비 정도만을 주면 분배증을 내주었다. 주민들은 분배증을 지금의 토지 권리증으로 생각하고 매수하고 개간에 참여했다. 당시 분배된 토지가 수확할 수 없는 땅으로 논 두렁만 간신히 형성된 곳이었기에 농지라고 부르는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

당시 토지 매수자인 농민들은 매립면허가 무엇인지, 예약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었고, 그저 분배증을 권리증으로 이해하고 소유권에 대한 인식도 못한 채 십 수 년을 개간에 몰두했다. 당시 분배증의 성격이 소유권인지 혹은 경작원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매수했던 것이다. 그 후 여러 차례의 소송을 통해 국유지의 경작권만을 부여했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농민들은 자신들이 받은 토지는 경작할 수 없는 염해지였음을 알리며 경작권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대책위원장인 김태영 씨의 아래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여기는 특수지구인데. 일반적으로 간척이라 함은 간척사업을 완성하면서 소득사업과 직결되는데요. 여기는 염해지(鹽害地)라서. 염해에 대한 특수성을 정부에서 인정 안 했어요. 그 분들이 몰라서 그래요. 염해지는 간척이 끝나면 염분을 제거하는 개량작업이 끝나야만 소득하고 직결되지. 저희가 68년부터 분배를 받아가지고 10년 이상을 경과할 때까지 개간 작업에 몰두 했어요.

70년 중반에 들어오면서 국토지리원에서 나온 도면을 봐도 77년 현재를 봐도 개간이 완료된 것이 아니었어요.

염해지의 특수성은 물이어요. 물. 물이 있어야 염소가 제거가 되고, 같은 짠물이어도 염분이 있는 논은 물 자체가 순환이 되어야 곡식을 생산을 할 수 있지. 염분이 정체되어 있으면 염분이 올라와서 모가 죽어요.

못자리도 할 대상지가 없어서 면사무소나 군에서 임시 못자리의 간사지가 아닌 육답의 모판을 임대해줬어요. 거기서 길러진 모로 임대해 줬어요. 처음에는 이앙을 해서 심으면 첫 번째는 날이 과히 뜨겁지 않으니 이앙을 하면 푸른빛이 나요. 2~3개월이 지나 7~8월이 되면 물이 부족해서 염기가 올라와서 모가 빨간하게 모가 죽어요.

죽을 때 보식하는 것도 7월 말, 중순까지 죽을 때 까지 죽으면 또 가져다 심고, 또 가져다 심고 보식을 해요. 예비 모판은 면에서도 해주고 많이 지원을 해주었어요. 특히 한해(旱害)가 오거나 날씨가 더운 해에는 추수를 못해요. 이삭이 나오다가도 꼬브라져 있고, 그나마도 이삭이 올라오면 가을에 성수기 때 벼가 익지를 못하고 그 지난번에 현대 AB지구 필름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삭은 나와있어도 여물지를 못하고 빨갱게 타서 죽어버리고 그런 형태로 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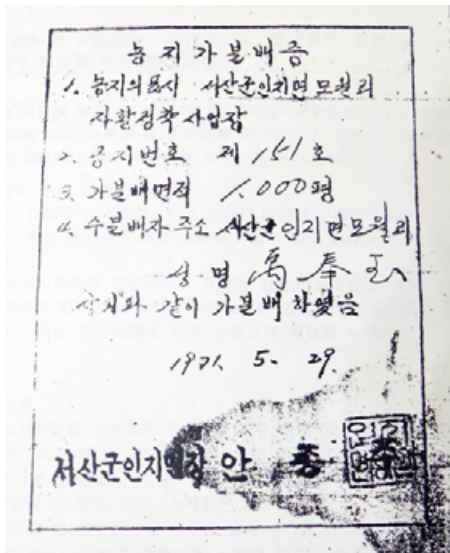
70년대에는 농지개량조합에서 부과하던 수세(水稅)가 있는데요. 수세도 현장을 둘러보고 현황과약을 하기 위해서 연연히 실태조사를 했어요. 상중하로, 특히 하반기 조사는 수세와 직결되어서 엄격히 했는데요. 조사를 해봐야 개척단 땅은 거의 99% 수세 감면 대상이 되었어요. 수세 감면을 받을 정도의 완전히 염해지였어요.

지금에 와서 저것이 매립준공이 끝나고 분배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부터 소송에도 제출한 자료를 보면 소유권을 준 것이 아니라 경작권을 주었다고 하나 염해지라서 경작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국토지리원 필름을 보아도 갯골이 그대로 살아있는 땅을 분배로 했기 때문에. 현행 국유재산관리법을 적용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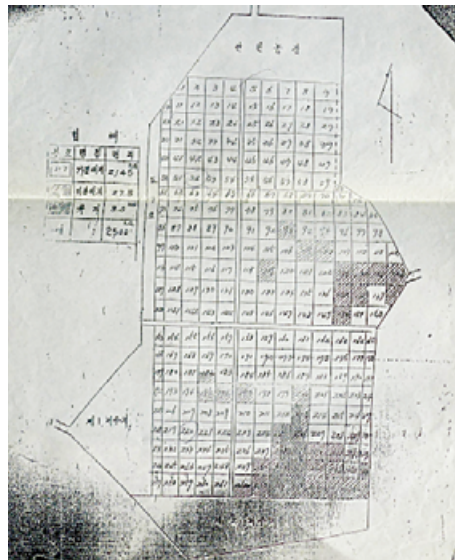
키는 것은 우리 농민들은 납득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나마도 저희 같은 2차 피해 농민은 괜찮지만, 61년도에 정착했던 개척단계는 3,000평의 토지보다도 그분들에게는 인격이나 인간에 대한 보상은 국가 차원에서 보상이 반드시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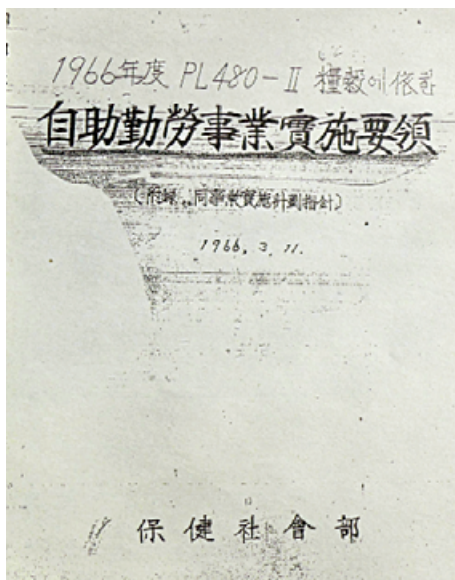
이처럼 당시 농지분배는 추후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내포되어 있었다. 개척민과 이주 주민들의 개간은 철저히 개인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졌다. 특히 개척단은 기반이 없던 외지였기에 고생이 남달랐다. 삽 한 자루조차 지원되지 않은 상황에서 작인 스스로가 염전 바닥에 깔린 돌을 파내고, 자갈을 골라내며 개답했다. 밀차도 없던 시절이었기에 육체노동만으로 개답했다. 심지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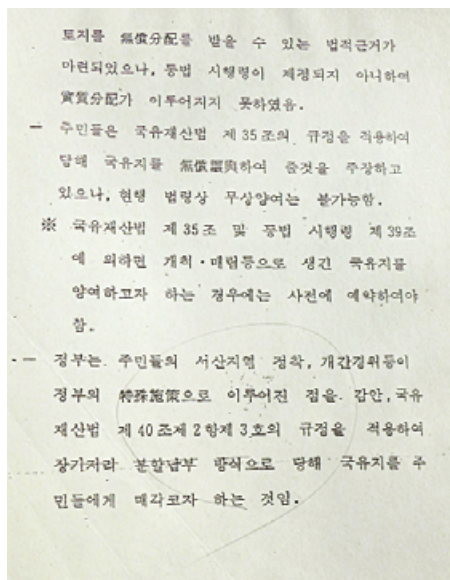
농지분배증



양대·모월지구 토지 분배 구획도



양대동 간척지 토지분배구획정리표



1992년 서산지역 자활정착사업장 국유지 매각계획서에 쓰여진 국유재산법의 내용

배급되는 밀가루를 팔아 삼과 리어카를 사기도 했다. 개답을 위해 먹어야 하는 밀가루를 줄여 먹고 그것을 모아 노동도구를 산 것이다. 당시 농지를 가분배해 준 증서와 토지를 분배하기 위해 구획한 도면 등이 남아 있다. 이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농지 주변의 저수지둑, 수로, 논둑 등을 만들었고, 3,000평의 농지도 숙답(熟畓)으로 만들었다. 개간 작업에는 아이들, 부인도 모두 동원되었다. 늪과 같은 염해지는 인근 야산의 흙을 세숫대야로 옮겨다가 메웠다. 아이들이 성장하게 되면서 배급에 의존해서만 생활할 수 없자 남자들은 외지로 일하러 나갔다. 남산1호 터널 건설 현장의 노무자로 나가서 작업해 돈을 벌어들였다. 이곳에서 1달을 머물며 가족과 개간에 함께 했다. 돈이 떨어지면 다시 남자는 외지로 나가



모월리 간척지 농지현황 - 염해지로 존재, 1967년, 김태영 씨 제공



모월리 간척지 농지현황 - 개간지로 변화, 1977년, 김태영 씨 제공

노동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 한달 일을 해서 들어와서 20일을 개간하고는 다시 일을 하러 나가는 식으로 생활했다.

이렇게 고생을 겪으며 개답한 토지는 1968년에 분배받은 시점부터 10년 이상이 되어야 비로소 농지꿀을 갖추었다. 1979년도에 농지로의 활용도가 높아져 농지조합에서 물세를 청구했다. 그러나 이 지역의 농지는 90% 이상이 곡식을 심어도 수확되는 것이 없었기에 늘 수세 면세지로 책정되었다.

1990년대에 해당 농지에 대한 소송이 발생했다. 가분배한 땅이었기에 정식 분배로 보기 어렵기에 불하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당시 판사는 4:6=국가:작인의 소유 비중으로 조정을 했으나 국유지는 조정대상이 아니었기에 패소했다. 당시까지는 50여 명의 개척단원이 머물렀으나 그 판결 이후로 개척단의 많은 이들이 농지를 팔고 이곳을 떠났기에 지금은 5집만이 남았다.

위의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1967년에는 일부만이 개간되었을 뿐 대부분 염해지로 존재했다. 그러나 옆의 1977년의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주민들의 개간 노력에 힘입어 대부분의 농지가 개간지로 변화했다.

2014년에 국가가 해당 토지를 토지자산공사 소유로 전환하여 불하하겠다고 결정해서 통보해왔다. 국유지였기에 국가 소유도, 작인의 소유도 아니었기에 농지를 빌려 쓴다는 차원에서 연간 임대료(100만원)만을 내고 경작한 것으로 간주했다.

결국 농민들의 개답에 대한 어떠한 인정도 없이 ‘국유재산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하면 개척, 매립 등으로 생긴 국유지를 양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예약하여야 함’에 의거해 ‘국유재산법 제4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해 장기저리 분할납부 방식’으로 2014년에 결국 상환계약을 맺었다. 개척단원은 20년 상환으로, 이후 개척단에게 권리금을 주고 권리를 이전받은 주민에게는 10년 상환이 결정되었다.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주민들은 1년에 토지 값으로 개척단원과 지역영세민들에게 불하된 땅은 800만원을, 1990년대

이후에 권리 이양을 받은 이들에게는 1,600만원을 내고 있다. 쌀값이 헐값인 상황에서 3,000평의 소득은 400여 만원으로, 쌀로는 60가마니 정도가 생산된다. 이것을 팔아 토지상환을 하고 나면 주민들은 오히려 빚만이 남겨진다. 이에 땅을 버릴 수도 유지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한다.

지금은 고인이 된 장기욱 변호사가 주축이 되어 초기에 개척단에게 분배해준 권리를 유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개척단에게는 무상분배하기로 했으니 그들에게 만이라도 권리를 인정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⁴³⁾

4. 천수만 갯벌과 철새 그리고 개발

1) 갯벌과 철새 : 버드랜드

담수호수와 농경지가 어우러진 곳에는 오리·기러기류가 농경지에서 먹이활동을 위해 많이 모인다.⁴⁴⁾ AB 방조제 건립 이후 이곳에 간월호와 부남호 등의 담수호수가 만들어졌고, 간척지가 조성됨에 따라 낙곡(落穀)을 먹기 위해 철새의

43) 양대동 이외에 각 마을별로 개간이 이루어졌다. 한전이 들어와 전기공급이 가능해 진후로는 지하수 이용이 가능하므로 논농사가 쉬어졌기 때문에 농지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다. 시전리에서는 야산을 깎아 밭으로 만드는 개답(開畓)을 1970년대에 시작했다. 월남한 피난민이나 서울 판자촌에서 생활하던 주민들이 노동자들로 참여했으며, 지역민 중 품을 파는 사람들도 개간 후 땅을 소유할 수 있었으므로 함께 참여했다. 외지인들은 가족 단위로 내려와 야산에 방 1칸, 부엌 1칸으로 된 집을 짓고 살면서 개간에 참여했다. 개간 후 일인당 3,000~4,000평을 주기로 했으며, 개간하는 동안에는 면사무소에서 밀가루를 공급해 주었기에 수제비를 췌어 먹으면서 노동을 했다. 약 야산의 나무를 벌목한 후 2~3년여 동안 개간해야 비로소 밭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개간에 참여한 노동자의 80%는 개간 후 받은 농지를 팔고 이곳을 떠났다.

44) 이하의 내용은 버드랜드 한성우 주무관의 대담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동이 많아졌다. 초기에 가창오리가 처음으로 이동해 오기 시작했다. 지역민은 이것이 기러기라고 인식했다. 당시 조류학은 역사가 짧아 학문적 성과가 미약했기에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못하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생태관광이라는 용어와 더불어 철새가 학문적 관심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는데, 최대 간척지인 AB 방조제가 건립된 천수만이 그 관심의 대상지가 되었다.

이곳에 도래한 철새는 오리기러기류를 포함해서 범정보호종인 멸종위기의 황새와 독수리 등이다. 황새는 겨울철에 10마리 이상이 왔다. 독수리는 본래 철원에 30여 마리가 왔는데, 이곳으로 3~4마리가 이동해 온 것이다. 다양한 새들이 도래함에 따라 천수만이 철새도래지로서 유명세를 얻기 시작했다.

특히 현대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콤바인으로 추수하고 낙곡류가 많아짐에 따라 가창오리의 먹이가 넉넉해짐에 따라 보다 많은 개체가 도래하기 시



천수만의 대표철새인 가창오리, 버드랜드 홈페이지

작했다. 그러나 곧 간척지를 민간위탁하고, 농기계가 발달함에 따라 낙곡류가 10%이던 것이 0%로 낮아짐에 따라 먹을 것이 없어졌다. 이에 9~10월에 수확물을 대상으로 먹이활동을 하다가 10월 이후가 되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 한계점에 이르게 되어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 낙곡이 없어지는 과정에서 가창오리도 자취를 감춘 것이다. 가창오리가 천수만을 떠난 것은 간척지가 민간위탁 된 2009년 이후의 일이다. 먹이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기에 천수만을 떠난 것이다. 그 이후로부터 현재까지 개체 수는 변화는 없으나 종수가 적어졌다. 천수만은 혹한(酷寒)에 결빙되므로 철새들이 쉴 수 없으므로 얼지 않는 쉼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 후 가창오리는 천수만과 유사한 환경조건을 갖춘 해남, 영암, 나주, 영산포, 영암 등으로 이동해 갔는데, 그곳은 천수만 보다 넓기에 겨울을 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크리스마스에 동림 저수지와 금강에 가창오리가 나타나기도 한다. 3월 초에는 호남평야와 김제평야에 북상했다가, 삼교천 주변에서 2주 정도 머물렀다가 북상한다.

철새의 도래는 그해 그 날에 따라 상황은 다른데, 최근에는 흑두루미 4,000마리가 도래하고 있다. 흑두루미의 도래는 4대강 사업과 연관이 깊다. 두루미의 이동은 철원-구미의 해평읍지-낙동강-순천과 일본으로 이어졌는데, 4대강 사업 이후 철원에서 천수만으로 이동해 오고 있다. 천수만 - 새만금 - 해남 - 순천만 - 부산 - 일본의 경로가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다. 철새가 남하하는 경로에서 천수만은 먹이활동을 하며 설만한 중간 기착지로 중시된 것이다. 이에 서산시와 버드랜드에서는 철새 먹이주기 행사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조류 AI가 발생함에 따라 철새를 바라보는 인식이 바뀌었다. 농림부는 철새가 한국에 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철새먹이주기 행사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에 반해 환경부는 최대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며 철새의 중간 기착지로서의 역할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천수만의 대표철새가 된 흑두루미, 버드랜드 홈페이지

철새 먹이주기 행사는 중앙부처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고 있다.

천수만의 절대농지의 40%를 대상으로 ‘생명다양성관리계약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대상 농지에는 철새가 앉아서 쉬며 먹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짚을 썰어서 펼쳐 놓고, 무논 조성사업을 통해 물을 가두어 놓으므로 멸종위기의 황새가 앉아 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현재 생명다양성관리계약사업 대상지로 신청하는 농지는 400ha이나 선정은 200ha만을 지정하고 있다. 기존의 육답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간척지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 농지 전체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벼짚을 존치하지 않고 비닐로 묶어두면 철새의 활동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벼짚 존치는 지력증진사업의 일환이기도 한데, 벼짚을 썰어서 널어 두었다가 이듬해에 갈아엎으면 지력이 좋아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산시는 새로운 관광사업과 연계해 서산시에서 2013년에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논·밭단과 무논, 갈마리

버드랜드를 건립했다. 그 이전에는 간월도에서 ‘철새기행전’을 개최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철새의 군무를 보기 위해 서산시를 찾았으나 단기적인 행사이고, 안면도로 휴양하기 위해 잠깐 머무르는 것이었기에 관광객 유치에 위한 새로운 명소의 건립이 필요했다. 이에 생태관광이미지를 높이고 관광 명소화하기 위해 버드랜드를 건립했다.

철새 도래지로서의 명성을 유지하는 것은 가창오리의 군무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가창오리는 전체가 30만 마리인데, 이중 10~15만 마리가 천수만을 찾았다. 지금은 2,000마리만이 이곳을 찾는다. 한때는 80만 마리로 개체수가 증가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35만 마리이다. 이처럼 개체수가 급감한 것은 시베리아의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시베리아에서 벌목이 본격화되면서 서식지가 훼손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한반도에는 금강변에 25만 마리의 가창오리가 이동해 오고 있다. 가창오리의 군무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으로 지금은 군산과 서천의 철새전망대를 꼽는다. 전 세계에서 가창오리 군무는 생태관광의 유일한 볼거리를 제공하며, 심지어는 외국 관광객의 유치도 가능하다. 반면 천수만에는 순천만에서 겨울을 나는 흑두루미의 중간 기착지로서 역할하고 있다. 근래에 검은여 근처에서 먹이를 찾아 모여들어 모든 기러기들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근래에는 독수리도 30마리 정도가 이동해 오고 있다. 독수리는 폐사체를 먹기에 그에 알맞은 먹이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어렵다. 청양에서 독극물을 먹고 죽은 동물의 사체를 먹은 독수리가 죽기도 했다. 이에 버드랜드에서는 간혹 로드킬(road kill) 당한 고라니 등의 동물의 사체를 구해 독수리 먹이로 사용하고 있다. 사냥을 통해 얻은 사체는 탄알이 동물 사체의 체내에 축적되므로 로드킬 당한 동물사체만이 유일한 먹잇감이다. 로드킬이 일주일에 1~2건으로 간헐적으로 발생하기에 지속적이지는 않지만 현재는 이 방법으로나마 먹기 주기의 명백



버드랜드 전경, 버드랜드 홈페이지



천수만의 새, 버드랜드 홈페이지

을 유지하고 있다.

철새에게 가장 위대한 행위는 사진 찍기와 낚시, 차량 왕래 등의 사소한 행위들이다. 철새에게는 밀착 접근을 하면 새들이 날아가 버리나 많은 아마추어 사진작가들의 활동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야생조류보호법에 관계규정이 없어 현재로서는 방관할 뿐이다. 철새도래지에서 이루어지는 낚시 역시 조류들의 휴식에 위해가 된다. 그러나 이것 역시 개인의 취미활동이므로 강제할 수가 없다. 철새가 도래하는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의 양대동, 궁리, 간월도 등지로의 차량 유입은 철새의 휴식에 저해된다. 특히 겨울철에 진행되는 공사는 휴식하는 철새의 안정에 위해가 된다. 현재 철새는 A지구인 양대동 상부쪽에 가장 많이 도래한다.

이곳에는 서산시 매립장이 위치해 있는데, 쓰레기 오폐수처리장이 있어 겨울철에도 폐수 처리된 물이 정화되어 얼지 않은 채 유출되고 있다. 때문에 이곳은 습지보호지정을 통해 철새의 휴식지로 보호해야 하고, 겨울 철새의 도래시기에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2) A지구 현대서산농장과 B지구 바이오웰빙지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현대서산농장은 국토의 확장과 간척 농지조성을 통한 식량 증산 및 자급률 제고, 농산물 증산에 의한 수입 대체, 소득 증대로 국민 생활 향상 및 안정, 수자원 확보 등의 목적을 두고 건립되었다.

1979년 8월 24일 서산 AB지구 매립 면허를 취득하여 1982년 10월 26일 서산 B지구 방조제 최종 물막이 공사가 완료되었다. 2년 후인 1984년 3월 10일에는 서산 A지구 방조제 최종 물막이 공사가 완료되었다. 1985년 4월 1일 서산 AB지구 내부 개답이 착공되어, 1986년 5월 1일 시험 영농을 개시하였다. 1995년 8



개간 작업 중인 간척지, 대한뉴스 제1864호



기계영농 중인 간척지, 대한뉴스 제1864호



비행기로 법씨 뿌리기 준비, 대한뉴스 제1864호



비행기로 법씨 뿌리기, 현대서산농장 홈페이지

월 14일 서산 AB지구 간척사업이 준공되었으며, 2005년 4월 20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현대서산농장이 건립되었다.

현대서산농장에서는 영농사업, 정곡사업, 축산사업, 정비사업, 농촌 관광 사업 등의 업무를 한다. 영농사업은 영농항공기를 이용한 영농 공정 관리로 대규모 벼 담수 직파 재배를 실현하였으며, 파종에서 수확, 가공까지 일괄된 생산라인을 구축하였다. 1만 248ha에 달하는 농장에서 생산되는 쌀 생산량은 4.2톤으로 국내 생산량의 1%에 해당한다.

이는 현대건설의 기술력과 현대서산농장의 첨단 과학 영농을 통해 한국 농업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정곡사업으로는 생산된 쌀을 오프라인만이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직접 판매한다.

축산사업으로는 전통사육방식인 ‘여물 끓여 먹이는 방식’을 구현하여, 벼짚, 보리, 살겨등의 곡물을 주 원료로 해 자체 개발한 화식사료를 끓여 먹여 키운 고품격 한우를 생산한다. 한우 3,300여 두를 우사 65개 동에서 키우고 있으며, 매월 40두를 출하한다. 정비사업으로 각종 현장의 농기계를 정비하는 업무도 하고 있으며, 농촌 관광사업으로 주말농장, 현대건설 콘도 사업 및 골프장 사업도 지원하고 있다.

대표 이사를 중심으로 영업 본부가 있으며, 영업 본부는 농축산사업부와 사업지원본부로 나뉜다. 농축산사업부는 다시 축산사업팀, 도정팀, 영업팀으로 나뉘어 있으며, 사업지원본부는 총무자재팀, 농업시설팀, 기획재정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대서산농장은 이러한 조직 구성을 바탕으로 벼농사 중심의 영농사업과 소를 사육하는 축산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2011년 현대서산농장의 경영 목표는 변화와 혁신을 통한 지속 성장 기반 구축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변화하는 환경에 먼저 변화하고, 혁신적인 생각으로 새로운 대응 방안을 창조하기 위해 내세운 것이다. 이러한 목표 아래 미래 가치의 극대화와 신 성장 사업 육성을 통한 회사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⁴⁵⁾

이에 반해 B지구에는 서산바이오웰빙특구가 건립되어 있다. 이것은 첨단 바이오 단지과 웰빙 관광 사업을 접목시킨 자족형 특구를 조성할 목적으로 총 면적 570만㎡의 규모로 조성된다. 첨단 바이오 연구지를 포함한 교육 및 연구 시설과 관광 사업지, 체육 시설, 실버 복지 시설 등으로 활용되며, 주변의 다양한 관광 자원과 문화권을 연계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산 B지구 간척지는 농업 진흥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개발이 불가능하게 되자 2004년 현대건설은 535만㎡ 규모로 숙박 시설, 골프장, 웰빙 산업 단지, 생태 체험 공원 등이 조성되는 ‘복합 웰빙 레저 특구’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2005년 환경부가 천수만 일대를 생태 자연도 1등급 권역으로 지정하려는 계획을 세우자 관련 계획이 무산될 것을 우려한 지역 주민들이 철새 서식지 일부를 불태우는 등 반발하기도 하였다.

또한 인접한 태안 관광 레저 기업 도시 건설에 밀리고, 재정경제부의 반대로 특구 지정이 어렵게 되기도 하였으나 2008년 12월 19일 열린 제16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특구로 지정되었다. 특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림 지역을 관리 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와 농지 전용 허가 및 농업 진흥 지역 해제를 허용하는 「농지법」에 관한 특례, 체육 시설업의 등록 권한을 도지사에서 특구 관할 자치 단체장으로 이양하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등 모두 3건의 규제 특례를 적용 받았다.⁴⁶⁾

2008년 12월 지식경제부로부터 최초 특구 지정 고시를 받았으나 2012년 5월

45)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현대서산농장(農業會社法人株式會社現代瑞山農場)」,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 서산시편』, 한국학중앙연구원.

46) 「서산바이오웰빙특구」,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서산시편』, 한국학중앙연구원.

특구계획변경 특구위원회에서 서산 B지구 간척지는 식량안보차원에서 조성된 농지로써 농업 및 관광사업 등을 축소하고 신규로 추가한 자동차 관련 사업은 지역의 특성 및 여건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결됐다. 이후 같은 해 12월 특구기간 연장 승인을 얻었고, 2013년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부터 서산시 부석면 일원 569만 9000㎡의 면적에 내년까지 8576억원을 투입, 현대건설(주)과 현대모비스(주)에서 연구시설, 관광시설, 의료시설,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기로 사업인가를 받았다.

2015년 7월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자율 주행 시험로 추가 승인과 함께 바이오분야에서 자동차산업 연구시설로 변경했고, 11월 27일 특구계획변경 심의에서 원안 가결, 추진해 왔지만 10여 년 동안 현대모비스 주행시험장만 완성했을 뿐, 정작 특구가 생기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된 바이오 웰빙 부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사업은 대부분 면적이 절대농지로 농림수산부에서 농토보전 의지가 강한 데다, 해양환경의 오염 우려에 따른 환경부의 반대로 사업추진이 난관에 부딪치기도 했지만 지역 국회의원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실로 신 개념의 대규모 바이오 웰빙특구 단지 조성 계획이 변경 승인되면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산시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9,1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만 5000명의 고용창출 효과, 312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기존의 60여 개 자동차 부품공장들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⁴⁷⁾

47) 『대전일보』 2017년 12월 13일. “서산 바이오 웰빙특구사업 담보…관광·의료·체육시설사업 손도 못 대”의 내용을 인용하였다.

제 4 장

천수만의 풍부한
어족자원이 만들어낸 어로문화



천수만의 풍부한 어족자원이 만들어낸 어로문화

1. 천수만의 생업 현황

해안 마을이라도 농사는 필수, 반농반어촌(半農半漁村)

천수만 주변의 해안 마을 중 순수어촌은 간월도 뿐이다. 유일한 섬이었기에 주민 모두 어업에 종사했지만 대다수의 해안마을들은 반농반어였다. 해안가에는 농지가 많지 않았으며 그나마도 논 보다는 밭이 많았다. 그중 농지 보유가 많은 마을은 인지면 강당리, 지산리, 야당리, 서산시 양대동, 모월리, 부석면 대두리, 강수리 등이다.

이들 마을은 농사가 주업이었고, 어업은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 몇 몇 가정만이 시행했다. 그러나 개펄에서 갯것을 채취하는 것은 많은 이들이 먹거리를 얻기 위해 이루어졌다. 어업이 전업인 간월도나 어업인구 비율이 높은 창리에서도 농업은 필수적이었다. 밥과 반찬을 주식으로 하므로 농사는 가장 중요한 생업도구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마룡리의 사례를 통해 반농반어의 생활을 짐작해 보자.

반농반어 마을의 생활 이야기 : 마룡리 김복연 씨 사례

천수만의 한 주변 마을인 마룡리에서 농사는 주식을 마련하기 위해 필수적인 생업활동이었다. 그렇지만 어업도 그에 준해 중요한 생업활동으로 인식되었다. 어패류는 중요한 먹거리인 동시에 수입원이기 때문이다. 농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유일한 수입원이기도 했다. 주낙, 사둘, 반두 등의 간단한 어로 도구를 이용하거나 맨손으로 어류를 어획하고 패류를 채취해 판매했다.

마룡리 개펄에서 가장 많이 잡는 것은 낙지와 굴이다. 개펄에서 어패류 채취는 매일 이루어졌다. 하루에 잡는 20~30마리의 낙지를 가지고 시장으로 내가기 보다는 사흘 정도를 작업해 많은 양을 모아서 내갔다. 이럴 경우에는 ‘낙지 웅두리[웅덩이]’에 담아두는데, 대나무로 만든 바구니를 바닷가의 웅덩이에 넣고 그 안에 넣어둔다. 이 바구니는 사람이 들고 다닐 정도의 크기로 장에서 구입해 사용한다. 낙지를 판돈으로는 새끼돼지 한 마리를 구입한다. 1년을 먹이면 큰 돼지가 되는데, 이것을 서산에 내다 판다. 다섯 마리의 돼지를 팔면 송아지 한 마리를 구입할 수 있다. 송아지는 암컷으로 사서 2년을 키우면 새끼를 낼 수 있다. 키우지 않을 송아지는 10개월 정도를 먹여서 판다. 소는 쟁기질을 해야 하므로 5~10년 정도를 키운다. 이처럼 돼지와 소를 번갈아 키우며 재산을 증식해 아이들을 학교도 보내고 생활자금으로도 사용했다. 집안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소를 환전해 사용해야 했기에 집집마다 자금 확보를 위해 소를 3~4마리씩 키웠다.

소나 돼지에게는 아침과 저녁에 밥을 준다. 돼지는 구정물에 방아 찧고 남은 등겨를 넣어서 죽을 쑤어서 먹이고, 소에게는 여름철에는 깔[꼇, 풀]을 베어서 하루에 두 번씩 먹인다. 때문에 집안어른은 식전에 깔을 베어다 놓고는 작업하러 나간다. 농사든 어패류 채취든 아침 먹기 이전에 나가지만 그 이전에 깔을 베어다 놓는 것이다. 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학교에 다녀온 후 지계를 지고 나가 깔을 벤다. 집 근처나 논둑을 돌며 깔을 베는데, 이때 억새는 제외한다. 바닷가 근

처에는 풀이 많기에 깔을 베기에 어려움은 없었다.

겨울철에는 여물을 죽으로 쭈어 먹인다. 짚을 소 구수에 넣고 겨 삶은 것을 짚 위에 끼얹어준다. 이때 짚은 작두로 썰어서 넣으므로, 소를 키우는 집에는 여물 썬는 작두가 하나씩 보관되어 있기 마련이다. 소에게 주는 가장 좋은 먹거리는 콩깍지를 넣고 쑨 죽이고, 겨울철에는 넣을 것이 없으면 고구마넝쿨 말려둔 것이라도 넣어 죽을 쭈어준다.

해변 마을 주민들의 생활은 농촌 보다 어려움이 많았다. 주식인 식량이 적었기에 개펄에 나가 쉽 없이 일을 했다. 마룡리 김복연 씨의 생활은 다음과 같았다고 한다.

김복연 씨는 안면도에서 해의쌀^[2]을 뜯어서 발로 떠서 팔아 가게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는 삶을 살다가 이곳으로 시집왔다. 이곳에는 해의쌀도 없어 환전할 수 있는 것이 적었다.⁴⁸⁾ 마룡리로 시집와서 농지가 별로 없어 고생을 많이 했는데, 특히 가뭄이 드는 해에는 그 고생이 더욱 심했다고 한다. 가물면 아무 것도 구할 수가 없었기에 부잣집에 가서 장례로 보리나 쌀 등을 얻어 온다. 하루 일당으로 쌀 세 되 정도를 쳐주었기에 한 말을 얻어다 먹으면 밭 매고, 모심고, 논을 매는 일을 각기 하루씩 해서 사흘간 일을 해준다. 마룡리 주민들은 주로 강당리에서 장례를 얻었다.

장례를 얻기 어려우면 개펄에서 굴을 채취해 가져간다. 굴 한두 사발을 가져가면 보리쌀 한 두 되와 바꾸었는데, 굴이 해물 중에서 가장 가격이 많이 나갔다. 굴을 팔러 다닌 것은 제보자^(88세)의 시부모 세대로 시집와서 보았을 뿐이

48) 제보자는 시집을 때에 안면도의 수애나루에서 배를 타고 창리로 왔다. 가마를 배에 싣고 왔기에 배에서 내려서 곧 가마를 타고 마룡리까지 왔다. 안면도 집을 떠나 시댁까지 오는데 하루 온 종일이 걸렸다. 친정을 오가야 했기에 일년에 두 번 나루삿을 낸다. 보리와 벼를 수확한 후 각기 한 말씩을 나루주인에게 가져다준다. 나루삿을 내면 그 집 식구 전체가 배를 이용할 수 있다. 당시 나루를 이용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나룻배를 운행해서 옮겨 주었는데, 노를 저어 수애까지 가면 3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라 한다. 제보자가 굴을 채취할 즈음에는 굴 장사꾼이 들어와 직접 매입해 갔고, 인근 부석장에 내다 팔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라도 팔아야 했기에 도미나 굴 등의 값나가는 어패류는 먹지도 못하고 모두 내다 팔았다. 이에 제보자는 시부모 세대를 회상하며 “실컷 밥도 못 먹고 돌아가셨어. 밥을 드리면 4형제와 1명의 딸에게 밥을 나누어 주고 자신은 먹지도 않았어. 그 분들이 고생 많이 했지.”라고 한다. 자신 세대도 고생했지만 부모 세대의 고생은 자신들이 보기에 도 힘들었다고 토로한다.

당시 식사는 쌀이나 보리에 온갖 풀을 뜯어다가 넣고 죽을 쑀어 먹었다. 가장 맛이 나는 것은 쑥을 넣은 쑥밥이고, 미루나무나 죽나무 순을 따서 넣은 죽이 그 다음으로 맛났다. 이외에도 고사리, 취나물, 방갓나물 등을 뜯어다가 삶아서 말려 두고 먹었다. 특히 봄에 나는 순은 모두 뜯어다가 죽을 쑀었는데, 맛은 있었지만 냄새가 심했으며, 양곡이 적고 풀이 많아 보리가 드문드문 다닐 정도였다고 한다.

파래는 밥을 지을 때도 넣고, 파래무침과 파래죽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했다. 보리를 갈아서 넣고 파래와 장끼^[된장]를 넣고 끓이면 맛있는 파래죽이 된다. 파래는 돌에 붙은 것을 손으로 뜯어 붙어있는 모래를 떨어내기 위해 여러 번을 물에 행군다. 우물도 멀리 있어 논에 파둔 샘에서 얼음을 깨고 파래를 뺀다. 모래가 많으므로 쌀대바구니에 파래를 넣고 치대어 모래를 뺀다. 제보자는 대가족인 12명에게 먹이기 위해 보리쌀 한 되를 불려서 갈아 넣고 파래 한 바가지를 넣고 죽을 쑀었다고 한다.

여자가 갯일을 하는 것은 집안일을 모두 한 뒤에 행하므로 주업은 아닌 셈이다. 삼^[蔴]을 갈아 모시도 짜고, 명베도 짜고, 보리방아도 짚어 밥을 해 먹어야 했다. 이런 일을 하면서 갯것도 하러 나간다. 다른 일을 하다가도 썰물 때가 되면 굴과 바지락, 낙지 등을 캐러 간다. 갯것을 캐다가 아침 반찬으로 먹고, 다시 집안일을 하고, 점심을 먹고는 다시 바다로 나간다. 사리 때는 개펄이 많이 드

러나므로 작업이 비교적 용이한데, 많은 양을 채취하기 위해 3km 떨어진 어살보다 더 나가 작업한다. 고동이나 피조개, 치조개 등은 깊은 곳에서 나므로 개펄 끝에 위치한 어살까지 나가야 채취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피조개는 모래가 많은 개펄에 주로 서식하는데, 다른 조개와 달리 눈을 뜨고 있으므로 호미로 파서 잡는다. 반면에 진흙이 많은 펄에는 굴과 낙지가 많다. 이렇게 갯것을 채취하다 보면 점심은 굶을 수밖에 없다.

논에 샘을 뚫어 농수확보

천수만 일대의 농지의 대부분은 천수답이다. 농사를 짓기 위해 필수적인 농업용수는 유일하게 하늘에서 내리는 비였기에 다양한 방법으로 농수를 확보하고자 노력했다. 저수지가 없는 마을에서는 논마다 샘을 판다. 삼을 이용해 논바닥에 물이 스미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 샘을 판다. 삼을 이용해 땅을 파면 물이 솟아올라 질퍽거린다. 그곳을 중심으로 넓게 샘을 파면 자연스레 물이 고인다. 한전이 건설되어 전기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양수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지금도 논이 곳곳에는 샘이 남아 있다. 보통 샘은 못자리판을 만들 논에 만든다.

모심기 이전에 샘을 파는데, 보통 깊이 3m, 넓이 4m의 크기로 두레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 모심은 후에 가물면 물이 차오르기를 기다렸다가 하루 중 일 물을 퍼서 논에 넣는다. 가물면 소출이 전혀 없기도 하므로 모를 심으면 비를 간절히 기다렸다. 때문에 과거에는 논농사 보다는 밭농사에 주력했으며, 보리, 고구마, 감자 등의 밭작물을 많이 재배했다.⁴⁹⁾

49) 식수는 마을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대부분의 마을에 넉넉한 수원이 확보되었다고 한다. 송시리의 경우 점말 앞의 갯고랑에 물이 잘났는데, 밀물이 들어오면 잔물이 들어 잔맛이 나지만 몇 시간이 지나면 솟아나는 민물이 고여 식수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한다.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차가워 식수원으로 사용하기에 좋았다고 한다.



가사리의 샘



덕지천동 논 옆의 섬

물이 조금이라도 있는 ‘빨땅’에는 호미로 파서 모를 심는데, 모래땅에는 꼬챙이로 구멍을 뚫고 모를 꽂는 ‘꼬챙이모’를 심는다.

쌈이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라면 자연적으로 물이 고인 곳이 ‘뚝뚝’이다. 지산리 근처에는 ‘옛뚝뚝’이 수 백평으로 그중 컸다. 이 쌈이나 뚝뚝의 물은 두레박이나 타래박을 이용해 푸는데, 이때 깍뎡이^[깍따귀]에 물려 고생이 심했다. 깍뎡이는 모기처럼 작은 파리로 ‘말파리’라고도 부른다. 재와 같아 보이지만 알지만 물면 매우 아프다. 그 고통은 모기보다 10배 더 아프고, 피까지 빨아먹기에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이곳의 농지는 대부분 천수답(天水畓)이었기에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지냈다. 덕지천동에서는 마을 공동으로 산제당에서 지냈다. 동네 어른들이 시루를 찌고 주동이 되어 산제당으로 올라간다. 이때 무당이 참석해서 비손해준다.

인지면 산동리는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마을이었으나 농지의 대부분이 천수답이었기에 가뭄이 들면 속수무책이었다. 도비산 상상봉에서 비를 기원하는 제사를 지냈다. 도비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를 ‘봉재’라 했는데, 이곳에서 부석면장의 주재로 기우제를 지냈다. 기우제를 지내러 가는 사람은 며칠 전부터 정갈하게 유지한다. 부부관계를 금하고, 몸을 깨끗이 유지한다.

이 제사에는 마을마다 구장이 대표로 참석했다. 가물면 무조건 기우제를 지냈는데, 제사를 마친 후에는 나무를 쌓아 놓고 불을 질렀다. 뜨거운 연기가 올라가면 그것을 끄기 위해 비를 내려 주기 때문이라 한다.

가뭄과 관련해서 검은여의 전설이 있다. 언제인가 부석사에 소풍을 갔는데 물이 나오지 않았다. 이에 주민들이 검은여에 누군가 무덤을 썼다고 하자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서 무덤을 찾았다.

지금도 검은여에는 시신을 보관했을 것처럼 보이는 구덩이가 하나 있다. 주



검은여 전경



검은여 옆 큰골

민들은 이곳에서 관을 꺼내 다른 곳으로 시신을 옮기자 부석사에 물이 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사리 때는 해수(海水) 피해

조수 간만의 차이가 가장 많은 6월 15일인 유두사리와 7월 15일인 백중사리 [막사리]에는 바닷물이 넘쳐 해안으로 밀려들어온다. 특히 백중사리인 막사리에는 물이 많이 불어 해안가에 있는 농지의 경우 독이 넘쳐 바닷물이 농지로 넘치기도 했다. 해변에 위치한 마을 뿐만 아니라 내륙에 위치한 해미면 귀밀리의 경우에는 막사리에 갯물이 민물을 밀고 들어와 논으로 유입되기도 했다. 이에 사리 때에는 논으로 들어가는 수로의 입구를 막는다. 그러나 워낙 많이 밀려드는 바닷물의 압력으로 제방이 터지기 일췌였다. 일단 짚물에 잠긴 논이 모는 그 해



일반벼, 이종선 제공



재해벼, 이종선 제공

에는 수확이 불가능하며, 그 후로도 3년 동안 비가 내려 짚물이 빠져야 비로소 수확이 가능하다.

간혹이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여름철에 논이 수문쪽에서 고기를 잡다가 수문을 열어 놓아 짚물이 논에 스미기도 했다. 민물과 짚물이 만나는 수문 근처에는 회유성 어종이 많으므로 수문을 조금 열고 돌을 받쳐놓고 들어가 고기를 잡곤 했다. 수문 열어둔 것을 방치한 채 아이들이 돌아가면 짚물이 밀려들며 짚물이 퍼져 농사를 망치기도 했다. 이럴 경우 우선 짚물을 빼내기 위해 수문을 막고, 수문 쪽부터 짚 토매를 넣어 짚물을 거두어 낸다. 언제인가는 한꺼번에 10만평 정도의 농사를 망치기도 했다.

우장옷 입고, 목신 신고 갯일 하기

천수만 일대에서 어업은 직업으로 환영 받지를 못했다. 농사를 주업으로 여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업에 종사하게 되면 아침과 저녁에 썰물 때에 잠깐 동안 작업할 뿐이고, 나머지 시간은 빈둥빈둥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어업이 발달한 마을들에는 술집이 3~12개가 있어 늘 흥청거렸다. 이에 뱃사람을 “뱃놈[뱃놈]”이라 부르고, “배 타는 놈하고, 나무 타는 놈은 낱지 말라”라는 말이 있다. 이는 나무 타는 일이나 배 타는 일은 모두 위험하므로 좋아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육지인들은 간월도를 비롯해 여타의 섬사람을 비하하기도 했다. 섬에는 농경지가 없었기에 늘 고기를 팔러 다녔기에 가난한 것으로 간주했으며, 어물 보다 식량을 중시했기 때문에 어업을 경시한 것이다. 그러나 아침과 저녁에 잠깐만 작업을 하므로 여유가 많았기에 일단 어업에 발을 들여 놓으면 많은 이들이 어업의 편리함에 익숙해져서 어업에 종사했다고들 한다.

어업에 종사하는 보다 중요한 이유는 천수만 해변 마을에는 농지가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식량을 구하기 위해 어물을 어획하고, 어패류를 채취해 판매했다. 1960대까지는 어가(漁價)가 낮아 어패류를 판매해도 큰 수익을 거둘 수가 없었다. 그러나 농지가 없는 해변 마을에서 주민들이 유일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어물 판매였기에 어업 종사자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

어업 종사자는 추운 겨울철에 개펄에서 작업을 하려면 채비를 갖춘다. 창리나 간월도와 같이 어선 어업이 발달한 마을에서는 특별히 ‘우장옷’이라는 옷을 지어 입는다. 평상시에 입는 옷에 쪼가리 천이나 현옷 등을 덧대어 누벼서 두겹게 만든 것이다. 두겹기를 묻자 “두꺼울수록 좋지만 호되게 두겹게 만들지는 못했어”라고 한다. 우장옷의 두께는 오늘날 겨울점퍼 정도의 두께이지만 옷의 길이는 엉덩이를 가리도록 길게 만들어 허리에 가늘고 긴 천을 달아 여몐다. 바지의 허리에도 띠를 만들어 빙 둘러 묶었다.



목신
태안 신월향토유물관 소장
민정희 제공

머리에는 귀를 막을 수 있도록 천을 빙 둘러서 묶어 귀마개를 해서 매서운 추위에 귀가 얼지 않도록 한다.

굴을 많이 채취하던 천수만 주민들은 굴 채취를 위해 특별한 채비를 갖춘다. 이곳에서는 나무로 만든 목신을 만들어 신었다. 특히 간월도, 창리, 칠전리, 마룡리 등의 마을들에서는 목신이 필수적이었다. 소나무를 구해 신발 모양으로 만들거나 장에서 구입해 신었다. 통나무를 신발 모양으로 깎아서 복숭아뼈 아래 높이로 만드는데, 바닥에는 4~5cm 나무토막으로 굽을 앞과 뒤에 각기 단다.

마룡리에서는 굴밭에 가는 목신에는 굽을 달지 않았다고 하나, 다른 마을들에서는 굽이 달린 목신을 신었다. 굴 채취는 추운 겨울철에 이루어지므로 굴밭에 들어가려면 우선 발에 물이 스미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다. 목신을 신으면 우선 물과 차단할 수 있었지만 추위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었다. 이에 발이 얼지 않도록 버선을 신은 발을 짚으로 싼 후 신는다.

추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더 준비한다. 하나는 ‘깨적’이라 부르



깨적을 가슴에 맨 모습. 간월도



굴을 캘 때 눈이나 비를 막기 위해
깨적을 쓴 모습. 간월도

는 짚을 엮어 만든 가리개이고, 다른 하나는 땀감이다. 깨적에 땀감을 담아서 들고 나가 굴 작업하는 옆에 불을 피워두고 추위를 녹인다. 근래에는 속옷을 비롯해 옷이 발달되었고, 추위도 예전과 다르므로 깨적과 목신을 사용하지 않고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장화를 신고 작업한다.

물때 · 바람

천수만은 조수 간만의 차이가 크므로 물때는 주민들의 어로문화 형성의 근간이 되었다. 어업을 하지 않지만 물때는 주민들에게는 생활의 리듬을 알려주는 시계와도 같다.

[표 10] 천수만 일원에서 인식되는 물 때

물 때 구분	사리때								조금때				산짐		
	다섯 매	여섯 매	사 리	일 곱 매	여 덥 매	아 홉 매	열 매	열 한 매	열 두 매	조금 · 한 [간] 조금	무시 두 조금	한 매	두 매	서 매	너 매
날짜	13	14	15	1	2	3	4	5	6	7	8	9	10	11	12
	28	29	30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썰물 시간				9시	22~24시			1~2시		작업하지 않음		5시	6시	7~8시	

위의 [표 10]에서 보듯이 조수는 크게 사리 때와 조금 때로 구분된다. 사리는 물이 많이 빠지고 많이 들어오는 시기로, 서때부터 물이 제법 빨라지기 시작하는데, 이를 두고 ‘물이 산다’고 하여 ‘산짐’이라 표현한다. 서때에 물이 일어나기 시작해도 본격적인 어로활동은 물 힘이 적당해 고기의 활동이 많아지는 다섯때부터 본격화된다. 다섯때부터 열때까지를 ‘사리때’라 하는데, 그중에서도 여섯 때부터 여덟 때까지의 사흘 동안이 물발의 힘이 세서 고기의 움직임도 많아 조업이 용이하다. 반면에 여덟 때 이후로는 물 힘이 너무 세어져서 고기가 흩어져서 오히려 조업이 어렵다.

열한때부터 물이 덜 빠지고 덜 들어오기 시작한다. 이때를 조금되기 시작하는 시기로 하여, 어로잡업은 중단한다. 배로 조업하는 사람은 이때에는 어물을 판매하거나 그물을 손질하고, 다음 조업 준비를 한다. 물살이 빨라야 고기의 흐름도 많아 조업이 용이하지만 조금 때에는 물의 움직임이 적어 조업을 해도 어획량이 없는데, 이때는 물발의 힘이 너무 약해져서 고기가 그물에 들어갔다가 또 다시 나가기도 한다. 무시에도 물살이 전혀 움직이지 않지만 한 때부터 물살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한다.

동일한 물때라도 바람에 따라 물이 나가는 범위가 다르다. 하늬바람[북풍]이 불면 물이 더 많이 나가지만, 맞바람[남풍]이 불면 물이 많이 들어온다. 맞바람이 불면 습기가 많고 풍선으로 작업할 경우 바람을 안고 나가야 하므로 배를 움직이기가 용이하지 않다. 하루에도 여러 번 바람의 방향이 바뀌므로 조업을 하러 나가면 바람의 움직임에 유의한다. 특히 여름철에는 돌풍이 갑자기 불기도 하므로, 서둘러 귀가한다. 그러나 노를 저어 움직이는 풍선의 경우 돌풍을 만나면 속수무책이므로 바람이 불면 조업하러 나가지 않는다.

바닷물이 썰물이 되어 나가는 것을 ‘물이 썬다’고 표현하며, 썰물이 밀물이 되기 이전에 물이 1시간 동안 멈추는데 이를 ‘참’이라 표현한다. 참이 끝나면 곧 밀물이 되어 다시 밀려든다. 이에 썰물에 물을 따라 노를 저어 나갔다가 작업한 후 밀물의 힘을 빌어 다시 돌아온다.

물때에 따라 썰물 시간이 달라지는데, 배로 작업할 경우에는 물이 나가기 시작하면 물을 따라 나가야 하므로 서두른다. 반면에 개펄 작업은 물이 빠져야 작업할 수 있으므로 다소 늦게 작업을 시작한다.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통 새벽 6~7시 경이면 첫 조업을 시작한다.

작은 배로 조업하는 경우에는 위의 물때에 따라 조업시간이 다르다. 조금과 무시 때는 물의 움직임이 거의 없으므로 고기가 움직이지 않아 노를 저어서 나가야 하는 등 조업에 어려움이 많아 아예 작업을 하지 않는다. 한때부터 물이 조금씩 움직이면 물이 빠지는 시간인 새벽 5시에 조업을 시작한다. 썰물 시간은 하루에 1시간 정도씩 차이가 나는데, 두매날에는 6시, 서매에는 7시로, 각기 썰물 때에 조업을 시작한다. 서매부터 사리까지는 물발이 빨라 노 젓기가 용이하므로 아침식사를 마치고 7~8시 정도에 다소 늦게 나가도 물발의 힘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용이하다. 반면에 사리가 지나면 물이 늦은 시간에 빠지므로 새벽에 출항한다. 여덟매 부터는 밤에 자다가 나가고, 열한매와 열두매에는 새벽 1~2시에 나간다.

어선 어업과 달리 개펄 작업을 할 때는 사리 때는 다소 늦게 작업을 시작한다. 사리 때는 물이 멀리까지 빠져 나가므로 다른 날보다 일찍 나가서 오래도록 작업한다. 이에 새벽 6시에 출발한다. 바닷물은 2시간 동안 빠지고 약 1시간 동안 멈췄다가 다시 두 시간 동안 들어오므로 이 시간을 놓치면 작업을 할 수 없다. 반면에 조금 때는 물이 덜 나가 일찍 나가도 작업할 수가 없어 다소 늦은 오전 7~8시 경에 출발하므로 조업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고기를 잡을 때는 바람도 중요하다. 하늬바람이 불면 바다에서 농울[파도]가 심하지 않지만 맞파람이 불면 농울[파도]이 심하다. 맞파람은 주로 여름철에 많이 부는데, 맞파람이 불면 조업하러 나가지 않는다. 그러나 하루에도 바람의 방향은 여러 번 바뀌므로 맞바람이 불면 조업을 그만두고 서둘러 귀가한다.

남풍이 불면 태풍이 오지만 고기는 더 많이 올라온다. 또한 육수(陸水)가 많이 천수만으로 내려가며 고기도 풍어가 된다. 한편 맞파람이 불면 비오고, 하늬바람이 불면 시원하며, 얼굴의 왼쪽으로 바람이 불면 고기가 도망가는 바람이라고 한다.

2. 마을별 어로 활동

1) 어선(魚船)어업

① 먼 바다 조기잡이와 연안어업 : 중선

간월도

이 섬에는 중선이 3척 있었다. 중선에는 7~8명만이 승선해 조업하므로 어업

에 종사하고자 해도 할 수 없었다. 이에 주민들 다수가 홍성이나 안면도 등지로 나가 중선을 탔다. 홍성은 수룡동이나 오도리, 서창의 배를, 안면도는 황도의 배를 주로 탔다.

간월도 주민이 소유한 중선은 동지나해, 남지나해 등의 원양어업 보다는 인근에서 연안어업을 하는 배로 간월암 밑이나 홍성 서부 가는 길목에서 조기나 갈치를 잡았다. 조기와 갈치는 소금에 절여서 판매했다.

창리

창리에는 중선이 많을 때는 열 척 정도가 있었고, 적을 때도 대여섯 척이 있었다. 반면에 작은 배인 댓마는 별로 없었다. 방조제 건립 즈음에 동력선이 보급되면서부터 소형 어선의 수가 늘었다. 중선이 열 척 정도 있으면 전 주민이 중선에 종사할 수 있다. 중선은 연평도와 목포를 오가며 조기와 갈치, 새우 등을 잡았다. 선주가 선장이 되기도 하지만, 선장을 별도로 두기도 한다. 배에는 선장, 화장과 다섯 명의 선원이 동승한다. 선장은 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책임지고, 화장은 선원과 동일한 일을 하면서도 추가로 밥을 지어야 하기에 이 두 사람에게는 수입의 일부를 더 지급한다.

고기를 팔아 수입이 발생하면 반을 잘라 선주에게 주고, 나머지 반으로 선장을 비롯해 선원들이 나눈다. 남은 것 중 한 몫 반씩을 화장과 선장에게 지급하고, 남은 것으로 선원들이 한 몫씩 나누어 준다.

잡은 어물은 곧바로 염장하며, 서산장, 양대리, 지산리, 강당리 등에서 판매했다. 서산장에는 남자들이 지계에 지고 새벽 4시에 출발해서 60리를 걸어서 장이 열리는 아침 시간에 도착하도록 갔으며, 지산리와 강당리 등에는 여자들이 어물을 머리에 이고 직접 돌아다니며 팔았다. 어물은 곡식으로 바꾸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조업하러 나갈 때는 소금과 어구만을 싣고 나간다. 고기나 새우를 잡으면 배의

창고에 소금과 섞어서 절여두며, 배에서 물건을 내릴 때에 새우젓독에 담았다.

마룡리에는 중선을 접안할 공간이 마땅치 않았기에 마룡리 중선은 창리포구에 배를 매두었다. 배를 대 놓고 겨울철에는 집으로 돌아와 생활하다가 봄이 되면 다시 일하러 창리로 간다. 창리포구에서 그물작업도 하고 출항 준비도 했는데, 마룡리는 개펄이 급경사가 저서 어구 손질을 할 수가 없다. 때문에 창리에서 모든 작업이 이루어졌다.

◆ 창리 배재구 씨가 전해주는 3대째 무역, 간척, 중선 부리던 이야기

창리에서 중선을 부리던 분 중 한 명이 배남복 씨이다. 현재는 고인이 되었는데, 그의 후손인 배재구 씨를 통해 선조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경주 배씨인 배남복 씨는 여러 세대 동안 창리에 거주했다. 현재 기억할 수 있는 조상은 제보자의 증조할아버지인데, 증조부인 배응모 씨는 나무 무역을 했는데, 안면도에서 벌목을 해서 마포로 가져다가 팔았다. 혹은 신안에서 새우젓을 구입해서 마포에다 내다 팔았다. 나무와 새우젓을 판돈으로는 쌀을 구입해서 다시 되팔았다. 이렇게 원거리 무역을 했기에 몇 달 만에 돌아왔다. 배가 들어오면 엽전이 가득 담긴 마대자루를 일꾼들이 가지고 집안으로 계속 옮겼으며, 안방 다락에 보관했는데, 그것이 꼭 차서 마루에서 부엌으로 들어가는 길목에도 돈을 채웠다고 한다. 당시에는 그렇게 돈을 보관해도 도둑맞지는 않았다. 제보자는 엽전이 들어오던 것은 기억하지만 당시 상선의 모습은 기억하지 못했다.

조부인 배견모 씨는 인근 지역의 간척을 해서 농지를 만들었다. 칠전리 사기점과 창리 경로당 앞의 원적골 앞, 안면도 창기리 앞 등을 간척했다. 그러나 39세로 일찍 돌아가셨다. 조부의 장손이었던 부친 배남복 씨는 중선을 부렸다. 마을 뿐만 아니라 인근에서 가장 큰 집을 소유했으며, 최고 부자로 기와집을 지었는데, 당시 수덕사 절을 짓는 목수와 장인들이 와서 이 집을 지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청기와의를 엮었다고 하나 지금은 남아 있지 않다. 제보자의 외가는

안면도에 있었는데, 그 집 역시 기와집으로 최고의 건물이었다고 한다. 당시 간척을 많이 해서 농지를 많이 소유했으나 토지개혁 당시에 소작농들에게 불하했다고 한다.

중선 제작은 1960년대 초반에는 창리에서 직접 목수를 데려다가 제작했다. 집 앞에서 목수들이 20톤짜리 배를 짓는 것을 보았다. 배 밑에 둥글목을 놓고 1년여 동안 배를 지었다. 배가 완성된 후에는 벗짚으로 꼰 동아줄을 배에 매고 그 줄을 동네 최고 어른 중 목청 좋은 분이 “으야! 으야!”라고 하면 동네사람들이 끌고, “쉬어라!”라고 하면 쉬고, 다시 끌라고 하면 끌어서 바다로 끌어냈다. 가장 물이 많이 들어왔을 때를 정해 배를 진수했다. 이 배는 노를 저어 움직이는 풍선이었다. 그 후 1961년에 투사이클이라는 화약 넣고 시동하는 엔진을 단 배를 장항의 흥국조선소에서 지었다. 디젤 기관차가 처음 들어오던 시기로 아마 45마력의 엔진을 놓았다. 20톤의 큰 배를 45마력의 엔진으로 끌고 다녔는데, 이는 풍선을 움직이던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배로는 흑산도, 가거도, 연평도 등지를 다니며 고기를 잡았으며, 동지나해로는 나가지는 못했다. 그 후 1968년에 흥국 조선소에서 3번째 배를 건조했는데, 이 배는 다른 사람이 운영하던 것을 중고로 구입했다. 3척의 배를 소유했기에 목포와 연평도를 다니며 조기와 갈치, 새우젓 등을 잡았다. 선장을 비롯해 선원 8~9명이 함께 승선해 조업을 했다. 연평도에서 잡은 조기는 지금과 달리 길이가 30cm로 컸다. 조기는 조기를 잡은 인근의 장에서 판매했는데, 주로 동인천과 인천, 군산, 대전, 장항 등지에서 판매했다. 새우젓은 주로 목포에 팔았다. 새우젓 잡이가 신안앞바다에서 이루어지므로 목포에 큰 장이 섰기 때문이다. 어물은 어판장에 위탁해 판매했다. 간혹 어물을 판매하지 않고 가지고 돌아오기도 하는데, 어물의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조기는 염장해서 가지고 오고, 새우는 김장철에는 생새우로 가져왔다.

조기는 음력 4월에 염장해서 집 앞에 콘크리트로 지은 두 채의 창고에 보관

했다. 창고에는 조기 이외에 갈치, 새우젓 등을 보관해 두었다. 11~12월에 선원들이 꺼내서 짚으로 엮어서 나무를 교차한 걸대에 걸어서 말린다. 그늘에서 겨우내 말려서 굴비를 만든다. 햇빛이 닿으면 기름이 나므로 그늘에서 말린다. 굴비를 엮는 작업도 창고 안에서 이루어진다. 갈치도 절여서 엮어서 판매했다. 반면 새우젓은 드럼통에 시멘트 속 종이를 깨끗하게 씻은 후 그것을 깔고 소금과 새우젓을 넣는다. 이것은 땅에 묻어 보관하지만 광천토굴을 빌려서 보관하기도 했다. 토굴새우젓을 선호했기에 광천 갯고랑으로 들어가 토굴 속에서 보관료를 지급하고 보관했다. 생새우에 소금 1/5을 넣으면 간이 적당하다. 새우젓은 강경으로 가져가 넘겼다. 강경에는 젓갈 가격이 높았다. 소금은 태안군 남면 진산리나 곰섬 등지에서 천일염을 구입해 사용했다. 중선 한 척이 새우젓을 1~3일 잡으면 120~150개의 드럼통에 가득 채워서 들여왔다. 어획량이 많을 때는 다시 가서 잡아야 하므로 포구로 가기 보다는 창리에 와서 고기만을 퍼 넣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갔다. 이럴 때는 주민들이 모두 나와서 지계로 7~8지계씩을 지어다가 창고로 옮겼다. 동네에서는 이것을 소비할 수 없으므로 장사꾼들이 들어와 구입해서 광천이나 강경으로 실어갔다. 주로 가을의 새우철에 이러한 일이 흔했다. 중선에서는 그물 한 번을 들면 100개의 드럼통이 되기도 했으며, 대하나 갈치도 손바닥 크기의 큰 것이 흔했다. 새우젓만을 깨끗하게 담아야 하므로 잡어는 골라서 모두 버렸다. 배에 실린 새우젓통을 꺼내서 운반하는 것은 일일이 품을 얻어야 했다. 통 한 개를 옮기면 얼마씩을 주는 방식으로 품을 얻었다.

중선은 한 달에 두 번 조업을 하는데, 조금 때에는 조업을 하지 못하므로 집으로 들어온다. 이때는 다음 어장 준비를 하는데, 얼음을 준비하고, 상자나 어구 등을 챙긴다. 때문에 어선업은 보름은 작업하고, 보름은 조업 준비를 하며 보낸다.

선원의 수입료는 선주에게 반을 주고, 나머지 반으로 선원들이 나눈다. 선장과 기관장은 1.5배를 받고, 나머지로 선원이 1배씩을 동일하게 나눈다. 이때 식

비 등의 공동경비는 모두 제외한 나머지로 수입료 분배를 한다. 간혹 견배임자라 하여 선주가 사람을 두고 경비를 관리하도록 하기도 한다. 견배임자는 배를 타고 나가기도 하는데, 승선하면 선원과 마찬가지로 선원으로 일을 한다. 견배임자는 경비를 관리하므로 선장과 마찬가지로 1.5배를 지급한다.

창리는 어물을 서산장을 비롯해, 양대리, 지산리, 강당리 등을 다니며 팔았다. 강당리에 부자가 많아 주로 그들에게 팔았다. 서산을 가려면 새벽 4시에 출발해서 60리를 걸어갔다. 마을 내에서도 많이 소비되었다.

배를 부리는 사람은 바람과 태풍을 주의 깊게 관찰한다. 특히 남풍을 싫어하는데, 남풍이 불면 농울[파도]이 심해서 조업에 불리하기 때문인데 이 바람은 주로 여름철에 분다. 반면에 하늬바람은 농울이 일지 않으므로 개의치 않아 했다. 게나 고기는 바람과 태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도 있다.

남풍[마파람]이 불면 태풍이 오는데, 이때는 고기가 더 올라온다. 천수만의 육수가 많이 내려야 고기가 풍어가 된다. 한편 맞바람이 불면 파도가 세므로 기계를 달지 않은 작은 배로는 조업하러 나가지 않는다. 맞바람은 주로 여름에 많이 분다. 남풍이 불면 배가 바람을 맞아서 나가야 하므로 고기 잡으러 나가지 않는다. 반면에 하늬바람은 배 뒤에서 바람이 불므로 배가 내려 갈 때에 돛만 달면 나간다. 때문에 뱃사람은 하늬바람을 좋아한다. 겨울철에는 높새바람과 하늬바람이 많이 부는데, 이 바람이 불면 춥고 나쁘다. 바람이 옆에서 부는 옆바람일 경우에는 배가 Z자로 움직이며 간다. 반면에 뒤에서 바람이 부는 뒷바람이 불면 배가 잘 나가고, 앞에서 부는 앞바람이 불면 배가 전진하기가 어렵다.

중선은 봄철에는 신안으로 새우젓 잡이를 가기에 구정을 쇠고 보름경에 첫 출어를 한다. 당시 중선의 출어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천수만에서는 제일 가차운데가 여기서 뭐 그 당시 배가 속력이 한 6로트에

서 7로트 고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배들이. 짐 싣고. 왔다 갔다 하니까 최고 가
 까워야 2시간, 3시간. 그리고 멀리 나갈 때는 저 동지나까지 나가고. 갈치 잡으
 러. 동지나해상이라고 저기 어디여. 양자강 하류, 중국. 흑산도에서 한 15시간
 20시간씩 6로트, 7로트씩. 그렇게 멀리 다니고 했죠. 서해는 전부 다 다녔죠. 연
 평도에서 뭐 흑산도까지, 봄에도 구정 쇠고도 추자도쪽으로 조기 잡으러 가는
 배도 있었고, 칠산 앞바다로 새우젓 잡으러 가는 배들도 봄에도 그랬어요.

배 고기 많이 잡아가지고 들어오면 깃발 돛대에다가 기를 많이 달고 들어오
 면 고기를 최고 많이 잡은 거고. 옛날에 뭐 연락망이 없잖아요. 앞과 뒤에 세군
 데 들면 그래도 많이 잡은 거고, 앞에만 달았다 하면 어지간히 잡았다. 뒤에다만
 잡으면 못잡았구나. 기 하나라도 달면 아무 사고 없이 들어오는구나. 기를 안
 달면 아주 무슨 일이 있구나. 아주 못 잡았구나. 암만 못 잡아도 인사 사고만 없
 으면 기는 하나라도 달고 들어왔어요.”

중선은 출어할 때 고사를 지내고 뱃기를 꽂은 채 출어한다. 봄부터 4월까지
 는 임자도 인근부터 시작해서 서해 연안을 따라 올라가며 새우젓을 잡는다. 특
 히 임자도 근처에서 새우젓이 많이 났다. 봄어장기에는 새우를 비롯해 조기, 민
 어, 가물치 등을 잡았다. 여름철에는 갈치 잡이 하러 남해안으로 간다. 점차 어
 획량이 줄어 1970년대 후반 경부터는 동지나해, 남지나해, 중국 공해 등지로 고
 기를 잡으러 갔다. 가을 어장에는 안강망으로 꽃게와 잡어를 주로 잡았다. 안강
 망은 바다 밑에서 깔려 있는 어종을 어획하기에 좋았기에 아구, 장대 등의 잡어
 도 많이 잡았다. 가장 어획량이 많았던 기억은 언제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격
 렬비열도에서 새우젓잡이로 기억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일 흔했을 때가 몇 년도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서해안 격렬비열도 밖에
 서 가을 새우젓이 가을 추젓이 그렇게 많이 잡히는 해가 있었거든요. 가서 뭐 하

루 이들 삼일이면 배가 어구 싣고, 새우젓 싣고 하면 100도라모에서 120도라모씩 잡아 가지고 왔거든요. 그거 푸고서 도라모 싣고서 또 잡아오고 했는 그때는 엄청나게 많이 잡아 봤구요. 그 뒤로부터 대량은 나오지 않았어요.”

중선은 조금에는 어장준비를 하기도 하고, 고기를 팔러 다닌다. 그물을 수선해야 다음 어장을 할 수 있으므로 어구 수선과 얼음 등의 필요한 물품도 이때 준비한다. 선원이 보름동안 배에서 일을 하면서 먹을 식량도 모두 구비해야 하므로 목돈이 필요하다.

중선업의 쇠퇴는 어족자원의 고갈로 인한 환경의 변화를 들 수 있다. 배재구 씨는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중선업이 쇠퇴한 것은 서해안에 고기가 없으니까. 이쪽에서는 우리 창리가 배가 몇 척 안됐고 황도가 제일 많았어요. 홍성 서부면의 수룡동이 있어요. 그 동네도 배가 많이 부렸어요. 창리가 여기서만 부렸는데 몇 척 안 되었어요. 여기 창리, 황도, 수룡동이 삼각관계로 해서 어장을 했는데.

서해안의 고기가 계속 멸종하고, 참 적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배가 대형화로 배가 커야 되고, 멀리 나갈라니까요. (1970년대) 그때부터는 고기가 적어지니까. 서해안에 동지나나, 남지나 그런대로 공해상으로 나가야되니까 배가 커야 되잖아요, 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사람도 많이 타야하고, 어장도 좋아야 하고. 자꾸자꾸 쇠퇴하게 되어 그만 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그만 두었어요.”

한편 중선업을 하는 이들은 뱃고사를 매우 중시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의 내용이 보자.

“뱃고사. 정월 뱃고사가 최고 크죠. 일년 잘 벌어들였다고. 선달 그믐날. 그믐

고사 지내고, 그믐고사 배에서 그믐고사 지내고, 정월 초하룻날. 첫해가 돌아왔다고 뱃고사 지내고, 정월 초사흘날은 영신제 지내니까 영신제 앞에다가 배 다 대놓고, 지금은 다 막아서 육지가 되었지만 영신제 앞에가 배대는 데가 쪽 있었어요. 서로가 좋은 자리에 대놓고 깃발을 빨리 꽂고 빨리 내리려고 좋은 자리에 대려고 그래야 돈 많이 번다고 해서. 경쟁이 아주 심했어요. 그러면 초사흘날 아침에 지내고 초사흘날 기 올리고서 또 지내고, 또 밤새 영신제 통밤 꼬박 새고 지내고 초나흘날 아침에 한번 또 지내고 다 끝나죠.”

이처럼 뱃고사는 설달 그믐날과 정월 초하루, 영신제 지내는 날 당맞이 고사 등을 지냈다. 이외에 여러 달 동안 별이가 시원치 않으면 무당을 불러 큰 굿을 했다. 제보자 배재구 씨의 부친이 중선을 부리던 시절에 어획량이 급감해 인천에서 십여 명의 무당을 불러 큰 굿을 했다고 한다, 당시 굿을 하던 중 집안에 있던 골동품을 모두 가져다가 바다에 던져 깨버렸는데, 귀신이 붙었다는 이유에서 청자 등의 그릇을 깬다고 한다. 이처럼 중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인근의 지역 무당을 불러 큰굿을 벌였다. 무당은 뱃고사를 지내기 전에 먼저 영신당에 인사를 드렸다고 한다.

뱃고사는 동네 사람들이 나오기 이전인 새벽 해뜨기 이전에 바닷물이 들물 되었을 때에 배에 올라 지낸다. 복은 들어오는 것이므로 썰물에는 고사를 지내지 않는다. 제물로는 특별히 소머리를 사용하는데, 임경업 장군을 모신 마을이기에 돼지머리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외에 삼색실과, 조기, 농어, 민어 등의 포, 술, 고사떡 등을 제물로 올렸다.⁵⁰⁾ 사고 없이 식구들이 무탈하기를 기원했다.

50) 일제강점기로부터 1970년대까지 가양주를 담지 못하도록 했기에 수시로 술조사가 나왔다. 술조사를 하는 사람을 ‘술주사’라 불렀는데, 걸리면 벌금을 물어야 했다.

중선을 부리던 시절에 가장 어려운 것은 선원을 구하는 것이었다. 젊고 일을 잘하는 사람은 음력 정월 보름 이전에 지목해서 약속해 두어야 한다. 식구들을 두고 배를 타야 했기에 이들은 선돈을 요구했다. 때문에 중선업을 하기 위해서는 땅이라도 팔아서 선돈을 지급해야 했다. 간혹은 선돈을 받고도 조금 더 많이 준다는 다른 선주가 있으면 다른 배로 가기도 하므로 선원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선원으로는 30~40대를 선호했지만, 과거에는 60세까지 배를 탔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창리주민은) 다 어업을 했죠. 다 중선배를 다녔어요. 일주 다 중선배. 우리도 한 척 부리다 두척 부리다 세 척 부리다 그랬었고요. 다른집 들도 한척 집이 세집 네집 있었죠. 그때가 지금보다 사람 살기는 돈은 못 벌었어도 좋았죠. 활기차고, 우리 동네가 그 당시는 한 60 - 70호밖에 안되었는데, 선원들을 채우려면 부족하죠. 기관장이나 그런 사람들은 기계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니 외지분들 모셔오고, 지방 사람만은 부족하니까. 보통 4척, 5척, 6척 부렸거든요. 4척만해도 48=32이니 누구든지 선원들이었죠.

배들 들어오면 풍요롭게 그랬죠. 고기 같은 것 많이 들어오고. 각자 집안에 배들 들어오면 선원들 나누어 먹으려고 젓갈 같은 거 나눠 먹으려고 좋은 걸루 젓갈도 담아서 가져오고, 조기서부터 갈치, 대하 같은 것은 찌서 말려서 엮어서. 가지고 와서 나누면 육지에서 콩, 쌀, 별거 가져와서 물물교환 하고. 그때는 풍요롭게 그랬죠.”

이 마을에서도 중선이 조업하던 중에 돌풍을 만나 전복되어 선원이 전원 사망하기도 했다. 1960년대에 신안 앞바다인 임자도 주변에서 새우젓잡이를 하던 중에 바람이 많이 불어 전복되었다. 제보자의 배도 인근이 가거도에서 조업 중이었기에 그 소식을 듣고 임자도로 가보았지만 배의 흔적도 찾을 수가 없었다

고 한다.

배에는 배의 안전을 돌보는 신령으로 간주되는 배서낭을 모셨다. 영신당에서 받은 백지를 침실에 걸어 둔다. 그 아래에는 과일을 놓아둔다. 이듬해에 영신제를 지낼 때에 소각시키고 다시 길지를 받아서 모신다.

중선을 부리던 마을이었기에 늘 어물이 넘쳐났다. 때문에 인근 마을주민들이 와서 고기를 구입해갔다. 농사 채가 별로 없었기에 어부들은 육지마을의 곡식과 물물교환을 했다. 콩, 쌀, 잡곡, 배추 등을 이고지고 와서 생선으로 바꾸어 갔다. 마룽리, 강당리, 지산리, 봉락리 등이 가장 많이 왔는데, 그중에서 마룽리가 가까워서인지 가장 많이 왔다. 특히 김장철에 갈치, 조기, 젓갈 등을 많이 구입해 갔다. 아주머니들이 더 달라고 하면 삼으로 푹푹 떠서 덤을 주었기에 많이 들 왔다고 한다. 대하는 배에서 삶아서 찌서 짬으로 쪼여서 말렸다. 생것을 말리면 마르지 않으므로 반드시 삶아서 말린다. 이것은 술안주로 주로 거래되었다.

제보자인 배재구 씨는 중선을 중단한 후에는 가두리 양식장을 했다. A방조제 앞에서 우럭과 광어를 키웠다. 치어를 구입해 키우면 5배의 이문이 남았다. 10월이 되어 출어할 때는 하루에 700~800만원의 소득이 났으며, 구정에는 하루에 1,000만원 가량을 벌었다.

부석면 지산리의 중선

지산리에는 중선이 3척 있었고, 달천내로 바닷고기와 젓을 가지고 오는 배가 드나들었다. 중선은 3명이 노를 젓는데, 바람이 불면 돛을 올려 바람을 맞으며 운행했다.

중선이 들어가면 주변 마을 주민들이 중선으로 마중 나와 먼 바다에서 잡은 조기, 전어 등의 고기를 구입한다. 보리 1말을 짊어지고 와서 생선과 바꾸었는데, 보리 1말을 주면 전어 등의 고기를 삼으로 푹푹 떠 준다. 겨울철을 제외하고 음력 3월부터 가을까지 중선이 드나들면 어물을 판다. 3월에는 대하와 실치

를, 4월 이후로는 조기, 꽃게, 송어 등을, 가을에는 새우를 잡아 판매한다.

안면도 백사장 인근에서 대하를 하루에 5~10톤 정도를 잡았다. 대하는 1마리 당 500원 정도였으며 전량 일본으로 수출했다. 머리가 잘라진 것은 수출 하지 못해 국내에서 판매했다.

한편 조업하러 안면도에 가면 생선보다 비싼 것이 배추였다. 어업을 주로 하는 지역이기에 밭작물이 매우 부족했다. 이에 배추밭에는 원두막을 지어 놓고 배추와 무를 서리해가지 못하도록 지켰다. 이에 배에서 밥을 짓는 화장은 선원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 김치를 구해야 하므로 안면도 색시들이 김치를 가져오면 귀한 생선을 주고라도 산다. 배안에서 식사는 김치와 생선이 주를 이루었다.

중선이 한 번 출항하면 10일 동안 배 안에서 생활해야 하므로 매일 밥을 지어야 했다. 배안에서 밥을 지으려면 고전하게 된다. 밥의 한쪽이 설므로, 선밥을 먹으면 설사를 하게 되므로 화장이 혼이 난다. 일부 배에서는 선장이 직접 밥을 하기도 했다. 당시는 고기의 살이 단단한 것을 좋아했다. 우럭, 도미, 조기, 민어 등이 선호했고, 살이 부드러운 물메기나 아귀^[아귀] 등은 싫어했다.

중선을 타는 사람들은 저녁에 나가서 술을 먹으면 이튿날 배가 나갈 때까지 술을 먹기도 한다. 그물에 걸린 대하를 거두어 돌아오는데, 그물에서 대하를 떼어내는 작업은 동네 아주머니들이 목장갑을 끼고 작업한다. 간혹 대하의 독이 손에 오르기도 하는데, 이럴 때면 담배꽂초를 손가락 사이에 끼고 있어야 낫는다. 고기를 떼어 내는 동안 선원은 휴식을 취한다.

중선은 어획한 어물을 판매해 수입료를 분배한다. 선주에게 50%를 주고, 선장, 화장, 기관장에게는 1.5배를 주고, 나머지 선원에게는 동일하게 1배를 지급한다. 선장은 고기가 있는 곳을 찾을 수 있는 능력자이고, 화장은 다른 선원과 동일하게 작업하면서도 밥도 지어야 했기에 노동량이 많고, 기관장은 배를 운행해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하므로 반쯤 값을 더 지급한 것이다.

그물로 고기를 잡으면 그물을 뒤집어서 고기를 꺼낸다. 봄철에 피박^{[오징어의}

한 종류는 그물이 터지게 들었으며, 황새갈치도 많이 들었다. 그물로 오징어를 잡지만 특별한 기술이 없는 주민들도 오징어는 쉽게 먹을 수 있었다. 파도가 세면 오징어가 뒤집어지기도 하는데, 뒤집어진 오징어는 제 힘으로는 다시 뒤집을 수가 없으므로 개펄에 떠밀려 들어오기 때문이다. 때문에 바람이 센 날에 바닷가에 나가면 뒤집힌 오징어를 주울 수 있었다.

고북면 봉생리 : 대하잡이

군북면의 해안에 위치한 마을 중 중선을 소유한 마을은 사기리, 봉생리, 신정리 뿐이었다. 이중 사기리는 중선은 4척 소유하고, 소형 목선 20척을 소유한 순수 어촌이었다. 봉생리에도 중선이 4척 있었지만 이 마을의 경우에는 중선을 정박할 수 없었기에 사기리에 배를 대놓았다. 신정리에도 중선이 4척 있었다.

이들 마을들은 모두 어업 조건이 비슷했는데, 해안의 펄이 모래로 다른 곳과 달리 유독 대하가 많았다. 대하는 모래펄에만 서식하므로, 천수만에서는 홍성 서면과 군북면에서만 낚다. 대하잡이 철이 되면 보령군의 중선들도 이곳으로 대하를 잡으러 왔다.

대하는 삼각망을 이용해 어획했다. 50미터 길이의 그물을 50개 정도를 마련해 한 번에 20개 정도를 사용하고, 나머지 것은 말려서 번갈아 사용한다.

봄에는 음력 4월부터 6월까지, 가을에는 추석부터 눈 오고 바람 불기 이전까지 조업한다. 봄에는 전북 군산 인근의 연도까지 내려가 그물을 놓으며 위로 올라온다. 가을에는 안면도 백사장 근처에 대하가 많으므로 이곳에서 주로 조업한다. 백사장에는 수산물 조합이 있어 어획한 어물을 넘기기가 용이하다. 과거에는 대하가 많아 한 번에 1,000박스 정도를 잡았다. 한 상자에 100~200개 정도의 대하를 담아 한 박스로 포장한다. 이에 이 지역에서는 “계도 대하를 물고 다닌다.”라는 속언이 전한다. 1980년대에는 대하를 급속 냉동해 대부분 일본으로 수출했다. 서산냉동공장과 광천독배에 냉동공장이 있어 주로 이곳에서 냉동했

다. 대하를 수출할 때는 머리는 떼어내고 몸통만 수출했다. 남은 대하 머리는 줄에 꿰어서 팔았다. 여자들이 함지에 대하머리를 담아 팔러 다녔다. 고북면 군내는 전부 다녔다. 이것을 사먹는 사람도 많았는데, 오늘날과 달리 대하가 커서 머리라도 먹을 것이 많았기에 구워서 고추장 찍어 먹었다.

대하 이외에 꽃게·갈치·조기·도미·농어·민어·갑오징어 등을 즐겨 잡았다. 꽃게는 안흥항과 백사장 근처에서 주로 어획했으며, 갑오징어는 간월도 앞에서 잡았다. 특히 갑오징어가 많았는데, 어판장에 사람의 키를 훌쩍 넘기는 갑오징어가 쌓였다.

천수만 해역은 속이 좁아 배가 여러 척 다니면 많이 잡을 수가 없으므로 안면도 바깥으로 주로 나갔다. 천수만은 ‘안바다’로 부르고, 안면도 바깥쪽은 ‘큰바다’ 혹은 ‘서해바다’라 부른다.

서산시 덕지천동 : 조기잡이와 어물거래

이 마을에는 AB 방조제 건립 이전까지 4척의 중선이 있었다. 안면도, 원산도 등지에서 중선업을 하던 분들이 이주해왔다. 제보자의 경우 조부가 이곳으로 이주해서 부친까지 2대에 걸쳐 중선업에 종사했다. 안면도 섬 보다 이곳은 중선이 입항하기가 좋고, 어물 거래도 용이해서 이주했다고 한다. 인근에는 장동에 1척, 용소성리에 1척의 중선이 있었다.

이곳의 배는 조기와 새우를 잡으러 연평도와 목포를 오갔다. 조기는 목포로부터 연평도까지 올라가면서 잡고, 새우는 목포 인근에서 잡았다. 한번 집을 떠나면 3~4달 동안 조업을 한 후 돌아왔는데, 고기잡이철에는 배에서 생활하며 고기를 잡았고, 만선이 되면 인근의 포구로 들어가 판매한 후 다시 조업을 하러 나갔다.

중선은 선장, 화장, 건배임자 각 1명과 선원 4~5명으로 구분되며, 각자의 역할에 따라 조업에 참여한다. 선장은 배의 운행 방향과, 그물 내리는 시기, 거두

는 시기 등을 지시하는 존재이며, 선주인 경우가 많다. 반면 화장은 배에서 음식을 만드는 사람으로 배에 처음 승선하거나 선원 중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이다. 건배임자는 배의 물건을 관리하고, 결산을 보는 사람으로 보통 선주의 인척이 맡는다. 선원은 조업에 직접 참여하는 일꾼이다. 이들의 임금은 일 년에 두 번 결산하는데, 이를 두고 ‘두 번 심을 따져 준다’고 표현한다. 보통 정월과 칠월에 심을 따진다. 선주는 배와 그물을 비롯해 선원들이 배에서 생활하며 사용하는 모든 물건인 곡식, 김치, 쌀감 등을 마련해야 하므로 심을 볼 때에 각 선원의 몫에서 이것을 제한다. 수입료 분배는 선장 50%를 떼고, 나머지를 가지고 인원수 보다 한 몫을 추가해서 나누어서 화장과 건배임자에게 반씩을 추가로 준다. 화장과 건배임자는 선원들과 달리 고되므로 50%를 더 주는 것이다. 배의 선원은 다른 일꾼과 달리 월급이 아니라 수입료를 나누는 것이므로 배당금의 성격이 강하다.

이곳에서 주로 어획하던 고기는 조기로, 연평도에서 잡아 인천 화수부두에서 팔았다. 중선의 선장마다 즐겨 찾는 포구가 달랐다. 잡어는 인천에서 가격을 잘 쳐주면 거래하지만 유입량이 많아 가격이 하락되면 거래하지 않고 배에서 직접 소금에 절여서 드럼통에 보관했다가 가져온다. 이것은 배당금 이외에 선장을 비롯해 선원들에게 몫몫이 나누어준다. 수익료 배당과 마찬가지로 선주에게 50%를 가져다주고, 선장·화장·건배임자가 각 1.5배를, 선원 각 1배로 나눈다. 이 어물은 소매로 거래해야 하므로 각자 집으로 가져가 판매한다. 선원의 부인들이 주로 소매를 했기에 그것이 인연이 되어 지금까지도 수산업에 종사하기도 한다.

새우젓은 염장한 것이므로 목포항에서 주로 거래했지만 판매하지 못한 것은 마을로 가지고 들어와 역시 산매(散賣)했다. 때문에 마을 내에 이러한 어물을 보관하는 저장창고가 여럿 있었다. 선주 별로 저장창고를 지었는데, 보통 흙벽에 초가를 얹은 1칸짜리의 30평 내외로 지었다. 오픈강 주변에 창고를 지어 두지

만 마을 내에 짓기도 했다. 새우젓은 과거에는 새우젓독에 담아 보관하고 거래했으나 드럼통이 보급되면서부터는 드럼통에 비닐을 깔고 새우와 소금을 넣어 보관하고 거래한다.

새우젓은 새우와 소금을 반반씩 넣어 버무려 두면 삭아서 맛있는 젓갈이 된다. 새우를 잡으러 갈 때는 미리 소금과 단지를 구입해 가져 간다. 새우젓독은 음암면 질그릇점과 갈산토기, 부석면 옹기점 등에서 구입했는데, 한 번에 100~200개 정도를 구입했다. 음암면의 질그릇점에서는 구루마에 독을 실어서 배로 날랐다. 부석면의 옹기점에서는 배를 대고 직접 옹기를 구입해 신고서 출항했다.

덕지천동에 전매청 소유의 염전이 있어 이곳에 구해 가지만 외지에서 출항을 하게 되면 인근의 염전에서 소금을 구해 가져간다. 출항지마다 인근에 염전이 많았기에 소금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중선에서 염장한 고기는 이곳으로 찾아오는 이들에게 판매도 하고, 이곳 장터에서도 판매했다. 간혹 서산장, 덕산장 등지로도 가져가기도 했다. 지척에 흥성장이 있지만 그곳에는 광천장이 있어 어물이 많이 유입되어 어물 가격이 좋지 않았기에 별반 이용하지 않았다.

덕지천에는 늘 어물과 젓갈이 많았기에 주민들이나 인근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어물을 구입하러 왔다. 과거에는 이곳에 기생도 있는 주막이 있었다고 하나, 조부대에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 포구가 형성되니 여덟 집이 이주해 왔으며, 주막도 3곳 있었다. 주막은 선원과 이곳을 왕래하는 이들이 주로 이용했다.

덕지천동 주민뿐만 아니라 해미면 삼송리, 음암면 신장리 1~3구까지의 주민들이 주로 이용했다. 이곳에서 생산하는 젓갈은 새우젓, 황새기젓^[황석어젓], 벤댕이젓 등이었다. 이곳 배들은 남해로 멀치잡이를 하지 않으므로 멀치젓은 거래되지 않았다. 젓갈을 구매하러 오는 사람들은 염장한 생선을 비롯해 소금과 간수 등도 함께 구입해 갔다. 간수는 두부를 만드는데 필요하므로 별도로 구입

했다. 주로 거래된 생선은 꽃게, 갈치, 조기, 염장한 생선 등이었으며, 생물은 필요한 만큼씩 거래하지만 염장 생선은 뒷박에 담아 팔았다. 필요한 것을 미리 가져가고 가을 추수 후에 돈이나 곡식으로 갚았다.

중선은 한 달에 한 번씩 뱃고사를 지낸다. 배가 들어왔다가 출항할 때에 고사를 지내고 나간다. 시루떡만 한 시루 올리고 선장과 선원이 갑판에서 고사를 올리고 떠난다. 음력 선달이나 정월에 길일을 택해서 별도의 뱃고사를 지내는데, 이때는 무당을 불러 고사를 주관케 했다. 제보자는 덕산무당을 당골로 불렀다. 이때는 집에서 고사를 지낸다.

인근 마을에서 중선을 타던 사람들

◆ 창리의 지세훈 씨가 타던 중선

1980년대까지 창리에는 중선이 다섯 척 정도 있었다. 이전에는 7~8척 정도를 소유했으나 점차 줄었지만 방조제 건립 이전까지도 다섯 척 정도는 유지했다. 중선은 인근의 황도가 가장 많이 소유했다. 황도와 달리 창리는 육지이므로 농업에 주력했기 때문이라 한다. 주민 중 반 수 정도는 농사가 전업이었고, 나머지 반수만이 어업에 종사했다. 어업 보다는 농업의 수입이 좋으므로 농사를 선호했다.

제보자 지세훈(82세) 씨는 본래 태안이 신진도에서 거주했으나 부친이 이곳으로 이주한 후로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다. 섬은 육지보다 생활이 어려우므로 이주했다고 한다. 젊은 시절에 중선을 탔는데, 창리 배도 타고 황도 배를 타기도 했다고 한다. 창리에는 중선의 수가 적어 황도 배를 많이 탔다고 한다. 중선은 보통 7~8명이 함께 작업하는데, 선장 1명, 기관장 1명, 나머지는 선원이다. 이 중 가장 젊은 사람을 화장이라 하며 배에서 밥을 짓는데, 보통 20세 젊은이로, 배에 처음 승선한 초보 일꾼이 주로 맡았다. 보통 1~2년 동안 화장을 맡으면 일반

선원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

배에서는 끼니마다 새로 밥을 지어 먹었는데, 배에 달린 방장의 한켠에 솥 두 개를 걸고 식사 준비를 했다. 솥에는 국과 밥을 따로 만들며, 국은 잡은 생선을 넣어 주로 끓였다. 방장은 선원이 잠을 자는 곳이기도 하고, 휴식을 취하는 곳이기도 한데, 방 한쪽에는 서낭이 모셔져 있었다. 봄 어장을 위해 출어할 때에 배에서 고사를 지내는데, 선주집에서 떡을 찌어서 주면 이것을 가지고 선원들끼리 배에 올라 고사를 모신다. 첫 어장을 시작하는 것은 일 년 농사를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당을 불러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고사를 지내기도 한다.

고사를 마친 후에는 백지 한 장을 걸어둔다. 그런 후 첫 번째로 잡은 생선 중 조기는 찌서 고사를 지내고, 남은 것 중 10여 마리는 말려서 걸어 둔다. 첫 고기는 파선했을 때에 모두 가져다가 찌어서 먹는다. 조기 이외의 다른 고기는 첫 고기로 삼지 않는다. 11월이 되어 조업이 끝난 것을 두고 ‘파선킨다’고 표현하는데, 이때 배 안에서 선원들끼리 고사를 지낸다. 이때 첫 고기를 떼어 내어 고사를 지내고 나누어 먹는다.

이곳에서 주로 어획한 고기는 조기와 갈치로, 봄 어장은 3~6월, 가을어장은 음력 9~11월까지로 어획되는 고기의 종류는 동일하지만 가을어장이 보다 좋다. 고기의 맛이 좋고 양도 많아 가을어장의 수익이 보다 많다. 이곳에서는 아래로는 홍성의 죽도 인근에서 주로 조업했으며, 위로는 가의도 주변까지로 창리에서 출발하면 1~2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이다. 그물은 보통 50발 길이의 안강망을 주로 사용했다.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어물 판매를 통해 수익을 올렸다. 고깃배가 조업을 마치고 돌아오면 어물 장사꾼이 직접 와서 물건을 구매해 갔다. 갈치, 조기 등이 주로 거래되었다.

◆ 사기리의 최기승 씨가 타던 중선

사기리에는 중선이 없었기에 주민들 중 일부는 중선이 많은 황도로 배를 타러 다녔다. 최기승 씨는 황도의 노순영 씨가 소유한 철선과 목선을 탔다. 중선은 원거리 조업이 가능하므로 인천과 전라도까지 오갔다. 봄 어장기에는 남풍과 서풍이 불고, 가을어장에는 남풍이 분다. 서풍이 불면 배가 갈지자로 왔다 갔다 하며 내려가지만, 남풍이 불면 남쪽으로 곧바로 내려간다.

중선에는 배의 뒤편에 소금을 가마니로 싣고 출항한다. 고기를 잡으면 첫 고기는 돛에 새끼줄에 엮어 매달아둔다. 특히 농어와 조기 등을 매달아 두는데, 집에서 고사를 지내거나 제사를 지낼 때에 사용하는 고기이므로 특별히 매달아 두었다가 사용한다. 중선에는 돛을 두 개 세우는데, 앞 돛 보다 뒤편의 돛이 세 배 정도 크다.

잡은 고기는 염장(鹽藏)하며, 수확량이 많으면 3~5톤 정도를 어획한다. 어물 판매는 주로 인천에서 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어획량이 많으므로 생선 값이 저렴한데, 군산까지는 어물 값이 헐했기에 그 이북 지역에서 주로 거래했다. 군산, 부안, 강경, 인천장을 주로 이용했는데, 이중 인천을 보다 많이 선호했다.

한 번 조업하러 나가면 어물이 어느 정도 찰 때까지는 바다에서 생활해야 하므로 약 3~5일 정도를 배에서 생활한다. 한 달 정도를 외지에서 생활하다가 돌아온다. 중선에는 10여명이 잠을 잘 수 있는 방이 있어 그곳에서 기숙한다. 식사는 배에서 직접 지어 먹으며, 어획한 우럭이나 농어 등을 넣고 찌개를 끓여서 김치와 함께 먹는다.

특히 우럭 머리는 선장이 즐기는 음식 중 하나였다. 밥을 하는 화장은 좋은 고기를 몰래 감추어 두었다가 팔기도 했다. 화장은 뱃일을 처음 시작한 선원으로 다른 일을 하지 못하므로 밥을 짓는다. 화장은 갈치 잡이철에는 미리 갈치 아가미젓을 담아 달라는 부탁을 받기도 한다. 젓갈 중에서 가장 맛있는 젓갈이나 생산량이 적으므로 미리 부탁해야 구할 수 있다. 갈치를 잡아 머리를 떼고는

아가미만을 떼어 소금에 절여 두었다가 먹는다.

화장 이외에 선원들은 모두 동일한 작업을 한다. 뜯어진 그물을 꿰매는 일은 15세 정도부터 시작하는데, 외코 뜨기로 뜬다. 그물의 크기에 따라 바늘의 크기를 달리하며, 너무 촘촘히 꿰매면 그물이 울므로 열기설기하게 해 고기가 잘 끼도록 한다. 중선은 여러 개의 그물들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선원 중 어떤 이는 그물 꿰매는 일만을 하기도 한다.

중선의 수입은 판매해서 나누었다. 선주, 선장, 기관장, 선원이 각기 한 몫씩을 갖고, 선주와 선장은 추가로 한 몫씩을 주었다.

중선이 있던 마을에는 운반도 한 몫

강경리와 송시리 사이에는 바다쪽으로 삐죽하게 돌출된 돌부리라 불리는 지역이 있다.

이 근처는 수심이 깊어 중선의 접안이 가능했다. 강경리 2리에는 중선이 한 척이 있었는데, 그 배의 임자는 박경록 씨였다. 중선이 들어오는 날에는 중선으로부터 선주의 집까지 생선을 운반하는 일을 담당했다.

당시 주된 어종은 조기와 새우젓이었다. 새우젓은 배에서 직접 젓새우와 소금을 섞어 새우젓독에 넣어 두었기에 이것을 하나씩 지게에 실어 선주집으로 옮긴다. 주민들의 많은 수가 이 일에 종사했다. 이외의 주민들은 갯갯을 채취해 생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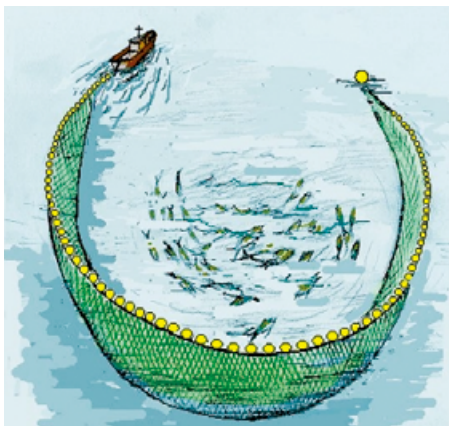
먼 바다에서 새우젓을 싣고 오면 주민들이 나서서 새우젓독을 중선 배 선주집으로 운반해 주고 품삯을 받았다. 10~20대의 청년들이 나서서 새우젓독을 물 지게에 매달아 운반해주었다. 새우젓을 담아 독채 팔러 다녔기에 이들 중선을 흔히 ‘젓배’라고 불렀다.

② 수백 척이 함께 조업하던 작은 배 : 닻배[덧마·작은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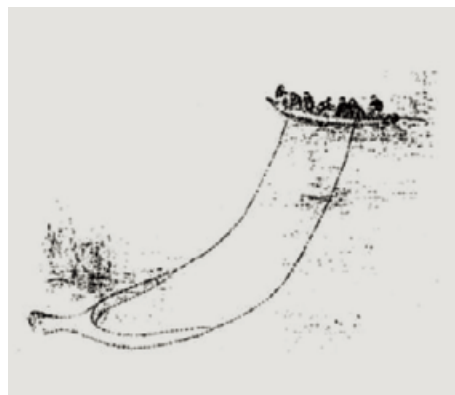
천수만의 내안에서는 작은 배로 조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닻배는 소형 목선(木船)으로, 돛을 달고 노를 저으며 조업하는 배를 뜻한다. 3~4명이 함께 조업하지만 배가 작고, 노를 저어야 하므로 멀리까지 나갈 수 없었기에 천수만의 내안에서 외지 배들까지 수 백 척이 함께 조업했다.

닻배를 가장 많이 소유한 마을은 섬인 간월도와 창리이다. 이들 마을들에서는 지금도 어촌으로 생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많은데, 두 마을 모두 한때 60척의 닻배를 소유했을 정도로 어선 어업이 발달했다. 반농반어의 칠전리에는 30척의 배가 있었지만 전업 농촌마을인 군북면 기지리, 귀밀리 등에는 어선을 단 한 척도 소유하지 않았다.

전통어선 어법은 방그물과 후릿그물 어법이고, 1960년대 이후 삼중망이 보급되면서 대부분 삼중망으로 어업했다.



후릿그물(국립과학수산업)



일본의 방그물 어업 조업도(국립문화재연구소, 「어업용구」 내 수록된 것 재인용)

마을별로 때로는 방그물과 후릿그물 어법을 일부는 삼중망 어업이 조사되었다. 이에 마을별 어업현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부석면 닻배 조업

◆ 창리

어업을 전업으로 하는 이 마을에는 닻배가 60여 척이 있었다. 닻배에는 주낙이나 삼중망을 싣고 다니며 조업했다. 두 어망 모두 선장 홀로 작업할 수 있으므로 홀로 작업하기도 하고, 선원 1~2명과 함께 작업한다. 주낙으로는 도미, 우럭, 놀래미 등을 주로 어획했는데, 다른 어획 도구와 달리 주낙은 사시사철 사용이 가능하다. 보통 두 개의 주낙을 가지고 조업하러 나간다.

외지 사람들이 새로운 어구들을 가져와 전파했다. 송어 잡이 그물은 당진사람이 보급했고, 어업이 발달된 전라도 여수 사람이 낭장망을 가지고 와서 보급하기도 했다. 낭장망으로 어획하는 주 어종은 멸치, 실치였다. 그래서인지 이 마을에는 여수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지금도 여수에 친구들이 많다. 여수 뿐 아니라 전라도 해안 사람들이 충청도로 많이 이주해왔는데, 특히 안흥, 신진도 등에 낭장망을 보급했으며, 창리에도 이들이 여럿 낭장망을 작은 배에 2톤가량을 싣고 올라왔다.

낭장망이 보급되기 이전의 배는 ‘낙배’라고 부른다. 두 사람이 각기 노를 저으며 바람을 타고 고기를 잡으러 다녔다. 이 배로는 먼 바다로 나가지 못하므로 창리 근처와 간월도, 죽도 인근에서 주로 조업했다.

이들 배는 창리 앞의 선창에 배를 대지만 과거에는 쉼터의 중국집 앞이 선창이었다. 이곳은 수심이 깊어 실 한 타래가 모두 들어갈 정도였으며, ‘창리포구’라 불렸다. 작은 배로는 백사장 앞의 나치섬과 창리 앞의 토끼섬에서 조업을 했다. 주로 낚시로 고기를 잡았지만 어종별로 어구를 달리 가지고 다니기도

했다. 예전에는 복어와 보걸치, 붕장어는 낚시로 잡고, 주꾸미는 고동뿔로 잡고, 갑오징어는 통발로 잡았다. 배의 주인별로 다른 도구를 신고 다녔기에 일을 적이지는 않다. 낚시는 주로 육지의 포강에서 잡은 미꾸라지를 잘라서 사용했으며, 송시리 앞에서는 새우젓 잡이를 했다.

◆ 간월도

간월도는 다른 지역과 달리 낚시가 매우 발달했다. PVC 배가 보급된 후로는 삼중망을 이용해 그물로 조업한다. 이 시기로부터는 조기, 갈치, 대하, 광어, 꽃게 등을 어획한다. 작은 배로는 멀리 나갈 수 없으므로 인근에서 조업했다. 봄 어장에서는 보걸치[백조기]와 주꾸미를 잡았고, 여름에는 보걸치를 잡았고, 가을 철에는 주꾸미를 잡았다. 겨울에는 바다가 얼어 더 이상 작업하지 않았다.

배가 조금 클 경우에는 2~3명의 선원이 타고, 작은 낚시배는 홀로 조업한다. 이러한 배들로는 멀리 나가지 못하므로 남쪽의 홍성 앞의 죽도(竹島) 주변이나 동쪽의 사기리에서 주로 조업했다. 노를 저어 가야 했기에 두 곳 모두 2~3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 낚시를 할 때는 닻을 내리기도 하지만 오래도록 조업하지 않으므로 그냥 배를 띄워두고 작업한다. 갑자기 돌풍이 불면 그물을 거두어 곧 돌아온다. 어부들은 멀리서 농울[파도]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바람이 부른 것을 알므로 곧바로 귀가한다. 그러나 갑작스레 몰아치는 돌풍을 만나면 속수무책이므로 많은 이들이 바다에서 변을 당하기도 했다.

낚시로 고기를 잡던 시절에 주요 어획물은 조기새끼인 ‘보걸치’였다. 낚시줄은 50~100발 정도의 길이로 길게 만든다. 긴 낚시줄 끝에 끝이 굵고, 끝이 뾰족하게 바늘처럼 생긴 낚시 바늘을 매단다. 바늘 끝에는 잇감[떡이잠]을 끼운다. 잇감은 가재처럼 생긴 ‘설기[설계]’를 사용한다. 손가락 두 마디 정도의 길이인 설기를 바늘에 끼워 물에 담고는 낚시줄을 길게 늘인다. 물이 나가는 데로 낚시 바늘이 흘러가므로 줄을 풀어준다. 보걸치는 회로 먹거나 절여서 썰 먹는다. 이

외에 농어, 광어 등도 잡는다.

간월도에서는 꽃게와 오징어를 잡기 위해 5~6월에 통발을 설치했다. 통발은 직접 만들었는데, 대나무를 반으로 잘라 둥글게 만든 것을 양 끝에 두고 그 중간에는 면사 그물로 두른다.

원의 지름은 30~50cm로 편리한 데로 만든다. 둥글게 내부 양쪽에는 그물을 삼각형으로 만들어 연결하고 안쪽으로 고기가 빠지도록 연결해 둔다. 안에는 잇감을 넣기도 하지만 대체로는 넣지 않는다. 잇감으로는 정어리를 잘라 한 덩어리씩 넣기도 한다. 통발과 통발은 새끼줄로 30~40cm 정도 길이로 연결해서 한꺼번에 100여 개를 이어 넣으므로 뗏마에 100여 개씩을 싣고 나간다. 통발은 가벼우므로 100여 개를 실을 수 있었다.

[표 11] 간월도의 월별 어획 어물의 종류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조 기		■	■	■	■				■	■		
전 어		■	■						■	■		
꽃 게		■	■						■	■		
농 어					■	■						
광 어					■	■						
대 하							■	■	■	■		
갈 치									■	■		

그물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작은 배에 그물 다섯 틀 정도를 싣고 조업나간다. 전날 4~5틀을 미리 쳐 두었기에 이를 거두고, 새로 가져간 그물을 친다. 꽃게, 대하, 갑오징어 등을 주로 어획했는데, 삼중망으로 모두 어획할 수 있다.

50여 년 전에는 오징어가 마을 주변까지 밀려와 바구니를 들고 다니며 줍기도 했다.

뗏마를 이용해 낚시로 잡은 고기는 소금에 절여서 엮어 말려서 팔았다. 이것을 팔러 갈 때는 고무줄이를 깔고 양은그릇에 생선을 담아 머리에 이고 간다. 양이 많으면 남자들이 지게에 지고 다니기도 하지만 주로 여자들이 이고 간다. 흥성장에서는 당일 팔지 못한 것은 가져오지 않고 장터에 보관해 두었다가 이튿날 다시 판다.

보걸치[조기 새끼] 등의 생선은 1~2마리 정도를 사지만 간혹 20마리를 묶음인 두루미채로 사가기도 한다. 논거의는 찌개를 끓여서 먹으므로 아침에 장터로 나가면 많이들 사갔다.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구입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어물을 판매하고 얻은 수입으로는 쌀이나 밀 등의 곡물을 구입해 돌아간다.

집안에 식구가 많으면 어물을 채취하거나 낚시하는 사람, 팔러 다니는 사람으로 구분되므로 하루에 한 번씩 장터로 어물을 팔러 다닐 수 있지만 식구가 적으면 고기를 잡아 팔러 갈 물량이 모이면 한 번씩 나가므로 사흘에 한 번씩 팔러 간다.

◆ 칠전리

뗏마[작은 배]는 마을 앞바다에서 주로 고기를 잡았고, 대하를 잡으러 안면도 백사장까지는 나갔다. 1970년대 이후로는 삼마이[삼중막] 그물을 가지고 다니며 박대, 주꾸미, 오징어, 대하 등을 잡았다.

그물 보급 이전에는 방그물과 후릿그물을 목그물로 만들어 사용했다. 이중 방그물로 고기를 잡는 배는 중선 보다 조금 작은 배로 약 8톤 정도이다. 방그물 질 하는 것을 ‘오징어방질’ 이라고도 한다. 방그물은 가로 4~5발, 세로 3~4발 정도의 길이로 밑에는 밥이라 하여 옹기로 굳 무거운 것을 매달아 둔다. 이것이 바다 속으로 들어가면 그물이 넓게 펼쳐진다. 이것에 연결해 그물을 길게 만들

어 단다. 그물의 한 쪽을 막대기에 감아 땅에 꽂아 두고 그 위에 호이를 달아둔다. 그런 후 그물을 물속으로 그물이 쪽 반원을 그리며 놓는다. 고기가 있는 곳을 빙 돌아서 처음에 박아둔 호이가 있는 곳에 맞은편 그물이 도달하면 그 앞에 방그물을 내린다. 그물이 아래로 내려가면 그것을 배에 매달고 물살을 가로지르며 앞으로 나아간다. 그러면 물이 내려가는 힘으로 그물이 끌려 나간다. 그물은 물을 못 거스르므로 반드시 물이 나가는 방향으로 그물을 돌려놓는다. 두 명이 그물을 살살 잡아당기면 그물이 올라오는데, 이때 그물 안에 오징어가 수북하게 들어있다. 그물 안의 고기는 언바지로 퍼서 배에 담는다. 이러한 작업은 여러 번을 반복한다.

썰물에는 물을 따라 내려갔다가, 들물에는 들물을 따라 올라온다. 보통 태안군 남면 적돌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반복해 그물을 던져 놓는다. 예전에는 이 근방에서는 방질을 주로 했다. 1970년도 이후로 나일론 그물이 보급되면서 광목 대신에 나일론 그물을 이용했다.

나일론 그물 보급 시기에 통발도 보급되었다. 이에 방그물 대신 오징어를 잡는 통발로 대체했다. 통발은 짧으면 3~5발로, 길게는 10발 정도로 길게 달아 매단다. 한 줄에 30~50개의 통발을 매달아 물에 놓는다. 오징어가 많이 들면 통발마다 들기도 하지만 없을 때는 빈통만을 회수한다. 오징어는 때로 다니므로 통발을 설치하는 위치에 따라 수확량이 다르다.

후릿그물을 가지고 다는 배는 후릿배라 불렀는데, 뗏마 보다 조금 크지만 방배 보다는 작은 약 5톤 급의 배이다. 마을 근처의 바다에서 조업을 하는데 보통 6명이 함께 작업한다. 육지에 그물의 한쪽을 잡고 3명이 있으면, 배를 타고 반대편까지 빙 둘러 그물을 드리운다. 배에서 나머지 3명이 내려 맞은편 그물을 잡아당긴다.

그물의 중간에는 불뚝이라 하여 고기가 담기는 부위를 만들어 둔다. 후리질은 썰물에 갓고랑인 강에서 주로 행하며, 전어, 농어, 송어, 망둥어, 오징어 등

이 주로 걸린다. 어선은 가벼운 수족나무로 만들고, 노는 단단한 죽나무로 만든다. 이중 갑오징어는 봄에 나는 것이 특히 맛이 좋은데, 이것을 ‘새박’이라 하며, 몸통에 점이 박힌 것이 특징이다.

갑오징어의 몸통에 들어 있는 뼈를 빼서 아이들이 장난감을 만들어 놀곤 했다. 뼈의 중앙에 막대기를 하나 꽂으면 배의 형상이 되므로 이것을 바닷가에서 물에 띄우고 놀았다. 장난감이 없던 시절에 오징어 뼈는 중요한 놀잇감 중 하나였다. 어획한 어물은 서산장에 가져가서 판다.

1970년대 이후로 후릿배로는 봄철에 알을 풀기 위해 작은 공간을 찾는 주꾸미를 잡기 위해 고동뿔을 설치하기도 했다. 고동뿔은 제주도에서 구입해서 새끼줄에 꿰어 썰물이 된 후 갯고랑의 강물에 떨어뜨려 놓는다.

마을 앞의 바다인 적돌강은 태안군 남면 양잠리 부근을 지칭하는데, 이곳에서 주로 주꾸미를 잡았다. 주꾸미는 교미하기 위해 암컷이 들어 있는 고동뿔을 찾는다. 봄철에는 암컷과 수컷이 하나의 고동뿔에 들어가 있기도 하므로 여러 마리를 잡을 수 있다. 고동뿔 안의 주꾸미를 꺼내어 짚으로 10마리씩을 꿰어서 판다. 이때 큰 것을 양 끝에 두고 중간에는 작은 것을 넣어 묶는데, 이렇게 묶은 것을 한 코라고 한다. 하루에 많으면 100코 정도를 잡을 수 있는데, 많이 잡은 날에는 150코 정도를 잡았다. 이 작업은 혼자 하기도 하지만 두 명이 함께 하는 것이 보통이다.

◆ 봉락리 2리

봉락리 2리는 1구와 달리 어업에 종사하는 가정이 많다. 1구에는 농지가 많고, 바다와 멀어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별반 없었다. 봉락리 2리에는 80호가 거주했는데, 그중 30호가 작은어선인 뗏마를 소유했다. 어선으로는 이 마을 앞에는 ‘은해전 개울’에서 조업했다. 이 개울은 폭이 500미터이며, 그 깊이는 알 수가 없다.

◆ 송시리

송시리 2구는 두시골, 안말, 큰말, 구역말, 새삼말, 점말로 총 82호가 거주한다. 이중 어업에 종사하는 가정이 5~6호 정도이다. 해안에는 고랑이 나서 내륙으로 이어지는데, 그 고랑으로 관전골, 징어골, 칫개울 등이 있다.⁵¹⁾

이 마을은 뗏마가 10여척 있었지만 마을 앞에는 덕산면과 당진군의 배가 고기를 잡으러 수시로 들어와 검은여 주변에서 송어잡이를 했다. 1970년대 이후로 제주도에서 고동뿔이 보급되면서 주꾸미 잡이를 시작했다. 그 이전에는 후리질로 고기를 잡았다. 어선은 바람이 불면 바다에 나가지 않고, 비가 와도 나가지 않는다.

어선 조업 방식은 주로 후리질이였다. 5~6명이 한조가 되어 장별가의 갯고랑에서 조업한다. 두 사람이 그물의 한쪽을 잡고 서면, 배로 50발 정도의 그물을 바다에 늘여서 반대편으로 가져간다. 이윽고 갯고랑을 사이에 두고 마주서면 양쪽에서 그물을 당긴다.

이때 한 사람이 중앙에서 쪽대를 들고 고기를 떠낸다. 그물이 발달되어 중앙에 고기를 담는 불뚝을 만들면서는 배에 고기를 쏜다. 잡은 고기는 인근의 부석장에 내다 팔거나, 서산장으로 가져간다. 부석장은 6·25 사변 즈음에 난장이 서면서 만든 장으로, 그 이전까지는 서산장과 태안장을 이용했다. 부석장이 성할 때는 외지 배들이 송시리 2구 점말이나 대두리 앞 장별에 배를 대고 부석장을 보았다.

1960년대까지 부석장이 번성했는데, 그 증거로 주변이 온통 주막거리였다. 황도, 안면도 배들이 모두 이 시장을 보았기에 번성했다.

51) 큰 배는 안면도에서 점말의 웅기점에 빨감을 가져다주는 배였다. 점말에는 주막이 두 곳 있었다. 중선이 점말의 웅기점에 들러 독을 사가기도 하고 고기를 팔았다.

◆ 가사리

이 마을에는 닻배 10여척이 있었다. 마을 앞으로 육수가 많이 흘러 천수만으로 흘러들었기에 다양한 어종이 서식했다. 과거에는 가사리 1·3구가 하나의 마을로 당시에는 120호 정도가 거주했는데, 그중 10호만이 배를 운영했다. 나머지 주민들도 바닷가에 거주했기에 농사를 지으면서 짬이 날 때마다 고기를 잡았다.

이곳의 닻배는 노를 저어 창리 앞까지 나갔으며, 그 밑으로는 물살이 세서 나가지 못했다. 썰물에 바람이 잘 맞으면 비행기 나가듯 빠른 속도로 나아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노를 저어 1시간여를 간다. 때문에 닻배를 운영하는 선장은 바다의 이치를 잘 알아야 한다.

◆ 마롱리 : 닻배(작은배)로 후리질 · 낚시질 · 그물질

배의 크기에 따라 그물과 닻의 개수가 다르다. 큰 배는 그물 4틀과 닻 4개, 작은 배는 그물 2틀에 닻 2개를 가지고 다닌다. 큰 배로는 먼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지만 이 마을에는 큰 배가 없었기에 모두 작은 배로 조업했다. 작은 배도 몇 척 없어 어업에 종사하는 가정은 얼마 되지 않았다. 작은 배로는 마을 앞 바다에서 당일치기로 고기를 잡았는데, 여름철에는 후리질로, 봄과 가을철에는 낚시질을 하고, 낙지나 주꾸미도 잡았고, 겨울철에는 쉬었다. 그물이 보급된 후로는 삼마이를 가지고 고기를 잡았다. 삼마이를 사용한 후로는 죽도까지 나가서 조업했는데, 이곳을 ‘상뿌리’라 불렀는데, 고기가 많았다. 그물로는 상어나 대하 등의 다양한 크기의 고기를 잡았으며 이를 두고 “걸리적거리는 것은 모두 잡았어”라고 표현한다. 새우는 작은 배로는 조업이 불가능하다. 새우그물은 한번 치면 20~30발 정도 나가고, 물이 싹 (센 곳)을 가로 막고 치므로 물 힘이 세서 작은 배는 그물에 딸려 가므로 중선이 조업한다.

과거에는 조업을 하던 중에 사망하기도 했는데, 조업 도중에 바람을 만나면

속수무책이었다. 어부들은 나침판을 가지고 다니는데, 이것은 육지만을 가리키도록 만들어졌기에 바람이 불면 나침판이 가리키는 쪽으로 서둘러 노를 젓는다. 때문에 당일치기 조업이지만 날씨가 좋지 않으면 바다에 나가지 않는다. 안개가 끼었거나 바람이 불어도 나가지 않는다.

조업은 물때에 따라 하는데, 일곱때부터 아홉때까지는 조업하기가 가장 좋다. 서매부터 열매까지는 물발이 계속 강해지기 때문이다. 반면에 열한때부터 물이 먹기에^[안 세어서] 조업이 불가능하다. 이때는 낚시도 안된다. 그물을 사용할 때는 선주의 마음에 따라 주꾸미를 잡기도 했다. 제주도에서 보급된 고동풀이라는 고동껍데기를 이용해 주꾸미를 잡는다. 배의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물과 고동껍데기 등을 선택한다.

후리질은 보통 7~8명이 함께 작업을 하는데, 갯고랑의 한쪽에 2~3명이 서서 그물의 한쪽을 쥐고 있으면, 배를 타고 그물을 갯고랑을 가로질러 빙 둘러 놓고 반대편으로 간다. 그곳에 동일하게 2~3명이 반대편 그물을 쥐고 서면 양쪽에서 그물을 당긴다. 그물은 보통 100미터 정도의 길이다. 물이 나가면서 주춤할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후리질을 한다. 그물에 고기가 걸리면 배를 타고 그 중앙으로 가서 쪽대로 고기를 건져낸다. 후리질은 1시간 이상 정도 하는데, 이 시간 동안 후리질은 3~4번 정도를 할 수 있다. 과거에는 고기가 흔했지만 재수가 없으면 허탕을 치기도 했다.

이러한 후리질은 여름철인 5~8월까지만 행한다. 날이 차가운 봄과 가을철에는 갯가에 고기가 있지 않고 깊은 곳으로 가므로 후리질로는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름철에는 송어, 전어, 잡어 등이 물을 따라 나가는 것을 보고 따라 나가며, 날이 좋으면 고기가 물 위로 나와 호흡을 하므로 고기를 볼 수 있어 그곳에 그물을 친다.

낚시질로는 도미를 잡았다. 낙지를 잘라서 잇감으로 사용해 낚시질을 했다. 해변가에서도 땅이 많아야 부자소리 들었다. 먹고 사는 것이 힘겹기에 농사채

가 많으면 먹고 사는 것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농지가 없는 주민들은 모두 부잣집에서 품을 팔아 생활했다. 이 마을로부터 2km 떨어진 강당리에서 주로 품을 팔았다. 그곳은 농지가 많아 품을 팔기가 가장 용이했다.

◆ 봉락리 2리 노라포

봉락리는 1리와 2리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중 2리는 총 86호로 전 주민이 어업에 종사했다. 다른 마을과 달리 유독 이 마을에는 여러 성씨가 모여 사는데, 36개의 성씨가 함께 거주하고 있다. 노라포라는 지명이 중국인이 낙향해서 살았기에 낙양동이라 불렀다는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할 정도이다. 특히 이곳은 개펄이 넓고 좋은 어항포구로 어업조건이 특별히 좋았기에 땅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천국과도 같았다. 누구든 들어와 어업에 종사하면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실제 방조제 건립 이전에는 어족자원이 넉넉하고, 개펄이 5km 정도 넓게 펼쳐져 있어 맨손어업을 하기에 최적의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이 마을 앞의 천수만은 육수가 넉넉히 흘러 육수와 바닷물이 만나는 곳에서 산란을 하는 고기어종이 많이 있었기에 고기가 매우 흔했다. 서해안에서 나는 모든 고기는 이곳을 거쳐 갔기에 어종은 가짓수를 일일이 셀 수가 없었는데, 가오리, 상어, 민어 등의 큰 고기를 주로 잡았으며, 개펄에서는 바지락, 소라, 주꾸미, 오징어, 황새바치[꽁치새끼], 학꽁치, 장어 등을 잡았다. 장어는 한 번 잡으면 몇 관씩 잡았다. 이를 두고 주민들은 “물 반 고기 반”이라 표현한다.

이웃마을 배들이 들어와 소라와 바지락을 캐서 한 배씩 가져가기도 했다. 음력 4~5월에는 줄만 매달아 두면 없던 성이 하나씩 생겼을 정도이다.

노라포에는 5~6척의 중선이 정박했는데, 물이 많이 빠지면 이곳에는 배를 들 수 없으므로 수심이 보다 깊은 대두리나 갈마리 마을 앞으로 배를 댔다. 이곳은 모두 취평장 인근의 포구이므로 이곳에 배를 대야 취평장(4·9일)을 보기가 용이하다. 어물을 팔고 필요한 물건을 구입해 돌아갔다.

마을 내에는 소형 선박이 많았다. 집집마다 한 척씩 있는 셈이므로 20척이 있었다. 농지가 전혀 없었기에 어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았다. 1960년대 이후에 어선업 하는 분들이 이주해 왔는데, 충무쪽에서 가장 먼저 이주해 왔고, 그 다음에 목포와 전라도 분들이 이주해 왔는데, 이들이 삼중망을 가져왔다. 그 이전에는 자신들이 제작한 명주로 된 후릿그물과 낚시만 행했다. 백사장까지 나가 조업하기도 했지만 주로 창리 인근에서도 조업을 했다. 창리 인근에 이르면 물이 빙글빙글 도는데, 유속이 빨라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창리 인근에서는 오리다리 부러진다”는 말을 한다. 과거에는 이곳에서 배도 얹어졌었다고 한다.

후릿그물로 작업하려면 최소 6명이 함께 작업한다. 물이 가장 많이 빠지면 드러나는 주변보다 조금 높은 곳인 ‘된둥’에서 주로 작업한다. 썰물이 되었다가 물이 멈추는 ‘가사’가 30분 정도 유지되었다가 다시 밀물이 되어 들어온다. 물이 빠지기 이전까지만 조업할 수 있다. 특히 사리 때는 물발이 세서 빨리 나가고, 빨리 들어오므로 작업 시간이 1시간뿐이며, 조금 때에는 조금은 더 늦도록 작업이 가능하다. 된둥은 ‘모래수둥’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곳에는 어초가 많아 고기가 많이 숨어 있고, 이곳에서 고기가 산란을 하므로 고기가 많다. 이 마을에서 가장 좋은 곳은 ‘맛풀’이라 불렀던 곳으로 맛이 많이 나던 곳이었다. 고기가 노는 것이 보이므로 그것을 보고 그물질을 하는데, 사공은 어종과 어획량을 70~80%를 맞춘다. 오랜 경험을 통해 아는 것이므로 임금도 짓반을 더 주는 것이다. 후리질을 하는 다른 배는 옆의 배가 후리질을 하면 약 200미터 떨어진 곳에서 그물을 내려 방해하지 않는다.

후리질을 하려면 배를 타고 나가다가 된둥에 이르면 먼저 3명을 내리게 하고, 그물의 한쪽을 잡도록 해둔다. 그런 후 물이 나가는 방향으로 그물을 드리우면서 배를 반대편 된둥으로 이동한다. 맞은편에 다시 3명을 내려놓고 그물을 잡게 한 후 양쪽에서 힘껏 그물을 잡아당긴다. 그물은 고기가 담기도록 중앙에

불뚝을 만들어 둔다. 후리질을 하면 도미, 송어, 오징어, 상아 등의 고기가 걸리는데, 어찌나 많이 어획되었는지 그물 속의 고기를 배에 쏟아 붓자 배가 가라앉기도 했으며, 이럴 경우에는 사람은 수영을 해서 도망 나오고, 배는 이튿날 썰물에 가져왔다고 한다. 후리질은 한 번에 끝내기도 하지만 3~4번 시행하기도 한다. 장별까지 물이 들이차도 물가에 고기가 많았기에 많이 잡을 수 있었다. 밀물은 빨리 밀려들고, 늦게 빠지는 둥벙이 많아 이러한 곳에서 고기를 많이 잡았다.

고기는 봄철에는 도미, 송어, 오징어가 많이 나고, 여름철에는 전어가 많이 나고, 가을철에는 송어, 전어가 많이 난다. 겨울철에는 바다가 얼기 때문에 조업하지 않는다. 오징어를 잡다가 배가 고프면 오징어 다리를 하나 잘라 먹고, 낙지다리도 하나 잘라 먹었다.

배가 포구에 들어가면 여자들이 이것을 받아서 서산장으로 가져다가 판다. 반뎡이[반뎡이], 전어 등은 젓갈을 만들기 위해 구입해 갔다. 이들 고기는 생것으로 주로 팔았으며, 잡기가 바쁘게 팔려 나갔다. 때문에 이 마을 주민들은 당시 농사에는 관심을 둘 여력이 없었다. 이를 두고 “농사는 쳐다보지도 않았으며, 바다에 나가면 2~3시간 만에 돈을 구할 수 있었기에 바다를 은행과 같았어”라고 한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모래장벌에 나가서 수합[바지락]을 캐다가 팔았고, 초등학교 졸업 후에는 배를 탔다. 집안이 부유한 사람만이 중학교에 진학했고,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은 모두 바다로 나갔다. 때문에 ‘뱃사람은 배움이 없다’는 말을 한다. 우선 먹고 사는 것이 용이했기에 배를 선호했으며, 집에 있으면 보릿고개라 쌀밥은커녕 밥도 먹을 수 없었지만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면 쌀보리밥이나 쌀밥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배는 보통 3~4명이 함께 조업을 했는데, 수입이 있으면 ‘짓’으로 나누었다. 우선 선주에게 50%를 주고, 나머지 50%를 가지고 선원들이 일정 비율로 나누었는데, 배와 어구를 한 짓으로 구분해서 선원과 동일하게 취급해서 한 짓이

라 하여 선주에게 지급했다. 한편 사공에게는 한 짓 반을 지급했고, 화장에게는 70%만 지급했다. 화장은 배에서 밥을 하거나 그물 손질만을 하므로 고기를 잡는 고된 노동을 하지 않으므로 덜 지급하는 것이다. 나머지 선원은 모두 한 짓을 지급한다. 작은 배로는 멀리 나갈 수 없지만 백사장 너머까지 나가 대하를 잡았다. 대하 잡이를 제외하고는 보통 창리 앞바다나 마을 앞에서 조업했다.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특별히 용왕제를 정성껏 지냈다. 음력 정월에 택일해서 정성을 드리는데 보통 정월 보름날을 기해 지냈다. 어선어업을 하는 가정에서는 출항할 때, 처음 배를 건조해 왔을 때, 정월 보름날, 팔월 보름날 등에 뱃고사를 지낸다. 뱃기를 한판에 꽂고, 떡(백무리), 삼색실과, 포(승어포, 우럭포, 도미포 등), 술 등으로 간소하게 마련해서 배에서 고사를 올린다. 고사를 지내는 날에는 동네 아이들이 떡을 얻어먹기 위해서 고사지내는 주변으로 나가는데, 고사를 마치고는 고사떡을 한 주먹씩 주물러서 아이들에게 주었다. 걸어 다닐 정도만 되면 아이들이 모두 나와 떡을 얻어먹었다. 또한 배 사업을 하는 선주집에서는 부인도 3개월 동안 부정한 일을 하지 않는다. 부부생활도 삼가고 초상집에도 가지 않는다. 중선을 부리는 가정에서는 무당을 불러 고사를 지내지만 이 마을에는 중선이 없어 그러한 일은 보지 못했다고 한다.

반면에 만선을 하면 배에 자신의 기를 꽂고 들어오는데, 보통 만선이라 할 때는 한 배 가득 고기를 잡은 것으로 600kg 내지 1톤 정도를 잡았을 경우를 의미한다. 일년에 동네에서 1~2배 정도가 만선했기에 흔한 일은 아니다. 자신의 배가 뱃기를 꽂고 들어오면 선주 부인이 알아서 막걸리를 마련해서 선창가로 간다. 잘 잡았다고 뱃사람을 대접하기 위해 나가는 것이다.

◆ 봉생리 1구

봉생리는 1, 2구로 분구되어 있는데, 이중 1구는 전체 80호중 반수가 배를 소유했다. 반면에 2구에는 중선 1척을 소유했다. 소형 뗏마는 30~40척을 소유했

고, 어살을 매는 사람이 3~4명이 있었다. 뗏마는 주낙, 낚시, 삼중망 등을 가지고 다니며 조업했다. 마을 앞에서 주로 조업했다.

봉생리 앞에는 엇뚝병이 있어 이곳에서도 즐겨 조업했다. 이 뚝병은 지름이 100미터로 물고랑이 나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다. 이 뚝병에는 망둥이, 갈치 등이 많이 들었다. 뗏마를 타고 20분 가량을 노 저어 나가면 뚝병 근처에 다다르는데, 바람이 좋으면 돛을 달고 나가면 10분 가량에 도착한다. 이곳에서 뚝병 안으로 그물을 던져 넣는다. 돛은 1년에 한 번 가는데, 황토물을 입혀두면 바람을 더 잘 탄다.

고북면 뚝병과 갯고랑에서 어선 어업

◆ 사기리

사기리에는 어업의 비중이 높은 마을로, 140호 전체가 어업에 종사했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 농업도 하는 반농반어의 마을이다. 그러나 인근의 마을들에 비해 바다에 연해 있어 뗏배를 소유한 가정이 많았다. 뗏배는 1톤 미만의 소형 어선이므로 바람이 불면 조업 할 수 없다. 배의 형태는 뒤가 크고, 앞이 작으며, 중앙에는 돛이 세워져 있다. 배는 세 칸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중앙은 고기를 잡아넣는 고기통으로, 보통 40리터 정도의 크기이다. 배의 뒤에서 노를 젓는다. 한 번 배를 지으면 10년 정도를 사용하는데, 자기가 직접 만들기도 하지만 목수에게 의뢰하기도 한다. 배는 나비뚝 나무를 이용해 지으며 물이 닿아도 썩지 않는다. 노는 죽나무로 만든다. 모든 나무는 목재상에서 구입해온다. 이 배에는 3~4명이 함께 승선하고, 그물을 신는다. 사람이 타면 10여 명이 탈 수 있다.

어장일은 음력 정월 보름을 쇠고서 곧 시작한다. 어장을 시작하기 이전에 음력 정월 대보름날 저녁을 기해 배고사를 지낸다. 돼지머리, 삼색실과, 백무리

떡 한 시루, 막걸리, 포 등만을 마련해 풍어를 기원하며 고사를 지낸다. 선주와 뱃동서들이 함께 배에 올라 우선 제물을 배 앞쪽의 빈 공간에 놓는다. 선주가 먼저 잔을 붓고 절을 한다. 이어 동서꾼들도 술을 붓고 재배한다. 간단히 제사를 마친 후에는 술을 배의 앞쪽과 뒤쪽, 중간 등에 나누어 붓고 제물은 바다로 던져 넣는다. 이튿날부터 물때에 맞추어 조업을 시작한다.

조업과 관련해서는 봄어장, 산란 금어기, 가을어장으로 구분한다. 봄어장은 음력 3월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이고, 7~8월은 산란기이므로 금어(禁漁)한다. 이때는 바닷물도 더워 고기의 움직임이 둔하고, 산란기이므로 고기를 잡지 않는다. 가을어장은 9~11월까지이다.

뱃동서 두 명이 노를 저어 나가는데, 간월도 주변에서 조업을 즐겼다. 돛배는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 추진력이 다른데, 배의 뒤에서 부는 ‘뒷바람’이 불면 배가 빠르게 움직인다. 반면에 전진하는 방향에서 부는 ‘앞바람’이 불면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우므로 방향을 바꾸어 역수(易水)로 간다. 옆에서 바람이 부는 ‘옆바람’이 불면 배가 왔다 갔다 하며 전진한다.

아침 썰물에 물과 함께 나가서 작업 후 들물에 돌아온다. 점심은 배에서 직접 조리해 먹는다. 배의 한 칸에는 쇠로 만든 화덕을 만들어 두고 술을 걸어 둔다. 배 바닥 위에 모래를 깔아 배에 불이 닿지 않도록 해 두고 불을 지핀다. 모래가 없어도 배는 항상 젖어 있으므로 불을 피워도 괜찮다.

주로 대하와 꽃게, 갈치, 농어, 우럭, 광어 등을 주로 어획했다. 마을 앞에서는 대하와 꽃게를 주로 잡았다. 그물은 ‘삼마이[삼중망]’를 주로 사용하는데, 50미터 길이로 제작해 30개를 싣고 나간다. 그물 끝에는 자신만의 표시를 해둔다. 이것을 ‘호이’라 하며, 속이 빈 통을 매달고 그것에 색을 칠해 자신만의 표시를 한다. 바다에서는 흰색이 눈에 띄지 않으므로 붉은 색이나 검정색으로 칠한다. 그물에 매다는 추의 무게에 따라 그물의 움직임이 다르다. 추가 무거우면 그물이 천천히 움직이고, 추가 가벼우면 빨리 움직인다. 그물이 빨리 움직이

면 고기가 더 많이 걸린다. 특히 보름 사리가 물발이 세기에 그물이 물길 따라 빨리 움직이므로 더 많은 고기가 걸린다. 도착하면 먼저 전날 던져 놓은 그물을 거두어들인다. 그물에 걸린 고기를 떼어 내고는 새 그물을 던져 놓는다. 들물에는 돌아와야 하므로 바삐 손을 놀려야 한다. 고기를 그물에서 뺄 때는 까꾸리를 이용한다. 15cm의 작은 나무토막에 기억자로 꺾은 4cm의 갈고리를 끼운다. 손잡이는 잡나무를 이용하는데 밑 부분의 둘레는 7.8cm이고, 윗부분은 5cm로 해서 쥐기에 용이하도록 해둔다. 갈고리를 이용해 생선의 아가리에 걸어 떼어낸다. 그물에 끼어 있는 고기를 따 내는 것이다.

조업을 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은 태풍이다. 바람이 불면 주변에 위치한 마을로 피신한다. 어촌 마을에서는 피신해 오는 뱃사람들을 맞이해 식사를 대접한다.

대하는 여름철을 제외하고 일 년 내내 어획되는데, 특히 음력 9월부터 바닷물이 얼기 이전까지 많이 난다. 갯물로 얼어 배를 띄울 수가 없으므로 한 겨울에는 조업을 하지 않는다. 해빙될 때까지 약 2개월 정도 작업하지 않는다.

이 마을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둑병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이러한 곳을 ‘여’라 부른다. 어살이 있는 근처에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았다. 이곳에서 특별한 고기잡이는 겨울철에 행하는 송어잡이이다. 조금 때에 물의 움직임이 없어 고기의 움직임이 덜하므로 둑병에 갇힌 고기를 잡고자 그물을 쳤다. 이때는 부부만이 배에 동승해 조업하는데, 하고 싶은 사람만이 나갈 뿐이다. 어획량이 많지 않으므로 즐겨 행하지는 않았으며, 놀이 겸 해서 나가는 경우가 보다 흔했다. 특히 젊은이들이 주로 했다. 송어는 필을 먹고 살므로 둑병 주변에 많았기에 한가한 저녁에 나가 잡았다.

음력 12월 24일이 제일 추운데 이즈음이 되면 바닷물이 언 성애가 돌아다닌다. 솜방망이에 불을 붙여 들고는 송어잡이를 한다. 옛둥병은 깊이가 사람 키 정도로 깊지가 않아 닻배를 띄우면 배의 바닥이 땅에 닿을 듯하다. 닻을 내려

배를 정박해 두고 그물의 한쪽은 배에 묻고 다른 쪽은 뚝뚝을 가로 질러 드리운다. 그런 후 한 사람이 그물 앞쪽에서 길이 3미터의 대나무를 쥐고 뚝뚝 주위를 두드리면 그물 안쪽의 송어가 한쪽으로 몰려서 내려간다. 이때 깊은 곳으로 피하지만 결국 갈수록 물의 깊이가 얕아지므로 그물 안에 갇히게 된다. 송어는 가격이 저렴한 고기로, 많은 이들이 구입해서 회를 떠서 먹거나 끓여서 찌개로 먹는다.

닷배를 이용해서는 바지락이 많이 나는 곳으로 조업하러 가기도 한다. 이곳에서는 대비산 아래로 주로 갔다. 대비산 밑은 개펄이 좋아 바지락^[바지락]과 조개가 영글고 좋다. 선주는 캔 바지락을 싣고 와야 하므로 사람을 많이 데리고 가지 않는다. 작업할 양이 많다면 사람을 여럿 싣고 가서 작업 후 배에 싣지 못한 바지락은 바닷물에 담가 두고 사람만 태우고 돌아온다. 2명만이 다시 배를 타고 나가서 바지락을 꺼내서 운반한다.

방조제가 건립되면서 대부분의 어민이 어로 활동을 중단했다. 그중 일부는 방조제 밖에서 어로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민물고기 잡이로 유지되고 있기도 하다. 사기리에 거주하면서 방조제에서 조업을 하는 최기승 씨가 그이다. 그는 19~20세까지는 중선을 탔는데, 군대 가면서 그만두었다가 제대 후에 다시 중선을 탔다. 30세까지 청도의 배를 탔으며 혼인 후 중단했다. 그 후 서울 등지에서 과수재배 등을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와 닻배를 가지고 민물새우 잡이를 했다. 방조제 건립 후로도 지속적으로 새우와 붕어, 장어, 빙어 등을 잡았다. 연로해져서 최근에 젊은이에게 어장자리를 매매했으며, 지금은 낚시꾼이 많아 어장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 신정리 2구

이 마을에는 중선은 한 척도 없었지만 작은 배인 닻배는 두 척이 있었다. 이 배로는 먼 바다로 나갈 수 없으므로 안면도 근처에서 주로 조업했다. 과거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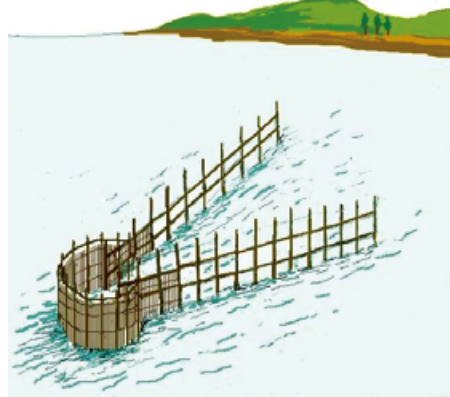
고기가 많았으며, 천수만에서 나는 다양한 어종은 모두 잡을 수 있었다. 이를 두고 주민들은 “생긴 것은 다 잡았어.”라고 한다.

2) 함정어구 : 어살, 어렴[군밭], 독살

천수만의 개펄에는 대나무나 대나무에 여러 풀을 섞어 엮은 발로 만든 그물, 돌 등으로 고정식 함정어구를 설치했다. 개펄의 넓게 펼쳐져 있고 갯고랑이 발달되어 있어 어살을 설치하기에 적합하다. 크고 작은 고랑의 끝부분에 주로 설치하는데, 이에 어살은 큰살, 작은살의 크기로 혹은 태안살, 갈마살 등의 이름으로 부른다. 해변가 마을마다 어살이 없는 마을이 없으나 수심이 깊거나 개펄의 기울기가 급하면 어살을 설치할 수가 없다. 고랑 끝에 설치하므로 마을로부터 1시간여를 걸어 나가야 위치한 것도 있고, 15분 가량 떨어진 곳에 설치한 것도 있어 그 위치가 일률적이지는 않다.

다만 ‘살바탕’이라 하여 예로부터 살을 매던 별도의 자리는 지정되어 있다.

어살은 대나무를 가늘게 잘라 발을 엮어서 만드는데, 간혹은 물골과 억새 등을 섞어서 엮기도 한다. 대나무를 구하기가 어려운 곳에서 주로 그러하며, 대나무를 섞음섞음 엮으므로 쓰러지지는 않는다. 갯고랑의 폭을 양쪽으로 하여 200~300미터 정도의 길이로 길게



죽방렴(국립과학수사원)



어렴(국립과학수사원)

날개를 만들고, 그 뒤에 내상이라 하여 고기가 놀 수 있는 넓은 공간을 만든다. 높이도 7미터 정도로 높는데, 고기들이 많이 노는 수심이 깊은 곳에 설치하기 때문에 높게 하는데, 그 형태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반면에 어살의 일종인 어렴도 있다. 이것은 군발이라고도 하는데, 어살과 동일한 함정어구이지만 높이가 5미터 내외로 낮다. 길

이는 300~400미터의 긴 발을 둥글게 넓게 친다. 양끝은 안쪽으로 말아서 넣고 그곳에 고기들이 놀 수 있는 내상을 만든다. 주로 해변 가에서 오징어를 잡을 때 치지만, 개펄 안쪽에 어살과 같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도 친다. 이것은 대나무로 만들기도 하지만 대나무가 귀하므로 갈대나 억새를 엮어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독살은 돌로 쌓아 어살처럼 만든 어구로, 보통 주변에 돌이 있는 지역에서만 만든다. 간월도 주변에 1개, 검은여 주변에 2개만이 있을 뿐이다.

나일론 그물이 보급되면서 손이 많이 가는 살을 만들기도 그물을 이용해 밭을 치는 것으로 변화했지만 그것도 방조제 건립으로 소멸되었다. 마을별 상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부석면 송시리의 독살과 어살

송시리는 1, 2구로 분구되어 있는데, 이중 2구(50호)에서 주로 살도 매고 배를 부렸고, 1구(60호)는 농업에 종사했다.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농토가 적고, 먹

거리 마련을 위해 고기를 잡았다. 어살, 독살, 군밭 등의 어구는 노력과 경비가 필요하고, 살을 설치할 자리도 제한적이기에 이것을 운영하는 가정은 일부였다. 대다수 가정에서는 맨손어업이나 주낙을 행했다. 갈마리 1구는 순수농촌이고, 갈마리 2구는 바다에 인접해 있어 어업에 종사하는 가정이 많다. 인근에 농지가 많아 농업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다른 마을과 달리 송시리 1구와 갈마리 사이에는 큰물이 흐른다. 이것과 연결되는 작은 골도 많다. 그 골마다 어살이 여러 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어살은 갯고랑에 설치하는 것이므로 갯고랑이 없다면 설치 자체가 불가능하다. 큰골과 잔골이 많은 이곳은 어살을 설치하기에 최적지이다. 그래서인지 송시리와 갈마리 해변에는 약 20여 개의 어살이 산재해 있었다. 검은여 근처에는 돌이 많아 그것으로 만든 독살도 있었다. 검은여는 행정구역 상 갈마리에 속하지만 이곳에서 운영하던 어살과 독살은 송시리 주민의 소유였다.

검은여 근처에는 바위가 많아 그것으로 독살을 쌓았다. 썰물이 되면 검은여 근처까지 물이 빠졌기에 그곳에 살을 설치했다. 독살은 검은여에 1개, 가마실 바위 근처에 1개가 있었다. 현재 주민들은 독살에 대해 “어른들이 하던 것이라 우리들은 직접 하지 않았어.”라고 한다.

검은여의 독살은 높이가 2미터였고, 가마실의 것은 1미터 20센티미터였으며, 화리의 길이는 두 개 모두 100미터가 넘었다. 검은여 주변에 돌곽^[뜰]이 많아 그것으로 수시로 보수해서 높이 쌓았다. 돌살은 어살과 달리 통을 만들지 않고 고기가 모이는 곳에 통을 설치해 둔다. 이 통은 지름이 2미터 정도로 큰데, 성인의 어깨까지 물이 차있으므로 고기가 나오지를 못한다. 돌맹이로 통을 만들어 두므로 물이 빠지지 않는다. 사리 때에 물이 빠지면 통에만 물이 남아 있으므로 뜰채로 고기를 떠낸다. 보통 너매부터 열한때까지만 고기를 잡는다. 반면 조금 때는 물이 들어차 있으므로 작업을 하지 못한다. 독살에는 장대, 깔때기, 꽃게, 승어, 오징어, 돌게^[바캉지], 노쟁이, 뱀어, 상어, 가오리, 뱀장어 등의 다양한

고기가 든다. 고기는 부계에 담아 운반하는데, 보통 큰 부계의 반 정도가 어획된다. 이곳에서는 일 년 사시사철 고기를 잡는데, 추운 겨울철에는 바닷물이 언 성애가 들어왔다가도 나가므로 어획이 가능하다. 파도가 거세면 독살이 무너지므로 수시로 썰어준다. 어획된 어물은 행상으로 이고 지고 다니면서 팔았다. 동네마다 다니면서 팔았는데 많이들 구입해 먹었다.

검은여에서는 독살 이외에 낚시질도 많이 했다. 조금 때도 물에 잠기지 않으므로 물때와 무관하게 조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대나무로 만든 어살은 20개도 넘게 설치되어 있었다. 이들 어살은 각기 ‘관전살’, ‘무등살’, ‘옥지살’, ‘태안살’, ‘군발’, ‘큰살’, ‘작은살’ 등으로 소유주, 크기 등에 따라 이름을 달리 불렀다. 관전살은 관청이 소유한 살이고, 태안살은 주인이 태안사람이라는 뜻이다. 이 지역에 살을 많이 맨 것은 다른 마을의 개펄과 모래펄이 넓게 펼쳐져 있고, 잔골이 많아 살을 매기가 용이했기 때문이다. 잔골이 발달되어 있어 골마다 양쪽에 살을 댔다. 마을에서 건너다보면 살이 많이 보였으며, 인근에서도 송시리와 갈마리 인근에 살이 많았다고들 입을 모아 이야기한다.

어살은 왕대를 잘라 발을 엮어야 하는데, 이곳에는 왕대가 없으므로 안면도 물골을 구입해서 발둑의 새[약새]와 함께 섞음섞음해서 발을 엮는다. 물골은 안면도에 서식하는 나무로 가늘고 힘이 좋아 살이 무너지지 않고 유지되는데 큰 힘이 된다. 어살의 크기는 갯고랑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 큰 살과 작은 살로 구분한다. 큰 살은 고기를 유인하는 화리가 200미터이고, 높이는 2미터로 한다.

화리 끝에 고기가 놀 수 있도록 둥글게 만든 ‘내상’은 4~5평 크기이고, 높이도 높다. 내상을 높고 넓게 해두어야 고기가 많이 들게 되므로 크고 높게 만든다. 특히 송어는 높은 어살을 뛰어 넘어 가기도 하는데, 물속에서 힘이 세므로 이러한 고기를 잡으려면 어살의 높이를 높게 한다. 내상 뒤로는 내상에서 놀던

고기가 내려 내상과 연결되어 그 뒤로 통을 만들어 두는데, 고기가 내상에서 놀다가 통으로 들어가면 갇히게 된다. 통에는 뚜껑을 만들어 두고 그것을 열고 고기를 꺼낸다.

어살에서는 고기를 하루에 두 번 썰물 때에 거둔다. 어살에는 고기가 많이 들면 몇 짐이 나왔으므로 고기가 많은 날에는 자고 있는 마을 사람들을 깨우러 다닌다. 고기가 많으니 옮겨 달라고 하면 나와서 고기를 짚어다 준다. 이들에게는 훗날 고기로 보답한다. 일을 해주고 훗날 고기로 받는 것을 ‘바루살이’라 한다. 어살은 농사 보다 별이가 좋다. 농사는 일 년에 한 번 수확을 하지만 어살은 매일 어획하므로 별이가 좋다. 주민들은 이를 두고 “무지게 돈 벌었어.”라고 한다. 때문에 어살을 하는 집에서는 농사를 별로 중시하지 않는다. 주민들은 농사를 중시했기에 어업은 별반 중시하지 않았고,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만이 중시했다.

많은 고기를 떠내다보니 물이 들어오는 줄을 모르고 고기를 꺼내다가 물에 휩싸여 3명이 한꺼번에 사망하기도 했다. 어살이 많았기에 그만큼 위험도 높았다. 고기는 박 바가지로 떠 냈는데, 박의 중앙을 잘라 속을 파내어 삶아서 말려서 만든다. 박을 삶아 바늘로 찢러 보아 쌀 만큼 들어가면 익은 것이므로 꺼내어 말린다. 이렇게 만든 바가지를 머리에 쓰고 다니며 고기를 건진다.

이곳에서는 조기, 모쟁이(송어새끼), 물치(젓 담은 생선), 망댕이[망둥이], 장대, 오징어가 주로 들었고, 간혹 갈치, 송어, 도미 등의 다양한 어종이 어획되었다. ‘고기 반 물 반’이었기에 이루 셀 수 없는 다양한 어종이 든다. 갈치는 두 발 정도 길이의 것도 들기도 하며, 오징어는 죽어서 장별로 떠밀려 오기도 했다. 음력 4~5월 중에 나는 오징어가 그중 맛있는데, 특히 절기상 입하(立夏) 즈음에 나는 것이 좋다. 봄철 오징어는 살이 두껍고, 가을철 오징어는 살이 얇다. 오징어는 지게로 지고 나오지 못할 정도로 많이 들었다.

물살이 거셀 때에 뒤집힌 것으로 날로 먹었다. 8~12세 정도의 아이들에게 오

징어 뼈는 재미난 장난감 중 하나였다. 뼈를 빼서 배를 만들어 물에 띄우고 놀기도 하고, 분필로 사용하기도 했다.

어획한 어물은 지계에 지어서 팔러 다니기도 했지만 서산 사람들이 들어와 구입해 갔다. 서산 사람들은 선 돈을 주고 구입해 가기도 했다.

어살고사는 봄에 첫 어장을 시작하는 날에 지내고, 고기가 잡히지 않을 때에는 수시로 지낸다. 살을 맨 후 첫 서매날에 물이 빠진 후에 고사를 지낸다. 제물로는 시루떡 한 시루(한말), 돼지머리, 사과와 배, 동태포 등을 사용하며, 살주가 마련한다. 살주가 홀로 나가 아무도 없는 시간에 고사를 올린다.

살에서 조업을 하면서 고기가 잘 잡히지 않으면 살막에서 고사를 지낸다. 갈마리 고잔마을에서 검은여로 가는 길목에 ‘살막’이 한 채 있었다. 이곳을 ‘관전막’이라 불렀는데, 이는 인근에 위치했던 관청에서 관리하던 ‘관전살’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에 관해 전해지는 바는 없다. 살막은 네 개의 나무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짚으로 이엉을 엮어 엮은 형태로, 2명 정도가 들어 갈 수 있을 정도의 작은 크기이다.

해마다 짚으로 이엉을 엮어 새로 지붕을 깔지만, 기둥은 오래도록 사용했다. 살막은 마을에서 장별로 나가는 길목으로, 밀몰이 되어 고사를 지내러 살까지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곳에서 고사를 모셨다고도 하고,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살고사를 지냈다고도 한다. 고사를 마친 후에는 제물을 떼어서 사방에 던지며 “고시레! 오늘날 잘 좀 물어줍시사”라고 빈다.

군발은 어살의 일종으로 얇은 고랑에 넓게 치는 살을 지칭한다. 고기는 육수를 좋아하므로 바다에서 강으로 육수를 먹으러 많이 올라왔다. 어살과 달리 내상이나 통 등은 만들지 않으며, 그저 한쪽의 화리 길이가 200미터씩 발을 친다. 대신 어살보다 폭을 넓게 해서 중앙으로 나지막이 움직이는 고기들이 중앙으로 모이도록 한다. V자로 된 군발의 끝에 고기가 모일 수 있도록 물이 고인 곳이라면 어디든 군발을 친다.

승어, 장어, 깔대기 등의 고기가 든다. 물이 고기를 몰고 오는데, 고기는 밑으로 다니므로 얕은 곳에 친 군발에도 고기가 많이 든다. “고기 반 물 반”이던 시절에 한 번에 몇 짐씩 잡기도 했다.

농업과 달리 어살에서는 매일 고기가 어획되므로 농사 보다 벌이가 좋다. 이를 두고 주민들은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라고 한다. 몇 안 되는 살 자리는 거래가 가능했다. 작업을 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면 거래했다.⁵²⁾

잡아온 고기는 지계에 담아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니며 팔기도 하고, 장터에 나가 판다. 고기는 당일 잡은 것만 구분해서 팔러 간다. 과거 부석장이 설 때는 그곳의 상인이 와서 물이를 해갔다.

부석면 대두리 어살

대두리에는 어살이 1개가 있었다. 현재 어살을 뺀 사람들은 이미 모두 사망하고, 그것에 대한 기억을 지닌 분도 유일한 자손인 이연준(남, 72세) 씨만이 생존한다. 이연준 씨도 젊어서 외지에서 생활해서 기억이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의 기억에 의존해 어살 조업의 실상을 이해하면 아래와 같다.

살은 대나무를 잘라서 엮은 발로 만들었는데, 어살의 길이는 200~500미터로 다양한 크기로 존재했다. 마을로부터 25~30리(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는데, 물골을 따라 나가다가 마지막까지 물이 머무는 곳에 설치했다. 어장을 시작하는 날에 고사를 지낸다. 이연준 씨의 부친인 이일원 씨가 홀로 나가 고사를 지냈으므로 자손은 해당 내용을 알지를 못했다.

52) 이 마을에는 농지가 많지 않았으며, 그나마도 논 보다는 밭이 조금 더 많았다. 그러나 토질이 좋아 수확량은 많았다. 특히 생강이 잘 되었는데, 지금과 달리 당시에는 토종생강으로 생산량이 많았다. 생강 이외에 보리, 콩 등을 심었다. 지금은 생강을 특산품으로 생산한다. 신품종의 생강은 젊은이들이 특용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하면서 대규모로 재배하기 시작했다. 생강의 가격이 좋으므로 많이 재배해 지금은 생강 재배단지가 되었다.

부석면 강수리 · 봉락 2리 어살

강수리 1구 돌부리 앞 바다의 고랑을 따라 살이 여섯 개가 있었다. 큰살, 신전살, 관전살이라 불렀다. 관전살은 최종하 씨의 소유였고, 신전살은 박응수 씨 소유였다. 이 살들에서는 오징어를 많이 어획했다. 이 살들은 모두 마을로부터 3km 떨어진 곳에 위치했으며, 고랑이 깊은 곳에는 큰살을 매고, 얇은 곳에는 작은 살을 땀다. 큰 살은 길이가 200미터이고, 높이는 7~8미터였고, 작은 살은 길이는 200미터이지만 높이가 4~5미터로 큰 살에 비해 작다.

어살을 만드는 재료인 대나무는 마을 내에 산재되어 있는 것을 베어다가 사용했지만 황도에서 사오기도 했다. 어살은 일 년에 두 번 봄과 가을에 어장을 시작하기 이전에 새로 제작해 쫓는다.

살은 화리의 길이는 150미터 이상이였으며, 높이는 7~8미터로 높다. 갯고랑을 따라 화리의 넓이는 넓게도 하지만 시작점은 도랑의 폭과 동일하지만 점차 줄어들어 통이 있는 부근에서는 V자 형태가 되도록 한다. 통의 지름은 7미터이며, 높이는 7~8미터로 화리와 동일하다. 어살터에는 10미터 간격으로 나무 기둥을 세우고 대나무발을 묶어 두는데, 그물이 보급된 후로는 높이를 반으로 줄였으며, 통 뒤에 그물로 뒷통을 만들어 그곳에 고기가 모이도록 해둔다. 뒷통을 만든 후로는 고기를 뒷통의 그물을 풀고 꺼내면 되었기에 고기를 담는 작업이 보다 용이해졌다.

살은 본래 대나무로 만들어 ‘댓살’이라 불렀지만 1970년대 이후로는 그물로 제작해 ‘그물살’이라 불렀다. 어살에는 오징어가 많이 걸렸다. 봉락2리 앞바다인 해빈여에는 어살이 있었다. 어살은 긴 살과 불통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긴 살은 200미터 정도로 크지는 않았다. 하루에 한 번씩 오전에 어살에 나가 어획된 고기를 거두었다.

부석면 마룡리 어살과 군발

쌀과 보리의 곡물이 주식이었기에 농사를 주업으로 해야 했지만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 가정에서는 곡식과 어물을 바꾸기 위해 어살과 군발을 설치했다. 이와 관련해 주민들은 “농사가 부자다. 없는 사람이 군발했다.”라고 한다. 홀로 군발을 설치하기도 하지만 2~3명이 함께 군발을 설치하는 경우가 보다 흔했다. 농사가 주업이므로 남는 시간을 활용해야 했기에 전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에는 작업과 수입을 인원수대로 나눈다.

마룡리 앞 개펄에는 어살이 2~3개 있었다. 어살 자리는 ‘살바탕’이라 하며 과거로부터 허기를 낸 곳으로 세금이 부가되었다. 살바탕은 거래가 가능하다. 간혹 주민들이 살자리를 별도로 신설하기도 했지만 그러한 살자리에는 고기가 절반 들지 않아 살을 옮겨가며 설치했다.

살을 하는 사람들 4~5명이 서로 품을 앗아서 대나무로 살을 제작했다. 마을 근처에 대나무가 많아 이것을 베어다가 어살을 만들었다. ‘살말짱’이라 하여 반듯하게 긴 소나무를 베어다가 2~3발 간격으로 살자리에 박는다. 보통 살은 마을로부터 4km 떨어져 있다. 이 말짱은 위에서 아래로 내리 꽂으므로 배를 타고 다니며 박는 것이 용이하다. 배가 없다면 사람이 일일이 들고 다니면서 내리 꽂아야 하는데, 4명이 말짱을 줄로 매어 엮어누르면 낫다. 이 말짱의 길이는 보통 1길 반 정도이다.

말짱 사이는 대나무를 잘게 잘라 새끼줄로 엮어 만든 발을 둘러친다. 손가락 굵기로 잘게 잘라 새끼줄로 발을 엮는다. 이때 대나무가 구하기가 어려울 때는 왁새^[역새]를 섞어서 짠다.

대나무가 중간 중간 있으면 쓰러지지 않으므로 섞음섞음 짠다. 말짱을 박고, 발을 엮으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음력 11월부터 이듬해 봄까지 식구들이 힘을 합해서 만든다. 여력이 없으면 품을 얻기도 하지만 식구끼리 할 수 있다면 최대한 남의 손을 빌리지 않는다. 개펄의 살자리까지 어살을 옮기려면 장정이

필요하므로 이때에는 품을 얻는다. 말짱을 박을 때는 10여 명이 함께 작업을 하는데, 하루에 완성되지 않으므로 미리 식구들끼리 작업해 둔다. 특히 물살이 세면 평소보다 사람을 더 붙인다.

고기가 늘 다니는 곳에 어살을 두면 고기가 약아져서 다른 곳으로 다니므로 어살을 그대로 두면 고기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고기가 덜 들면 어살을 다른 곳으로 옮겨본다. 멀리로 옮기지 못하므로 보통 300~500미터씩 옮겼다. 사리 때에 어살을 옮기면 며칠간은 그대로 둔다. 큰 고기는 안 들어도 다양한 고기가 든다. 봄에는 갑오징어, 여름에는 꽃게, 갈치 등이 대표적이다. 비록 양이 적어도 먹기 보다는 장에 내다 팔았다. 겨울에는 고기가 들지 않으므로 뜯어 둔다. 마룡리 주민들도 고기를 잡지 않는 이들이 많았기에 멀리 가기도 하지만 마을을 돌며 팔았다. 주민들은 생선을 미리 받아먹고 보리추수 때나 벼 추수 후에 곡물로 갚는다.

주꾸미나 꼴뚜기를 잡기 위해 군발을 친다. 군발을 댈 수 있는 자리가 드물므로 많이 설치할 수 없다. 군발을 설치할 때는 군발을 설치하는 사람들끼리 품앗이로 작업한다.

군발은 높이 1질 넘는 길이로, 100미터 정도의 길이로 대나무를 잘게 잘라 발을 엮어 친다. 군발은 어살과 동일한 형태이지만 크기가 작다. 내상에는 물이 고이도록 해서 주꾸미가 놀 수 있고, 살의 기둥에도 주꾸미가 붙기도 한다. 군발을 설치하고는 살고사를 지낸다. 첫어장을 시작하기에 앞서 고사를 지내는데, 군발 앞에서 떡, 과일, 포 등을 놓고 지낸다.

군발에 붙은 주꾸미는 손으로 일일이 뜯어서 다람치에 담고, 내상의 고인 물에 있는 주꾸미는 엄태미로 건져낸다. 깊은 곳에 설치하므로 사리 때에만 작업이 가능하기에 음력 3~10월까지 설치했다가 날이 추워지면 뜯어낸다. 군발에 고기를 뜨러 가는 것을 “군발 물 보러간다.”라고 표현한다.

부석면 칠전리의 어살과 군발

이 마을에서 운영하던 어살은 2~3개이다. 도미, 오징어, 송어 등이 주로 들었지만 이외에도 이름 있는 고기가 많이 들었다.

어살 이외에 군발이라 하여 조금 작게 만든 살도 있는데, 군발이라 구분해 부르는 것은 하지만 모두 살이라고 한다. 이 마을의 어살은 다른 마을의 것에 비해 작았는데, 화리의 길이는 100미터이고, 높이는 3미터이고, 통의 지름이 3미터이다. 대나무 발은 5미터 간격으로 막대기를 하나씩 박고 그것에 의지해 세운다. 살은 통이 위치한 부분이 가장 높게 만든다. 어살에는 송어, 오징어, 낙지, 주꾸미 등의 다양한 고기가 든다. 어살은 옮기지 않으나 작은 군발은 고기가 들지 않으면 자리를 옮겨본다.

살은 깊은 물에 있어 조금 때에는 물에 잠겨 보이지 않는다. 사리 때가 되면 바닥까지 드러나므로 사리 때에 주로 조업한다. 하루에 두 번 썰물에 물을 보러 나간다. 물이 차 있으면 뜰채로 고기를 떠내고, 물이 빠졌으면 고기를 줍는다. 고기 양에 따라 구루마로 실어 나르기도 하지만 적은 양은 지게로 옮긴다.

부석면 지산리의 어렴

지산리에는 어렴이 10여 개 있었다. 어렴은 그물로 만든 작은 살의 일종으로,⁵³⁾ 펄 위에 큰 넷가 말고 중 넷가에 그물로 U자 형태로 그중 깊은 곳이 2~3미터 정도 되는 곳에 친다. 그 형태는 길이 30미터이며, 높이 4~5미터인 그물을 중간 중간 말뚝을 박아 고정시킨다. 반원의 양끝에는 회오리처럼 끝을 둥글게 말아 고기가 모이도록 해둔다. 물이 나가는 방향으로 가로 막아 두므로, 밑물에는 물에 잠겨 있지만 물이 나갈 때는 그물 아래까지 물이 빠져 있으므로 그물이

53) 이와는 별개로 죽방살도 있다.

드러난다. 물이 있을 때에 내려가는 고기를 잡는 것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쳐진 그물에 가로막히면 고기는 그물을 벗어나기 위해 그물을 따라 양쪽으로 내려간다. 결국 그물 끝을 휘감아 둔 부분으로 자연스레 들어간다. 이 휘감아진 곳에 일단 들어가면 역류해서 나올 수 없으며, 그 공간이 비교적 깊고 넓어 고기가 놀기에 적합해 물이 빠지는 줄 모르고 논다. 그 고기를 떼내기만 하면 되는데, 이 어렴에는 큰 고기는 들지 않으며, 새우, 백하, 오징어 등의 잔 고기가 주로 든다. 간혹 물발의 힘이 약하면 고기가 여염에 들어갔다가도 다시 나오기도 한다. 때문에 물이 나가면 곧 원파지(塼池)로 고기를 떠낸다. 어염에는 서매 이후에나 물을 보러 나가며, 조금 때에는 어염이 물속에 잠겨 있으므로 물을 볼 수가 없다.

어물은 부석의 토골시장으로 내다 팔았다. 토골시장에는 어물을 비롯해서 다양한 생필품이 거래되었다. 부석장 이외에는 태안장도 이용했다. 가사리 앞의 새댁감을 건너면 태안이었는데, 이 마을부터 서산장(2·7일)까지는 20리, 태안장(3·8일)까지 70리, 대산장까지 70리, 홍성장까지는 100리이다.

현재 8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서산장을 이용했지만 그 부모 세대는 태안장을 주로 보았다고 한다. 다른 장과 달리 태안장에는 어류가 생물이므로 큰 고기를 사러 다녔다. 조기 등의 큰 바다 고기가 없으므로 가끔 태안장을 본 것이다.

서산장에는 소장이 쇠기에 소를 팔러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산장을 보았다. 어미소를 데리고 가면 새끼소가 따라 가므로 소를 팔러 갈 때는 어미소를 데리고 간다. 새끼는 팔고 어미소만 데리고 돌아온다. 서산장에 가려면 새벽 4시에 출발한다. 남자는 지계에 솔걸, 장작 등을 지고 장에 나갔다. 1980년대 이후로 교통이 좋아지면서는 다른 장은 이용하지 않고 서산장만을 이용한다.

간월도의 독살과 군밭

간월도에는 동네 주민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독살이 있다. 예전에도 있었



간월도 간월암 옆의 독살

으나 그것은 유실되어 4~5년 전에 주민들이 공동으로 보강을 했다. 어촌계에서 인원을 동원해서 경운기를 이용해 주변의 돌을 옮겨다가 독을 쌓았다. 과거의 독살이 허가되어 있었기에 보강신청을 하고 보수했다. 독살의 한쪽 활의 길이는 120미터 정도였으나 지금은 300미터로 늘려 쌓았으며, 높이는 60~70미터이다. 독살은 높이 쌓아도 파도에 무너지므로 적당히 올려 쌓는다. 파도가 심해서 수시로 무너지기도 하지만 기본 형태는 잘 유지된다.

현재 독살은 간월암 아래에 위치해 있는데, 이곳은 사리 때에는 물이 무릎까지 들이찬다. 중앙의 V자의 중앙 부분에는 10평 정도가 물이 찬다. 이곳에는 늘 고기가 들어 있으므로 뜰채로 떠내면 된다. 이것은 공동어장으로 주민들이 행사가 있을 때에만 고기를 잡는다.

경운기에 고무통을 놓고 그것에 담아 옮긴다. 과거에는 부계에 짊어지고 나

왔다. 굴부르기제나 축제 등이 있을 때에 고기를 가져다가 공동 행사용으로 사용한다. 지금은 크고 작은 어선이 많아 즐겨 사용하지는 않지만 과거에는 중요한 어로 잡이 도구였다.

간월도에는 주로 오징어와 꽃게를 잡기 위해 군발을 설치했다. 오징어만을 잡는 살이라 하여 ‘오징어살’ 이라고 부른다. 간월도는 4개의 갯벌로 구분되어 있는데, 죽도가는 길목의 갯벌인 ‘벗앞이’ 라 하고, 사거리로 가는 갯벌은 ‘범말’ 이라 하고, 강당리로 가는 갯벌은 ‘달밭굴’ 이라 했고, 창리로 가는 길목의 갯벌은 ‘큰말’ 이라 했다. 이중 오징어살은 큰말에 4~5개와 벗앞이에 3~4개가 있었다. 서해안의 오징어는 갑오징어로 몸통에 뼈가 있는 것으로, 맛이 좋아 가격도 비쌌다.

군발은 살과 달리 400미터의 발로 둥글게 설치한 후 양끝을 안쪽으로 말아 넣는다. 고기가 정면으로 들어와 둥근 발을 따라 결국 양쪽 끝에 위치한 통 안으로 들어가도록 유인한다. 군발은 물이 가장 늦게 빠지고 고기가 가는 길목 중 깊숙이 파인 여가 있는 곳에 주로 설치한다. 이러한 특별한 조건을 갖추어야 했기에 군발을 댈 수 있는 자리는 살바탕이 12개가 있었다. 이 살바탕은 오래전부터 운영되었기에 모두 주인이 정해져 있으며, 매매되었다.

대나무를 잘라 발을 엮어 세우기도 하는데, 섬 내에 대나무가 부족해서 달새 [약새]나 갈대를 잘라다가 엮어서 세운다. 가을에 미리 갈대나 억새를 베어다가 있을 때에 내고 줄기만을 엮어 발을 만들어 두었다가 이듬해 봄에 친다. 4월에 오징어철이 되기 이전에 살바탕에 가져다가 세운다. 이때는 군발을 매는 사람 끼리 서로 품앗이로 작업한다. 오징어군발은 3~6월까지지만 했기에 가을에는 뜬어서 말려서 보관한다. 물에 두면 서매날부터 열댓날까지 물을 보러 다니는데, 조금 때가 되면 물이 많아 군발에 접근할 수가 없다. 평소에도 물을 보러 가려면 속옷만 입고 가슴까지 물이 닿는 깊이의 물속에 들어가서 오징어와 꽃게를 쪽바리로 떠낸다. 오징어가 들기 시작하면 하루에 100마리 정도를 어획했기에,

등에 구력을 매고 다니면서 건져낸 오징어를 담는다. 구력이 차면 지게 위에 얹어둔 바지게 위에 옮겨 담는다. 바지게는 왁새로 엮어서 만든다. 3~4시간여를 작업한다.

갑오징어는 회로 먹기도 하고, 지져 먹기도 한다. 그러나 유통을 위해서는 말려야 한다. 몸통을 잘라 말려서 포로 만들어 매매했다. 오늘날의 동해안 오징어 처럼 과거에는 갑오징어포도 간식으로 잘 팔렸다. 닳새 정도를 말려야 붉게 되는데, 이렇게 되도록 수시로 틀어지지 않도록 펴준다. 조금 마르면 반듯하게 해서 다듬이 독으로 눌러 수분을 빼면서 말린다. 잘 마른 오징어는 5개씩을 묶어 머리쪽을 맞붙여서 10개를 묶어 판매한다. 말린 오징어는 주로 홍성장으로 나가 판매했다. 간월도는 배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홍성장 인근까지 배를 타고 가야 편리하므로 홍성장, 갈산장을 주로 이용했다.

군발은 뜯어 두었다가 이듬해에 새로 만들어 세우는데, 물속에 오래두면 적이 생기므로, 꺼내서 상한 것만을 갈아 말려서 보관한다. 살을 매는 집에서는 이듬해에 살을 만들어야 하므로 겨우내 새끼줄을 꼬아 둔다. 짙은 집의 지붕을 엮기 위해 강당리 등지에서 구입해 오므로 넉넉하게 사와서 새끼줄을 꼬는데 사용한다.

고북면 봉생리 1구 어살

봉생리는 바다의 깊이가 깊지는 않아 중선을 댈 수 없었으며 개펄이 넓게 펼쳐져 있었으나 어살을 매는 집은 한 집 뿐이다. 어살은 크기가 대중소로 다른데, 어살 입자가 임의대로 크기를 정한다. 물골이 난 곳을 따라 살을 매야 하므로 개펄이 넓어도 어살을 댄 수 있는 곳은 몇 곳 안 된다. 때문에 어살을 매는 자리는 거래가 가능했다. 바닷물이 들어왔다가 썰물이 되어 나가면 어살 뒤에서 물이 멈춘다. 때문에 어살 주변에는 늘 물이 있고 마을로부터 10리 이상 떨어져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봉생리 앞은 살을 맬 곳이 없어 사기리의 것을 구입했다. 김유해 씨는 20대까지는 농사를 지었는데, 사기리 최승환 씨의 어살을 1950년대에 구입해 방조제가 막히기 이전까지 운영했기에 자세한 내용을 전해주었다. 당시 살은 논 두 마지기 정도를 주고 샀다고 기억한다.

살은 대나무를 가늘게 쪼개서 새끼줄로 엮는데, 고기가 빠지지 않도록 서로 잇대어 엮는다. 이 마을에는 대나무가 서식하지 않으므로 인근에서 구입해 왔다. 김유해 씨가 어살을 하던 1950년대에는 대나무를 부석면에서 구입했는데 지게가 아니라 차로 실어왔다고 한다. 차가 보급되면서 지게로 일일이 옮기는 것에서 차로 운반했던 것이다.

갯물에 잠겨 있어서 대나무가 삭으므로 어살은 1년에 2번 만들어 세운다. 밭을 엮을 때는 주민들의 품을 얻어야 하며, 10일 정도 작업을 해야 어살 1개가 완성되므로, 농한기에 여유가 있는 주민들이 나서서 살을 매는 것을 도와준다. 이들에게는 품값을 따로 주지 않고 나중에 고기를 잡아 고기로 갚는다. 어살과 관련해서 가장 인상 깊은 기억으로는 8·15 해방되던 해에 어살 주인이 고기를 직접 나누어 주었던 일이라 한다. 먹고 살기도 어려웠던 시절에 해방을 기념해 어살 주인이 고기를 나누어주었던 것이다. 바구니를 가지고 어살에 가서 직접 고기를 얻어왔다고 한다.

살의 형태는 중앙에 V자로 길게 매는데, 이 날개와 같은 부분을 ‘화리’라 한다. 화리의 끝 부분에는 지름 2~3미터로 둥근 ‘입통’을 만들고, 입통 뒤에는 ‘뒤통’이라 하여 작은 통을 만들어 고기가 모이도록 해둔다. 화리를 따라 고기가 들어가면 넓은 입통에는 고기가 놀 수 있도록 넓고 물이 많이 고이는 위치를 정한다. 그러나 물이 점차 빠지면 입통 속의 고기가 물을 따라 뒷통으로 들어가게 된다. 뒷통으로 일단 들어가면 입통에는 물이 빠지므로 다시 나올 수가 없어 고기가 뒷통에 갇힌다. 사리 때에는 뒷통까지 물이 빠진다. 음력 4월 실치가 많이 나는 시절에는 살의 꼭대기 부분에 가는 그물을 둘러쳐서 실치를 잡기도 했

다. 실치는 떠다니므로 위에 그물을 쳐야 걸린다.

어살은 사리 때에 어획량이 가장 좋은데, 그것도 초사리(보름사리)에 많이 든다. 물살이 세면 고기가 많이 움직이므로 어살에도 고기가 많이 든다. 반면에 조금 때에는 고기가 별반 들지 않는다. 어살에는 조기나 우럭 등의 바깥 바닷고기는 들지 않으며, 갈치나 송어 등의 고기가 주로 든다. 어살에 든 고기를 어획하는 것은 ‘고기를 줍는다.’고 표현한다. 이는 이미 어획된 것이나 마찬가지로 뜰채로 떠내기 때문이다. 보통은 뜰채 작업만 1시간 여를 하지만 고기가 많이 들었다면 2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고기를 뜰 때는 ‘쪽바디’를 이용하는데, 그물이 나오기 이전에는 대나무를 쪼개서 발로 엮어서 만들었다. 그물이 보급된 후로는 대나무 대신 그물을 이용해 주머니를 엮어 매달아 사용한다. 손잡이는 150cm 정도로 소나무를 이용한다.

물이 완전히 빠진 후에 물이 5~10분 멈추었다가 다시 들어오므로 손을 바빠 움직여야 고기를 모두 건져 낼 수 있다.

어살에 드는 고기는 갈치, 망둥어이며, 송어는 약아서 살에 들지 않으며, 잡고기가 대부분이다. 고기가 많이 들 때는 5~6지계를 지고 나오지만, 적을 때는 한 지계 분량도 되지 않는다. 지계 위에 대나무 소쿠리를 얹고 그 안에 고기를 담는다. 고기 양이 적으면 지계 대신 부계만을 이용하거나 부계에 고기를 담고 그 위에 소쿠리를 얹고 고기를 엮기도 하지만 양이 많지 않을 때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지계 보다 힘이 덜 들어 유리하다.

어살은 저녁 썰물에도 고기를 떠낼 수 있으므로 밤에 고기를 추려서 이튿날 아침에 고기를 팔러 장으로 나간다. 다른 식구는 아침에 고기를 떠내러 어살에 가서 작업을 해야 했기에 식구 여럿이 함께 할 경우 작업이 유리하다.

어살로 잡은 고기는 상처가 나지 않으므로 가격이 좋다. 갈치, 송어, 꽃게, 망둥어 등과 이름을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가 든다. 이들 고기는 고북장, 흥성장, 갈산장 등에 내다 판다.

멀리 갈 때는 덕산장까지 갔다. 고기가 많으면 6~7사람의 일꾼을 사서 지계에 지어 함께 장터로 내보기도 했다. 한번 팔면 쌀로 1~2가마니 정도의 수입을 얻었다. 고기가 적으면 함지박에 고기를 담아 여자들이 이고 다니며 팔았다. 서산장까지 10리가 넘었으며, 예산장은 하루가 꼬박 걸렸다.

방조제가 막히면서 어살은 자연스레 소멸되었다. 보상을 받기는 했으나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의미 없는 돈을 받았다고 한다. 어장을 잃었기에 그 후로는 수입이 줄어 많은 것을 잃었다고 한다.

◆ 살 뒤에는 오징어 군발과 고기잡이 그물

봄철에는 어살 뒤에 대나무로 만든 그물을 빙 둘러 친다. 오징어를 잡는 그물이라 하여 ‘오징어 군발’이라 부른다. 어살로부터 15미터 떨어진 곳에 빙 둘러 치는데, 군발의 길이는 15~20미터 정도, 높이는 150cm 정도이다. 뒷면에는 김발을 붙여두어야 오징어가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다. 오징어는 다른 어류와 달리 군발의 앞과 뒤에 붙는다. 많이 잡힐 때는 오징어를 20마리씩 잡는다. 오징어는 회로 먹기도 하고, 말려서 팔기도 한다.

오징어군발은 누구라도 설치하고 싶은 사람이 설치한다. 어살과 떨어져 있고 어살에 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살주가 상관하지 않는다.

오징어군발 뒤로도 고기 잡는 그물을 치기도 한다. 이것도 누구라도 칠 수는 있지만 군발과 그물은 물이 빠지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으므로 수확이 많지는 않다.

◆ 살고사

봄어장(3~4월)을 시작하기 이전에 먼저 살에서 고사를 지낸다. 사과·배·술·적(송어와 조기)·포(명태)·쓰레미(갯오징어 말린 것)을 제물 삼아 올린다. 어장을 시작하기 전날 아침에 살주가 홀로 제물을 가지고 어살로 나간다.

고북면 사기리 어살

사기리의 어살은 방조제 건립 이전까지 이 지역에서 고기를 잡는 중요한 방식이었다. 이 마을에는 3개의 어살이 있었다. 대나무로 발을 엮어 1년에 2번 갈아서 다시 세운다. 살 제작은 겨울 동안 어살을 설치하고자 하는 주인이 틈나는 대로 새끼줄 꼬는 것부터 시작된다. 새끼줄을 많이 꼬아 두어야 어살을 엮을 수 있으므로 다른 일은 하지 않고 새끼줄만을 꼬아둔다. 음력 2월이 되면 어살 만들 준비를 한다. 특별히 품삯을 지급하지 않지만 주민들이 나서서 품을 보탠다. 그러면 어살주인이 나중에 잡은 고기를 도와준 이들에게 조금씩 나누어준다. 일 년 동안 고기를 조금씩이나마 얻어먹을 수 있으므로 농한기를 이용해 품을 보태는 것이다. 어살을 매는 것이 농사를 짓는 것보다는 수입이 좋았으나 살자리가 제한적이었다. 어살은 신고제였으나 세금이 싸고 수입은 좋았다. 어살을 매려면 일손이 많이 필요하므로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었다. 그래서인지 마을 내에서도 어살하는 집은 부자소리를 들었다. 특히 일을 하는 동안도 일손이 많이 필요하므로 손포(일할 수 있는 사람)가 적으면 어려웠다. 보통 7명의 대식구가 함께 작업했다.

대나무는 마을 주변의 것만을 사용하기도 했으나 늘 부족해서 인근의 고북면 장선리나 청도에서 대나무를 사왔다. 대나무는 베는 것부터 운반하는 것까지를 해야 하므로 일손이 많이 필요하다.

청도의 대나무는 배로 실어왔지만, 장선리의 것은 지게로 지어 왔다. 청장년 10여 명이 여러 차례 지어 날랐다. 필요한 만큼의 대나무를 어살 하는 집 마당으로 운반한 뒤 대나무를 가늘게 쪼갠다. 보통 굵은 대나무를 손가락 굵기로 가늘게 쪼개는데, 길이가 3~4미터이므로 작업이 용이하지만은 않다. 이것을 새끼줄을 이용해 두 번 엮는데,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각기 새끼줄로 엮어 고정해 가며 발로 엮는다. 어살의 날개에 해당되는 화리의 경우 물골의 크기에 따라 그 길이를 달리 한다. 물골이 깊으면 화리를 길게 하고, 물골이 얕으면 화리를 짧게 한

다. 긴 것은 300미터로 하고, 짧은 것은 200미터이다. 임통과 뒷통도 동일한 방식으로 완성해 가는데, 높이도 어살과 같이 3미터 높이로 완성한다. 보통 10일 정도 작업을 하는데, 작업을 하는 동안은 어살주인이 식사를 대접한다. 때문에 동네사람들이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살 작업하는 집에 와서 손을 보태기도 했다. 반찬이라야 콩나물과 생선찌개뿐이었지만 여럿이 먹는 밥이었기에 맛은 좋았다고 한다.

이외에 살을 고정할 참나무도 구입한다. 참나무는 50cm 간격으로 박아야 하므로 이것도 많이 필요하다. 밭처럼 엮은 살은 10리 밖의 살자리까지 운반한다. 물이 가장 늦게 빠지는 물골 끝부분이 ‘살바탕’ 이므로 마을로부터 꽤 멀리 떨어져 있다. 무게는 가볍지만 길이가 사람의 키를 훌쩍 넘기므로 땅에 끌려 중심을 잡기가 여간 어렵지 않았다고 한다. 동네 사람들이 지계를 지고 줄을 서서 살자리까지 옮겨 주면 곧 살 설치를 시작한다. 화리부터 임통, 뒷통의 순서로 살을 설치하는데, 임통은 둥글게 만들므로 지름을 2~3미터로 한다. 뒷통은 깊게 묻어 높이를 40cm 정도로 한다. 어살의 모든 부위는 갯벌을 파고 대나무를 꽂아야 하므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살 제작부터 설치까지 꼬박 한 달여가 소요된다. 주민들이 나누어서 협업을 통해 어살을 모두 설치한다. 어살 설치하는 주민들 스스로도 공동의 작업으로 생각했기에 제작과 설치는 어렵지는 않다.

바람이 심하면 살이 쓰러지기도 하므로 이때도 사람을 얻어서 다시 세우는 작업을 한다. 헛 것은 바다에 버린다.

어살을 설치하는 살자리는 조상 대대로 이어오던 어살터로 ‘살바탕’ 이라 부른다. 넓은 개펄 중에서 물골을 따라 고기들이 다니므로 어살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얼마 되지 않는다. 이에 조상 대대로 후손들에게 살자리가 상속되며, 어살업을 그만두려면 살자리를 매매한다. 그러나 어선 보다 수입이 좋았으므로 매매하기 유지하는 편이 나왔다. 방조제가 건립되면서 어살은 중단되었으며, 약간의 보상을 받았다.

살을 설치하고는 그 이튿날부터 어획을 시작한다. 서매부터 일곱매까지 작업 하는데, 가장 고기가 많이 드는 시기는 사리이다. 보름사리와 그믐사리에는 고기가 많이 든다. 아침에 썰물이 되어 물이 빠지면 서둘러 어살로 지계를 지고 나간다. 때문에 어장일을 하는 사람은 아침을 먹지 못하고 일을 시작한다. 나이가 80세가 되도록 버릇이 되어서인지 아침을 먹지 않는다고 한다. 고기를 가지러 가는 것은 남자가 하지만 여의치 않으면 부인이 하기도 한다. 날이 밝아도 어른의 키를 훌쩍 넘기는 어살에 도착하면 집에 들어가는 것 같이 아늑했다고 한다. 임통에 들어서면 물이 무릎정도가 차 있으므로 뜰채를 이용해 고기를 건져서 지계 위의 대나무 소쿠리에 떨어낸다. 뜰채는 손잡이는 소나무로 만들며, 길이는 120cm이다. 뜰채의 지름은 50cm 정도이며, 뜰채 테두리에는 그물을 매둔다. 활어로 거래하지 않으므로 물고기가 죽는 것은 아랑곳 하지 않는다. 참이 되면 여자는 소쿠리를 머리에 이고, 남자는 지계에 지고 어살에서 나온다. 만약 고기가 많으면 뒷통에 보관해 두고 온다. 저녁에 다시 가서 가져온다. 고기가 많이 들 때는 아침과 저녁에 가서 고기를 가져온다. 저녁에는 광솔불을 밝혀들고 간다.

보통 하루에 고기는 반 소쿠리 이상을 어획했다. 갈치, 꽃게, 바카지, 오징어, 꼴뚜기, 송어와 여러 잡고기가 들었다. 아구 등의 찜고기는 과거에는 먹지 않았기에 버리며, 가장 많이 드는 잡고기는 가격이 저렴했기에 팔기 보다는 이웃과 나누어 먹고, 가격이 비싼 고기만을 장에 내다 판다. 전체 주민에게는 주지 못하지만 어살 제작에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는 조금씩이나 나누어 준다. 양이 많지 않으므로 돌아가면서 나누어준다. 이것만으로도 생선을 구입하지 않아도 넉넉히 반찬을 마련할 수 있으므로 주민들은 어살 제작에 자진해서 참여한다.

어살 주변에는 늘 물이 조금은 남아 있으므로 어살 밖 주변을 발로 밟으면 흙탕물이 난다. 이때 장어가 나오기도 한다. 뒷통 뒤에는 멸치나 시라시를 잡기 위해 그물을 둘러놓기도 한다. 어살 주변에는 물고랑이 있어 고기가 빠져나가

는 길목이므로 늘 고기가 많다. 이에 주민들이 어살 주변을 다니며 고기를 잡는다. 그러나 어살 주인이 주변에도 그물을 드리워 두기도 하므로 주인이 오면 도망간다.

고기는 그 날 그 날 판매한다. 어살 하는 집으로는 고기를 구매하러 오는 이들이 간혹 있다. 산골 사람들은 어살을 맬 때에 사용하는 새끼줄을 꼬아서 지고 와서 고기로 바꾸어 간다. 좋은 고기만을 골라 아주머니들이 소쿠리에 담아 머리에 이고 팔러 나간다. 어살 하는 집 아주머니들이 함께 장으로 갔다. 고기의 양이 많은 날에는 남편이 자전거에 실어서 옮겨주기도 한다. 고북장(4km), 갈산장(4km), 해미장(7km)은 걸어서 가고, 온천장은 버스를 타고 간다. 이중 해미장을 주로 다녔다. 어물거래는 마리당 거래했는데, 갈치와 광어가 많이 팔렸다. 갈치는 봄 어장에 주로 거래되었다. 천수만의 어물은 조수간만의 차이가 많아 생선의 맛이 좋은데, 깊은 바다에서 잡은 고기는 물살의 영향을 받지 않아 맛이 덜하다고 한다. 고기를 사러 오는 이들이 많아 잘 팔렸다. 고기는 소금을 발라 구워먹거나, 지저 먹는다. 이웃 마을 사람들은 살자리로 나와 고기를 구입해 가기도 했다. 매일 고기를 잡으므로 고기를 말리거나 미리 일정량을 보관해 두지는 않았다.

음력 정월 보름날 어살에 고기가 많이 들기를 바라며 고사를 지낸다. 저녁에 햇불을 밝히고 남자들이 제물을 지게에 지고 어살로 간다. 어살은 10리 정도 떨어져 있으므로 가족들이 짐을 나누어 들고 따라간다. 제물로는 사과·배·과줄·떡(시루떡, 다섯 되 분량), 명태포 한 마리, 적(조기나 송어)을 올린다. 적은 보통 단적(單炙)을 올리지만 좋은 고기가 여러 종류가 있을 경우에는 큰 적 1마리, 작은 적 1마리를 올리고, 오징어를 올린다. 바닷물이 빠진 후 어살의 날개 입구에 상을 놓고 제물을 올리고 촛불을 밝혀둔다. 제물로는 백무리, 돼지머리, 막걸리만을 간소하게 올린다. 술을 붓고 절을 하며 고사소리를 한다. 고기 많이 들어가시오!라고 외친다. 그런 후 가져간 제물은 주변에 모두 던져 넣는다.

고북면 신정리 어살

신정리 3구 앞바다에는 어살이 5개 있었다. 크기에 따라 큰살, 작은 살로 구분해 불렀다. 살을 세우는 장소는 주인이 있어 거래를 하기도 했으며, 고기가 잘 드는 위치도 있으나 그렇지 못한 곳도 있다. 살은 대나무를 잘게 잘라 짚으로 발을 엮어서 말뚝을 박고 그것에 의지해서 발을 쳐서 완성한다. 때문에 대나무 발을 봄부터 준비해서 3~4월에 살을 세운다. 세우는 데에도 여러 날이 걸리므로 여간 어렵지 않다.

어살에서는 농사와 달리 날마다 고기를 잡을 수 있으므로 형편이 보다 낫다. 내외가 바다에서 이고지고 뛰어 다녔기에 더욱 그러했다. 물때에 따라 다섯 때부터 열한 때까지만 고기를 잡는다. 조금에는 살이 물에 잠기므로 고기를 잡지 않는다. 사리 중에서 물이 많은 쓰는(나가는) 사리는 ‘외사리’라 하고, 물이 조금 쓰는 사리는 ‘쪽사리’라 한다.

부석면 봉락리 2리 노라포 어살

마을 앞 개펄에는 살이 3~4개 있었다. 살은 돈이 있어야 세울 수 있었으므로 마을 내에서 조금 더 부유한 가정에서 주로 했다. 농토가 적었기에 매일 고기를 어획하는 살은 중요한 수입이 되었다. 마을 주변에는 대나무가 많아 이것을 베어 살을 땀다. 부족한 것은 이웃마을에서 구입해 오기도 했는데, 주민들은 이를 두고 “바다에서 주워 먹고 살았다”라고 표현한다.

3) 맨손어업[徒手業]

개펄이 넓게 발달되어 있는 천수만 주변 마을들에서는 수시로 개펄에서 어패류를 채취했다. 펄 흙으로 이루어진 간월도와 창리, 갈마리, 대두리에는 굴이

유독 많았고, 개펄과 모래흙이 섞인 곳인 갈마리, 지산리, 강당리 등지에는 굴과 더불어 바지락이 많이 생산되었다. 반면에 해미면과 군북면 일대에는 굴보다는 살조개[꼬막]이 보다 많이 생산되며, 바닷물이 강물로 밀고 올라오는 서산시 덕지천동, 해미면 귀밀리, 기지리 등지에는 쌀조개가 많이 잡았다.

부석면의 갯것 잡이

◆ 간월도

간월도에서 채취하는 갯것은 굴, 조개, 바카지, 논거의, 살조개 등이다. 섬이기에 갯벌이 사면으로 발달되어 있어 갯것 채취가 비교적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굴과 어리굴젓 간월도는 어리굴젓 생산으로 유명한데, 그 이유는 조수간만의 차이가 심해서 굴의 조직이 조밀하고, 바위와 펄이 섞여 있어 굴의 형태도 다르다. 굴의 날감지가 8겹으로 어리굴젓을 담으면 고춧가루가 잘 흡수되어 빨갛게 된다. 또한 굴의 생산량도 많기도 하다. 이전에는 굴을 유통하는 유일한 방법이 어리굴젓으로 생산하는 것이었기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어리굴젓을 생산하는 지역이었다.

굴은 생굴로 판매하지만 거래처가 분명하지 않기에 이를 저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젓갈로 만드는 것이었다.

어리굴젓은 이 지역민들이 명절이나 잔치에 주로 먹었지만 당일 소비할 수 없는 젓갈을 저장할 수 있기에 선호되었다.

간월도에서 굴이 많이 돋는 곳은 현재 방조제 안쪽인 ‘달밭굴’이다. 이곳에 굴이 많이 났으나 방조제가 건립되면서 달밭굴이 매립되었다. 달밭굴의 굴밭은 주민들이 수시로 돌을 가져다가 조성했다. 방조제 건립 후로는 달밭굴의 굴밭의 돌을 마을 앞쪽의 큰말 장벌로 옮겼는데, 본격적으로 어촌계가 주동이 되어서 돌을 옮기고 굴밭을 큰말과 벗앞이에 조성했다. 어촌계가 굴 채취를 담당



간월도의 날감지가 발달된 굴
(김상수 사진작가 제공)



간월도 굴, 굴바구니, 조새(김상수 사진작가 제공)

하면서 주민들 중 굴 채취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참여해 굴을 채취하도록 하고, 그 수확량을 공동으로 수매해 판매한다. 그러나 10여 년 전부터 굴 수확량이 줄어 1집에 1명씩만이 참여해 작업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간월도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라도 어촌계원이 될 수 있었으나 노령화가 심해져서 계원이 줄고 있다. 생존하지만 작업이 불가능하거나 어촌계원이 사망하면 그의 자녀 중 한 명이 작업을 대신하도록 한다.

굴 채취 작업은 비나 눈이 오지 않으면 매일 시행한다. 물이 빠지기 시작하면 물을 따라 나간다. 물이 일찍 빠지면 7시에 나가고, 늦게 빠지면 12시에도 나간다. 하루에 7~8시간 정도를 작업할 수 있지만 물때가 짧으면 4~5시간 정도만을 작업한다. 작업은 숙련도에 따라 채취량이 다른데, 초보자는 1일에 7kg을 채취하고, 능숙한 작업자는 10~15kg 정도를 채취한다.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라 채취량이 다르다. 집안 식구 중 작업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 2~3명이 함께 나간다.

15세 정도만 되면 굴을 좇으러 나간다. 굴은 조새를 이용해 뚜껑을 따내고 굵어 채집해 바구니에 담는다. 조새는 서산의 성냥간에 구입해 온다. 굴 채취 작업은 음력 10월인 김장철부터 시작해서 이듬해 3월까지 지속한다. 3월이 지나면 굴알이 빠지므로 채취를 중단한다.

어리굴젓을 담을 굴은 주로 겨울철에 채취하는데, 이때는 거적을 둘러쓴다. 짚으로 밭을 엮어서 거적을 만드는데, 곱쳐서[반으로 접어서] 사용한다. 근래에는 비늘을 덧붙여서 거적을 보강한다. 거적을 만들 짚은 농사짓는 마을에서 얻어 오거나 사온다. 짚 지붕을 없어야 했기에 짚은 해마다 사왔다. 그것을 이용해 거적을 만든다. 거적은 길게 만들어 곱치는데, 그 윗부분의 중앙에 끈을 매달아 착용자의 양쪽에 겨드랑이에 끼워 가슴 위로 묶는다. 그런 후 거적을 등 뒤로 한 후에 앉아서 작업을 하면 바람이 들어오지 않는다. 비나 눈이 오면 거적을 머리 위로 올려 쓰는데 그러면 머리가 젖지 않는다. 예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굴공장과 굴받는 곳



어촌계원이 채취한 굴의 양을 재는 곳



간월도 굴밭 전경(김상수 사진작가 제공)



간월도 굴 채취(김상수 사진작가 제공)

이 거적을 사용했기에 우산 역할을 했다. 지금은 입는 옷이 많아서 거적을 사용하지 않는다. 거적은 한 번 만들어두면 3~4년을 사용했다.

손바닥에는 장갑을 끼지만 과거에는 맨손으로 작업했다. 고무신이 보급된 후로는 그 밑창을 잘라서 손바닥에 올리고 굴벽을 그것에 올려놓고 깎다. 얼음이 얼은 굴벽을 떼어서 손에 얹고 작업을 해야 했기에 고무신 밑창이라도 의지가 되었다.

굴을 캐러 갈 때는 과거에는 목신을 신었다. 이 신발을 신을 때는 검불로 발등이 보이지 않도록 발을 싼 후에 목신을 신는다. 현재 76세인 제보자의 어머니가 목신을 신는 것을 보았을 뿐이다. 옷은 누벼서 입었는데, 지금과 달리 과거에는 추위가 몹시 심했기에 여러 겹을 겹쳐서 누벼 입었다. 추위가 심할 때는 바닷물이 퐁퐁 얼어서 배가 운행하지 못했다. 그에 비하면 지금은 따뜻하다.

굴은 잘 캐면 하루에 10근 정도를 캐지만, 보통은 3~4근 정도를 캐다. 굴은 조새를 이용해서 좇아서 바구니에 담는다. 조새는 인근의 성냥간에 나가 직접 만들어 온다. 몽덩이는 집에서 나무를 이용해서 직접 깎아서 가져가기도 하고 성냥간에서 구입하기도 한다. 날은 방우새라 하는데, 이것은 반월형의 날로 길게 만드는데, 이것을 비스듬하게 꽂아 사용하던 중에 날이 부러지면 반대편의 날로 갈아서 끼워 사용한다. 몽덩이의 아래쪽에는 ㄱ자의 형태로 쇠로 된 깨막이(썸베기)를 꽂아둔다. 이것으로는 굴눈을 오른다. 조새는 보통 3년 동안 사용한다.

굴은 본래 육지로 나가 팔았다. 부석장, 갈산장, 흥성장, 서산장을 돌며 판매했다. 부жат집을 들러 판매 하기도 했는데, 이때는 쌀이나 곡물로 바꾸었다. 그 후 76세 제보자가 굴을 캐 때는 시장을 돌며 장사꾼에게 넘겼는데, 물때에 맞추어 강당리의 감길로 나가서 부석장에 넘겼다. 장에는 친구끼리나 엄마를 따라 나가는데, 보통 3명 내지 5~6명이 함께 나갔는데, 저녁 썰물에 함께 나갔다. 굴



조새



굴 바구니

은 소쿠리나 항아리에 넣어서 머리에 이고 나간다. 강당리에 도착하면 무거운 것은 동네사람들에게 맡기고 시장으로 가기도 했다. 당시 강당리는 부자마을이었기에 생선을 잘 사주었다.

1960년대에는 굴을 쫓아서 주로 어리굴젓을 만들었다. 생굴은 거래할 수가 없으므로 모두 어리굴젓을 만들어 판매했다. 과거에는 어리굴젓은 서울 상인이 모두 가져갔다. 항아리에 젓을 담아 두면 상인이 보고 1, 2등을 가려서 등급에 따라 가격을 달리해서 구매해갔다.

어리굴젓을 만들려면 굴을 쫓아서 바닷물에 닦는다. 예전에는 굴 1kg에 소금을 100g을 섞어서 항아리에 넣는다. 계절에 따라 소금양을 달리하는데, 겨울철에는 굴 20kg에 소금을 국 대접으로 1대접과 반 대접을 추가로 넣지만, 날이 폭해지는 봄철에는 소금을 두 대접을 넣어 간을 맞춘다. 싱거우면 굴이 시어지므



간월도의 특화된 무학표 어리굴젓

로 소금을 조금 더 넣는다. 굴은 추운 곳에서 익으면 비린내가 나지만, 온돌처럼 따뜻한 곳에서 익으면 비린내가 나지 않으므로 방안에서 익힌다. 방의 아래 목에 항아리를 두고 이불을 덮어서 일주일 동안 둔다. 따뜻하면 발효가 잘 되는데, 발효가 잘되면 빨강게 익는다. 일주일이나 지나 굴이 부풀어 오르면 잘 익은 것으로 판단해서 한 번 뒤집어 준다. 이때는 더우면 상하므로 이불을 덮지 않는다. 이를 정도 그대로 두었다가 건져서 냉장고에 보관한다. 고춧가루는 먹을 직전에 넣는데, 이때도 물을 팔팔 끓여서 식혔다가 고춧가루를 섞는다. 과거에는 항아리에 그대로 두었다가 먹을 때마다 조금씩 꺼내어 젖을 담는데, 보통 1달 정도 보관이 가능하다. 이렇게 제작되는 어리굴젓은 전국에서도 1등급으로 취급되었다.

생굴로는 물회를 만들어 먹거나, 된장찌개를 끓여서 먹었다. 혹은 국수나 떡국을 만들어 먹었다. 지금은 굴밥을 주로 만들어 먹는다.

바지락도 까서 젖을 담아서 팔았다. 바지락은 캐다가 놓고 집안일을 한 후에 한가할 때에 깬다. 바닷가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 어려서부터 바다를 다녔으므로 학교는 등안시 했다. 때문에 지금은 학교를 다니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사람이 많다.

조개는 굴 채취가 끝이 나면 이어서 채취를 시작한다. 음력 3~4월에 채취하는데, 진달래꽃이 피면 알이 빠지므로 채취를 중단한다. 이후 8월 추석이 지나면 조개가 영글어 지므로 다시 조금씩 채취하나 많이 채취하지는 않는다. 조개의 살이 오르지 않고, 이듬해를 위해 조금씩만 채취한다. 하루에 10~20kg 정도를 채취한다.

조개는 호미를 이용해 채취하는데, 간월도는 자갈밭이므로 호미의 날이 다른 지역에 비해 작다. 서산에서 판매되는 호미는 두 종류인데, 그 중 작은 것이 간월도 호미이다. 반면에 대비산 밑에서 작업하려면 모래밭이므로 간월도 보다는 날이 큰 것을 사용한다. 바구니에 담아 운반한다. 채취한 물량은 어촌계에 가져



조개 채취하는 도구들(바구니, 호미, 망)

다주면 5~6일에 한 번씩 임금을 계산해 지급해 준다.

살조개는 죽도로 나가는 벧앞이 갯벌과 창리로 이어지는 갯말에서 주로 채취한다. 봄(3~4월)에 주로 나며, 여름이 되면 알이 내려서 맛이 없으므로 잡지 않는다. 진흙뻘에 나므로 종아리까지 뻘에 빠져가며 손으로 줍는다. 많이 날 때는 가마니 가득 잡는다. 삶아서 까서 먹는다.

논거의는 다리가 빨간 게로 손가락 두 마디 정도의 길이로 작다. 갯벌에 논거의 구멍이 뚫려 있으므로 옷의 한쪽 손을 빼고 땅속으로 손을 넣는다. 한 개의 구멍에 논거의가 1~2마리 정도 들어 있으므로 그것을 집어 꺼낸다. 논거의는 깨끗하게 씻어 간장에 담가서 먹는다. 생것은 구럭에 담아서 팔러 간다.

바카지는 갯벌의 굴뚝을 들치면 그 안에서 들어 있기도 하다. 봄부터 여름까지 나지만 봄에 잡은 것이 맛있다. 봄철 사리 때에 주로 작업한다. 사리 때에는 많이 나지만, 조금 때는 적게 난다. 가을이 되면 아예 나지 않는다. 손으로 한 마리씩 집어서 바구니에 담는다. 간장을 끓여서 바카지에 부어두면 삭아서 맛있는 계장이 된다. 방조제 건립 이후로는 나지 않는다.

낙지는 굴이 많은 펄에 산다. 가래를 반으로 잘라 만든 낙지 가래를 이용해 펄을 파내서 잡는데, 다른 갯것과 달리 낙지는 펄을 파야하고 낙지가 다니는 길을 알아야 하므로 능숙한 사람만이 잡을 수 있다. 능숙한 사람은 하루에 40~50마리를 잡는데, 지금도 20마리는 잡는다. 물통을 들고 다니며 잡은 낙지를 담아 운반한다. 이것도 어촌계에 가져다준다.

능쟁이는 손으로 잡는데, 간월도에는 그 양이 많지 않았다. 가을 첫서리가 온 날 새벽에 갯벌에 나가보면 능쟁이가 나와 있다. 추위 탓인지 능쟁이가 땅에서 나와 기어 다니므로 손으로 쓸어 담으면 된다. 능쟁이는 간장을 끓여서 부어 간장계장처럼 만들거나 튀김을 만들어 먹는다.

간월도에서 많이 나는 굴은 주로 홍성으로 팔려 나갔다. 홍성에는 굴이 나지 않으므로 가격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감길을 이용하던 시절에는 가미를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강당리로 나갔던 시절에는 서산장을 보기도 했다.

간월도에서 작업한 굴을 비롯해 바지락, 낙지 등은 홍성군 오도리나 궁리 사람들이 주로 실어갔다. 궁리에서 간월도로 술을 배달하러 온 배가 있어 이 배에 주로 실어 내갔다. 배는 포구에 정박해 두고 물건만을 가지고 홍성장(매일장)이나 갈산장(5·10일)으로 내갔다.

장터로 나갈 때는 홀로 가기 보다는 주민들이 어울려서 함께 팔러 간다. 여자

들이 함께 다니면서 강당리, 지산리 등의 부촌을 돌며 어물을 팔았다. 강당리는 농지가 많아 예로부터 부자였기에 어물 수요가 많았다. 어물을 팔러 갈 때는 점심을 마련해 가는데, 보리밥을 바구니에 담아 가져가면 서로 나누어 먹었다. 형편이 여의치 않으면 점심도 제대로 마련해 오지 못하는 경우가 흔했으므로 서로 조금씩이나마 나누어 먹었다고 기억한다.

◆ 창리

삼면이 개펄인 창리에서는 바지락, 바카지, 굴 등을 많이 채취했다. 주민의 반 수 이상이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았지만 개펄에서 어물을 채취하는 것은 전 주민이 행했다. 갯것 중에서는 굴과 바지락을 가장 많이 채취했는데, 서산 사람들이 날마다 구입하러 왔다.

남은 것은 소금을 넣고 절여서 젓을 담아서 팔았다. 겨울철에 주로 채취하는 굴은 그 양이 많아 어리굴젓으로 주로 생산했다. 어리굴젓은 오래 두고 먹을 수 없지만 짜게 담으면 한 달 정도는 둘 수 있다. 어리굴젓은 예나 지금이나 비싼 음식이다.

호미나 삼·가래 등으로 개펄을 파서 낙지를 잡는다. 얇게 든 낙지는 호미로 잡고, 깊게 든 것은 삼이나 가래로 개펄을 파서 잡는다. 낙지구멍은 보통 두 개가 나 있는데, 하나는 ‘부룻’ 이라 하고, 다른 하나는 ‘피난구멍’ 이다. 부룻은 낙지가 숨을 쉬는 숨구멍으로 물이 올라왔다 내려갔다 한다. 반면 피난 구멍은 낙지가 숨어 있는 구멍으로 이곳을 파야 낙지가 들어있다. 두 개의 구멍은 연결되어 있는데, 그 간격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경험자만이 구멍을 판별할 수 있다. 어떤 것은 가깝게 있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멀리 있어 오로지 경험만으로 알 수 있다. 오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구멍만 보아도 낙지가 들었는지 들었다가 다른 곳으로 갔는지, 혹은 두 마리가 들었는지를 안다. 낙지가 들었다가 나간 구멍에는 뿌연 흙탕물이 올라온다.

◆ 칠전리 · 봉락2리

칠전리 앞 바다에는 굴밭이 많았다. 굴밭은 개인 소유로, 가족 단위로 수시로 굴밭을 조성했다. 바닷가에서 돌을 주어다가 적당한 위치에 깔아 굴밭을 만든다. 호당 200~300평 정도의 굴밭을 소유했는데, 굴밭은 길이 50~60미터, 폭 3미터 정도로 만들며, 굴밭 사이사이에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60cm 이상의 간격을 둔다. 식구가 많은 사람은 온 집안 식구들이 나서서 돌을 주어다가 돌밭을 조성할 수 있었지만 식구가 적으면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하므로 돌밭을 조성할 시간이 없다. 개인이 만든 굴밭은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 불렀다.

굴밭을 만든 지 2~3년이 지나면 굴이 돋는다. 굴 채취는 가족끼리 하지만 양이 많거나 가격이 비쌀 때에 일손을 빌리고 싶다면 굴밭이 없는 사람에게 굴 채취를 허락한다. 이를 ‘타작굴’이라 하는데, 채취한 양의 일정액을 굴밭 주인에게 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갖는다. 이때 굴밭 주인과 노동력 제공하는 사람이 생산량의 3:7 혹은 4:6으로도 하지만 5:5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굴은 비쌀 때에 돈이 되니까. 타인에게 10을 따져서 3은 굴밭 임자 주고, 7은 굴을 깬 사람이 갖는 거예요. 타작굴은 가격이 비쌀 때나 자기가 못할 때에 줘요. 굴밭은 개인이 한 칸 두 칸 나누어져 있어요. 예전에 굴밭을 놓을 때에 금 그어 놓고 놓았어요. 10칸 가진 사람, 한 칸 사람이 있는데, 아무리 없어도 반 칸은 가지고 있어요. 잘 사는 사람은 10칸 가지고 있고, 많으면 굴밭을 팔기도 했어요.

그때가 먹고 살기가 괜찮았어요. 다른 고기보다 굴 값은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봉락리 분들이 고기를 한 지게 지고 와요. 칠전리. 강당리로 와서 팔고 가는데, 갈 때 보면 보리, 꺾보리 몇 말 지고 가더라고요. 고기금은 싸고 쌀금이 비쌌어요.”

봄에는 음력 4~5월까지, 겨울에는 11~3월까지 채취했다. 굴과 함께 낙지, 조개, 바카지를 잡았다. 바닷물이 들어오면 굴밭을 덮었다가 물이 빠지면서 굴밭이 드러나므로 물이 나가기 시작하면 굴을 캐러 나간다. 굴 채취 작업은 하루에 2시간 정도 가능한데, 하루에 5~10kg 정도를 채취한다. 작업 시간은 물때에 따라 다른데, 물이 나가시 시작하면 작업을 시작해 물이 들어오기 이전까지 보통 9~12시까지로 하루에 2~3시간 정도 작업한다. 겨울철에 작업을 하러 나갈 때는 짚으로 만든 도롱이를 가져간다. 도롱이는 돌돌 말아 새끼줄로 묶고 그것을 어깨에 메고 나가는데, 작업을 하는 동안 추위를 막기 위해 이것을 어깨에 두른다.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도롱이를 돌리며 추위를 막는다. 이것을 매일 들고 다니기가 귀찮으므로 마을로 들어오는 입구인 ‘당그미’ 주변에 위치한 집들의 처마 끝에 도롱이를 매달아 둔다. 당그미에는 채취해온 굴을 판매하는 임시 장터가 열린다. 굴은 생것으로 팔며, 집안의 어른을 대접하기 위해 많이들 사갔다. 김치국을 끓일 때에 넣어서 끓이거나 굴젓을 담아 먹는다. 그러나 굴은 비쌌기에 잔칫날이나 행사가 아니라면 즐기지를 못했다. 반면에 바닷가 사람들은 본인이 작업하는 것이므로 조금은 넉넉하게 먹을 수 있었다.

반면에 조개는 양식장으로 운영했는데, 주민이라면 누구라도 조업에 참여할 수 있다. 본인이 캔 것의 반을 조합에 내고, 나머지는 본인의 수익으로 잡는다. 조개로는 조갯국을 즐겨 끓여 먹는다. 바닷가에 나가서 돌만 떠들어도 바카지가 많았다. 바카지와 조개, 굴은 모두 시장으로 가지고 나가 판다. 간혹은 작은 개인 돌짱구가 나면 그것을 집어다가 조선간장에 담갔다가 먹는다.

9~10월에는 ‘훼질’이라 하여 횡불을 만들어 들고 갯것을 잡으러 간다. 망둥이, 오징어, 쭈꾸미, 장어 등을 잡는다. 훼질은 남자, 여자 상관없이 작업하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참가한다. 물이 빠지면 횡불을 밝혀들고 작살로 고기를 잡는다. 잡은 고기는 말려서 찌어 먹는다.

◆ 송시리

송시리 마을 앞에는 굴이 많이 돋았다. 자연산 굴을 채취해 먹었으나 점차 환금 작물로 인식되면서 1970년대에는 공동으로 굴독을 놓아 굴을 양식하고자 했다. 굴독을 놓을 때는 호당 한 명씩 동원되어 돌을 주어다가 돌밭을 놓았으며, 줄을 길게 띄워 칸을 만들고 그 안에 돌을 아무렇게나 던져 놓는다. 굴독을 놓는 작업은 3년여 동안 지속되었으며, 작업 시작 후로부터 4~5년이 지나니 굴이 돌아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방조제가 건립되었기에 수익을 보지는 못했다. 채취한 굴은 서산장에 내다 팔았다.

이곳은 모래뺨이 넓게 발달되었는데, 이곳에는 굴, 수합을 비롯해 살조개, 갯막[모시조개], 설기, 뺨설기, 능쟁이 등이 많았다. 개펄 조업은 음력 2월부터 10월 까지 지속되었다. 수합은 삽이나 호미로 파서 캔다. 수합은 껍질 채 삶아서 살을 파서 팔았다.

바카지는 굴밭의 돌을 떠들어 보면 그 안에 들어 있다. 설개는 사시사철 삽으로 파서 많이 잡는다. 맛은 40~50cm 길이의 철사를 구멍에 넣어 꺼내는데, 갯손이 건 사람은 썰물에만 한 바구니씩을 잡는다. 이외에도 사시랭이[꽃게 새끼]도 개펄에 널려 있어 많이들 주었다. 낙지는 삽으로 파서 하루에 100타래씩을 잡았다. 낙지는 썰물에는 깊이 들어있고, 들물에는 얇게 들어 있다. 이에 들물에 얇게 든 낙지를 잡는 것이 수월한데, 이를 ‘물바지’라 한다. 들물에는 두 번만 삽질을 하면 낙지가 나온다.

조랭이[조리]에 긴 막대기를 달아 물속에 엮드려 있는 고동을 떠낸다. 물은 빠지고 조롱이에 고동만이 남는다. 바위에 붙은 파래는 뜯어다 먹는다. 파래 잎이 너풀거리는데, 이것을 뜯어다 팔았다.

이러한 갯것들은 식량이 없던 시절에 중요한 환전물품이었다. 땅이 없는 빈촌이었는데, 농지가 있으나 물이 없어 농사를 지어도 식량이 많지를 않았다. 어물의 값이 싸지만 이것이나마 이고 지고 부석장이나 서산장에 내다 팔아야 생

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날그날 필요한 만큼씩을 채취해다 팔았다. 굴을 많이 채취하려면 낮에 굴뚝을 따다가 집에 두었다가 밤이 새도록 까서 그것을 가지고 장으로 나갔다. 서산장에 나가려면 첫새벽에 준비해서 출발해야 제사본다[장본다]. 먼저 소매로 팔 수 있는 정도를 팔고, 남은 것은 도매로 넘기고 돌아온다.

봄철에 굴이 많이 나는 철에는 굴을 많이 까려고 물매이를 했다. 검은여 근처는 밀물에도 물이 차지 않으므로 그 주변에서 뜬은 석화를 썰물에 미리 떼어다 놓고는 밀물에 굴을 깬다. 물이 들어와도 작업할 수 있는 곳이기에 물매를 한번 거르고, 집과 개펄을 오가는 시간을 아껴 굴을 깬 것이다. 주민들이 굴철이 되면 함께 물매이 하러 갔다. 총각과 처녀들도 함께 가서 놀기도 하고 작업도 했다. 검은여 주변이 굴밭이기에 작업하기가 매우 용이했다.

부석면의 어물은 취평리에 거주하는 이철수 씨가 인근의 어살을 돌며 생물을 거두어갔다. 특히 오징어(찰박과 피박)는 모두 거두었다. 어물은 염장해서 보관해 두기도 하고, 염장해서 말려서 보관하며 팔았다. 오늘날과 달리 과거의 어물은 생물로 거래되지 못했기에 대부분 염장했다. 중선에서도 고기를 잡으면 우선 염장한다. 당일 어장에서 어획한 고기도 염장해서 판매했다. 어물은 부석면의 취평장과 서산장, 해미장을 돌며 판매했다. 송시리에서 서산장으로 가려면 남정리를 거쳐서 20리를 걸어갔고, 차리로 가면 그곳부터는 버스를 타고 서산이나 태안으로 갔다. 태안장보다 서산장이 더 컸다. 일반적인 생필품은 취평장에서 구입하고, 돼지나 소 등의 동물을 팔기 위해서는 서산장이나 태안장으로 가야했다.

여자들이 머리에 이고 다니면서 주로 판매했다. 남자는 고기를 잡아야 했기에 고기를 팔러 나가지는 못했다.

취평장은 안면도, 간월도, 부석면, 인지면 주민들이 이용했다. 칠전리와 대두리 앞에 중선들이 배를 대고 어물을 내려 장으로 옮겼다. 대두리는 취평장과 1 km 떨어져 있었기에 보다 많이 이용했다.

◆ 갈마리

다른 마을과 달리 이 마을은 개펄의 경사도가 급해 개펄이 드러나는 시간이 짧다. 이에 굴 채취의 방법이 다른 마을과 다르다. 굴을 직접 개펄에서 채취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곳에서는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양을 채취해야 하므로 여러 개의 굴이 붙은 굴뚝을 따서 집으로 옮기고, 밤을 새워 그것을 깬다. 물때가 짧기에 고안된 방법이다.

그래서인지 다른 마을에서는 흔하지 않은 또 다른 방법의 굴 채취법이 있다. 겨울철에 바다가 얼었을 때에만 행하는 ‘별굴’이 그것이다. 별굴은 인근 마을의 굴밭에 얼음이 얼면 바위에 붙은 굴이 바닷물이 언 ‘성에’ 붙어 함께 얼어 붙었다가 그것이 물살에 밀려 떠밀린다. 개펄에 돌아다니다가 일정한 공간에서 녹으면 굴이 수북하게 쌓인다. 이러한 굴이 별굴인데, 이를 두고 “별굴은 성에가 물어 날랐어.”라고 표현한다. 대두리나 봉락리의 굴이 얼음에 붙어 떠밀려 왔지만 별굴은 주인이 없으므로 누구라도 주우면 된다. 갈마리에도 굴밭이 많았지만 ‘새마을굴’이라 하여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어촌계가 굴밭을 조성하고 관리했기에 함부로 굴을 채취할 수 없었기에 별굴은 굴 채취에 있어 좋은 대상이었다. 그 양도 제법 많아 하루에 2~3바구니 정도를 깔 수 있었다.

이 마을에서는 인근 마을에서 굴을 깔 때에 사용하는 목신과 꺼적을 사용하지 않았다. 창리에서 시집온 제보자는 창리에서 14세부터 굴을 캐기 시작했는데, 당시 부친이 직접 목신을 만들어 주어 그것을 신고 꺼적을 쓰고 겨울철에 굴을 깔으나, 19세에 시집와 보니 이 마을에서는 둘 다 사용하지를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양상은 굴을 직접 굴밭에서 까지 않고 굴뚝을 주어다가 집에서 까는 작업 방식과 연관 깊다. 굴을 많이 주워 날라야 했기에 목신과 꺼적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창리에서는 겨울철에 굴을 채취하려면 버선을 신은 발위로 짚을 감싸서 묶고, 짚신을 겹쳐 신었다. 때문에 굴을 채취하는 옆에 불을 피워두고 그곳에서 발을 녹이며 작업을 했다. 제보자는 꺼적 치는 마을은 창리,

마룡리, 간월도, 칠전리 정도였다고 한다.

다른 어물과 달리 굴은 물이 많이 쓰는 외사리 때에 주로 작업한다. 여섯째 부터 열두째까지 주로 채취한다. 나머지 어패류는 물때와 무관하게 채취 가능하다. 특히 능쟁이, 설게 등은 장벌 밑에서 채취하므로 조금 때에도 작업 가능하다.

◆ 강수리

이 마을의 개펄은 모래와 진흙이 섞여 있다. 이곳에는 굴, 바지락, 낙지, 설기 [설게] 등이 많다. 굴은 굴밭을 조성하기보다 자연산으로 여기저기 흩어진 돌에 굴이 돋으면 채취해서 먹었으며, 방조제 건립되기 수년 전에 주민들이 근처의 돌을 가져다가 굴독을 놓기도 했으나 굴독의 굴을 생산하기 이전에 방조제가 막혀 생산하지도 못한채 소멸되었다. 채취한 굴로는 굴전, 굴국, 굴회 등을 주로 해 먹었다. 필요에 따라 어리굴젓도 담가 먹었다.

설기는 속 보다 큰 계로 젓갈을 담거나 생것은 볶아서 반찬으로 먹는다. 봄철인 음력 3~4월에 많이 나는데, 삼으로 한 삼을 파면 그곳에 여러 마리가 뭉쳐 있다. 많을 때는 한 삼에 6~7마리씩 나오기에 하루에 한 말 정도는 잡을 수 있다. 과거에는 어물값이 싼기에 팔기 보다는 먹기 위해서 주로 잡았다. 집 식구 중 누구라도 필요한 만큼만 주워온다.

바지락은 봄철인 음력 3~4월에 주로 캐다. 당시에는 이것을 팔기 보다는 먹기 위해서 캐기에 필요한 만큼만 캐다 먹었다.

꽃게는 뜰채와 작살을 가지고 찍어서 잡는다. 작살은 대장간에서 만들어 왔는데, 작살은 가로, 세로 10cm인데, 작살이 손가락 굵기 정도로 떨어져 있다. 손잡이는 본인이 사용하기에 좋은 길이로 나무를 이용해 끼워 사용한다.

꽃게 이외의 갑각류는 계절별로 잡았는데, 논게는 음력 6~7월에, 능쟁이와 청게는 사시사철 잡으며, 바카지는 여름철인 7~8월에 잡는다. 바카지는 돌을

떠들고 주웠으며, 나머지 게는 호미로 펄을 파고 줍는다.

낙지는 바닷물이 나가면 개펄로 나가 삼으로 파서 잡는다. 삼 이외에 ‘낙지가래’를 사용한다. 일반 가래의 반 정도의 크기로 만든다. 게가 든 구멍은 뚫려 있지만 낙지구멍은 물이 담겨 있어 다른 구멍과 차이가 있다. 낙지가 펄속에 숨어서 숨을 쉬면 물이 가득 찬 구멍의 물이 들썩거리므로 낙지가 든 구멍을 찾을 수 있다. 때문에 물이 찬 구멍은 숨구멍이라 부른다. 물이 든 구멍 옆의 구멍에 낙지가 들어 있으므로 이 구멍을 찾아서 삼으로 판다. 하루에 잘 잡으면 100마리를 잡지만, 못 잡는 이들은 20~30개 정도만을 잡는다. 잡은 낙지는 주로 부석장에 내다 판다. 부석장이 폐쇄된 후로는 서산장으로 내갔는데, 서산장에 가려면 새벽에 서둘러 머리에 이고 여자들이 팔러 갔다.

◆ 마룡리

마룡리 바닷가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수시로 바다에 나가 맨손으로 고기를 잡는다. 개펄이 넓게 펼쳐져 있어 그곳에서 다양한 어물을 어획했는데, 가장 흔한 것이 낙지였다.

낙지는 봄부터 가을까지 썰물이 되면 개펄에서 남녀가 모두 나서서 잡았다. 삼이나 가래로 낙지구멍을 파서 잡는데, 개펄의 구멍 중 물이 들어 있는 구멍이 있는데, 이를 낙지 숨통구멍이라 한다. 이 구멍은 낙지가 펄 속에서 물을 마셨다가 품었다가를 반복하므로 구멍 안의 물이 불룩불룩 올라오는 ‘부룻’으로 확인 가능하다. 낙지는 논게나 능쟁이 등을 먹고 살므로 능쟁이가 많은 곳에 낙지가 많다. 낙지는 봄이나 가을에 많이 나는데, 추운 겨울에는 바다로 나갔다가 봄에 다시 올라온다. 이를 두고 주민들은 먹고 살려고 올라오는 것이라 하는데, 강에 산란하기 위해 올라온다. 낙지의 부룻을 발로 밟고 그 옆의 물이 들어 있지 않는 구멍을 삼으로 판다. 철에 따라 낙지가 들어 있는 위치가 다른데, 봄에는 낙지가 얕게 들어 있고, 가을에는 조금 깊게 들어 있다.



낙지와 생선을 담는 다람치, 마룻리

잡은 낙지는 대나무를 잘라 만든 바구니인 ‘다람치’에 담기도 했지만 양철 통에 물을 조금 담아 그 안에 담아둔다. 다람치는 높이 23cm, 윗지름 가로 39cm, 세로 28cm, 측면 가로 17cm로 마름모꼴이며, 어깨에 맬 수 있도록 끈을 다소 길게 만들어 둔다.

낙지는 숙련자는 하루에 20~30마리를 잡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 마리도 잡지 못한다. 다른 것과 달리 낙지는 숙련자가 아니면 잡을 수 없다.

절기로 한식(寒食)이 지나면 소라를 잡기 시작해서 11월까지 줄곧 잡는다. 특히 여름철에 많이 나는데, 물이 나가면 모래가 많은 돌맹이 옆에서 건진다. 과거에는 바구니를 들고 나가 보이는 데로 주워도 한 바구니 정도를 주울 수 있었다.

맨손어업을 하는 여자들은 매일 개펄로 나간다. 남자들은 추우면 바다에 나

가지 않고 집안에서 짚신 삶고, 가마니 치고, 산내끼[새끼] 꼬고, 자리를 매며 보낸다. 여자들은 삼 삶고, 모시 삶고, 누에쳐서 명주도 삶는다. 밤새워서 모시 삶고, 누에쳐서 고추내서 명주도 짠다. 식구들을 입혀야 했기에 ‘날이 뚝뚝새도록 일을 했다.’고 한다. 돈이 있어도 옷을 살 수가 없었기에 일일이 만들어야 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과 중국에서 광목이 들어오면서 비로소 손을 놓게 되었다. 이러한 집안일을 한 후에 물때가 되면 바다에 나가 갯것을 채취해야 했다.

굴은 굴밭을 조성해 좇았다.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굴밭이 집집마다 있었는데, 보통 200~300평 규모의 굴밭 2~3칸을 소유했다. 식구끼리 작업이 가능한 규모이다. 간혹 굴을 채취하기에 버거울 정도로 많다면 타작굴을 하기도 한다. 보통 굴밭 주인과 일꾼이 수확물을 3:7로 나눈다. 이 마을에서는 타작굴을 할 정도로 양이 많지는 않았다.

굴은 일 년 중 음력 11월의 것이 제일 좋다. 굴은 겨울철에 채취해야 하므로 추위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안해야 했다. ‘깨적’이라 하여 짚으로 엮은 밧을 만들어 몸에 묶어 바람을 의지하고,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깨적을 돌리며 앉아서 작업한다.

추운 겨울철에는 이 깨적에 땀감을 조금씩 가지고 나가서 굴밭 귀퉁이에 불을 놓고 굴을 채취하다가 손이 시리기에 불을 쬐었다. 불을 쬐다보면 굴 채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한다. 추위에 떨기만 하다가 굴을 조금 좇아서 돌아오는 일이 잦았다고 한다. 옷은 광목을 겹으로 누벼서 입거나 솜을 넣어 누벼서 만든 겹옷을 입는다. 밧에는 얼음이 많이 박혔기에 목신을 신는다. 많이 좇는 사람은 하루에 10~12사발을 좇지만 겨울철에는 3~4사발만는 좇는다. 굴은 여름에도 채취하므로 사시사철 캔다. 진달래꽃 필 때가 가장 영글다.

바드락[바지락]은 봄부터 사시사철 캔다. 겨울철에 캔 것이 영글고 맛도 좋지만 진달래꽃 필 때가 제일 좋다. 바드락은 까서 국 끓여 먹거나, 젓을 담아 먹는다. 예전에는 굴보다 바드락이 비싸고 맛이 좋았다고 한다.

개펄에는 황밭^[논게]이 왔다 갔다 한 발자국이 있고 구멍이 나 있다. 구멍이 있으면 손을 깊숙이 집어넣어 잡는데, 어깨까지 넣어야 잡을 수 있었다. 때문에 음력 5~8월까지 따뜻한 시절에 여자들이 한쪽 소매를 빼고 작업했다.

◆ 칠전리

돌게는 돌짜^[돌멩이]을 떠들어 그 안에 있는 것을 잡는다. 잘 잡으면 하루에 40~50마리를 줍지만 못 잡으면 10~20마리 정도만을 줍는다.

마을 앞 개펄에는 굴밭이 많아 여자들이 주로 굴을 캐다. 이 굴밭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었는데, 개인이 돌을 옮겨다가 2~3칸 정도의 굴밭을 만들었기에 인근에서 굴밭이 가장 많았다. 마을에서 굴밭으로 나가는 길목에 당금이라는 낮은 산이 있는데, 이곳에 2~3호가 거주했는데, 이곳 처마에 겨울철에 사용하는 꺼적^[꺼적]을 매달아 놓고 작업하러 다녔다.

추운 겨울철에 굴을 채취하려면 추운 바람과 눈을 막기 위해 꺼적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짚으로 밭을 엮어서 크기는 세로 100cm와 가로 130cm의 크기로 만든다. 이것을 둘둘 말아서 지고 나가는데, 매일 사용하므로 이를 당그미 근처의 집 처마에 매달아 두고 사용한다.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꺼적을 친다. 꺼적이 바람을 막고 비를 막아 굴을 채취하는 동안 털 추위에 노출된다. 비만 안 맞으면 꺼적은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다. 꺼적 대신 비닐을 쓰고 다니기도 했다. 채취한 굴은 당그미 앞에서 상인이 와서 구입해 갔다.

1972년도에는 마을공동으로 생산할 굴독을 조성했다. 이것은 해산물조합이 주도했으며, 조합원이 채취한 굴을 모아 어리굴젓을 담아 판매했다. 인근의 시장에 내거나 주문하는 이들에게 판매했다.

양력 1월에 수확량이 가장 많으며, 이것은 주로 판매를 위해 캐다. 부석장이나 서산장에 내다 팔았다.

◆ 지산리

오월 단오 즈음이 되면 논계[황발이]가 그네를 뛰다는 말이 있다. 이즈음에 많이 나와 돌아다니므로 낮 뿐만 아니라 밤에도 손전등을 켜고 다니며 잡는다. 이 계절은 수놈과 암놈이 교미하는 철로, 논계는 암컷 1마리가 있으면, 수컷 100마리가 서로 교미 하려고 싸운다. 평상시에는 펄 속에 숨어 있지만 단오 즈음에는 교미를 위해 펄에 들어가지 않고 돌아다닌다. 때문에 암컷만 잡으면 수컷 대여섯 마리가 들러붙어 있다. 수컷이 흔들거리는 모양을 보고 논계가 그네를 뛰는 모양이라고 한다.

이러한 논계는 음력 3월부터 10월까지 줄곧 잡을 수 있었기에 가장 흔한 어물이다. 심지어 논에서 논을 맬 때에 논바닥 위로 계가 지나가면, 논을 매다가 그것을 잡아 짚으로 집게발을 묶어두고 일을 계속한다.

일을 마치고는 묶어둔 계를 들고 집으로 돌아와 간장계장을 담가 먹는다. 지산리 근처에는 논계 잡이가 매우 발달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한다.

“우리 A지구 간월호쪽의 바다는 논계가 유명했어요. 논계가 보면은 빨갱어. 논계가 발이 빨갱어. 황발을 들으면 빨갱어요. 너문재[바다의 풀의 한 종류]가 색이 변하지만 여름에 보면 빨갱게 되기 시작해. 이때에 논계가 산란하려고 준비를 해요. 워낙 그 당시 많이 나와. 논계도 많이 나오고 너문재도 많아서 빨갱어.

인지면, 운산면의 몇 개 면 사람들이 논계를 잡으러 와요. 논계를 잡으러 오는 사람의 수가 많다보니 3킬로미터씩 연결 지어 갔어. 구력을 담아 가는 그릇인데. 갈 때는 머리에 이고 갔어. 꼭 차서 이고 갔어. 지산리에서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인 10여 가구가 전업으로 그것을 잡아다가 팔았어.

쫓아가면 구녕이 뚫렸는데, 계가 구녕으로 들어가면 손을 넣어 잡았어요, 딱 딱한 땅은 안 돼. 비가 온 다음에 물렁물렁하면 넣어서 잡어. 팔이 큰 사람은 안

돼. 야위고 팔이 작은 사람이 유리하지. 하루에 많이 잡으면 50킬로그램을 잡고, 적게 잡으면 30킬로그램을 잡어.”

간혹이지만 논계를 잡다가 죽는 사람이 발생하기도 한다. 큰개와 비약개 주변에서 고동과 계를 정신없이 잡고 있던 중 들물이 되었는데, 물이 휘감아 갇히게 되자 물을 피해 개울을 건너다가 7명이 한꺼번에 사망했다. 이처럼 바다에서 사망 사고가 잦았다. 해루질을 하다가 사망하기도 했는데, 썰물에 들어가 고기를 잡다보면 길을 잃는다. 특히 안개가 끼면 앞이 안 보이므로 길을 찾을 수가 없으므로 안개가 끼거나 바람이 불면 개펄에 나가지 않는다. 그러나 물이 들어올 무렵에 논계나 꽃계 등이 많이 나오므로 이것을 잡다보면 물이 들어오는 줄을 몰라 변을 당했다. 특히 갯골망에서 조업하다 물에 갇혀 꼼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바닷고기는 동풍을 싫어한다. 때문에 동풍이 불면 구멍을 막고 모두 펄 속으로 들어간다. 계 종류는 동풍이 불면 돌아다니지 않는다. 보통 계는 1cm의 작은 눈을 치켜뜨고 다니는데, 동풍이 불면 계 눈을 감춘다. 이와 관련해서 “마파람에 계 눈 감추듯 한다.”라는 속담이 있다.

다른 어패류도 동풍이 불면 뚜껑을 덮고 펄로 들어간다. 들물에는 동풍이 불므로 어패류가 모두 펄 속으로 숨는다. 반면에 사람은 동풍을 좋아한다. 논계는 고추장을 넣어 끓여 먹었는데, 그 맛은 최고로 맛났다. 주민들은 갈비라도 그 맛이 안 난다고 한다.

이 계는 노린내가 나지만 배고픈 시절에는 그 냄새를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 먹으려면 노린내가 역하게 느껴진다고 한다. 과거에는 이것을 잡아 곡식과 바꾸는 경우가 흔했다. A지구에서 특히 많이 낚았는데, 서산의 대표음식인 계국지를 담는 기본재료이기도 하다.

원둑 근처나 염전 근처 등의 바다와 논 의 경계에는 깍쟁이^[천계]가 많다. 옛말

에 “스님이 깍뎡이 맛보고 원дук 문연다.”는 속담이 있다. 스님이 맛을 보면 그 맛에 취할 정도로 맛이 좋다는 뜻이다. 이것은 취평리 양조장 옆에서 마을로 들어왔는데, 도비산 꼭대기까지 줄을 지어 올라가기도 했다.

민꽃게^[바카지]와 돌게도 잡아서 계장을 담가 먹었다. 개펄의 돌을 들면 그 안에 바카지가 숨어 있는데, 잡히지 않으려고 사납게 굴었다고 한다. 반두를 짚어 지고 개펄로 나가는 길목에 서너 발자국을 떼면 돌이 있기 마련이므로 그것을 들면 바카지가 있어 많이 주웠다. 이외에 펄큰게^[청게]는 간혹 보였다. 흰발 논게는 송장게라 불렀는데, 그래서인지 먹지는 않았다.

바다와 육수가 만나는 곳에 구멍이 나 있다. 이 구멍으로 손을 넣으면 장어도 있다. 장어를 잡으려다 구렁이를 꺼낸 적도 있다고 한다. 장어가 목으면 두 아람 정도 되기도 했는데, 이런 것은 먹지 않고 버린다. 반면에 과거에는 민물장어는 징그럽다고 여겨 먹지 않았다. 고기를 잘 먹지 못 했기 때문에 기름이 많은 장어를 먹으면 설사를 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영양실조가 되면 장어를 먹었다. 배터리가 보급된 후로는 전기충격으로 냇가에서 장어를 큰 페인트 통으로 8통을 잡기도 했다.⁵⁴⁾

반면 조개는 물속에서 발끝으로 더듬어서 건져냈다. 물살이 세므로 몸을 굽히지 않고 서서 잡았다. 백합으로는 밀국^[밀가루죽]을 끓여 먹는다.

고북면 갯것 잡이

◆ 사기리

마을 앞 개펄에는 굴독이 많았다. 집채 보다 큰 돌덩이가 있는데, 그것에 굴

54) 이외에 고기와 관련한 속담으로 “여름 돼지고기는 잘 먹어야 본전”이라는 말과, “뒷다리가 우선이야”라는 말이 전한다. 돼지고기 1근으로는 30명이 먹을 수 있는 국을 끓였다.

이 붙었다. 자생굴이 많이 낚기에 주민들은 조새를 이용해 한 바가지씩을 좇아다 먹었다. 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배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해변의 돌을 실어다가 개펄에 놓아주어 그것으로 굴밭을 만들기도 했다. 약 2m 간격으로 돌을 쪼개어 놓아두면 2년이 지나면 굴이 돋는다. 굴은 김장철에는 캐서 팔았으나 여느 날에는 한 바가지씩 좇는다. 겨울철에 굴을 좇으러 갈 때는 추위를 막기 위해 도랭이^[도롱이]를 만들어 입고 종태기를 들고 나간다. 도랭이는 바람을 막기 위해 호밀짚을 엮어 만든 외투이다. 종태기는 짚으로 만든 바구니로 굴, 바지락, 조개 등을 캐 할 때에 사용한다.

채취한 굴로는 김치 썰어 넣고 국을 끓여 먹는다. 혹은 된장을 넣어 졸여 먹기도 하고, 어리굴젓을 담아 먹기도 한다. 어리굴젓을 만들려면 굴을 먼저 갯물로 씻는다. 소금을 섞어 단지에 담아 보관해둔다. 1~2일 지나면 먹을 수 있다. 먹을 때에 마늘과 고춧가루를 넣어 버무려 먹는데, 굴이 삭기 이전에 고춧가루를 섞으면 가루가 버무려지지 않으므로 반드시 삭힌 것에 고춧가루를 섞는다. 이 젓은 오래두고 먹을 수 없으므로 조금씩만 좇아다가 굴젓을 담는다. 보통 한 사발 정도씩만 담아 먹는다. 굴젓은 봄철의 추운 겨울에 만든 것이 제일 맛나다.

계도 많이들 잡았는데, 개펄에 난 고랑에서 주로 잡는다. 갯고랑은 어른의 무릎 정도의 깊이이므로 물속에 들어가 쪽대를 이용해 떠낸다. 잡은 계는 부게에 담아 옮긴다. 이 도구는 대나무로 짤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가로 50cm, 세로 60cm로 만들고, 뚜껑은 달지 않는다. 한쪽에 펄빵을 달아 어깨에 짊어지고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개펄에서 채취한 온갖 어물은 부게에 담는다.

꽃게는 발로 밟고서 손으로 잡는다. 하루에 10마리 정도를 잡는데, 먹을 것만을 조금씩 잡아먹지만, 계가 많이는 제철에는 잡아서 판다.

이외에 꼬막, 바카지, 가재, 살조개 등도 많이 낚다. 꼬막은 종패를 뿌리지 않았지만 과거로부터 많이 생겨났다. 바지락은 개인이 허가를 받아 양식장을 만들었는데, 종패를 뿌려서 한동안 많이 낚다. 호미와 쇠스랑으로 캐면 들지 못해

머리에 이고 나와야 할 정도로 많이 났다.

살조개는 엄지 손톱만한 크기로 하루에 한 말 정도를 잡았다. 종태기에 담아 밀물이 들어오면 종태기를 물에 넣고 진흙펄을 깨끗이 씻어서 가지고 나온다. 종태기는 새끼를 엮어서 만든 것으로 큰 것과 작은 것으로 구분해 만들어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데, 보통 지름 30cm, 높이 50cm의 것을 사용한다. 살조개는 삶은 것을 까서 밥에 얹어 먹는다.

바카지는 갯펄의 굴독이든 아니든 모든 돌을 들어보면 그 안에 숨어 있다. 호미로 누른 후 잡아넣는다. 호미는 바닷가에서 많이 사용하므로 1년에 3~4개를 사용한다.

반지락^[반지락]은 이곳에는 별반 없다. 이에 개인이 종패를 뿌려 양식장을 운영했다. 훗날 마을 공동 양식장까지를 만들어 3개의 반지락 양식장이 있었다. 여름철을 제외하고 봄과 가을에 주로 채취하는데, 음력 10월경부터 이듬해 봄 3~4월까지 캔 것이 그중 좋다. 추울 때 캔 것이 맛이 있다. 여름에는 반지락이 영글어야 하므로 채취를 금한다. 반지락은 매일 조업 가능하다. 반지락은 호미를 이용해서 채취하는데, 진흙펄에서는 호미가 조금 덜 뽕족한 것을 사용하지만 대비산 밑은 모래펄이라 끝이 뽕족한 것을 가지고 가야 채취가 가능하다. 요즘은 반지락 굽는 도구를 별도로 제작해 판매하지만 과거에는 호미가 유일했다. 채취한 반지락은 짚으로 만든 구렁에 담는다. 구렁은 본인이 직접 제작하므로 대소로 자기의 신체적 사이즈를 고려해 만든다. 채취한 반지락은 어촌계에 모두 넘긴다. 하루 작업하면 돈으로 일당을 받았는데 보통 쌀 1말 정도 구입할 가격이다. 종패를 많이 뿌리므로 수확량이 많아 큰 그릇에 담아 머리에 이고 나왔다.

이외에 사리 때는 황도나 간월도, 대비산 밑의 개펄까지 가서 반지락을 캐다. 오전 7시에 배를 타고 출발하는데, 작업 시간은 3~4시간이다. 5~6명 정도가 함께 가서 반지락을 캐는 작업한다. 배에는 10여 명이 탈 수 있지만 반지락을 싣

고 와야 하므로 작업자를 많이 태우지 않는다.

낙지는 작은 삽으로 개펄을 파면서 잡는데, 낙지가 들어 있는 구멍은 경험을 통해 찾을 수 있으므로 경험이 많은 이만이 잡을 수 있다. 이곳은 개펄이 좋아 갯지렁이도 많았다. 낙지는 대나무로 만든 바구니에 담는다.

사기리와 봉생리 앞에는 엇둡병이 있다. 이 둡병은 지름의 크기가 100미터 정도로 작으며, 큰 바위도 있어 많은 이들이 놀이 겸 고기를 잡으러 갔다. 둡병의 크기가 작으므로 여럿이 그물을 넣을 수 없으므로 이곳에서는 조업을 부석면처럼 즐기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물은 길게 넣을 수 없으므로 지그재그 형태로 넣는다. 조금 때는 조업을 하지 않으므로 물이 가득 차 있기에 놀면서 고기를 잡는다. 주민들 중 놀고 싶은 이들이 모여서 놀았는데, 주로 젊은이들이 놀면서 고기를 잡았기에 이곳을 ‘연애당’이라 부르기도 한다. 주로 겨울철에 송어를 잡았다. 뗏목을 타고 나가 배에 탄 이들이 대나무를 쥐고 물을 내리치면 송어가 놀라서 한쪽으로 모인다. 미리 쳐둔 그물쪽으로 고기를 몰고 간다. 간혹 낚시를 하는 이들도 있었다.

여름철 밤에는 소나무 가지에 광술을 쪼개서 햇대를 매서 불을 밝혀두고 바다로 나가 물속에 들어가서 작살로 게를 잡았다.

◆ 봉생리 1구

봉생리에서 마을 앞 개펄에 굴밭이 넓게 조성되어 있었다. 이 굴밭은 배로 돌을 실어다가 만들었다. 개펄 위에 돌을 늘어놓으면 자연스레 굴이 붙는다.

굴은 생굴로 주로 판매하는데, 생산량이 많아서 석유 드럼통에 굴을 담고 뚜껑을 덮어 지게에 지고 내다 팔았다. 이곳에서 흥성장까지는 60리이고, 예산 덕산장까지는 100리이지만 굴 값이 좋아 많이들 가져갔다.

이외에 바지락과 꼬막이 많았다. 이것들은 특별한 도구 없이 손으로 잡는다. 꼬막은 깊은 물에서 손으로 건져 냈는데, 특히 맛이 좋았다. 그물에 넣어 물속

에 넣고 흔들면 작은 것은 빠지는데, 이것은 종패이므로 다시 바다에 넣고, 굵은 것만 먹는다. 봄에도 나지만 별반 맛이 없고, 날이 추운 겨울에 잡아야 맛이 좋다. 삶아서 무쳐 먹거나 회로 먹는다. 꼬막도 장에 내다가 파는데, 장이 멀므로 여자 보다는 남자들이 팔러 다녔다.

이외에 늦가을에는 햇불을 밝혀 들고 승어를 잡기도 한다. 이를 ‘화로질^[해루질]’ 한다고 한다. 갯가의 도랑이나 둠병을 돌아다니면서 작살로 내리꽂아 잡는다. 승어 잡는 작살은 발이 5~6개로, 서산의 대장간에서 사왔다. 작살잡이는 주로 젊은이들이 한다. 12월이 되면 바다가 얼어서 이듬해 2월에나 풀리므로 이때는 고기를 잡지 않는다.

◆ 신정리 2·3구

지금은 공군비행장이 된 신정리 2·3구 앞 개펄에서 다양한 종류의 어물을 채취했다. 농지가 별로 없어 어물 채취에 종사하는 이들이 많았다. 이를 두고 “땅이 없어서 바다로 갔다.”라고 표현한다. 먹을 것이 없어 시래기에 쌀을 조금 넣어 죽을 끓여 먹었고, 가을철에는 배추와 새우젓을 넣고, 게를 잡아넣고 계국지를 끓여 먹었다.

어물은 주로 망둥이^[망둥어], 큰소라, 꼬막, 살조개, 능쟁이, 칠게, 꽃게, 바지락, 낙지 등을 켜다. 개펄을 다니다 보면 꽃게가 구멍에서 나와 있기도 하는데, 이때 꽃게 구멍을 발로 밟으면 꽃게가 숨지 못하므로 쉽게 잡는다. 망둥이^[망둥어]를 잡을 때는 망둥이 구멍을 발로 밟으면 망둥이가 반대편 구멍으로 나오므로 이것을 잡으면 된다. 이처럼 특별한 도구나 기술이 없어도 꽃게와 망둥이는 잡을 수 있었기에 필요에 따라 수시로 조업했다. 지금과 달리 과거에는 장뚱어는 먹지 않았다. 망둥이는 말려서 찌어 먹거나, 고춧가루를 넣고 졸여 먹었다. 어촌에는 이러한 생선을 잡아다가 수시로 반찬 삼았기에 별도의 반찬을 구입하지는 않았다. 어물을 전문적으로 매매하지 않았다.

저녁 찬거리를 구하려면 쪼으로 만든 종태기를 들고 개펄로 나갔다. 계절별로 각기 채취할 수 있는 것이 다르므로 다양한 것을 섭취할 수 있었다. 간혹 바위에 붙은 파래는 뜯어다가 여러 번을 씻어서 김처럼 떠서 구워 먹고, 젓은 파래는 무쳐 먹었다. 먹을 것이 비교적 넉넉했으므로 파래를 넣고 죽을 쑀어 먹지는 않았다.

이곳에서 많이 나던 어물은 바카지, 능쟁이이다. 이것은 모두 개펄 바닥에 뚫린 구멍을 발로 막으면 게가 구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 후에 게를 줍는다. 게는 찌어 먹거나 간장을 부어 게장을 담가 먹는다. 반면에 설기[갯가재]는 개펄에 있는 두 개의 구멍 중 큰 것을 발로 밟으면 작은 구멍으로 가재가 나온다. 설기는 개펄에서 나는 것들 중 가장 맛이 있다.

황발이[논게]이 구멍을 발견하면 옷의 한쪽을 벗고 손을 구멍에 넣어 잡는다. 팔뚝이 다 들어갈 정도의 큰 구멍이다. 옷을 벗고 잡아야 하므로 여름부터 가을까지만 잡는다. 깍뎡이[갈게]는 개펄 깊은 곳에 들어 있으므로 구멍을 삽으로 파야 잡을 수 있다. 개펄의 돌팍[돌멩이]을 들여보면 그 안에 작은 게인 돌장게가 들어있는데, 그것을 주워 담는다.

마을 앞의 도랑 중 ‘메밀뺨’이라 불리는 곳에는 메밀같이 작은 돌이 넓게 펼쳐져 있다. 그곳에는 푹푹가재[딱총새우]가 많다. 구멍을 밟으면 가재가 나오므로 줍기에 용이하다. 이것은 겨울철에 주로 잡아 낚시의 잇감으로 사용한다. 속[썩]은 삽으로 구멍을 파서 그 안에 들어 있는 것을 줍는다.

살조개[참꼬막]는 음력 11~12월에 가장 맛이 있지만 이듬해 2월까지 채취한다. 추운 겨울인데도 입을 옷이 적당하지 않아 베로 만든 잠방이만 입고 속옷도 갖추어 입지 못하고 작업했다. 당시에는 살조개가 많아 채취할 수 있는 만큼 캔다면 무거워서 가지고 나올 수가 없으므로 본인의 능력에 따라 캔다. 살조개의 양이 많아 이것을 팔아 땅을 구입하고 아이들 공부도 시킬 수 있었다. 살조개가 개펄에 박힌 것을 두고 주민들은 ‘바글바글했다’ 라고 표현한다.

굴은 추운 겨울철에 주로 채취하므로 추위를 예방하기 위해 도롱이를 만들어 뒤집어 쓴다. 도롱이는 마을 주변의 산에는 이파만 무성한 띠나무를 베어 제작한다. 띠나무를 베어다가 엮어서 만든다. 한 번 제작해 두면 여러 해 동안 사용할 수 있었다. 날씨가 추우면 아예 작업하지 않았다.

겨울철에는 사리 때에 살조개를 채취해다 두면 조금 때까지 먹곤 했다. 장독에 살조개를 넣고 뚜껑을 덮어두면 바람이 통하지 않아 상하지 않기에 조금 때까지는 먹을 수 있었다. 물을 닿으면 조개가 골므로 주의한다.

어획한 어물은 서산장(5km, 2·7일), 해미장(5km, 5·10일), 덕산장(12km, 3·8일), 예산장(20km, 3·8일) 등에 나가 팔았다. 살조개[고막류]는 삶아서 예산 온천 주변에 나가 팔았는데, 온천에 놀러 온 사람들이 주로 구입했다. 홍성장은 인근에 위치하지만 바닷가 주변이므로 어물이 많이 거래되므로 그곳으로는 가지 않는다. 오히려 멀어도 내륙에 위치한 장으로 가야 어물 거래가 용이했다. 특히 바지락철에는 바지락을 짚어지고 온양장(150km)까지 갔다. 먼 거리를 가야 했기에 장날 전날 밤에 출발한다. 남자는 지게에 지고, 여자는 머리에 이고 온양장으로 갔다. 하루 온종일 걸어서 당일로 왕복해야 했는데, 바지락을 팔아서 하루를 묵고 올 경우 숙박비와 식비를 지불하면 남는 것이 없으므로 힘에 겨워도 당일로 돌아왔다. 바지락은 개인이 양식장을 운영해 채취했다. 이것은 공주 유구장까지 운반해 팔았다.

◆ 고북면 남정리와 기포리

바닷물이 드나들었기에 펄이 조성되어 이곳에서도 살조개, 능쟁이, 갯지렁이, 굴, 낙지 등의 갯것을 채취했다. 순수농촌이기에 이러한 갯것 채취는 수문께 거주했던 몇몇 집에서만 행했을 뿐이다. 어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먹고 싶으면 물때를 보아 저녁에 짚으로 만든 종태기를 들고 개펄로 나가 갯것을 잡는다.

가장 흔한 해물은 살조개로, 겨울철에 눈이 내리면 조개 눈이 손가락으로 찌

른 것처럼 보인다. 이 눈을 보고 삽으로 파서 잡았다.

망댕이[망둥이]를 잡기 위해서는 밤 10시가 넘어 개울에 나가보면 망댕이가 누워있는데, 사람의 인기척이 있어도 도망가지 않으므로 손으로 주웠다. 능쟁이, 바카지, 사시랭이(꽃게 새끼) 등도 잡아서 반찬 삼아 먹었다. 살조개를 제외한 대부분의 어물을 반찬으로 먹었기에 다른 반찬을 구입해 먹지는 않았다. 간척 이후로는 반찬을 사다 먹어야 하므로 어물을 많이 먹지를 못한다고 한다.

파래는 뜯어서 김처럼 만든 파래장을 만들어 구워 먹거나 무쳐 먹었다. 수문가에 파래가 많아 수시로 뜯어서 반찬삼아 먹었다.

이외에 세발능쟁이[칠게]는 게 구멍을 보아 잡는다. 구멍을 발로 밟고 손가락을 넣어서 뺀다. 한번에 1~2마리씩 잡는데, 사시사철 잡을 수 있다. 하루에 잘 잡으면 한 말 정도를 잡았다. 이곳에는 굴은 별반 없어 먹을 것만 조금씩 좇아다 먹었다. 돌이 없기에 굴이 돌지를 않았다.

유일하게 판매하는 어물은 살조개로, 삶아서 덕산온천으로 팔러 다녔다. 온천에 놀러온 사람들이 즐겼고, 마을 뒤편의 고개만 넘으면 온천이었기에 많이 팔러 다녔다. 사리 때는 조개를 채취해야 하므로 그날그날 잡은 것은 항아리에 담아 뚜껑 덮어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둔다. 겨울철이므로 조개를 채취하지 않는 조금 때까지 두어도 살아 있다. 오래 되면 끓지만 그 이전에 삶아서 팔러 다녔다.

서산시 · 인지면 · 해미면 갯것 잡이

◆ 양대리

양대리 앞에서는 논게, 대합, 능구쟁이, 살조개 등이 났다. 이중 살조개가 특히 많았다. 살조개로는 미역국을 끓여 먹는다.

이곳에는 어선을 소유한 집이 한 집이 있었는데, 이 집을 ‘뱃집’이라 불렀

다. 배가 없는 가정에서는 갯것 채취와 더불어 사들, 후릿그물, 장어칼 등을 이용해 고기를 잡기도 했다.

이곳에는 장어와 시라시를 특히 많이 잡았다. 장어는 여름과 가을에 바다와 냇물이 만나는 곳을 다니며 장어칼로 펄을 긁으면 장어가 걸리기도 했다. 시라시는 음력 2~3월에 주로 잡는데, 마을 앞 개울을 가로질러 그물을 친다. 그물의 양끝에는 막대기를 박아 고정한다. 그물의 굽기는 모기장 정도로 시라시가 물에 흘러 나가면서 걸린다. 이외에 주낙으로 송어, 도미^[흑도미]를 잡았다.

◆ 야당리

야당리는 순수농촌으로 농토가 비교적 많아 농사에 주력했다.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 일부의 주민만이 갯것을 잡아 생계에 보탬다. 능쟁이는 펄땅^[진흙펄]에도 있지만 대합은 모래펄에 있으므로 펄을 찾아다니며 채취했다.

게는 음력 3~9월까지 잡는데, 물때에 따라 조업 시간이 다르며, 보통 서매 날부터 시작해 열두 때까지는 작업한다. 조금에는 물이 나가지 않아 펄이 딱딱해 지므로 작업을 할 수 없는데, 이때는 게들이 뚜껑을 덮고 들어가서 돌아다니지를 않으므로 작업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게가 있는 개펄까지는 보통 30~60분을 걸어서 양대동 앞쪽이나 신동리 동막에서 주로 작업한다. 개펄 여기 저기 구멍이 뚫려 있으면 게가 서식하고 있는 곳이므로 입고 있는 옷의 한쪽 소매를 빼고 맨손으로 게를 잡기 시작한다. 썰물이 다시 밀물이 되어 들어오면 작업을 할 수 없으므로 2시간 여 동안 잡는다. 구멍 깊숙이 손을 집어넣어 게를 잡을 수 있다. 잡은 게는 한 주먹이 되도록 손에 쥐고 작업하며, 한 주먹이 차면 짚으로 만든 구덕에 게를 담는다. 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게지만 집게가 있어 손을 찔러 피가 나기도 하지만 더 많이 잡기 위해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작업한다. 구덕은 새끼로 만든 것으로 큰 것과 작은 것으로 구분해 만들어 사용한다. 하루에 한 구덕 반 정도는 잡는다. 잡은 게는 곧바로 팔러 간다. 예를 들어 새벽 3시에 물

이 나가기 시작하면 11시에 들어온다. 11시 이전에 집으로 돌아와 옷을 갈아만 입고 곧 팔러 나간다. 많은 사람들이 계를 잡으므로 가격은 싼 편이었다. 보사기에 담아 한 그릇씩 팔기도 하고, 구럭 통째 팔기도 했다. 구매자의 형편에 따른 것이므로 달라는 데로 판다. 계를 판돈으로는 보리쌀을 사서 돌아온다. 잡은 계는 주로 서산장(4km)에 내다 팔았다.

이외에도 논골에 나가면 황발이 많았다. 계국에 넣어서 먹으면 보리밥에 좋은 반찬이다. 계는 식성에 따라 다양하게 조리해 먹는데, 많은 경우 된장국을 끓일 때에 넣어서 먹는다. 혹은 간장에 날 것으로 넣어서 삭혀서 먹는다.

◆ 덕지천동

이 마을은 내륙에 위치해 있으므로 해안 마을의 갯것 잡이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신장천(덕지천)과 해미천이 만나는 곳에 모래펄이 넓게 펼쳐 있으므로 이곳이나 논두렁에서 주로 갯것을 잡았다. 여름철에 주로 쌀조개를 채취했는데, 남자들이 아침에 쌀조개를 잡으러 나가면, 부인은 칼국수를 만들기 위해 밀가루를 반죽해 둔다. 조리나 채에 모래를 담아 물속에서 흔들면 가는 모래는 빠져 나가고 굵은 쌀조개만 채에 남는다. 이것으로 국물을 내서 칼국수를 만들어 먹으면 무척 맛이 좋았다고 한다.

이외에 농계를 잡았는데, 7~9월까지 논두렁과 농수로 등지에서 그물을 놓아 잡았다. 농수로 입구에 그물을 쳐두면 걸린다. 9월이 지나면 벼를 베기 위해 논바닥을 말려야 하므로 논이 물을 빼므로 더 이상 서식할 수 없다. 잡은 농계는 짚으로 만든 구럭에 담는데, 하루에 보통 20~30마리를 잡는다. 이것은 서산장에 내다 팔았다. 이것으로는 계국지를 만들어 먹었다. 계국지는 농계, 바카지, 능쟁이 등의 계를 넣어 배추잎을 넣고 새우젓을 넣고 끓인 찌개이다.

장어 새끼인 시라지 잡이도 했는데, 모기장 그물로 잡아서 양식장에 팔았다. 억대리에 장어 양식장이 있어 그곳에서 사러 다녔다. 이외에 망둥어도 잡는데,

망둥어가 든 구멍을 손으로 뚫고 손을 집어넣어 그 안에 든 고기를 잡았기에 이 방법을 ‘구멍망둥어’라 불렀다.

◆ 귀밀리 · 석포리

귀밀리의 마을 앞은 덕지천의 굽은 물줄기가 흐르지만 이 냇물이 천수만과 합수해 썰물이 되어 드나들었기에 마을 앞까지 갯물이 들어왔다. 이 마을은 단 한 집만이 배를 소유하고 어업을 하는 순수 농촌이다. 그러나 마을 앞까지 갯물이 들어와서 논·도의 도랑에는 작은 게인 ‘묵거이’가 많았다. 주로 음력 9월 한철에만 단 두 집이 나서서 게를 잡아 팔았다. 식전에 논에 나가서 특별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잡는다. 이러한 작업은 주민들 중 일부만이 행했을 뿐이다. 대교 사람들도 이곳으로 묵거이를 잡으러 오기도 했고, 용현리 주민들도 걸어서 이곳까지 왔다. 새벽에 누룽게^[누룽지] 싸서 들고는 새벽밥 먹고 광불을 밝혀 들고 이곳으로 왔다. 잡은 게는 구럭에 담아 갔다. 제보자의 시아버지는 논에서 잡은 묵거이를 거두어 서울 등지로 넘기는 중개장사를 했다. 묵거이는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이들이 부모님께 드리기 위해 주로 사갔다. 묵거이에 간장을 끓여 부어서 계장을 담거나, 된장찌개를 끓일 때에 넣는다. 방조제가 건립된 후로는 갯물이 들어오지 않으므로 묵거이 잡이도 중단되었다.

음력 8~9월에는 황발을 잡았다. 조금 때를 제외하고 썰물에 나가보면 기어다니는 것이 많으므로 역시 손으로 잡는다. 황발도 간장을 부어 계장처럼 먹었다.

이외에 쌀조개도 많았다. 쌀조개는 손톱만큼 작고 흰 조개로 바닥의 모래를 조랭이^[조리]나 얼개미에 담아 흔들면 조랭이 조개만이 남는다. 이것은 삶아서 그 국물로 국수를 말아 먹는다. 장어는 장어칼을 이용해 잡았다. 가을에 맛이 좋으므로 이때에만 잡는데, 그 양이 많지 않으므로 잡아서 주로 나누었다.

이외에 가을철에는 ‘가을 망둥이’라 부르는 망둥어 잡이를 한다. 손으로 잡

으며 배를 따서 소금을 조금 쳐서 말려서 졸여 먹거나 썬다. 이외에 골망 댕이도 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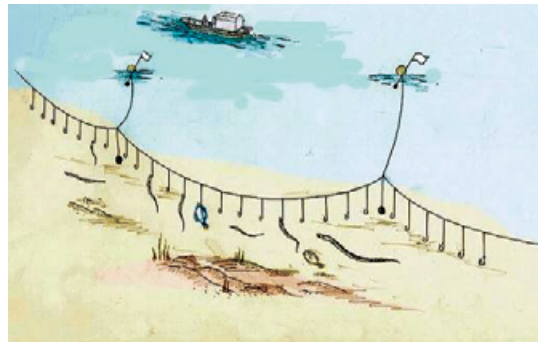
석포리 앞의 펄에서는 대합, 쌀조개가 많이 났다. 대합은 손으로 잡았고, 쌀조개는 조랭이로 모래를 흔들어 가며 잡았다. 이곳에는 굴이 나지 않으므로 굴은 장사꾼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구입했다. 굴은 주로 음력 정월 명절 즈음에 지계에 지고 다니며 팔았다. 아침 8시 경에 장사꾼이 들어오면 사러 나간다. 작은 보시기에 담아 파는데 형편에 따라 다르지만 다섯 사발 정도를 구입했다. 젓은 주로 회로 즐겼다.

4) 사두·반두·남시·주낙

사두질과 반두질은 창리를 제외하고 모든 마을에서 행했다. 창리는 어선 어업이 발달되었기에 작은 그물질은 하지 않았다. 사두질은 위의 그림과 같이 홀로 그물로 고기를 떠내는 어로행위이고, 반두질은 두 사람이 그물을 맞잡고 그



사두질(국립과학수사원)



주낙(국립과학수사원)

물을 들어 올려 고기를 잡는 것이다. 이 두 방법은 집에서 먹을 고기반찬으로 먹기 위해 행하는 소규모의 어획 방법이다.

주낙은 긴 줄에 낚시를 매달아 특정고기를 잡는 것으로, 이곳에서는 주로 가격이 좋은 도미 주낙을 많이 놓았기에, ‘도미주낙’이라는 용어가 확인된다. 도미 주낙은 뚝뚝이나 갯고랑에 놓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굴밭 사이에 놓는다.

가장 흔한 소규모 고기 어획 방식은 낚시이다. 대나무 장대 한 개와 낚시줄, 낚시 바늘만 있으면 어디서라도 고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간월도에서도 어선이 없는 사람들은 보걸치(조기 새끼)를 잡기 위해 낚시질을 즐겼다고 하며, 낚시대만 들 수 있을 정도만 되면 어린아이들도 낚시질을 즐겼다고 한다. 각 마을 별 현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부석면 마룡리

이 마을에서는 사들[사뒤]로 오징어를 주로 잡았다. 사들[사뒤]은 한 사람이 고기를 낚는 어구로, 사다리꼴의 그물을 막대기에 매단다. 그물의 윗부분은 다섯 발이고, 아랫부분은 3발 정도로 해서, 양 끝에 한 질 가웃 정도의 대나무를 매단다. 이것을 양손에 쥐고 물속으로 그물을 넣고서 밀고 다니다가 고기가 걸리면 떠내듯이 올리면 그물에 고기가 걸린다. 물발이 세면 한쪽 손잡이를 개울 끝에 박아두고 다른 쪽 막대기를 이용해서 움직이며 고기를 건지기도 한다.

두 사람이 고기를 낚는 긴 그물인 반두는 사들[사뒤]과 동일하게 막대기에 매단 그물로 고기를 떠낸다. 그물의 길이는 필요에 따라 달리한다. 그물이 길면 막대기를 든 사람 이외에 다른 사람이 그물을 따라 다니면서 중앙에서 고기를 떠서 부게에 담는다. 부게는 대나무로 크기를 달리해 제작하는데, 큰 것은 10말(100kg) 들이로 지게에 얹어 지고 다닌다. 작은 것은 등에 짊어지고 다닐 수 있도록 작게 만든다. 부게에 고기를 많이 넣으면 펄땡을 돌아다닐 수 없으므로 적당히 담는다. 펄땡은 보통 발목까지는 빠지므로 많이 담을수록 걸음을 걷기가 힘

겹다.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은 “부게질은 지금이라면 100만원을 준다고 해도 못해, 그때는 고기가 바글바글 했어”라고 한다. 부게는 등쪽은 낮고, 그 뒷부분은 높게 만드는데 이렇게 해두어야 고기를 등 뒤로 던져도 높은 곳에 부딪히며 부게 안으로 들어간다. 부게는 아껴 쓰면 5년을 쓰지만 비 맞고 햇빛 맞으면 ‘1년 치기’이다. 이것은 바구니를 제작할 줄 아는 이들이 대나무를 이용해서 만들어 팔았다.

◆ 고복면 신정리

여름부터 가을까지는 주로 사두질과 반두질로 고기를 잡는다. 사두질은 혼자 하는 것이고, 반두질은 두 명이 합심해서 작업하는 것이다.

사두질은 두 개의 긴 장대에 그물을 달아 만드는데, 혼자 작업을 해야 하므로 그물의 폭을 좁게 한다. 반면 반두질은 20~30미터의 그물의 양 끝에 긴 대나무 막대기를 매달아 반두를 제작해 두 사람이 맞잡는다. 대나무는 속이 비어서 가볍고, 물에 넣어도 물을 먹지 않으므로 작업하기가 용이하다.

그물은 나일론으로 만든 그물을 사용한다. 반두를 너무 크게 만들면 작업하기에 용이하지 않으므로 사용할 사람의 키에 따라 크기를 조절한다. 남자들이 주로 사용하지만 간혹 여자들도 사용하므로 가볍게 제작한다.

이 작업은 물이 들어올 때나 나갈 때에 모두 시행할 수 있는데, 허리 깊이의 물속에서 두 사람이 막대기를 쥐고 그물을 물속에 넣고 물이 가는 방향으로 따라 나간다. 그물을 쥔 사람은 모두 어깨에 부게를 메고, 다른 손에는 바가지를 들고 고기를 떠서 부게에 담는다. 부게는 크게 만들므로 가득 담으면 100kg 정도이므로 사람이 들 수 없으므로 자신이 들고 나올 수 있을 정도만 잡는다. 보통 60~70kg 정도를 잡았으며, 다음날 다시 잡을 수 있으므로 욕심을 내지는 않는다.

◆ 부석면 가사리

대부분의 주민들은 개별적으로 작살, 사들[사두], 반두 등을 이용해서 썰물에 갯고랑에서 고기를 잡았다. 허리까지 물이 찬 갯고랑에서 물을 따라 나가면서 작업한다. 썰물에는 고기들이 모여서 물을 따라 나가므로 이것을 잡는 것이다. 들물에는 고기가 퍼지므로 작업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때문에 썰물에만 주로 작업한다.

작살은 물 밖에서 물속의 고기나 게 등의 갑각류를 찍는 도구이다. 사들은 그물을 이용해 고기를 잡는 어구로, 2~3미터의 그물을 긴 막대기에 매달아 밀고 다니면서 고기를 잡는다. 홀로 부계를 짚어지고 다니면서 사들을 밀고 다닌다.

다른 도구에 비해 반두질을 즐겨 행했다. 반두는 3~4명이 그물로 함께 작업 하는데, 2명은 그물을 쥐고 후리고, 나머지 1명은 쪽발[쪽대]로 고기를 떠내고, 1명은 부계를 짚어지고 고기를 운반한다. 쪽발은 잡나무를 이용해 둥글게 만든 후 그 아래에 대나무로 길게 엮어 통을 만들어 고기를 떠낼 수 있도록 해둔다. 그물이 보급된 후로는 대나무 대신 그물을 이용해 주머니처럼 만들었다. 손잡이는 1발 정도로 길게 만든다.

부계나 다람치는 대나무로 만든 어구로 부계는 양쪽 어깨에 짚어질 수 있도록 짚으로 각띠를 만들어 달고, 중앙에는 나무 막대기를 하나 붙여두어 등에 붙지 않도록 하는데, 이것에는 약 1가마니 정도가 들어간다. 반면 다람치는 작은 대나무 바구니로 마름모꼴로 만들며, 한쪽 어깨에 맬 수 있도록 줄을 매단다. 고기가 많을 것 같으면 부계를 지고 가고, 고기 양이 적을 것 같으면 다람치를 들고 간다. 여럿이 작업하면 인원수대로 나눈다. 이러한 도구들로 잡을 수 있는 고기는 사시랭이(꽃게새끼), 꽃게, 잡지랭이(망둥어 등의 잡어) 등이다.

사두를 이용해 바닷가의 갯둑병에서 고기를 잡기도 했다. 사들을 밀고 다니면 다양한 고기가 잡힌다.

이외에도 개펄을 파서 설기[설계]와 능쟁이를 잡았다. 개펄을 삼으로 파면 설

기가 나온다. 손가락 한 마디 크기인 설기는 젓을 담아 먹는다. 설게로는 간장 계장을 담아 먹는데, 게를 먹고 남은 국물로는 계국지를 담는다. 가을철에 배추 등이 나면 이것에 계장을 담았던 국물과 호박 등을 섞어서 김치처럼 담아 둔다. 바카지를 넣을 때는 딱딱하므로 이것을 짓찧어서 넣어야 국물이 잘 우러나고 잘 무른다. 바카지를 넣지 않아도 계장 국물만을 넣어도 맛이 좋다. 잎이 파란 배추에 계장 국물만을 넣어서 만들면 맛이 좋다. 이것은 익기 이전에 먹어야 맛이 좋다.

고기를 잡지 못하는 가정에서는 어살을 하는 집에서 파는 고기를 사서 먹기도 한다. 고기는 어촌이라도 부잣집에서나 사 먹었을 뿐 가난하면 그마저도 구입해 먹지를 못했다. 당시에는 주로 어물을 곡물과 바꾸어 먹었다. 고기는 가사리 2구 동모실에서 주로 구입했다. 동모실은 인근에서 가장 논이 많았고, 모든 가정이 머슴을 두고 살았다.

◆ 부석면 창리

이 마을에서는 사둘이나 반두 등의 개인적인 도구로는 조업하지 않았다. 고기가 많아 어선어업이 발달되었기에 할 필요가 없었다.

◆ 고북면 신정리

여름부터 가을까지는 두 명이 함께 ‘반두’라는 그물로 고기를 잡기도 했다. 반두는 20~30미터의 그물의 양 끝에 손잡이를 달아 두 사람이 그물을 물이 나가는 방향으로 끌고 나가며 고기를 잡고, 물이 들어올 때는 들어오는 물을 따라 들어오면서 잡는다. 그물은 나일론 실로 만든 것으로 1970년대에 보급되었다. 손잡이는 가볍고 물을 먹지 않는 대나무를 이용한다.

보통 허리까지 물이 차 있는 곳에서 남자들이 반두질을 했는데, 간혹은 여자들도 했다. 두 사람이 그물을 물고 나가면 다른 한 사람은 부계를 짊어지고 바

가지를 들고 따라 나가서 그물에 걸린 고기를 털어 낸다. 부계에 가득 물건을 담으면 100kg 정도로 여간해서는 들지를 못한다. 때문에 60~70kg 정도만을 담는다. 반두와 달리 사두는 혼자 그물을 이용해서 고기를 잡는 방식이다.

◆ 부석면 강수리 : 도미 주낙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이들도 주낙으로 고기를 잡았다. 어획량이 많지 않으므로 주로 봄철인 음력 3~4월까지가 도미철이므로 도미를 잡는 ‘도미주낙’ 만을 했다. 바닷가의 갯고랑을 따라 주낙을 놓는데, 미리 고기가 많이 지나는 길목에 긴 소나무로 만든 말짱을 박아둔다.

이 마을에서는 ‘구수뚝병’에 주로 쳤다. 뚝병이 소의 구수^[구유]처럼 생겼다고 해서 그리 불렀다. 뚝병의 지름이 100미터가 넘어서 이곳에 주로 주낙을 쳤다. 주낙을 걸기 위해 우선 말짱을 박아 두는데, 말짱의 길이는 2미터이고, 3미터 간격으로 박아둔다. 주낙의 전체 길이는 100미터 정도로 물이 내려가는 방향으로 뚝병 근처를 가로질러 친다.

썰물에 가서 낚시 바늘에 잇감^[먹잇감]으로 설기^[설계]를 매달아 두고 돌아온다. 물이 차면 보통 6~7미터 정도가 차므로 주낙줄이나 바늘 모두 물속에 잠긴다. 그러므로 바늘이 엉키지 않도록 해서 바늘을 땅에 놓아두면 자연스레 물속에 잠겨서 고기가 문다. 주낙줄은 그물이 보급되면서 낚시줄을 사용하지만 그 이전에는 목줄이라 하여 목면을 꼬아서 사용했다. 도미철에는 도미 5마리 정도를 잡으며, 다른 잡고기도 걸리므로 식구들끼리 먹기에는 충분했다.

◆ 부석면 봉락리 2리

어선을 소유하지 않은 주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어로도구는 주낙이다. 긴 줄에 짧은 곁줄을 달아 낚시 바늘을 달아 그것에 잇감을 달아 고기를 낚는 도구이다. 이 마을에서는 이것을 흔히 ‘독주낙’이라 부른다. 주낙을 독을 따

라 놓으므로 그리 불렀다. 도미, 송어, 고래 등을 잡는데, 미끼로는 설기를 이용한다.

언제인가 한 제보자가 주낙을 놓고 있는데 상어가 나타났다. 이에 작살로 상어를 내리 찍었는데 상어가 힘에 세서 작살이 꽂혔는데도 바다로 나아갔기에 어쩔 수 없이 상어의 등에 타서 상어와 사투를 벌였다. 결국 작살을 꽂은 채 상어는 도망갔지만 상어를 타고 돌아다녔다는 이야기는 지금도 주민들 사이에 언급된다.⁵⁵⁾

민어는 사람 크기 정도의 것이 많았다. 물 위에 떠 있어서 쉽게 잡을 수 있겠다 싶어 잡고자 하면 도망가고, 도망가서 화가 나서 민어를 잡아 부레만 빼먹고 고기는 버린 적도 많았다고 한다. 민어 부레는 회로 소금장을 찍어 즐겼으며, 무척 맛이 좋았다고 기억한다.

장어는 잡아서 쪼불에 구워 먹는데, 과거에는 먹을 줄을 몰라서 불에 겹게 그을려서 먹을 뿐이었다. 비가 온 후에는 물이 들어올 때에는 장어가 국수발 풀어 놓은 듯 했지만 당시에는 장어는 먹지 않았다. 간혹 먹으면 기름기가 많아 설사를 했기에 즐기지 않았다.

주로 어획하던 고기는 도미, 송어, 농어, 민어, 전어, 망댕이[망둥어] 등으로 순한 것이 주였다. 이중 송어를 제일로 쳤다. 상어는 그물을 찢으므로 피해 다녔고, 복어는 이빨로 그물을 찢으므로 역시 피했다. 선장이 이러한 고기들이 노는 곳으로 배를 몰지 않았다.

배가 없는 사람은 주로 낙지잡기와 낚시를 했다. 낚시는 초등생들부터 어른까지 모두 행했다. 낚시질은 주로 돛방에서 행했는데, 칠전리 원둑까지 무릎 밑

55) 주민들은 천수만의 어장과 관련해서 일본인들이 양식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빌려달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실제하는 바를 찾을 수는 없지만 고기의 산란장으로서의 위치적 특징이 분명하므로 어느 정도는 신빙성이 있다고 하겠다.

까지 물이 차는 곳에서 즐겼다. 하루 종일 낚시질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낚시는 빠래고동이나 똑딱가재를 잡아 잇감으로 사용한다. 잡은 고기는 껌미를 꺾어 두는데, 한번 잡으면 2발 정도씩 꺾어서 가져온다. 빠래고동은 가마니로 한 가마니씩을 잡는데, 서울 사람들이 와서 구입해 가서 삶아서 팔았다.

겨울철에 굴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목신을 신는다. 발에 짚으로 만든 ‘도투리 장화’를 신고 목신을 신는데, 이렇게 해야 물이 흘러내려서 얼지 않는다. 목신은 취평장에서 구입했는데, 공장에서 만든 것이 보급되었다.

◆ 부석면 마룡리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도 주낙으로 고기를 잡았다. 바닷물이 빠지면 주낙을 뺏쳐 놓고 뒷날 거두어 들인다. 주낙은 갯고랑을 따라 5미터 간격으로 말뚝을 박는데, 그 길이는 필요에 따라 다르다. 말뚝 위에 줄을 드리우고 3미터 간격으로 낚시 줄을 2발 정도씩 늘린 후에 낚시 바늘을 매달아 둔다. 보통 낚시 바늘은 10개 정도를 끼운다. 말뚝의 양끝에는 주낙의 주인을 상징하는 표시물을 달아두는데, 공기가 든 빈 통에 자신만이 알아볼 수 있는 표시를 해둔다. 서매부터 열매까지가 주낙으로 고기를 잡는다. 조금 때는 줄이 모두 물에 잠기므로 주낙줄을 거두어 두며, 보통 열매에 거두었다가 두매에 다시 친다. 봄철과 가을철에는 도미, 민어, 가오리 등이 낚인다. 이들 고기는 부석 인근 장사꾼이 와서 구입해 간다.

주낙을 치고는 고사를 지낸다. 봄과 가을에 각기 주낙을 친 후 서매나 너매날을 택해서 고사를 지낸다. 흰무리 고사떡, 우력포나 명태포 등의 포, 막걸리만으로 간단히 마련해 제물로 올린다. 주낙 인근의 바위에 제물을 놓고, 고기 잘 잡게 해달라고 절 하고는 떡과 포를 조금씩 떼어 사방으로 던진다. 남은 것은 그곳에 참석한 사람들이 나누어 먹는다.

주낙에서 잡은 고기는 바다로 사러오는 이들에게 팔기도 하고, 서산장에 내

다 팔기도 한다. 서산장까지는 40리로, 새벽에 서둘러 떠나면 부석 정도 가면 첫닭이 울었다고 한다. 서둘러 가면 서산장에 9시 이전에 도착할 수 있었다. 간혹 광천장으로 가기도 했는데, 광천장에 가려면 전날 밤에 출발해서 밤을 새워 걸어가야 광천장을 보고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 광천장까지는 꼬박 24시간을 걸어갔다. 송아지를 팔러 서천장에 가보았지만 가격이 낮으면 광천장으로 가본다.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광천장을 이용했다. 광천장을 가려면 마룡리에서 출발해서 대비산을 넘어 지산리와 모월리 사이로 난 바닷길인 ‘감’을 건너서 석포리로 간다. 이 길은 3시간이 걸린다. 광천장이 인근에서 비교적 큰 장이었기에 90세 이상의 어른들은 주로 광천장을 보았다고 한다. 하루 온종일 가야 했기에 밥을 싸 가기도 하지만 장마다 밥을 해서 팔았기에 그것을 사먹었다. 그러나 밥을 먹기 보다는 막걸리 한 잔 마시고 돌아오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먼 장에 나갈 때는 어물을 며칠 정도 작업해서 모은다. 도미는 이틀 정도 잡은 것으로 모으고, 굴은 여러 날을 모아서 가져간다. 채취한 굴은 물이 빠지는 바구니에 담아 두었다가 장에 나갈 때에 바닷물을 끼얹어 불려서 간다. 바드락(바지락)은 상하기에 모으지 않고 당일 굽어서 생것으로 가져간다.

◆ 부석면 칠전리

봄철 도미철에 도미를 잡기 위해 주낙을 놓는다. 이 것으로는 주로 도미를 잡았기에 흔히 ‘도미주낙’이라 부른다. 절기상 한식(寒食) 즈음이 주낙철이다. 물길을 따라 놓아야 하므로 주낙은 자리다툼이 심하다. 주낙은 누구라도 말뚝과 낚시줄만 있으면 마련해 놓을 수 있었기에 서둘러 놓는 사람이 자리 주인이 된다.

주낙은 90cm 간격으로 말뚝을 박고 목줄을 100미터 길이로 놓는다. 이 줄은 보통 2~3년 정도를 사용하며, 집에서 면사를 꼬아 사용한다. 바늘은 시장에서 구입해 사용한다. 긴 줄에는 3미터 간격으로 60cm 길이의 줄에 낚시 바늘을 매달고, 잇감으로 설기를 잡아 매단다. 도미가 설기를 좋아하므로 미끼로 사용하

는 것이며, 이튿날 썰물에 고기를 뜯어내고는 잇감만 다시 갈아 끼워둔다. 오전에 썰물이 되면 물을 보러 가는데, 이때는 부계를 짚어지고 가서 담아온다.

반면에 음력 5~6월에 상어가 올라오는 길목에서 게를 잡는 투망으로 상어를 잡기도 했다. 물밭이 센 곳에서 투망질을 해야 고기가 잘 잡힌다. 상어는 포로 만들어 말리기도 하고, 회로 먹기도 한다. 상어포는 제사를 지낼 때에 주로 사용한다.

◆ 부석면 송시리

이 마을에서 가장 흔하게 고기를 잡는 도구는 주낙이다. 고급 어종인 도미를 잡기 위해서 주낙을 많이 놓는다. 똑똑가재를 잡아 미끼로 사용했는데, 똑똑가재의 사춘적인 설기를 대신해 사용한다. 음력 3월부터 10월까지의 골망[갯고랑]마다 도미를 잡기 위한 주낙을 여럿 친다. 대미[도미] 이외에 농어, 장대, 오징어 등을 잡기 위해 주로 친다. 긴 주낙줄의 사이사이에 짧은 곁줄을 달고 그 끝에 낚시바늘을 매달아 둔다. 이것은 골짚[고랑]에 쳐두고 물이 나가면 고기를 따고, 다시 잇감[떡이잡]만 매달아 둔다. 잇감은 설기와 똑똑가재를 주로 사용한다. 고기의 종류가 워낙 많아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려운데, 주민들은 이를 “수천가지 고기가 들어오는데, 큰 고기 이름만 안다.”고 표현한다.

검은여 근처나 갯고랑 근처에서 낚시를 한다. 낚시도 주낙과 마찬가지로 똑똑가재를 미끼로 꿰어 드리우는데, 이것에는 장어, 복쟁이, 망둥어 등이 주로 잡혔다. 망둥어[망둥이]는 찌어 먹거나 회로 즐겼다.

소규모로 고기를 잡기 위해 사둘[사뒤]을 많이 쓴다. 바닷물 내려가는 곳이라면 어디서라도 사뒤질은 할 수 있다. 생존했다면 114세인 최종길 씨를 이 마을에서는 ‘사둘 할아버지’라 불릴 정도로 사뒤질을 잘했다고 한다. 사둘은 가벼운 대나무를 1미터 이상 잘라 그 중앙에 그물을 매달아 제작한다.

◆ 부석면 지산리

대부분의 마을에서 주낙을 놓아 고기를 잡았다. 장별 밑이나 굴밭에 주낙을 놓는다. 주낙의 길이는 약 100미터 정도의 길이로 길게 하며, 3미터 간격으로 낚시 줄을 130cm 길이의 새끼줄 끝에 낚시 바늘을 꿰어 둔다. 미끼는 마을마다 다른데 갈마리에서는 설계를 사용하고, 지산리에서는 미꾸라지를 사용한다. 주낙으로 고기를 잡는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도미가 주낙에 짹 짹 걸렸어. 주낙은 굴밭에 주낙을 많이 놓는데, 미꾸리를 꿰어 놓는데, 도미가 굴을 좋아하는답니다. 굴밭쪽에 많았어요. 물이 들어 올라갈 때 미꾸리를 끼워놔. 미꾸리가 살아있어. 도미가 그것을 보고 먹는 거요. 물이 쓸 때 보면 도미가 왔다갔다 하는 거요. 멀리서 봐도 도미가 보여. 등이 왔다갔다 하다가 자쳐지는 거요. 물이 빠지니까. 부계라고 지고 다니는 거에 몇 십마리씩 잡어. 그때는 회 문화가 없어요. 소금에 절여서 국 끓여 먹었어요.”

두 사람이 그물질로 고기를 잡는 방법으로 반두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반두는 그물이 길어요. 저 쪽에 한 사람 이쪽에 한 사람 있어요. 그물이 약 10미터인데, 5미터, 10미터, 15미터로 만들어. 그물이 영글면(크면) 15미터 되고, 구멍이 되면(작으면) 5미터 되고, 그것을 밀고 가다 들면 고기가 들어요. 그것을 들고 고기가 있는데, 15미터짜리는 두 명이 끌고 가도 한 사람이 가운데서 고기를 떼내야해. 5미터는 혼자서 끌고 가여. 부계에 두 사람이 꼭 차서 나왔어요.”

◆ 고북면 신정리

망둥어는 낚시로 잡는데, 잇감으로는 생새우, 돼지비계, 푹푹가재 등을 사용

한다. 물속에 허리까지 담그고 낚시질을 한다. 도미를 잡기 위해서는 주낙을 놓는데, 이것을 흔히 ‘도미주낙’이라 부른다. 100미터 가량의 긴 줄에 5미터 간격으로 3미터 줄에 낚시 바늘을 매단 줄을 매단다. 잇감으로는 봄에는 설기를 가을에는 미꾸리를 잡아서 사용한다.

◆ 고북면 사기리 주낙 잡이 · 쪽대 잡이

그물 대신 주낙을 이용해 고기를 잡는다. 주낙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없으므로 누구라고 할 수 있다. 300미터 정도로 긴 줄에 바늘을 1,000개 정도를 단다. 나무 막대기를 지표로 60cm 길이가 나오도록 박는데, 50cm 간격으로 막대기를 박아 그것에 주낙을 연결한다. 막대기는 ‘말짱’이라 부르며 참나무를 베어다가 사용한다.

잇감으로는 석이나 푹푹가재를 잘라 끼운다. 석이는 맛과 같이 개펄에 서식하는데, 잡아서 주로 튀겨 먹는다. 푹푹가재는 개펄을 밟으면 튀어 나오는데 먹지는 않고 잇감으로 주로 사용한다.

물이 빠지면 살 뒤에 쳐 두었다가 물이 빠지면 거두므로 하루에 두 번 작업할 수 있다. 바늘에 걸린 고기는 죽은 고기이므로 묵히면 상하므로 낮, 밤으로 조업한다. 한번 쳐둔 주낙은 그대로 두고 잇감만 갈아 끼운다. 한번에 1~3kg을 얻는데, 많을 때는 10kg을 얻기도 한다.

여름을 제외한 봄어장과 가을어장에 어살 뒤에 주낙을 치기도 한다. 잇감을 빼먹기 위해 걸려든 갈매기도 간혹 걸리지만 고기가 많이 걸린다. 이 작업은 남자들이 주로 하며, 시장에 내다 팔기 보다는 마을 주민 중 고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판매하거나 식구들이 먹는데 소비한다. 어획량이 많지 않으므로 판로도 없다. 시장에 가지고 나가 보았자 술값도 안 되므로 식구와 친구들과 리 나누어 먹는다. 생선은 회를 떠서 소금을 찍어서 막걸리와 함께 즐긴다.

이외에 주민들은 쪽대만을 가지고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았다. 갯고랑에 나

가면 고기가 있기 마련이므로 쪽대로 떠내었다. 쪽대로 고기를 잡는 일은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누구라도 먹고 싶으면 나가서 했다.

5) 무태와 독풀로 고기잡기

◆ 부석면 지산리와 갈마리

폭이 좁은 강물이 드나드는 길목에는 무태를 설치한다. 고기가 장금천으로 올라가기 위해 골짜기^[고령]으로 들어간다. 골짜기 아래의 입구를 가로질러 그물을 설치한다. 그물의 설치 방법은 마을마다 다른데, 지산리에는 그물을 땅 아래에 묻고, 갈마리에서는 그물을 물 위로 쳤다. 이 무태는 조금 때만 하는 어로행위이다. 조금 때는 개펄의 개울에 물이 차므로, 미리 그물을 땅에 묻어둔다. 이때 5~6미터 간격으로 말뚝을 박아 둔다. 물이 가득차면 땅속의 그물을 위로 올려 말뚝에 묶는다. 그물이 낮으면 송어는 그물을 넘어 가므로 높게 하는데, 골짜기에는 깊게 그물을 파묻고, 강에는 얇게 파묻는다. 그물은 1~2미터 정도로 높게 매단다.

반면 갈마리에서는 그물을 위에 쳐 두었다가 아래로 내린다. 막대기를 양 끝에 꽂고 중간 중간 말뚝을 박아둔다. 그런 후 막대기의 양끝을 가로질러 그물을 치고, 그것을 올려서 묶어둔다. 물이 모두 들어가면 묶었던 그물을 풀어 아래로 내리는데, 그물 끝에는 납봉을 붙여두어 무거우므로 땅까지 떨어진다. 물이 가득 들어차 있으므로 배를 타고 다니면서 그물을 내린다.

무태로 잡은 고기 중에서 송어를 가장 좋은 것으로 여겼는데, 이를 두고 “송어를 왕으로 쳤다.”라고 표현한다. 다른 고기와 달리 송어는 비린내가 덜하고, 기름이 많아 좋은 고기로 여겼다. 이곳에는 송어가 꼬리가 꼬리를 물고 다녔으며, 뽕뽕하게 들었기에 입을 위로 내놓고 있었다고 한다. 송어는 제사상에도 올

리며, 국을 끓이거나, 무를 썰어 넣고 조림으로 먹는다. 송어와 비슷한 고기로 ‘언구’가 있다. 이 고기는 송어의 사촌으로 불리며, 송어는 눈이 작으나 언구는 입이 뭉뚝하고, 눈이 크다. 송어와 달리 비린내가 많이 나서 맛이 좋지 않다.

저녁에는 바다로 나가 해로질^[해부잡]을 하는데, 이때 ‘더듬이질’이라 하여 손으로 더듬거리며 꽃게를 잡는다. 꽃게와 오징어가 개펄에 기어 다니면 양재기를 그 위에 얹어 둔다. 꽃게가 문다고 이렇게 해 두며, 훗날 양재기를 열고 죽은 꽃게를 잡는다. 갑오징어는 장별가로 떠밀려 오기도 했다. 바람이 부는 새벽에 개펄에 나가보면 오징어가 뒤집혀져서 장별 가에 있다. 오징어는 뒤집어지면 스스로 되 뒤집지를 못하므로 물살에 떠밀려온다.

◆ 지산리

개펄의 골망^[골]이나 포강 등의 좁은 공간에서 고기를 잡기 위해 독풀을 쓴다. 주로 양력 8월 정도가 되어 쪽나무에 열매가 콩처럼 열면 그것이나 시영풀 등의 독이 있는 풀을 따서 절구에 넣고 찧는다. 지산리에서는 쪽을, 강당리에서는 시영풀을 사용한다. 이 즙에 송어가 알을 까므로, 송어 새끼인 몰치를 잡기 위해 주로 행했다. 구력에 찧은 독풀을 넣은 구력을 십 여 명이 각기 나누어 들고, 개울에 띄엄띄엄 나누어 선다. 구력을 물속에 넣고 흔들면 한 모금 먹은 고기가 일시적으로 기절해 둥둥 떠오른다. 이것은 사리 때에 물살이 빠를 때에만 행한다. 물이 내려가는 끝쪽에는 고랑을 가로 질러 그물을 쳐둔다. 빠른 물살에 떠밀려 내려가는 독 먹은 고기는 그물에 걸린다. 물속에 든 몰치, 뱀장어, 송어 새끼, 도미 새끼인 피데기, 황새갈치, 오징어, 꽃게, 망둥어 등의 다양한 어류가 걸린다. 그 양이 많아 그물이 휘청거리도록 잡았다. 포강에 쪽을 풀면 장어가 튀어 오르기도 하고, 삼시간에 고기가 둥둥 떠오른다. 시간이 흐르면 해독되기도 하고, 깨끗한 물을 넣어주면 다시 고기가 살아나므로 서둘러 꺼낸다.

6) 해루질[해낙질·해리질[海魯질]]

◆ 부석면 마룡리

꽃게는 해락질로 잡는다. 음력 5~8월까지가 꽃게잡이철인데, 이중 5월 꽃게가 알이 배어있으므로 맛이 좋다. 이때는 저녁에 화를 만들어서 불을 밝혀 들고 나간다. 광솔이 달린 소나무 가지를 잘라서 두 손으로 쥘 정도의 분량을 묶어서 불을 켜다. 불을 밝힐 도구가 변변치 않던 시절이므로 광솔 햇불이 유일한 도구였다. 길게 묶어 들고 나가면 밤새도록 그 불빛에 의지해 꽃게를 잡을 수 있다. 여름철에 강한 햇볕으로 지친 몸을 쉴 겸 피서하는 겸해서 해락질을 한다. 바다로 들어가 물이 허리쯤 닿는 곳에서 작살로 꽃게를 찍어서 잡으므로 날이 추워지면 하지 않는다. 불을 밝히면 꽃게가 모여들므로 작살로 찍으면 먹을 만큼은 잡을 수 있다. 작살은 손잡이의 길이가 60cm이고, 작살날은 5개의 가늘고 긴 것을 3cm 간격으로 단다. 특별히 남녀 구분 없이 여럿이 해락질을 즐겼다. 많이 잡히면 팔기도 하지만 작살로 찍어 잡은 것이라 상품가치가 없어 계장을 주로 담가 먹는다.

어물은 주로 부석장에 내다 팔았다. 교통이 발달되면서 부석장이 쇠퇴했기에 서산장을 이용했다. 어물이 많을 때에는 서산장까지 나가지만 어물이 적을 때는 거릿장사를 한다. 도로변 중간 중간에 앉아 해물을 팔았다. 당시에는 콩이나 해물 등을 거릿장사로 파는 사람들이 흔했다.

◆ 부석면 창리

봄부터 가을까지 저녁에 배를 소유하지 않는 사람들이 물이 있는 곳에서 등불을 밝히고 고기를 잡는 해리지[해루질]를 했다. 독 너머 4km까지 나가 조업을 했다. 술 취한 사람은 마을 앞 장벌에서 해리질을 하기도 할 정도로 보편화되었다. 썰물에 물때를 따라 개펄로 나가면서 조업을 하므로 위험하다. 갑자기 안개

가 끼면 개펄에서 위치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 부석면 지산리

저녁에는 바다로 나가 해로질[해루질]을 한다. 꽃게와 오징어가 개펄에 기어 다니면 양재기를 그 위에 얹어 둔다. 꽃게가 문다고 이렇게 해 둔 것으로, 훗날 양재기를 열고 죽은 꽃게를 잡기도 한다. 갑오징어는 장벌가로 떠밀려 내려오기도 한다. 바람이 부는 새벽에 개펄에 나가보면 오징어가 뒤집혀져서 장벌 가에 있다. 오징어는 뒤집어지면 스스로 되 뒤집지를 못하므로 물살에 떠밀려오는 것이다.

◆ 인지면 산동리

농사를 짓는 사람은 밤에 해로질[해루질]을 주로 했다. 예전에는 오징어와 굴, 망둥어, 황발이, 백합, 피조개 등을 주로 잡았다. 백합은 여름철에 가슴정도의 물에 들어가서 발로 더듬어서 잡았다. 추운 계절에는 물속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채취하지 못했다. 굴을 채취할 때는 목신을 신었다고 하지만 제보자(70세)는 본 적은 없다고 한다.

◆ 고북면 신정리 화리질[해루질]

사리 때에는 썰물에 고기를 잡기 위해 햇불을 밝히고 바다로 가는 것을 두고 화리질이라 한다. 음력 11월까지 줄곧 밤마다 화리질을 했다. 어업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은 낮에는 낚지나 갯것을 잡고, 밤에는 화리질로 고기를 잡는다. 농업에 종사하는 이들도 바닷가에 살고 있으므로 밤에는 화리질을 했다. 꽃게, 망둥어를 주로 잡는데, 물속에 몸을 담그고 떠다니는 꽃게는 손으로 줍거나 작살로 찍는다.

7) 물매기·물바루·등바루

제철 어물을 어획하기 위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물때를 한 번 거르고 연속해서 작업하기 위해 등바루·물매기를 했다. 인근에 어물이 많은 섬이 있다면 점심과 저녁, 이튿날 아침을 마련해서 섬으로 간다. 물때에 맞추어 집을 왕복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작업할 수 있는 시간도 적으므로 만 12시간 동안 작업한다. 이를 지칭하는 명칭이 지역마다 다른데, 송시리, 지산리 등지에서는 이를 ‘물매기’라 했다. 송시리 앞의 검은여 근처는 밀물에도 물이 들지 않으므로 물매기의 적소였다. 반면에 닻배가 많았던 창리에서는 인근의 무인도로 나갔는데, 이것은 ‘물바루’ 혹은 ‘등바루’라 불렸다. 특히 굴 채취를 위해 하는 것은 ‘등바루’라 불렸다. 밤에도 굴은 좇을 수 있으므로 잠을 자지 않고 밤을 새워 작업한다. 굴은 추운 겨울에 맛이 좋으므로 거적을 쓰고 나간다.

◆ 간월도의 등바루

간월도에서 등바루는 인근의 토끼섬이나 죽도 등에서 시행했고, 다른 마을은 검은여나 죽도 등의 마을에서 했다. 토끼섬이나, 검은여, 죽도 등은 사리 때에도 개펄이 넓게 드러난다. 어패류 채취가 용이하다. 때문에 물때를 한 번 걸러 작업하기 위해 등바루를 한다. 2~3일 동안 작업할 준비를 해서 검은여로 간다. 동네 사람들 여럿이 모여서 함께 간다. 이곳에서는 무당들이 수시로 굿을 하기도 했다.

◆ 창리의 등바루

굴을 채취하는 시기에 보다 많은 굴을 채취하기 위해서 물이 들지 않는 섬에서 작업을 하는 것을 ‘등바루’라 한다. 주로 음력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행한다. 물때에 따라 집과 개펄을 오가며 작업해야 하지만 섬에서 작업하면 물때

를 한 번 거를 수 있으므로 오래도록 굴을 깔 수 있었다. 만 12시간을 작업할 수 있었기에 많은 양을 확보할 수 있었다. 잠은 자지 않고 낮에 깨든 굴뚝을 깐다. 거적을 치고 그 안에 들어가 잠을 새워 작업한다. 겨울철에 갓것을 하러 갈 때는 누빈 옷을 입는데, 두껍게 만든 것으로 ‘우장옷’이라 부른다. 이 옷은 겨울철에만 입고, 목신도 겨울철에만 신는다. 목신은 나무를 파서 만든 신발로 나막신과 그 형태가 동일한데, 복숭아뼈 아래에 신발측면이 닿도록 만든다. 굽은 4cm 정도로 앞과 뒤에 각기 한 개씩을 단다. 보통 여자들이 날 낫는 날에 신고 다니는 신발이지만 개[개펄]에 다닐 때는 이것을 신는다. 추운 겨울철에 동상이 걸리므로 동상을 예방하기 위해 방수가 되는 목신을 신는 것이다. 당시에 남자는 육지에서는 짚신을 신고, 개펄에서는 목신을 신었다. 여름철에는 발을 벗고 다니므로 겨울철에만 목신을 신는다. 목신을 신을 때는 소청으로 발을 싸고 신는다. 겨울철에는 추위를 예방하기 위해 여자들은 꺼적[거적]을 두른다. 앉아서 땅에 닿지 않을 정도의 길이로 만들어 등 뒤로 놓는다.

◆ 송시리의 물매이

봄철에 굴이 많이 나는 철에는 굴을 많이 까려고 물매이를 했다. 검은여 근처는 밀물에도 물이 차지 않으므로 그 주변에서 뜬 석화를 썰물에 미리 떼어다 놓았다가 밀물에 굴을 깐다. 물이 들어와도 작업할 수 있고, 집과 개펄을 오가는 시간 동안 굴을 까는 작업을 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이다. 굴철이 되면 여럿이 물매이를 하러 갔다. 총각과 처녀들도 함께 가서 놀면서 작업했다. 검은여 주변이 굴밭이기에 작업하기가 매우 용이했다.

8) 어업조직 : 어촌계와 축택

어물의 가격이 좋아지고, 어물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게 되면서 1962년에 제정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어촌계원의 생산력 증진과 생산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 및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수협의 최말단 하부조직인 어촌계가 결성되기 시작했다. 주로 어촌계가 주도해서 공동 양식장을 만들고, 어획하는 어물의 가격을 조절했다. 어촌계가 조직되기 이전에는 어물을 위탁해 채취하던 ‘축택’이라는 제도가 있었다. 축택은 현재 봉락리에서만 확인되며, 어촌계는 대다수의 어촌마을에서 확인되지만 대표적인 마을 3곳을 선정해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 부석면 봉락리 2리 축택

봉락리 개펄은 인근에서 가장 걸어서(풍족해서) 36성씨가 모여 살았다. 토지를 가지지 못한 이들도 이곳에서는 바다에 나가면 돈을 벌 수 있었기에 이곳저곳에서 모여들었다. 전주민이 어업에 종사하는 마을이었기에 이에 따라 다양한 어로행위가 이루어졌다. 그중 하나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행하는 어로행위이다. 이장이 마을을 책임 맡는 자라면 어로행위를 책임맡은 이는 ‘축택’이라 불렀다. 일정양의 어물을 어획해 달라고 요청하면 축택이 주민 중 일부를 일꾼으로 삼아 일을 해주고 품값을 받는다. 예를 들어 안면도에서는 도미, 민어, 농어 등을 잡기 위해 잇감으로 사용할 설기[설게]가 많이 필요했다. 이에 설기를 잡아달라는 요청을 수시로 해왔다. 주민 몇 명을 뽑아 작업을 시킨다. 1964년대에 어촌계가 조직되기 이전까지는 축택이 주민들을 통솔했다.⁵⁶⁾ 노동의 대가는

56) 이 마을의 초기 축택은 가장 오래도록 배사업을 했던 김용운 씨의 부친이었다.

주민에게 동일한 몫으로 나누었다.

축택의 활동은 어물 어획에만 그치지 않고 마을 공동의 작업도 지휘했다. 마을 앞의 개펄에 모래가 많았기에, 인천 유리공장으로 가는 배에 모래를 실어준다. 축택에게 모래를 실어달라고 부탁하면 주민들이 나서서 바지계에 담아 배에 실어 주었다. 보통 10여명이 함께 모래 싣는 작업을 했다.

◆ 부석면 창리 어촌계

공동으로 맨손어업을 하기 위해 어촌계를 조성했다. 토박이를 중심으로 60여 호가 가입했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객지에서 이주해 온 분들은 20~30년이 지난 후에 가입시켜준다. 주로 바지락과 굴을 공동으로 채취하는데, 공동작업으로 채취한 어물은 어촌계에 가져다주면, 그것을 상인에게 넘긴다. 주민들은 필요하면 나가서 채취해 먹는다.

호당 1명이 참여해서 공동 작업을 하는데, 하루에 20~30kg을 채취할 수 있다. 과거에는 굴이 많이 생산되었으나 날씨가 더워지면서 생산량이 줄었다. 음력 정월 명절 즈음에 많이 생산한다.

◆ 부석면 간월도 어촌계

간월도에는 1970년대에 어촌계를 만들었다. 굴 채취가 많았으나 개인이 거래 하기가 어려웠기에 판로를 위해 어촌계를 결성한 것이다. 당시 68명의 계원으로 구성되었다. 외지인은 이주해온지 5년이 지나도록 계속 거주한다면 계원으로 받아들였다.

이때 이미 양식장에서 나온 수입의 일부를 모아서 확보된 계금이 있으므로 이를 계원수로 나눈 액수에 걸맞은 비용을 계 기금으로 내 놓아야 하며, 총회에서 결의를 통해야 가입이 가능하다. 때문에 계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어촌계가 없던 시절에는 굴을 팔려면 이고지고 강당리로 난 바닷길로 걸어서 팔러 다녔다. 이에 주로 생산되는 굴과 어물 등의 판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어촌계를 결성한 것이다.

1960년대 중반경부터 어물의 가격이 좋아졌다. 그 이전까지는 고기를 들고 다니며 팔았으나, 그 무렵부터는 상인들이 어물을 사러 간월도로 들어왔다. 간월도에 처음 들어온 상인은 홍성분으로 홍성, 광천, 갈산장에 어물을 대기 위해 구입해 갔다.⁵⁷⁾ 때문에 이들과 연계되어 배를 홍성군 궁리로 주로 갔다. 그 후로 서산에서 상인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그때부터 어촌계에서 판매했어. 옛날에는 어촌에서 굴을 만들어도 판매할 데가 없으니까. 집에서 굴젓을 만들어 강당리 길로 걸어 나가서 이고 다니며 팔았다구.

어촌계가 생기면서 가을철, 봄철, 그때는 낙지, 굴 등의 생물이 많이 낚기 때문에, 며칠날 입찰한다고 공고를 붙이면 서산 어디서 전부 와서 입찰해가지고 어촌계에서 판매하구 시작되었어. 나룻배 생기기 이전에는 홍성에서 왔었지. 나룻배 생기면서부터는 서산으로 판매처로 바뀌었어.

예전에는 홍광천 사람들이 오징어와 꽃게를 사가지고 갔는데, 어촌계가 생기면서 서산으로 판매처가 바뀌었어. 어물가격이 달라.

입찰은 일년 내 하지 철이 바뀔 때마다 고기가 변동되니까 꽃게나 오징어는 봄에, 낙지는 봄에, 여름철은 바지락만 하고, 가을, 겨울은 오징어, 꽃게가 안 나오고, 봄에만 나오니까, 낙지는 굴하고 같이 판매가 되어. 굴하고 나오는 시기가 같어. 여름철에는 잡히는 것이 많지가 않아.”

57) 이 시기에는 간월도 초등학교생들이 궁리 초등학교에 진학하기도 했다. 궁리 배가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자주 왕래했기에 궁리가 생활권역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이곳에서는 서산과 홍성 등지의 상인을 불러 입찰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들 중 최고 단가를 쓴 사람을 대상 상인으로 선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굴을 취급하던 서산상인이 주로 선정되었다. 상인은 1달 내지 보름 정도의 기간만을 거래한다. 철마다 생산되는 어물이 달라지므로 그때마다 입찰은 했다. 상인은 입찰금을 내고 입찰에 참여하는데, 당첨이 된 사람은 입찰금을 마을에 내어 놓고 어물을 가져간다. 반면에 당첨되지 않은 사람은 입찰금을 찾아서 다음 기회를 기대한다. 봄철 4~5월에는 주꾸미와 갑오징어를 잡고, 여름에는 백조기 낚시질을 하고, 가을철인 9~11월에는 주꾸미, 갑오징어를 비롯해 농어와 도미를 잡는다. 겨울철인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의 굴을 주로 채취했다.

9) 당제

① 창리 영신제

창리는 부석면 최남단에 위치해 간척사업 후에도 유일하게 바다에 연해 있다. 반농반어(半農半漁)의 지역이지만 중요한 수입원은 어업이다. 조기잡이용 안강망 중선배가 정박한 포구이기도 하다. 바다의 이점을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간소하게 치르던 마을 제사가 지금과 같이 무당이 참여하는 당굿형 제사로 활성화되었다. 1983년에 간척지 사업이 완공되면서 어업이 쇠퇴하여 어업과 연계된 당굿형 영신제도 축소되었다. 그러나 바다와 접해 있어서 영신제의 명맥이 미미하게나마 유지되고 있다.

창리는 조운(漕運)이 성하던 시절에 국가의 무기를 보관하던 창이 있던 곳으로,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다. 마을 앞쪽의 천수만 일대는 일찍부터 어살(漁箭)이 발달했으며, 마을 뒤편에는 염전이 있어 소금도 생산했다. 어업용 중선이 보급

되면서는 중선을 인근에서 가장 많이 부리기도 했으나 1983년에 서산 AB지구 간척사업이 이루어진 뒤 농경지는 확대되었지만 어업은 줄었다.

어업과 연계되어 있던 영신제는 자연스레 축소되었고, 산신당은 도로 건설로 인해 사라졌으며, 장승제도 중단되었다. 어업이 번성할 때 선주와 주민들이 합심해 지내던 마을 제사가 어업의 쇠퇴로 인해 소멸되고 축소된 것이다. 이곳의 당제는 무당을 불러 당굿을 추가한 ‘당굿형 당제’로, 내륙과 달리 해안은 어업이라는 특별한 조건이 충족되면서 마을 제사가 당굿형으로 확대되었다. 지금은 영신제만이 남아 있지만 상당제로 산신제, 하당제로 장승제와 샘제 등이 있었다.

마을의 서북쪽에 상당이라 불리는 산신당이 있었다. 마을 초입을 에워싸고 있는 작은 동산으로, 외부로부터 마을로 들어오는 온갖 잡된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다. 산의 중앙에는 약 6.6㎡의 장방형 누석단(累石壇)이 있었다. 그 중앙에는 자그맣게 돌을 쌓고 쇠말(鐵馬)을 봉안해 두었다. 쇠말은 말이 한 개 부러진 형태였다. 호환(虎患)이 심하던 해에 말이 밀려오는 호랑이를 발로 걷어차며 막아내다가 발 한 개가 부러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서해안의 마을들은 일찍부터 왜구의 침입과 잦은 전염병, 해일 등으로 고통을 당했다. 그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마을 어귀에 쇠말(鐵馬)을 봉안한 제당을 건립한 것이다. 쇠말이 사라진 뒤에는 사기로 말의 형상을 구어다가 놓기도 했다. 그러나 건설회사가 간척사업을 위해 도로건설을 하면서 이마저도 남아 있지 않다. 제사는 이곳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다. 하당은 영신당으로, 마을 동북편 해변에 위치한 당산에 있다. 중앙에는 정면 세 칸, 측면 한 칸의 기와집이 있다. 그 주변에는 담이 둘러져 있고, 정면에 문을 달아 두었다.

당집 앞에는 70~80명이 서 있을 정도의 공터가 있으며, 뒤편으로는 해송(海松)이 빼곡하게 심겨져 있다. 당산의 나무를 베면 벌을 받는다는 금기가 지금까지 존속되고 있어 해송이 잘 보존되어 있다. 그 이전의 당집은 1911년에 증건되었다. 이 당집은 선주들이 주동이 되어 만든 목조와가(木造瓦家)였다. 현재의 당

집은 1999년에 서산시가 지원해 시멘트 콘크리트로 벽체를 만들고 기와를 얹은 형태이다. 영신당은 창리의 제당 중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제당이다.

당집 내부에는 정면에 임경업 장군과 그의 부인을 그린 무신도를 걸고, 그 아래에 장군신위(將軍神位)·부인신위(婦人神位)라고 묵서된 위패를 봉안했다. 그 왼쪽에는 지토당과 슈당, 오른쪽에는 손님신위와 수배당이 역시 묵서된 위패로 각각 봉안되어 있다. 슈당은 바다의 신으로 용왕이라 하며, 지토당은 지신(地神)이라 한다. 손님은 호구별상을 말하며, 수배는 잡귀신이다. 임경업 장군은 서해안에서 조기의 신 또는 어업의 신으로 모셔진다. 천수만에서 조기잡이가 성할 때는 당제는 물론 각 어선에서도 모셨다. 그 전통이 이어져 당집에 봉안한 것이다.

무신도는 본래 없었으나 1970년대에 그려 모셨다. 그러나 무신도를 잃어버린 후 장군과 부인을 그린 새로운 그림을 봉안했다. 오래되어 퇴락하여 2000년대 중반에 다시 임경업 장군만을 그려 봉안했다. 이 그림은 충북 충주시 살미면 세성리에 위치한 임경업 장군의 사우(祠宇)에 모셔 둔 표준영정을 모사했다. 무신도라기보다는 유교 사우에 모신 영정이기에 그 모습이 사뭇 이질적이다. 천수만에 조기가 가득했을 때에는 지극정성으로 모셨으나 조기잡이가 시들해지면서 그 의미도 축소됐다. 장승은 서산에서 창리로 들어오는 길목에 2기가 위치해 있어서, 이곳에서 노제(路祭)를 지냈으나 제사가 축소되면서 소멸되었다.

제사는 마을에서 선출된 당주가 주관하며, 산신제와 영신제 당주를 각기 선출했다. 생기복덕을 보아 운이 닿는 사람으로 영신당 당주 한 명, 산신당 당주 세명을 각각 뽑았다. 이 가운데 영신당 당주에게만 제사를 마친 뒤 수고했다고 쌀 한 가마니를 주었다.

당곳은 무당이 주관한다. 예전에는 마을에 단골이 있어 그가 곳을 주관했지만 단골이 사라진 뒤로는 형편에 따라 적당한 사람을 불러 곳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 지역 출신으로 앓은곳을 하는 큰무당을 부른다. 중선을 부리던 시절에는 큰 무당패를 불러 삼현육각을 잡히고 성대하게 곳을 했다. 어업의 쇠퇴로

과거 모습은 볼 수 없지만 여전히 무당이 굿을 주재하면서 당굿형 당제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굿의 전통은 과거와 단절되어 새롭게 만들어졌다.

제사 비용은 동네 추렴을 원칙으로 하지만 선주(船主)가 많았기에 그들이 조금 더 부담하고, 주민들은 조금씩 성의껏 낸다. 소 한 마리를 제물로 썼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필요했다. 지금은 마을공동양식장의 수익을 축적해 만든 어촌계 공동금액으로 충당한다.

제물은 당주가 직접 서산 장에 나가 구입해 온다. 산신제는 소찬(素餐)만을 올리므로 노구솔에 메를 지어 올린다. 상당 앞의 넓은 바위에서 직접 노구메를 지어 솔째 놓았다. 영신제에는 소를 잡아 산적으로 올리고, 술·가래떡·삼색실과·메 등을 올린다. 술은 대동샘물을 길어다가 영신당에서 제사 지내기 하루 전날에 직접 빚어 두었다가 사용한다. 한동안 소를 잡을 수 없어 돼지로 대체하다가 지금은 산적감만 쇠고기를 구입해 사용한다. 소를 잡을 때에는 제의가 파한 뒤에 당주가 가구수대로 동일하게 고기를 분배한다.

산신제는 음력 정월 초이튿날 밤 10시쯤에 당주만이 참석하여 거행한다. 상당 앞에서 직접 노구메를 지어 솔째 올리고, 공동샘에 길은 정화수 세 잔을 올린다. 당주가 재배한 뒤 대동소지 한 장과 가구당 한 장씩 개별적으로 소지를 올려준다. 제사를 마치면 노구에 담긴 메를 설었거나 질었거나 개의치 않고 군말 없이 먹고는 자정을 전후해 하산한다. 추운 겨울철에 바람막이조차 없는 산에서 지내는 제사였기에 고생이 여간 아니었다고 한다.

정월 초사흘날 아침에는 당주 집에서 당주고사를 지낸다. 이때는 각 배의 깃대를 당주 집 앞에 가져다 세운다. 당주고사를 마친 뒤에는 술과 고기로 음복하고, 잠시 쉬었다가 하당제를 지내러 영신당으로 향한다.

당주는 먼저 영신당에 올라 제사 모실 준비를 한다. 풍물패는 뱃기를 앞세우고 해변을 따라 영신당으로 향한다. 당산에 도착하면 그 입구에 주과포만을 올린 제상을 놓고 무당이 부정풀이를 한다. 부정풀이가 끝나야 주민들은 비로소



봉기와 뱃기를 앞세우고 행렬, 2010년 김효경 촬영



당집 앞에서 베푸는 부정풀이
2010년 김효경 촬영



당집 안에 모셔진 임경업 무신도
2010년 김효경 촬영

당집에 오를 수 있다. 뱃기는 당집 앞에 바다를 바라보도록 세운다. 뱃기가 많은 때는 100개가 넘었다고 하니 어업의 성황을 짐작할 수 있다. 당집 앞에 자리를 깔고 굿청을 마련한다. 바람을 막기 위해 당집 앞에는 포장을 쳐 둔다. 먼저 당주가 제물을 올리고 헌작 후 재배한다.

간소하게 당제가 끝나면 당굿을 시작한다. 밤이 새도록 굿과 배치기를 번갈아 가며 행한다. 굿은 1980년대 중반에 단골이 주관할 때에는 지도굿 - 공석굿 - 손님굿 - 수비굿 - 오방굿 - 균웅굿 - 허식굿 순서로 놀았다. 앞은굿이 거행되는 지금은 과거와 다르다. 지금은 서낭굿과 장군굿만으로 간소하게 행한다. 서낭굿을 할 때에는 당집에 보관된 노란괘자를 무당이 걸쳐 입는다. 노란색은



당굿을 베푸는 무녀, 2010년 김효경 촬영



당집 안에서 정성을 드리는 당주
2010년 김효경 촬영

서낭신을 상징하는 것이라 한다. 당굿이라 하여 무당의 굿이나 법사의 독경이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중시되는 것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배치기와 무당에게 공수를 받는 것이다.

굿 한 거리나 경 한 석이 끝나면 배치기가 이어진다. 조용하게 관람하던 주민들도 굿이나 경이 끝나면 일어서서 배치기를 하며 흥을 돋운다. 무당이 오방기를 들고 기 뽑기를 하면 한 쪽에 물러서 있던 사람들이 한 곳으로 모여들어 공수를 듣는다. 배치기는 노래꾼들이 둘 또는 셋씩 마주보고 하는 배 놀이이다. 굿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관람객이던 주민들이 배치기와 더불어 신명나는 놀이판의 주인이 된다. 밤새도록 반복되는 굿거리에 배치기와 공수는 주민들이 영신제를 이끌고 가는 힘이기도 하다.

간혹 흰 광목으로 띠를 만들어 그물을 상징화하여 당기면서 배치기를 부르기도 한다. 힘에 겨우면 마련된 술과 떡을 먹으며 밤이 깊도록 놀았다. 새벽녘이 되어 막바지에 이르면 소지를 올린다. 산신제에 참석할 수 없었던 주민들에게 한 해의 안녕과 풍어를 보장하는 소지는 무엇보다 중시되었다. 무당이 직접 마을 소지를 올리고 나서 가구별로 소지를 올려준다. 이때 참석자는 별비(別費)를 내고 공수를 받는다. 소지 후 허식굿을 하면 모든 굿이 끝난다. 당 앞에 꽃아둔 뱃기를 빼어 들고 자신의 배로 돌아가 꽃는다. 배별로 당맛이 배고사를 지내기도 하고, 뱃기만을 꽃기도 한다. 과거에는 당산 앞까지 바닷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가까이 배를 대 놓고 서둘러 뱃기를 꽃았다. 먼저 뱃기를 꽃으면 풍어를 할 수 있다는 속신 때문에 경쟁적으로 싸움을 벌이곤 했다.

당제를 마친 뒤에는 대동우물에 나가 샘굿을 하고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지신을 밝아 주었다. 장승제는 1950년대까지 윤년에 지냈다. 윤달이 드는 해에 초사흘날에 소나무를 베어다가 장승을 깎아 세웠다. 윤달이 드는 해에는 유독 질병이 돌고 온갖 재앙이 닥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세웠다고 한다. 영신제가 비록 축소되었지만 그것은 마을의 변화와 더불어 이루어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곳과 놀이가 어우러진 신명나는 당굿형 당제는 창리 주민들의 희망과 소망을 담은 축제이다. 지금은 지역의 축제로 활성화되어 전승되고 있다.⁵⁸⁾

② 간월도 당제

음력 선달 그믐날 이전에 생기복덕을 보아 당제를 주관할 당주와 그를 도와 줄 화장을 각기 한 명씩 선출한다. 선출된 당주와 화장은 선달 그믐날 새벽에 마을 공동샘의 물을 품고, 새로 물이 고이면 그 물로 목욕재계를 하고 서산장으로 제물 장만하러 나간다. 서산장(10리)에서 장감을 마련하는데, 주로 삼색실과, 메 지을 쌀, 명태포 등으로 간소하게 장만한다. 이 날은 장배를 띄우지 않고 주로 가미[갯벌길]를 이용해 오간다. 제비는 호당 십시일반으로 건립을 하는데, 그 해 물건값에 따라 호당 나누어 거둔다.

과거에는 당주집으로 가서 근신하며 생활하다가 정월 초사흘날 새벽에 당산인 절산으로 올라갔다. 절산은 간월도에서는 높은 산이며, 그곳에는 보리수나무가 우거져 있었다. 방조제 건립으로 본래의 제당이 소실되었다. 현대건설에서 별도의 공간에 제당을 건립해 주었기에 한동안 그곳에서 제사를 지속했다. 새로 지은 당집은 모두 네 칸 건물로, 블록으로 부엌 - 제 지내는 공간 - 뱃기 모아두는 곳 - 당주와 화장이 제물 마련하는 공간으로 구분해 지었다. 지붕은 슬레이트를 얹었다. 지성드리는 공간에는 세 장의 무신도풍의 화상(畫像)이 모셔져 있었다. 주민들은 이 화상의 개별적인 신명을 알지 못하며 그저 산신과 같은 신령이라고 했다. 이 화상은 주민들이 구입해 직접 모셨다고 한다.

58) 김효경, 「서산창리영신제 [瑞山倉里靈神祭]」, 『한국민속신앙사전: 마을신앙 편』, 2009, 국립민속박물관.

이 당집을 지은 후로는 제물을 마련해 오면 당주집으로 가지 않고 곧장 당집으로 가서 제사를 마칠 때까지 근신하며 생활한다. 당집을 지은 후 몇 해 당제를 지속했으나 당제를 맡을 사람 선정하기가 어려워졌고, 주민들의 참여도 없어 자연스레 중단되었다.

정월 초사흘날 새벽 1시가 되면 메를 지어 올리고 당제를 시작한다. 당주는 특별히 한복 등을 착용하지 않고 평소에 입던 옷을 깨끗하게 빨아서 입는다. 보리수 나무 앞에 메를 올리는데, 메는 3그릇으로 나누어 올리고, 삼색실과, 명태포, 술 석 잔 등을 올린다. 그 앞에서 절을 한 후 마을 소지, 호주 소지를 올리며, 축문은 읽지 않는다. 제사를 마치고 2~3시경이 되면 선주들이 뱃기를 들고 올라온다. 배는 큰 배 순서로 오른다. 당주가 길지를 한 장씩 배기 끝에 매달아 주면 각자의 뱃기를 들고 하산해 자신의 배로 간다. 이를 ‘당 내린다’고 표현한다. 제물로 올린 메는 당주와 화장이 나누어 먹는다.

당제를 마친 당주는 간월암으로 향한다. 간월암에 미리 걸립한 제비 일부를 가져다주고 치성지널 준비를 부탁해 두었으므로 당일에는 빈손으로 간다. 스님이 알아서 제물 준비를 해두며, 당주가 도착하면 함께 법당으로 들어가 예불을 올린다. 주민들을 대신해 올리는 정성이므로 정성껏 참례한다. 절 치성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와 근신한다. 당주집에는 당주로 선출된 후로부터 당제를 마칠 때까지 출입을 삼간다. 특별히 당주집 대문 앞에 표시를 하지 않아도 부정한 사람은 출입을 삼간다. 당제를 마치고도 당주는 한 해 동안 마을이 무사하기를 바라며 동네 걱정을 하는데, 이를 두고 ‘마음 지성이다’라고 한다.

당주는 잔대, 제기 등을 보관해 두었다가 이듬해 선출된 당주에게 넘겨준다. 제사가 중단되면서 제기는 소실되었다.

방조제가 건립되면서 당집을 부순 후 마을에서 젊은이들이 이유 없이 사망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 사이에는 한 가지 이야기가 전한다. 언제인가 한 스님이 이곳을 방문해서 주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

를 했다. 이곳은 용의 땅이므로 간월암이 위치한 부위를 막지 말라고 했다. 현재 굴탑이 서 있는 곳이 잘렸기에 불길한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의심한다.

③ 굴제[굴부르기제] : 간월도⁵⁹⁾

간월도에서는 당제를 마치고 음력 정월 초나흘날 오후 3시경에 굴을 채취하는 여성들이 모여 굴제를 행한다. 이 제사는 과거에는 지내지 않았으나 굴이 특산품이 되면서 굴 수확량이 많아지기를 바라면 지내기 시작했다고 한다. 오후 3시가 되자 밀물이 가득 들어온 시간에 맞추어 굴을 부르는 굴제를 지낸다. 물이 가득 찬 시간을 한 장궤 차는 시간이라 표현한다. 물이 밀려 들 듯이 굴도 밀려드므로 이 시간을 지킨다.

굴부르기제의 유래에 관해서는 수백 년이 되었다는 설이 있으나 주민들에 의하면 민속경연대회 출품을 위해 발굴되었다는 설이 유력하게 전한다. 제보자^(83세)의 어머니들이 굴을 부르며 비손을 하며 고사를 지냈으나 1983년 간척지 공사를 하기 위해 물막이 공사를 마친 뒤에 간월도의 개펄이 엉망이 되자 한동안 굴을 부르는 비손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외에도 비손할 때에 앉아서 경을 읽어주던 남자 어른이 죽어서 중단되었다고도 한다.

지방문화제의 활성화 정책이 강화되면서 굴부르기제는 비손형태에서 민속놀이 공연의 형태로 바뀌었다. 간월도는 본래 안면도 관내로 황도와 함께 봉기봉 어제에 연계되어 있었다. 그러나 1989년 1월 1일자 행정 개편으로 서산군이 서산시, 태안군과 서산군으로 분리되면서 황도가 태안군에 속하게 되자 서산군에

59) 「간월도 굴부르기제」, 『향토문화전자대전-서산시편』

한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도서지』, 충청남도, 1997의 내용을 발췌했음을 밝힌다.



간월도 일몰(김상수 사진작가 제공)



간월암에서 기도드리는 아주머니

서는 서산문화원이 주축이 되어 굴부르기제를 자체적으로 분리해서 발굴하여 정비하고 각색했다. 1995년 1월1일 서산군이 시(市)로 통합되면서 서산시와 태안군으로 이분화 되었다.

굴부르기제가 서산문화제에 참가하게 되면서 그 명칭도 군왕(群王)이 덧붙여진 ‘굴부르기 군왕제’로 바뀌었다. 무리 군(群)자를 붙여 많은 굴이 붙어 오라고 서산군에서 명명했던 것이다. 군왕을 용왕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주민들은 보통 굴제 혹은 굴부르기제라고 부른다.

1990년 12월에 건립된 ‘간월도 어리굴젓 기념탑’ 앞에서 해마다 정월대보름 날 만조를 기해서 굴제를 지낸다. 부녀자들은 마을 어귀에 있는 어리굴젓 공장 앞에 모여 제장인 기념탑 광장까지 행진한다. 그 곳은 과거에도 어리굴젓을 담던 곳이지만 보다 중요한 이유는 정월 초사흘날 자정을 기해 거행하는 당제(산신제)를 지내고 내려오는 길 어귀에 해당하므로, 이곳에서 시작하는 것이라고 한다. 굴부르기의 제물은 당제 때 사용한 것을 그대로 쓴다. 다만 당제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돼지머리만을 추가한다. ‘굴부르기 군왕제’라고 쓰인 깃발을 든 두 남자가 앞장을 서면 그 뒤로 제물을 실은 지계를 진 사람과 제물을 머리에 인 부녀자, 풍물패의 순으로 뒤따른다. 그 뒤로 제관인 부녀자와 주민들이 굴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두 손을 흔들며 따른다.

굴제는 만조시간인 오후 3시에 맞추어 기념탑 앞에서 시작된다. 과거의 제의는 밤의 만조 때 거행되었다고 한다. 제관이 “석화야! 석화야! 석화야!”하고 세 번 외치면 축문을 읽는다. 이때,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간월도리 거주 주민 일동은 은시루 떡반으로 용왕님께 삼가 기도 올리옵나이다.”

“천수만 일대 있는 굴은 간월도 굴 밭으로 다 오라.”

“도투마리[안면도의 끝] 밖에 있는 굴, 죽도 밑으로 있는 굴, 천수만에 있는 굴은

간월도로 전부 오라.”

간월도 주변의 지명을 부르며 인근에 있는 굴이 모두 간월도로 모이기를 바라며 축원하는 것이다. 그런 후 다시 “석화야! 석화야! 석화야!”를 외치고, 소지를 올린다. 그러는 동안 제사상 앞에서 원을 그리고 앉아 있던 부녀자들은 앉은 채로 빈다. 이처럼 굴을 부른 다음에는 굴을 딸 때 사용하는 바람막이 거적을 쓴 몇 명의 부녀자들이 제장 가운데에서 굴 따는 작업을 춤동작으로 보이면서 굴 따는 노래를 부른다. 이들이 굴을 까는 작업을 시작하면 원을 그리고 있던 다른 부녀자들도 이고 온 바구니 안에서 굴을 꺼내 까기 시작한다. 부녀자들이 관중에게 생굴을 나누어 주는 동안 본부석에 앉아 있는 유지들이 제사상 앞에 부조금을 놓고 절을 하는 것으로 굴제는 오후 3시 30분 경에 끝이 난다.

부녀자들의 행진부터 시작하여 1시간여 만에 굴부르기제가 끝나면 부녀자들은 춤을 추면서 논다. 옛날에는 정월대보름이 지나면 일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굴부르기제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루 동안 지성도 들이고 놀기도 한 행사였다. 굴부르기제가 여성들에게 하나의 놀이공간을 제공해 주는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굴제는 부녀회가 주도하지만 어촌계, 굴부르기제 보존회 등 마을 내 3개 단체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지낸다. 과거와 달리 각색되어 행해지는 부분이 있기에 주민 일부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굴제가 알려지면서 간월도에서 나는 굴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반기는 이들도 있다.

④ 사기리 당제

사기리는 고북면에 위치한 마을로, 마을의 끝 부분에 큰당에서 당제를 모셨

다. 이를 ‘큰당’이라 불렀으며, 여러 그루의 소나무가 있었다. 일제강점기에 이곳에 일본인 별장이 지어졌기에 별장 옆에 큰당이 인접하게 되었다. 이 제사는 ‘당제’라 불렀으며 해방 후 6·25 전쟁으로 중단되었다. 전쟁으로 인해 주민들이 피난을 가기도 했고, 인민군들이 한동안 이곳에 머물며 생활하면서 반공호를 만들기 위해 당제 나무를 베어 냈기 때문이다. 해안을 경비하기 위해 반공호를 여럿 뒀는데 그곳에 소나무를 잘라 없앴다. 당제당 주변에는 가까이 가지 않았다. 당제를 지내려면 부정한 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임신부를 다른 마을로 내보낸다. 인근의 친척집 등으로 보내는데, 출산을 하면 피부정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제사 비용은 주민들이 풍장을 치며 찬조를 받아 마련했다. 바닷가에 인접해 있어 안전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제사를 지낸 것이다.

당제는 음력 정월 대보름날 낮에 지냈다. ‘도기안쌈’이라 부르는 큰말에 위치한 쌈에 먼저 금줄을 드리워둔다. 금줄이 쳐지면 주민의 사용이 금지된다. 이 쌈을 품고 새로 물이 고이면 그것으로 제물을 마련한다.

사기리 마을 입구에는 서낭당이 있었다. 과거에는 호열자로 젊은이들이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제사를 지냈다. 질병에 특별한 예방책이 없었으므로 서낭당에 금줄을 둘러놓았다. 전염병이 돌면 가까운 친척이 아니라면 초상이 나도 왕래하지 않는다. 이에 식구끼리 장례를 치른다. 서낭당은 덩불로 이루어져 있었다. 당제를 마친 후에 서낭당에서 고사를 지냈다.

도움 말씀을 주신 분들

● 부석면

- 김운용(남, 81세), 부석면 간월도 거주, 처음 나룻배를 운영, 어촌계 제보
- 노운용(남, 90세), 부석면 간월도리 거주, 나룻배 운영과 당제 제보
- 노정자(여, 76세), 부석면 간월도 거주, 굴 작업을 자세히 제보
- 이성순(여, 87세), 부석면 간월도리 거주, 갯갯 작업 제보
- 김정민(남, 69세), 부석면 창리 거주, 어업 제보
- 박세만(남, 63세), 부석면 창리 거주, 갯벌어업에 대해 제보
- 박용복(남, 60세), 부석면 창리 거주, 나루와 바람에 대해 제보
- 배재구(남, 67세), 부석면 창리 거주, 선친의 중선업 제보
- 이영택(남, 71세), 부석면 창리 거주, 어업에 대해 제보
- 전용원(남, 83세), 부석면 창리 거주, 어염에 대해 제보
- 지세흙(남, 82세), 창리 거주, 중선 어업 제보
- 신기범(남, 70세), 부석면 칠전리 거주, 어업과 갯갯 잡이 제보
- 이복순(여, 85세), 부석면 칠전리 거주, 갯갯 잡이 제보
- 이찬구(남, 88세), 부석면 칠전리 거주, 어업 전반 제보
- 정태권(남, 79세), 부석면 칠전리 거주, 어업 전반 제보
- 조한승(남, 81세), 부석면 칠전리 거주, 주꾸미 잡이 제보
- 조한화(여, 69세), 부석면 칠전리 거주, 갯갯 잡이 제보
- 김복연(여, 88세), 부석면 마룻리 거주, 시집살이의 어려움 제보
- 이상만(남, 76세), 부석면 마룻리 거주, 후리질 등의 어업 제보
- 이용오(남, 73세), 부석면 마룻리 거주, 어살 등 어업 제보

- 이용오(남, 73세), 부석면 마룡리 거주, 어업 제보
- 장지복(남, 90세), 부석면 마룡리 거주, 맨손어업에 대해 제보
- 조규인(남, 76세), 부석면 마룡리 거주, 어업 제보
- 강봉규(남, 83세), 부석면 송시리 1구 거주, 어업 제보
- 김동일(남, 78세), 부석면 송시리 1구 거주, 옹기제작 제보
- 김형익(남, 83세), 부석면 송시리 1구 거주, 어업 제보
- 임영재(남, 86세), 부석면 송시리 1구 거주, 어업과 화염 제보
- 박종길(남, 53세), 부석면 봉락2리, 어업 제보
- 이종선(남, 70세), 부석면 지산리 거주, 농민과 현대와의 갈등 제보
- 이준구(남, 65세), 부석면 지산리 거주, 어업제보
- 유강호(남, 86세), 부석면 가사리 1구 거주, 어업 및 전설 제보
- 유수춘(남, 78세), 부석면 가사리 1구 거주, 어업제보
- 이광호(남, 84세), 부석면 가사리 1구 거주, 어업제보
- 조영예(여, 82세), 부석면 가사리 1구 거주, 어업 제보
- 김창완(남, 66세), 부석면 봉락리 2구 거주, 어업을 제보
- 최동춘(남, 62세), 부석면 봉락리 2구 거주, 어업을 제보
- 가천순(남, 69세), 부석면 갈마리 2구 거주, 살막과 어업 제보
- 송성수(남, 64세), 부석면 갈마리 거주, 어업 제보
- 정준분(여, 84세), 부석면 갈마리 2구 거주, 살막고사와 벌굴 채취 제보
- 박문진(남, 64세), 부석면 강당리 거주, 어업 제보
- 조규인(남, 76세), 부석면 강수리 거주, 어업과 어살 제보
- 한성규(남), 버드랜드 주무관으로 천수만의 철새 제보

● **고북면**

- 김정현(남, 81세), 군북면 사기리 거주, 중선, 당제를 제보

- 김준규(남, 84세), 군북면 사기리 거주, 어업 제보
- 최기승(남, 76세), 고북면 사기리 1구 거주, 어업 제보
- 최별분(여, 91세), 고북면 사기리 거주, 어살 제보
- 최석호(남, 72세), 군북면 사기리 거주, 어살 제보
- 김유해(남, 86세), 고북면 봉생리 1구 거주, 어살 제보

● 인지면

- 김 인(남, 77세), 인지면 모월리 거주, 개척단 제보
- 정영철(남, 75세), 인지면 모월리 거주, 개척단 제보
- 김지태(여, 83세), 인지면 야당리 2구 원당리 거주, 갯것 잡이 제보
- 김복한(남, 87세), 인지면 산동리 1구 거주, 어업 제보
- 박창환(남, 86세), 인지면 산동리 1구 거주, 화염 제보
- 임심웅(남, 77세), 인지면 산동리 1구 거주, 어업 제보
- 장이수(남, 85세), 인지면 산동리 1구 거주, 화염 제보

● 서산시

- 이철규(남, 82세), 서산시 양대동 거주, 양대동 개척과 염전 제보
- 최원석(남, 82세), 서산시 양대동 거주, 양대동 개척 제보
- 민형익(남, 81세), 서산시 장동 거주, 오피강과 서산의 도로, 중선 등 제보
- 박중래(남, 70세), 서산시 덕지천동 거주, 오피강과 중선 운영 제보

● 해미면

- 김인순(여, 80세), 해미면 귀밀리 거주, 어업 제보
- 박옥순(여, 82세), 해미면 귀밀리 거주, 어업 제보
- 박용희(여, 86세), 해미면 귀밀리 거주, 어업 제보

- 이견태(여, 83세), 해미면 귀밀리 거주, 어업 제보
- 이예순(여, 88세), 해미면 귀밀리 거주, 어업 제보
- 김경자(여, 80세), 해미면 귀밀리 거주, 어업 제보
- 김종임(여, 74세), 해미면 기포리 거주, 어업 제보
- 최인순(여, 66세), 해미면 기포리 거주, 어업 제보
- 김동분(여, 81세), 해미면 신정리 2구, 어업 및 포구 제보
- 박행규(남, 68세), 해미면 신정리 2구, 어업 및 포구 제보
- 김묘남(남, 76세), 해미면 유계리 거주, 생업 제보



부석면 창리 전용원



부석면 창리 박용복



부석면 창리 이영택



부석면 창리 박세만



부석면 창리 배재구



부석면 가사리 조영예



부석면 가사리 유강호



부석면 가사리 이광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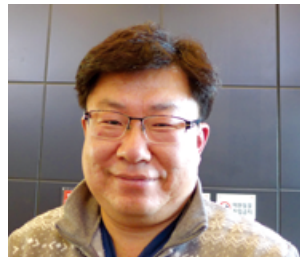
부석면 가사리 유수춘



부석면 간월도 노정자



부석면 간월도 김운용



버드랜드 한성수



부석면 송시리 임영재



부석면 송시리 강봉규



부석면 송시리 김형익



부석면 지산리 이종선



부석면 지산리 이준구



부석면 갈마리 송성수



부석면 칠전리 정태권



부석면 봉락리 김창완



부석면 봉락리 최동춘



부석면 칠전리 신기범



부석면 갈마리 정준분



부석면 마룡리 장지복



부석면 마룡리 김복연



부석면 마룡리 조규인



인지면 모월리 정영철



인지면 산동리 김복한



인지면 산동리 장이수



인지면 산동리 박창환



인지면 산동리 임신웅



군북면 봉생리 김유해



군북면 사기리 최궁승



군북면 사기리 최석호



군북면 사기리 김정현



군북면 사기리 최별분



해미면 기포리 최인순



해미면 기포리 김종임



해미면 신정리 박행규



해미면 신정리 김동분



해미면 귀밀리 이예순



해미면 귀밀리 박옥순



해미면 유계리 김묘남



서산시 장동 민혁익

참고문헌

● 문헌 및 고지도

- 『신증동국여지승람』
- 『임원경제지』
- 『여지도서』
- 『만기요람』
- 『대동지지』
- 『호산록』
- 『서산군지』(대정 14년).
- 『1872년 지방도』, 『해동지도』, 『비변사방안지도』, 『팔도군현지도』, 『팔도지도』, 『대동여지도』, 『해동지도』, 『청구도』, 『조선팔도지도』, 『청구팔역도』, 『동국여도』, 『팔도군현지도』, 『동여도』, 『팔도분도』
- 『조선5만분의 일 지형도, 서산·안면도일원·홍성·해미』, 조선총독부
- 『한국근대지지자료, 군세일반, 서산군』, 조선총독부
- 『조선지지자료』 충청도, 조선총독부

● 저서 및 논문

-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서산시』
- 조선총독부 농상공부, 『한국수산지』 1-4권, 1908.
- 김효경, 「서산창리영신제[瑞山倉里靈神祭]」, 『한국민속신앙사전 : 마을신앙편』, 2009, 국립민속박물관
- 이은우, 『서산의 지명사』, 2005.

- 박구병 외,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어업용구 편』, 문화재연구소, 1992.
- 부석면지편찬위원회, 『부석면지』, 2016.
- 인지면지편찬위원회, 『인지면지』, 2013.
- 김부성, 「천수만 지역의 어촌 분포와 변화」, 『문화역사지리』 제8호,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1996.
- 문경호, 「안흥량 굴포운하 유적 관련 지명검토」, 『도서문화』 43호, 2014.
- 민형익, 「조기잡이로 풍성했던 덕지천 오피갯 포구」, 『서산의 문화』 23호, 2011.
- 민형익, 「포구 오피갯 - 주변의 잡기를 중심으로」, 『서산의 문화』 16, 2004.
- 양윤경, 『19세기 후반 한반도 비밀군사지도』, 성신여대 대학원, 2010.
- 최영준, 김부성, 서태열, 「천수만지역의 어촌환경과 어촌 : 간척과 그 영향을 중심으로」, 『성곡논총』 27(2), 성곡언론문화재단, 1996.
- 한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도서지』, 충청남도, 1997.

2017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지원 사업

서산 천수만의 옛 모습

© 서산문화원 /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2017

발행일 2018. 1.

발행인 김한국

발행처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기 획 서산문화원

글/사진 김효경

인 쇄 한솔이엔티

비매품

ISBN 979-11-89097-00-4 05090

*이 책은 「한국문화원연합회 2017년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잊고 살았던 주민들의 기억에는 비록 험겨웠지만 즐거웠던 젊은 시절의 본인과 친구, 그리고 밥 한 숟가락이라도 자식에게 더 먹이고 자신은 굶으며 끼적씩 쓰고 목신을 신고 굴을 좇던 어머니도 있다. 비란내가 진동하는 박대와 상어를 쏘아 놓고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는 완도에서 온 중선 선원들의 뒷모습도 있다. 날랜 손으로 굴을 사발로 깨던 아주머니의 손놀림도 생생하게 남아 있다. 천수만은 사라졌지만 그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기억에 여전히 살아 있다.



비매품
05090

9 791189 097004
ISBN 979-11-89097-00-4 (PDF)